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Tense, Aspect and Modality)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Tense, Aspect and Modality)

일시: 2022년 11월 5일 토요일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9:40-10:00	등록 (사이버관 소강당앞 등록데스크)		
	Session 1: 영어사 사회: 오영일(서울과기대) (사이버관 소강당(303호))	Session 2: 의미 · 유형론 사회: 김진해(경희대) (사이버관 412호)	Session 3: 인지언어학 사회: 채숙희(서울디지털대) (사이버관 413호)
10:00-10:30	발표: 신성균(강원대) A Diachronic Syntactic Study on the Parable of the Rich man and Lazarus - Focusing on Tense, Aspect and Modality 토론: 김유강(한국외대)	발표: 박혜진(연세대) 보조용언 구성 '-어 오-'의 상적 의미에 대하여 토론: 윤주형(한국외대)	발표: 강지인, 권익수(한국외대) The COVID-19 Pandemic and Changing Meanings of Flatten the Curve: A Cognitive Semantic Approach 토론: 최진선(한국기술교육대)
10:30-11:00	발표: 윤희철(덕성여대) The Emergence and Spread of the Definite Article in English 토론: 김유강(한국외대)	발표: 권명식(한국외대) 아프로-아시아어족 언어들에 나타난 동사문법범주 표시의 유형다양성 비교; 시제, 상, 법(TAM) 그리고 술어가/태, 논항색인/언표, 양극성(VIP)을 중심으로 토론: 김아림(명지대)	발표: 엄희선(서울대), 김세영(한양대) Processing of Evidentiality in Korean 토론: 이은경(이화여대)
11:00-11:10	휴식		
11:10-12:10	(사이버관 소강당) 개회: 윤희철(덕성여대, 한국영어학학회 회장) 사회: 박상희(덕성여대) 특강 1 이경남(강원대) 영어 시제의 통사적 기능과 의미적 특성 사회: 최재혁(목포대)		
12:10-1:10	점심 12:50 한국영어학학회 연구윤리교육 (사이버관 소강당) / 담화인지언어학회 이사회 (사이버관 413호)		
	Session 4: 영어교육 & 전산언어학 사회: 이영희(아주대) (사이버관 소강당(303호))	Session 5: 음성학&음운론 사회: 최재혁(목포대) (사이버관 412호)	Session 6: 의미 · 화용론 사회: 백미현(충남대) (사이버관 413호)
1:10-1:40	발표: 한수미(한림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구글 플레이스토어 영어 학습법 앱 사용자 리뷰 분석 토론: 송상헌(고려대)	발표: Xiao-Xia Kong(전주대)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Foreign Accent of Chinese EFL Learners from the Perspective of Language, Speaker and Listener Factors 토론: 오영일(서울과기대)	발표: 나익주(전남대) 궁전예식장은 가고 웨딩팰리스만 남아: 외래어 선호와 은유 토론: 이창봉(가톨릭대)
1:40-2:10	발표: 이지영(육사) The Combined Effects of Task Sequencing and Task Complexity on L2 Writing 토론: 이영희(아주대)	발표: 김동현(금오공대) A Longitudinal Study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Production Link in Second Language Speech 토론: 윤원희(계명대)	발표: 여현정(영남대) 시간 부사어 '이미', '아직', '벌써' 연구 토론: 예선희(중앙대)

2:10-2:40	발표: 송상헌&신운섭(고려대) Tense Markers Do Not Impact Presupposition Projection In Korean 토론: 김태식(서울과기대)	발표: 김지예(SUNY Stony Brook) Diminutives in American English and Mexican Spanish 토론: 박해일(경희대)	발표: 신진원(부산대) 일간지 헤드라인에 재현된 해외입양인 표상에 대한 고찰 토론: 박용예(서울대)
2:40-2:50	휴식 담화인지언어학회 연구윤리교육 (사이버관 413호)		
	Session 7: 통사론&의미론 사회: 오영일(서울과기대) (사이버관 소강당(303호))	Session 8: 문법화 & 의미 · 통사론 사회: 박진호(서울대) (사이버관 412호)	Session 9: Invited Talks (Editorial Board) Moderator: Baik, Junghye (Sahmyook University) (사이버관 413호)
2:50-3:20	발표: 안현아(군산대) Resolving Ambiguity in a Null Argument Construction with Two-place Psych- predicates 토론: 박상희(덕성여대)	발표: Li Liu (충남대) Grammaticalization of 'Waist' Word Yāo in Chinese 토론: 김윤정(창원대)	
3:20-3:50	발표: 박동우(한국방통대) Japanese derivational argument ellipsis 토론: 허세문(홍익대/한국외대)	발표: 임익희(신한대) Word order contrast in German, Korean, and Chinese DOC: pied-piping and (un)saturation 토론: 조기석(사이버외대)	Foong Ha Yap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henzhen) & Anindita Sahoo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Madras) Nouny and verby copulas: a contrastive analysis of TAM-AGR marking and highlighting strategies in Korean and Indo-Aryan languages
3:50-4:20	발표: 박상희(덕성여대) Exclusive <i>Pakkey</i> and Multidimensionality 토론: 허세문(홍익대/한국외대)	발표: 김용성(충남대) Semantic Network of <i>because</i> 토론: 이현숙(장안대)	Sun-Hee Lee (Wellesley College) Formulaic Expressions of Korean Academic Texts
4:20-4:30	휴식		
4:30-5:30	(사이버관 소강당) 특강 2 정소우(성신여대) 미완료의 역설 이해 사회: 안미경(한국외대)		
5:30	(사이버관 소강당) 폐회 이해경(아주대, 담화인지언어학회 회장) 사회: 윤소연(인천대)		

▪ 초청강연 (Session 9) 온라인 참가 안내 (zoom)

<https://us02web.zoom.us/j/88112253155?pwd=b0d2SHZYVjBtbldiTThkSF12TzNyQT09>

회의 ID: 881 1225 3155 / 암호: 2022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특강 1> 사회: 최재혁(목포대)

영어 시제의 통사적 기능과 의미적 특성

발표: 이경남(강원대)

영어 시제의 통사적 기능과 의미적 특성

이 경 남 (강원대학교)

언어분석의 단위가 되는 문법범주는 하나의 언어적 가능성으로서 일련의 의미적 속성들을 표현하는 언어형식들의 집합체이다. 영어라는 언어에서 시제(tense)라는 문법범주는 일반적으로 시간 개념을 표현하는 언어형식으로 정의되지만, 시제의 제한된 형식에 비하여 이와 관련된 의미나 용법은 실제로 상당히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떤 관점에 기초하여 시제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시제 형식의 종류, 통사적 기능과 의미적 특성은 다르게 논의될 수 있다.

본 특강에서는 언어라는 것이 형식과 의미의 결합체이고 상황 속에서 의의가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시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경우, 이러한 문법형식이 나타내는 의미는 인간의 사고에서 기본 개념인 시간, 행위, 사건, 심리적 태도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그 실현 방식의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즉 시제가 문장을 실현시키는 데 갖는 통사적 역할과 함께 특정 시제형을 선택할 때 개입되는 시간 인식의 작용, 본동사의 의미유형의 영향과 다른 구성성분들과의 상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문장구조에서 시제가 갖는 통사적 기능을 보면 모든 문장/절은 시제구(Tense Phrase)의 투사가 되어 시제는 핵어(head)의 역할을 한다. 핵어의 실현은 [± Finite] 자질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형절의 심층구조(d-structure)에서는 [± Pres], 서법조동사가 발생한다. 비정형절인 경우에는 *to*-infinitive 또는 추상적인 영시제 구성성분(null tense constituent $\emptyset$)에 의하여 *to*-부정사절이나 원형동사절(bare infinitive clause)이 실현된다.

시제가 담고 있는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시간, 이차적인 상황적 개념으로 상(aspect)과 법성(modality)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 근거로는 시제와 시간 사

이에 일 대 일의 대응관계가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자질들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교차되고 있으므로 시제를 이들 의미를 포괄하는 언어형식으로서의 문법 범주로 보고자 한다. 이 경우, 시제는 상황외적인 시간(situation-external time)으로 대부분 발화시간(utterance time)과 관련하여 명제를 특정 시간선상에 놓는 문법 범주이다. 이에 반해 상은 상황내의 시간(situation-internal time)으로 동사(군)의 어휘의미론적 특성, 함께 사용되는 시간부사형이나 문맥과 관련된 시간의 내면 구조의 특성을 보여준다. 법성은 서법(mood)이라는 문법범주와 달리 서법조동사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의미유형으로 인지 법성(epistemic modality), 이행 법성(deontic modality), 동인(動因) 법성(dynamic modality)으로 구분되며, 의지, 예측, 가능성, 필연성, 현실성, 비현실성 등의 의미들로 세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제 체계를 일반시제와 서법시제로 나누고 일반시제는 일차시제와 복합시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일차시제의 경우, 형태론적(morphological) 기준에 따른 현재, 과거시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시간 인식에 따라 우언법적(periphrastic) 방식으로 *will/shall* 조동사와 함께 실현되는 미래시제로 분류한다. 복합시제는 진행형(*be + ing*)과 완료형(*have + en*), *be going to*로 구성된다. 서법시제는 동사연결체에서 서법조동사가 첫 번째 동사로 나타나는 시제형식을 가리킨다.

Key words: tenses in English, tense phrase, time, aspect, modality, general tenses, modal tenses

참고 문헌

- 이경남. 1988. 英語의 時制體系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식. 1983. 『영문법연구 (II)』. 서울: 신아사.
- Coates, J. 1983. *The Semantics of the Modal Auxiliaries*. London: Croom Helm.
- Comrie, B. 1985. *Tense*. Cambridge: Cambridge UP.
- Cowan, R. 2015.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A Course Book and Reference Guide*. 9th ed. New York: Cambridge UP.
- Dahl, Ó. 1985. *Tense and Aspect Systems*. Oxford: Basil Blackwell.
- Givón, T. 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 I. Amsterdam: John Benjamins.
- Halliday, M. A. K. 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Edward Arnold.
- Heny, F. 1982. Tense, aspect and time adverbials, part II. *Linguistics and Philosophy* 5, 109–154.
- Kearns, K. 2000. *Semantics*. London: Macmillan Press.
- Poole, G. 2011. *Syntactic Theory*. 2nd e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Radford, A. 2016. *Analysing English Sentences*. 2nd ed. Cambridge: Cambridge UP.
- Tortora, C. 2018. *Understanding Sentence Structure: An Introduction to English Syntax*. Oxford: Wiley Blackwell.

이경남
명예교수
강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춘천시 강원대학길 24341
kynalee@kangwon.ac.kr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특강 2〉 사회: 안미경(한국외대)

미완료의 역설 이해

발표: 정소우(성신여대)

미완료의 역설

정소우
(성신여자대학교)

1. 목적

- 미완료의 역설¹⁾ 알아보기
- 미완료의 역설 관련 논의사항 알아보기
- 미완료의 역설 관련 분석 알아보기
- 미완료의 역설의 의미 특성 및 화용 특성 알아보기

2. 미완료의 역설과 논의 사항

2.1 미완료의 역설

(1) 행위사건 과거진행형과 단순과거시제형

가. Tom was running.

나. Tom ran.

- ▶ (1가) 맞음 → (1나) 맞음
- ▶ (1나) 맞음 → (1나) 맞음

(2) 완수사건 과거진행형과 단순과거시제형

가. Tom was building a house.

나. Tom built a house.

- ▶ (2가) 맞음 ⇄ (2나) 맞음
- ▶ (2나) 맞음 → (2가) 맞음
- ▶ (2가)에서 집이 완성된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a house’ 라는 표현 사용됨
- ▶ 미완료의 역설 (Dowty 1979,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2.2 Bennet and Partee(1972)의 진행형 해석 규칙과 자주 거론되는 논의 사항

- Bennet and Partee(1972)의 진행형 해석 규칙
시구간 I에서 [진행형 ϕ]의 진리치는 I를 포함하는 더 큰 시구간 I'에서 ϕ 가 참이라면 그리고 꼭 그래야만 참이 된다.
- 방해의 문제
(3) Mary was crossing the street when the bus hit her. (Vlach, 1981)
 - ▶ 길을 건너는 도중 차에 치였으므로 길을 건너 시구간이 없음

1) ‘미완료의 역설’이란 용어는 정해권(2021)을 참조함.

- 사건의 명확성 문제

(4) (존이 뭔가를 그리다 죽었으나, 그것이 원인인지 호인지 알 수 없을 때)

가. John was drawing a circle when he died at midnight on Tuesday.

나. John was drawing an arc when he died at midnight on Tuesday.

▶ 남은 그림으로는 (4가)와 (4나)가 모두 틀리다고 할 수 없을 때

- 불가능의 문제

(5) John was swimming across the Pacific Ocean.

▶ 존의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동해 바다에서 수영하여 가고 있을 때

- 반복되는 방해의 문제

(6) The wheel was rolling across the street when the falling rock stopped it.

▶ 방해 요소가 계속 나타남

- 미결정의 문제

(7) (현재 오후 3시, 레오가 아직 Metz, Paris, Lyon 중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을 때)

가. Leo is going to Paris.

나. Leo is going to Metz.

▶ (7가)와 (7나) 모두 맞지 않음

다. (오후 3시 30분, 레오가 Metz로 가기로 정하고, 4시에 Metz에 도착함)

Leo was going to Metz at 3 p.m.

▶ (7다) 성립함

▶ 같은 진행형 사건이 평가 시간대에 따라 성립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함 (Zucchi 2021...)

- 변경의 문제

(8) (현재 오후 2시 10분, 톰이 탄 런던 행 비행기가 납치되어 밀라노로 방향 바꿈)

가. Tom was flying to London at 2 p.m.

나. Tom was flying to Milano at 2 p.m.

▶ (8가) 맞음

▶ (8나) 맞음?

- 양립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건

(9) (룰렛판에 공이 돌고 있을 때)

가. The ball is rolling to an even number.

나. The ball is rolling to an odd number.

▶ 기계가 조작되어 있지 않는 한 (9가)와 (9나) 모두 가능

3. 가능 세계를 활용한 분석들

3.1 방해의 문제 대응

◆ 관성 세계 (Dowty, 1979)

세계 w 와 시구간 I 에서 [진행형 ϕ]의 진리치는 시구간 I 를 종결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으로 포함하는 더 큰 시구간 I' 에 존재하는 w 의 모든 관성세계에서 ϕ 가 참이면 그리고 꼭 그래야만 참이다.

▶ 사건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완성되는 가능세계

● 관성 세계 관련 문제

(10) The wheel was rolling across the street when the falling rock stopped it.

- ▶ 바퀴나 바위 모두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떨어지고 있는 것임
- ▶ 그러므로 관성의 세계에서도 계속 굴러가고 떨어질 것임
- ▶ 결국 관성 세계에서도 바퀴는 바위에 의해 멈추어질 것임

◆ 사건의 지속성 (Vlach, 1981)

시구간 I 에서 [진행형 ϕ]의 진리치는 시구간 I 이후 [진행형 ϕ]가 묘사하는 사건 e 가 지속되는 모든 세계에서 ϕ 가 묘사하는 사건 e' 의 부분이 되면 그리고 꼭 그래야만 참이 된다.

3.2 불가능의 문제 대응

◆ 합리적 타당성 (Landman 1992)

[진행형 ϕ]은 ϕ 가 현 세계에서 진행중인 사건 e 가 외부적인 방해 없이 계속 진행되어 ϕ 를 참으로 만들어 주는 사건 e' 가 되는 것이 합리적 타당성을 갖는 세계가 있다면 또 꼭 그래야만 참이다.

(11) Tom was emptying the Pacific Ocean with a bucket.

- ▶ 물 퍼내기 오천 번 이후, 계속 퍼내기 - 타당
- ▶ 물 퍼내기 오천 번 더 이후, 계속 퍼내기 - 타당
- ...
- ▶ 물 퍼내기 오천 번 더 이후, 계속 퍼내기 - 타당하지 않음

●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의 구분 문제

(12) Leo is making the Christmas cake. When he finds out that the stove has just broken down, he will give up. (Bonomi 1997))

(13) Shannon was making a pumpkin pie, but she then discovered that she did not have ingredients to make it. (Wulf 2000)

- ▶ 파이 만들기 위한 재료는 내부 요소
- ▶ 내부 요소 문제에도 불구하고 진행형 가능

◆ 대화 배경 지식 활용

[진행형 ϕ]은 평가시점에 접근가능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평가한다.

- ▶ Kratzer (1981)의 대화 배경 정보 개념을 바탕으로 Bonomi(1997), Song(2012),

Mayerhofer(2014), Zucchi(2021), ...

(14) John is swimming across the Pacific Ocean.

- ▶ 메리의 수영 실력, 체력 정도 등 모든 정보 고려하여 (12)는 거짓?

(15) Tom was emptying the Pacific Ocean with a bucket.

- ▶ 톰의 체력, 태평양의 물의 양 등 모든 정보 고려하여 (13)은 거짓?

(16) Ted is solving the Navier–Stokes equation.

- ▶ 테드가 이전에도 어려운 방정식을 증명한 수학자라면 (16)은 맞음
- ▶ 테드가 이번 학기 대학수학개론에서 D를 맞은 학생이라면 (16)은 틀림?

3.3 미결정의 문제

◆ 담화 배경 지식 활용

[진행형 $\emptyset$]은 평가시점에 접근가능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평가한다.

- ▶ Bonomi(1997), Song(2012), Mayerhofer(2014), Zucchi(2021), ...

(17) (현재 오후 3시, 레오가 아직 Metz, Paris, Lyon 중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을 때)

가. Leo is going to Paris.

나. Leo is going to Metz.

- ▶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레오가 목적지 정하지 않았음
- ▶ 그러므로 (17가)와 (17나) 모두 맞지 않음

(18) (오후 3시 30분, 레오가 Metz로 가기로 정하고, 4시에 Metz에 도착함)

Leo was going to Metz at 3 p.m.

- ▶ 지금 정보로는 레오가 4시에 Metz에 도착한 것은 사실
- ▶ 그러므로 (18) 맞음

(19) (롤렛판에 공이 돌고 있을 때)

가. The ball is rolling to an even number.

나. The ball is rolling to an odd number.

- ▶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로는 판단 불가
- ▶ 화자의 희망

3.4 변경의 문제

◆ 관점을 활용한 분석 (Bonomi 1997)

시점 t 에서 [진행형 $\emptyset$]은 진행중인 $\emptyset$ 의 술어 V 유형의 사건 e 가 계속 진행된다면 t 를 내포하는 보다 큰 시점 t' 에 사건 e 를 일부분으로 하는 같은 V 유형의 사건 f 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관점이 주어진 문맥 내에 존재한다면 또 꼭 그래야만 참이 된다.

- ▶ Bonomi(1997), Song(2012), Mayerhofer(2014), Zucchi(2021), ...

(20) 현재 오후 2시 10분, 톰이 탄 런던 행 비행기가 납치되어 밀라노로 방향 바꿈

가. Tom was flying to London at 2 p.m.

나. Tom was flying to Milano at 2 p.m.

- ▶ 납치 전의 계획을 고려할 때, (19가) 맞음
- ▶ 납치 후 비행 항로를 고려할 때, (19나) 맞음?

3.5 사건 명확성의 문제

◆ 의도와 능력 (Naumann and Pinon 1997)

시점 t 에서 [진행형 $\emptyset$]은 $\emptyset$ 가 지시하는 사건 e 의 부분적 실현인 e_1 이 동일 시점 t 에 존재하고 화자가 사건 e_1 의 행위자가 e 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또한 사건 e 를 수행하지 않을 의도가 없다고 믿는다면 또 꼭 그래야만 참이 된다.

(21) 가. John was drawing a circle when he died of heart attack last night.

나. John was drawing an arc when he died of heart attack last night.

- ▶ 동그라미, 호 모두 그릴 능력 있음
- ▶ 존의 의도가 중요

(22) John was solving the Navier–Stokes equation when he died of heart attack.

- ▶ 존의 수학 능력이 못 미치면, 존이 의도가 있어도 (22)는 틀림

4. 가능 세계 배제한 분석

- ▶ Parson(1989, 1990), ter Meulen(1987), Szabó(2008), Mikhailov(2020)...
- ▶ 진행형은 사건은 독립된 미완성 사건

◆ 상태사건으로서의 진행형 사건 (Parsons, 1989, 1990)

비상태 사건 동사 A 의 진행형은 의미적으로 상태사건과 같이 취급된다.

(23) John drew a circle.

$(\exists t)[t < \text{now} \ \& \ (\exists e)[\text{drawing}(e) \ \& \ \text{Agent}(e, \text{John}) \ \& \ \text{Theme}(e, \text{a circle}) \ \& \ \text{Cul}(e, t)]]$

(24) John was drawing a circle.

$(\exists t)[t < \text{now} \ \& \ (\exists e)[\text{drawing}(e) \ \& \ \text{Agent}(e, \text{John}) \ \& \ \text{Theme}(e, \text{a circle}) \ \& \ \text{Hold}(e, t)]]$

- ▶ $\text{Cul}(e, t)$ 과 $\text{Hold}(e, t)$ 의 차이
- ▶ 완성된 동그라미를 가정할 필요할 없음
- ▶ 미완성의 집도 집이다.

(25) 가. I am seeking a house.

나. ??Oh yeah? Where is it?

(26) 가. I am building a house.

나. Oh yeah? Where is it? (Szabó, 2008)

▶ 비록 짓고 있는 중이나 주어가 특정한 장소에 짓고 있는 특정한 뭔가가 존재함

- 검토 사항 1

(27) Shannon was making a pumpkin pie, but she then discovered that she did not have ingredients to make it. (Wulf 2000)

▶ 호박파이 만들려고 준비한 밀가루 반죽도 호박파이인가?

- 검토 사항 1 - 변수 활용 (정소우 2001, 2004, Szabó 2008, cf. Yeom 2003)

(28) John was drawing a circle.

$(\exists t)[t < \text{now} \ \& \ (\exists e)(\exists x)[\text{drawing}\cdot P(e) \ \& \ \text{Agent}(e, \text{John}) \ \& \ \text{Theme}(e, x) \ \& \ \text{Circle}\cdot P(x, t) \ \& \ \text{Hold}\cdot P(e, t)]]$

▶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P의 크기 변화

(29) Esther was building a house.

$\exists e((\text{IP}(\text{building}))(e) \ \wedge \ \text{Agent}(e, \text{John}) \ \wedge \ \text{Theme}(e, \text{a IP}(\text{house})))$

▶ Szabó 2008

▶ 집짓기가 진행 중인 건물이 존재함

- 검토 사항 2

(30) John is building five houses.

▶ Mayerhofer(2014), Zucchi(2021)

▶ 짓고 있는 다섯 채 집의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31) 가. Homestar is building my house.

나. ? Oh yeah? Where is it?

▶ Mayerhofer(2014)

▶ 건설업체가 여러 장소에서 집을 짓고 있을 때, 화자의 (특정) 집이 특정하기 힘들다?

▶ 아래 (32)에서처럼 대상 집을 특정할 수 없다.

(32) 가. I am seeking a house.

나. ? Oh yeah? Where is it? (Mayerhofer 2014)

- 검토 사항 2

(30) John is building five houses.

▶ 동시에 집 다섯 채 짓고 있는 경우 - 다섯 개의 뭔가가 있음

- ▶ 차례대로 짓고 있는 경우 - 설계도, 토지 구입, 허가 등도 집짓기의 일부?
- 평가 시점을 크게 보면 다섯 개의 뭔가가 있음

cf. We are reading Chaucer.

(31) 가. Homestar is building my house.

나. ? Oh yeah? Where is it?

- ▶ 여러 곳에서 여러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경우, 그 중의 한 채는 나의 집이 분명함
- ▶ 존재 유무가 불확실한 (32)의 집 상황과는 다름
- ▶ 아직 할당이 안 되어 특정하기 힘든 것
- ▶ 할당이 되면 나의 집 특정할 수 있음 (우리의 아파트 분양제도)

5. 미완료의 역설의 의미론적 특성과 화용론적 특성

◆ Wulf(2000, 2001)의 엄격한 진행형 진리 조건

평가 시점 t 에서 [진행형 $\emptyset$]는 t 를 포함하는 t' 에서 $\emptyset$ 가 참이어야만 참이다.

- ▶ 이전 문헌에서의 논의 사항들은 의미론적 특성과 화용론적 특성에 대한 혼동에서 비롯됨
- ▶ Bennet and Partee (1972)의 규칙
- ▶ 모든 진행형 문장의 의미론적 진리치는 그 문장의 사건 진행이 종결된 후에야 판단 가능

(32) 현재 오후 2시 10분, 톰이 탄 런던 행 비행기가 납치되어 밀라노로 방향 바꿈

가. I was flying to London at 2 p.m.

나. I was flying to Milano at 2 p.m.

다. I was flying to London and, at the same time, I was flying to Milano, at 2 p.m. ...

- ▶ 비행기가 밀라노에 착륙했으므로, 의미론적으로 (32가) 틀리고, (32나) 맞음
- ▶ 그래서 (32다)가 모순임
- ▶ (32가)는 화용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

- ▶ 이전 연구의 ‘관점’, ‘의도’ 등은 모두 화용론적 특성임

(34) Mary is swimming across the Pacific Ocean.

- ▶ 기적의 도움 여부 관계 없이 메리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넜다면 (34)는 참
- ▶ 이전의 문헌처럼 문장의 진리치가 평가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무리가 없음
- ▶ (32가)는 화용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

• 검토 사항 1

(35) (준이 3시에 집에서 나와 모임에 가다가, 3시 15분에 모임 취소 연락 받고 유턴에

서 돌아가는 상황)

John was driving home at ten past three.

- ▶ 의미론적으로 맞음?
- ▶ 부분-전체 개념 활용하여 합리적 부분 조건 설정

(36) The plane was flying to London around 2 p.m. But, when it was hijacked around two ten, it changed its direction and began flying to Milan.

- ▶ 어차피 밀라노에 가고 있었던 것이라며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뜻?
- ▶ 밀라노로 가고 있었는데 began을 쓸 수 있는 이유는?
 - It was flying to Milan. ... it changed its direction and began flying to Milan. ??

• 검토 사항 2

- ▶ 화자나 주어의 의도 등도 진행형의 의미론적 의미에 포함?
- ▶ want, wish, intend, chase, assassinate, ...
- ▶ 백과사전적 정보 포함 여부 (Saeed 2015)

(37) 가. John chased Tom.

나. John was chasing Tom.

• 검토 사항 3 ...

- ▶
- ▶

...

참고문헌

- 정소우. 2001. Semantics and pragmatics of the progressive. 한국언정보학회 2001 가을 연구 발표회 발표 논문
- _____. 2004. 영어진행형 의미론. 인문과학연구 22, 25-74.
- 정해권. 2021. 한국어 문법상과 어휘상의 인지언어학적 접근. 담화와 인지 28:3, 81-108
- Bennett, M., and B. H. Partee. 1972. Toward the Logic of Tense and Aspect in English. Technical report, System Development Corporation, Santa Monica, CA. Progressive 31
- Bonomi, A. 1997. The progressive and the structure of events. Journal of Semantics 14: 173-205.
- Dowty, D. 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Reidel.
- Kratzer, A. 1981. The notional category of modality. In Words, Worlds, and Contexts: New Approaches in Word Semantics, edited by H. J. Eikmeyer and H. Reiser, 38-74. Berlin: De Gruyter.
- Landman, F. 1992. The progressive. Natural Language Semantics 1, 1-32.
- Mayerhofer, I. 2014. In defense of the modal account of the progressive. Mind & Language 29:1, 85-108.
- Meulen, A. ter. 1987. Incomplete Events. In Proceedings of the Sixth Amsterdam Colloquium, edited by J. Groenendijk, M. Stokhof, and F. Veltman, 263-279.
- Mikhailov, S. 2020. Incomplete Events and the "actionality-as-polysemy" view. A paper presented at The 3rd Semantics and Pragmatics Workshop.

- Nauman, R., and C. Pinon. 1997. Decomposing the progressive. In *Proceedings of the Eleventh Amsterdam Colloquium*, edited by P. Dekker, M. Stokhof, and Y. Venema, 241–246.
- Parsons, T. 1989. The Progressive in English: Events, States and Process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213–41.
- Parsons, T. 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A Study in Subatomic Semantics*. Cambridge, MA: MIT Press.
- Saeed, J. 2015. *Semantics*. Wiley–Blackwell.
- Song, M. 2012. The semantics of the progressive in English. *Language Research* 48:3, 533–572.
- Szabo, G. Z. 2008. Things in progress. *Philosophical Perspectives* 22, 499–525.
- Vlach, F. 1981. The semantics of the progressive. In *Tense and Aspect*, ed. by P. J. Tedeschi and A. Zaenen, 271–292. New York, NY: Academic Press.
- Wulf, D. 2000. *The Imperfective Paradox in the English Progressive and Other Semantic Course Correc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_____. 2001. *Untangling the imperfective paradox and what this shows us about language*. ms.
- Yeom, J. 2003. The semantics of the English progressive and the imperfective paradox. *Language and Information* 7:2, 139–161.
- Zucchi, S. 2021. Progressive: the imperfective paradox.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semantics*, ed. by Daniel Gutzmann, Lisa Matthewson, Cecile Meier, Hotze Rullmann, and Thomas Ede Zimmermann. John Wiley & Sons, Inc.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1 <영어사> 사회: 오영일(서울과기대)

A Diachronic Syntactic Study on the Parable of the Rich man and Lazarus - Focusing on Tense, Aspect and Modality

발표: 신성균(강원대)

토론: 김유강(한국외대)

A Diachronic Syntactic Study on The Parable of the Rich man and Lazarus - Focusing on Tense, Aspect and Modality

Sungkyun Sh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designed to show the diachronic syntactic changes from Old English (OE) to Present-day English (PE) by noting such changes in English Bible versions from the Anglo-Saxon Version of 995 A.D. (AS) (OE) through the Wycliffe Version of 1389 A.D. (Wycliffe) (Middle English (ME)) and the Tyndale Version of 1526 A.D. (Tyndale) (Early Modern English (ENE)) to the New American Standard Bible of 2020 A.D. (NASB) (PE), taking *The Parable of the Rich man and Lazarus* (Luke 16:19-31) as a specific illustrative example. The focus is on tense, aspect and modality, I discuss how the tense, aspect and modality of OE changed to those of PE through ME and ENE.

Concerning the changes of the tense, aspect and modality of the English language from OE through ME and ENE to PE, they are characterized as the changes from ð contextualization to decontextualization. For example, the OE sentence *We doþ ealle Drihtnes word, þe he spræc* (Exodus XXIV:3) is literally translated as 'we do all the Lord's words which he spoke.' This literally translated sentence corresponds to the PE sentence *we will do all the words which the LORD has spoken* or *All the words which the LORD has spoken we will do!*

In OE the simple present and future were in free variation, and the meaning of the simple present was determined as either the simple present or future depending on context, a result of contextualization. It was the same case with the preterit and present perfect. However, in PE the simple present and future tense are differentiated in form as shown in the above PE sentence, a result of decontextualization process.

Key words: diachronic, syntactic, tense, aspect, modality

References

- Bosworth, Joseph. 1907. *The Gospels: Gothic, Anglo-Saxon, Wycliffe and Tyndale Versions*. London: Gibbings and Company.
- Chomsky, Noam.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oam. 2001. Derivation by phase. In Michael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1-52.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oam. 2004. Beyond explanatory adequacy. In Adriana Belletti, ed., *Structures and beyond: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 3, 104-13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oam. 2005. Three Factors in language design. *Linguistic Inquiry* 36.1, 1-22.
- Chomsky, Noam. Approaching UG from below. In Uli Sauerland and Hans-Gärtner, eds., *Interfaces + recursion = language?*, 1-29, Berlin: Mouton de Gruyter, 2007. Print.
- Chomsky, Noam. 2008. On phases. In Robert Fredin, Carlos Otero and Maria Luisa Zubizarreta, eds., *Foundational issues in linguistic theory: Essays in honor of Jean-Roger Vergnaud*, 291-321,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oam. 2013. Problems of Projection. *Lingua* 130, 33-49. Print.
- Chomsky, Noam. 2015. Problems of Projection: Extension. In: *Structures, Strategies and Beyond*. ed. Elisa Di Domenico et al, 3-16.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Chomsky, Noam. 2019a. Some puzzling foundational issues: The Reading program. *Catalan Journal of Linguistics Special Issue*: 263-285.
- Chomsky, Noam. 2019b. Fundamental issues in linguistics, MIT lectures, April 10th and 12th.
- Chomsky, Noam. 2019c. UCLA lectures, April 29th, 30th, May 1st, 2nd
<https://linguistics.ucla.edu/noam-chomsky/>.
- Chomsky, Noam, Ángel J. Gallego, and Dennis Ott. 2019. Generative grammar and the faculty of language: Insights, questions, and challenges. *CJL*. lingbuzz/003507.
- Denison, David. 1993. *English Historical Syntax: Verbal Construction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Gelderen, Elly van. 2006.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elderen, Elly van. 2011. Grammaticalization and Generative Grammar: A Difficult Liasion. In Heiko Narrog and Bernd Heine, eds., *The Oxford Handbook of Grammaticalization*, 43-5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elderen, Elly van. 2018. *Analyzing Syntax Through Texts: Old, Middle, and Early Modern English*.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Gelderen, Elly van. 2021. Verb-second and expletives and current Minimalist Program. *ICEHL*. 12 June 2021.
- Gelderen, Elly van. 2021. Changes in little v and Voice.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17-18 June 2021. www.public.asu.edu/~gelderen/Voice2021.pptx
- Gelderen, Elly van. 2021. The Linguistic Cycle: an introduction and change of my focus. 28. July

2021. www.public.asu.edu/gelderen/Naxos2021.ppt.
- Gelderen, Elly van. Third factors in variation and change. Recent theoretical advances in Historical Syntax. 21 January 2022. [www.public.asu.edu/gelderen/...](http://www.public.asu.edu/gelderen/)
- Got, Nobu & Toru Ishii. 2018. Some Consequences of Merge and Determinacy. <https://ling.auf.net/lingbuzz/004108>.
- Jespersen, Otto. 1909-1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I-VII. London/Copenhagen: Allen and Unwin.
- Kim, Haelee. 2011. Old English: History, Grammar, and Texts. Seoul: Hankookmunhwasa.
- Lee, Pil-Hwan. 2007. *English Syntactic Change: Negation, Pronouns and Infinitives*. Seoul: Hankookmunhwasa.
- Lee, Pil-Hwan. 2009. *The History and Linguistic Change of English*. Seoul: Hankookmunhwasa.
- Lightfoot, David. 1979. *Principles of Diachronic Synt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ghtfoot, David. 1991. *How to Set Parameters: Arguments from Language Change*. Cambridge, Mass.: MIT Press.
- Lightfoot, David. 1999. *The Development of Language*. Oxford: Blackwell.
- Lightfoot, David. 2002. Grammatical approaches to syntactic chang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edited by R. Janda & B. Joseph, Oxford: Blackwell.
- Lightfoot, David. 2002. *Syntactic effects of morphological chan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os, Bettelou. 2015. *A Historical Syntax of English*.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Mitchell, Bruce. *Old English Syntax*, 2 vols, Oxford: Clarendon Press, 1985. Print.
- Radford, Andrew. 2009. *Analysing English Sentences: A Minimalist Approac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ford, Andrew. 2016. *Analysing English sent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berts, Ian. 2007. *Diachronic Syntax*.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hin, Sungkyun. 1992. *Parameter-Resetting in the Diachronic Syntax of English*.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Shin, Sungkyun. 2001. A Minimalist Approach to English Impersonal Constructions. *Humanities and Sciences Research* 9: 133-145.
- Shin, Sungkyun. 2006. A Minimalist Approach to the Diachronic Study of English Modal.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1, 221-238.
- Shin, Sungkyun. 2010. The Origin of Do-Support and Parameter-Resetting. *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2.2: 185-201.
- Shin, Sungkyun. 2017. A Minimalist Approach to the Diachronic Study of English Word Order. *Humanities and Sciences Research* 53: 133-145.
- Shin, Sungkyun. 2019. Parameter-Resetting and Diachronic Changes of English Negation. *Studies in Linguistics* 51: 89-107.

- Shin, Sungkyun. 2019. A Diachronic Study of English Reflexives and Prounouns
with Feature Respecification. *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61.1:
199-225.
- Visser, F. 1963-73. *An Historical Syntax of the English Language*. Leiden: Brill.

Sungkyun Shin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Kangwon National Univesity
176-9 Chunjoo-ro, Chuncheon, 24445, Korea
+82-10-8795-8148, skshin@kngwon.ac.kr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1 <영어사> 사회: 오영일(서울과기대)

The Emergence and Spread of the Definite Article in English

발표: 윤희철(덕성여대)

토론: 김유강(한국외대)

The emergence and spread of the definite article in English

Hee-Cheol Yoon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icate some triggers underlying the emergence of the definite article in English and investigate the aspects of its spread during the period of Middle English (ME) through the Middle English (ME) corpus of *Middle English Compendium* (MEC). Old English (OE) lacked a definite article, with demonstratives frequently marking definiteness instead. OE demonstratives however revealed the signs of their future divergence into the definite article; blurring or absence of the meaning of deixis intrinsic to demonstratives and coalescence of their declension. The presence of the definite article as an independent category in Old Norse could also accelerate the advent of the definite article.

From the beginning of ME, the definite article began to constitute a distinct morphological category, taking the indeclinable form *the*. But textual investigation from MEC demonstrates that along with *the*, diverse inflected forms coexisted quite a long time during ME. Those forms include *sa*, *se*, *than*, *thane*, *thare*, *that*, and *tho*, all of which mostly represent agreement with the nouns following them, but not always. More importantly, the spread of the indeclinable form was asymmetric, depending on the dialects of manuscripts. In contrast with the Northern dialect in which the use of the single form was stabilized early, the other ME dialects often resisted the change and kept using the inflected forms. Not only the small number of *s*- form tokens but also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th*- tokens of inflected forms are confirmed in the 12th- and the 13-century manuscripts written in both the Midland and the Southern dialects. Subsequently, the spread of the definite *the* provides further evidence for the Northern influences on ME.

References

- Allen, C. 2016. The Definite Determiner in Early Middle English: What Happened with *þe*? Sten Vikner, Henrik Jørgensen & Elly van Gelderen (eds.). *Let Us Have Articles Betwixt Us – Papers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in Honour of Johanna L. Wood*, 43-82.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_____. 2019. The Definite Article in Old English: Evidence from Ælfric's Grammar. Nuria Yáñez-Bouza et al. (eds.). *Categories, Constructions and Change in English Syntax*; 130-14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ban, T. 2012. Functional Shifts and the Development of English Determiners. Anneli Meurman-Solin et al. (eds.). *Information Structure and Syntactic Change in the History of English*, 271-30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aarlund, J. T. 2004. *The Syntax of Old Nor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ramley, S. 2019. *The History of English: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 Lyons, C. 1999. *Definit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ssé, F. 1952. *The Handbook of Middle English*.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ommerer, L. 2011. *Old English Se: from Demonstrative to Article*. Vienna: University of Vienna dissertation.
- Yoon, H. C. 2014. Divergence of Old English Demonstratives.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0.1: 1-25.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2 <의미·유형론> 사회: 김진해(경희대)

보조용언 구성 ‘-어 오-’의 상적 의미에 대하여

발표: 박혜진(연세대)

토론: 윤주형(한국외대)

보조용언 구성 ‘-어 오-’의 상적 의미에 대하여

박 혜 진
(연세대학교)

1. 서론

한국어의 상 체계는 일반적으로 진행상, 습관상, 완료상, 반복상, 결과상, 기동상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또한 ‘-어 있-’, ‘-고 있-’, ‘-어 대-’, ‘-는 중이-’, ‘-곤 하-’ 등이 한국어의 상 표지로 언급되어 왔다. 대부분의 논의에서 앞의 여러 구성을 상 표지로 보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 구성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다양한 어휘상 유형과의 결합 관계나 결합에 따른 의미 기능 역시 다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어 오-’, ‘-어 가-’에 대해서는 ‘-고 있-’과 함께 진행상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보거나(남기심 외 2019 등), 상성상(Inchoative)으로 보거나(도재학 2014), 기동상이나 상태 변화¹⁾를 나타낸다고 보는 등 여러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히 ‘-어 오-’와 ‘-어 가-’가 화자의 관점, 화시 중심만이 다를 뿐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 오-’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어 가-’와 함께 비교 고찰한 연구가 많은데, 그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영근(2006)에서는 이른바 ‘접근성 진행’으로 명명한 바 있다. 이때 ‘-어 오/가-’는 중립적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과 함께 진행상 표지로 분류된다. 고영근(2006)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성 진행’의 의미는 진행상의 의미 기능에 양태성이 결부된 것인데, 이때의 ‘양태’ 개념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양태 개념인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 특히 사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어 오-’와 ‘-어 가-’에서도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확실성, 개연성, 가능성 등)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어 오/가-’가 기준 시점 또는 종점으로의 (반복성) 진행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접근성 진행’이라는 개념 자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어 오-’와 ‘-어 가-’의 분포와 분포에 따른 상적 의미를 제시한 김윤신(2008)에서는 ‘-어 오-’와 ‘-어 가-’가 결합하는 대상을 사건 단위로 상정하고 단순사건(상태 사건, 행위 사건), 복합사건(전형적인 달성 사건, 정도 달성 사건, 심리 달성 사건, 완성 사건)으로 나누어²⁾ 각각과 결합하였을 때 어떠한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지 제시하였는데, 결론적으로 김윤신(2008)에서는 ‘-어 가-’가 ‘-어 오-’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한 지속의 범주로 묶일 수

-
- 1) 기동상은 사태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한국어에서는 '-기 시작하-'가 해당된다. 그런데 일부 논의에서는 기동상을 사태의 변화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어 가-', '-어 오-' 등을 기동상에 속하는 것으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태 변화의 시작'과 '사태 변화'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사태 변화의 시작'은 매우 짧은 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될 수 없는 것이지만 '사태 변화' 자체는 그 변화의 과정이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이때의 사건들은 어휘상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본고에서 정의하는 어휘상 유형의 분류와 꼭 들어 맞는 것은 아니다.

없으며 결합하는 구문의 사건 구조에 따라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고 과정이나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진 복합 사건을 도출하는 사건 함수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신혜·이윤진(2018)에서는 말뭉치 자료를 통해 ‘-어 오-’와 ‘-어 가-’가 결합하는 동사들의 어휘상 자질을 검토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어 오-’, ‘-어 가-’는 [+지속성]의 어휘상 자질을 가지는 용언들과 주로 결합하며 ‘-어 오/가-’가 일부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것으로 처리하였다. 특히 ‘-어 오-’는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계속 진행을, ‘-어 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태의 미래의 임의 시점까지의 계속 진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김효신(2018)에서는 ‘-어 오-’와 ‘-어 가-’가 각각 과거지향적인 진행상, 미래지향적인 진행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며 ‘-어 가-’가 ‘-어 오-’에 비해 더 문법화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어 가-’와 ‘-어 오-’는 비교적 ‘가다’와 ‘오다’의 의미가 많이 남아 있고, 이들이 화시(deixis) 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동사 화시 범주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 가-’와 ‘-어 오-’가 진행상, 지속상, 상성상, 또는 ‘거상’이나 ‘내상’에 속하는 것인지, 또는 한국어에서 ‘-어 가-’와 ‘-어 오-’를 위한 새로운 상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의 보조용언 구성 ‘-어 가-’, ‘-어 오-’를 상을 나타내는 형태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어떤 상 개념에 해당하는 것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어 오-’의 기능과 분포, 그리고 발달 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한국어의 상 범주를 보다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특히 비슷한 기능의 다른 상 표지(‘-어 가-’, ‘-고 있-’)와의 비교 및 어휘상 유형과의 결합 특성을 통해 ‘-어 오-’의 범주를 밝히는 과정은 범주가 모호한 다른 보조용언들의 의미 기능을 밝히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의 보조용언은 문법화의 과정을 통해 발달한 단위이므로 ‘-어 오/가-’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어 보조용언의 문법화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고의 목적은 어휘상 유형과의 ‘-어 오-’의 결합 양상을 고찰함에 따라 ‘-어 오-’의 기능을 밝히고 이를 이동동사 ‘오다’로부터의 문법화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본고에서 따르고 있는 어휘상 유형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어 오-’의 결합 양상을 보인다. 필요한 경우 ‘-어 가-’ 또는 ‘-고 있-’과의 비교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어 오-’의 범주 및 기능을 제시하고 4장에서는 이동동사 ‘오다’로부터의 발달 과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어휘상 유형에 따른 ‘-어 오-’의 의미

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법상과 어휘상 개념을 간략히 정리한 뒤 어휘상 유형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통적으로 상(aspect) 범주는 주로 시제(tense) 범주와 함께 논의되었다. 이때의 ‘상’이란 어떤 사태의 국면 또는 양상에 대한 화자의 관점이 문법 형식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문법상’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동작상’(고영근 2006), ‘복합상’(조민정 2001), ‘관점상’(박소영 2004) 등의 용어가 제시되어 왔다. 또한 어휘상의 경우 독일어 ‘aktionsart’에서 기원하는 용어로 동사(구)가 나타내는 사태의 양상을 나타내며, ‘동작류’(고영근 2004), ‘상적부류’(aspectual class of verb, Lyons 1995)³⁾, ‘상적 속성’(aspectual

3) 번역어는 이선웅(2012)을 따랐다.

character, Lyons 1977)⁴⁾ 등의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넓은 의미의 ‘상’ 범주 아래에 사태의 시간적 구조나 전개 양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관점을 문법 형식으로 나타내는 ‘문법상’과 동사(구)의 의미와 관련되어 동사(구)의⁵⁾ 상적 자질을 통한 유형 분류를 가능케 하는 개념인 ‘어휘상’을 두는 관점을 취한다. 넓은 의미의 ‘상’ 아래에 ‘문법상’과 ‘어휘상’을 두는 것은 각각의 개념이 문법 형식과 어휘 의미자질의 층위에 해당한다는 특성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용어 또는 체계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 취하는 용어와 그 개념은 다음과 같다.

- (1) 가. 상(aspect): 문법상과 어휘상을 포괄하는 개념.
- 나. 문법상(grammatical aspect): 한 사태의 전개 양상을 보는 화자의 관점을 나타내는 범주. 문법 형식으로 실현된다.
- 다. 어휘상(lexical aspect): 동사(구)의 어휘 의미와 관련되어 내재된 상적 자질, 또는 그 집합체. 동사(구)의 의미 자질로 실현된다.

이때 어휘상은 동사(구)의 의미 자질, 또는 그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풀어 말하자면, 각 동사(구)가 가지는 [+상태성], [-종결성] 등의 자질을 어휘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한 자질의 집합(완수 동사, 달성 동사 등)을 어휘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전자를 ‘어휘상 자질’, 후자를 ‘어휘상 유형’으로 부르도록 한다.

범언어적으로 어휘상 유형 분류는 Vendler(1967)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체계와 판별 기제는 Comrie(1976), Smith(1997), Van Valin&LaPolla(1997)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본고에서는 Smith(1997)을 따라 총 5가지의 어휘상 유형 분류를 채택하여 이들 유형과 ‘-어 오-’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어휘상 유형 및 판별 기제(Vendler 1967; Comrie 1976; Smith 1997)

	진행형 (또는 진행상과의 결합)	중점	t-만에 v ⁶⁾	전체와 부분	최소한의 시폭 ⁷⁾	대표 예시
행위 동사 (activity)	가능	X		같음	있음	running
완수 동사 (Accomplishment)	가능	O	지속 O	다름		running a mile
순간 동사 ⁸⁾ (Semelfactive)	가능 (반복)	X		-		coughing
달성 동사 (Achievement)	불가능	O	지속 X	-		winning the race
상태 동사 ⁹⁾	불가능	X		같음	없음	knowing

4) 번역어는 김친학(2006)을 따랐다.
 5) 이때의 ‘동사(구)’는 형용사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상태성] 자질을 가지는 것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유현경(2008)에 따르면 형용사가 가지는 [+상태성]도 유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2.1.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또한 ‘동사’가 아닌 ‘동사(구)’로 제시한 것은 후술하다시피 어휘상이 동사 단독 구성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통사 구조적으로 동사가 하위범주화 하는 성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례로 ‘뛰다’와 ‘운동장 한 바퀴를 뛰다’는 어휘상 유형이 다르다.

(State)						
---------	--	--	--	--	--	--

1) 행위 동사와 ‘-어 오-’의 결합

본 절부터는 앞서 제시한 어휘상 유형을 바탕으로 ‘-어 오-’와의 결합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각각의 어휘상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술어들을 바탕으로 결합 가능성을 검토하고, 결합이 가능하다면 그 때에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때 ‘-고 있-’이나 ‘-어 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면 이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도록 한다.

먼저 행위 동사와의 결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형적인 행위 동사에는 ‘걷다’, ‘웃다’, ‘자다’ 등이 있으며, 이동 동사인 ‘걷다’를 제외하면 ‘-어 오-’가 결합되기 어렵다.

(2) ㄱ. 내가 돌아봤을 때 그는 {웃었다, *웃어 왔다}.

ㄴ. 나는 강아지와 함께 {걸었다, 걸어왔다}.

ㄷ. 그는 오랜만에 침대에서 { 잤다, *자 왔다}.

먼저, (2ㄴ)의 경우 ‘오다’, ‘가다’가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걸어오다’, ‘걸어가다’라는 하나의 합성 동사를 이루는 것이다. 특히 ‘걷다, 뛰다, 오르다, 흐르다’ 등의 이동 동사와 ‘-어오/가-’가 결합하는 경우 하나의 합성 동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동 동사들은 행위 동사 또는 완수 동사¹⁰⁾에 속하는 것이다. 즉 이때의 ‘-어오-’, ‘-어가-’는 형태론적 층위에서 작용하므로 문법상 범주가 아니다. 또한 (2ㄱ)의 경우에는 ‘나에게 웃어 보였다.’ 즉, ‘내’ 쪽 방향으로 웃음을 지었다는 뜻의 ‘웃어 왔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때의 ‘-어 오-’는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이 아니므로 본고의 직접적인 관심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¹¹⁾

6) ‘t-만에 v’ 구성이 나타내는 의미에 행위가 지속된다는 해석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 (모두 중점이 있는 유형인) 완수 동사와 달성 동사가 구분됨을 나타낸 것이다. 즉 ‘t-만에 v’ 검증은 중점이 있는 동사 사이의 구분을 위한 것이다. ‘t-만에 v’ 검증은 중점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느냐(완수 동사) 구성하지 않느냐(달성 동사)로도 해석할 수 있다.

7) 이는 전체와 부분이 같은 동사, 즉 사태가 균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사(행위 동사, 상태 동사)가 해당 사태를 아주 작게 잘랐을 때에도 여전히 그 행위가 성립하는가, 즉 변화로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의 폭이 있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즉 상태 동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태를 아무리 잘게 쪼개도 여전히 사태가 성립한다. 그러나 행위 동사는 (최소한의) 시폭이 없으면 행위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8) 조민정(2001)에서는 semelfactive verb를 순간 동사(구)로, achievement verb를 달성 동사(구)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semelfactive verb가 순간에 발생하며 완성점(중점)이 없고, achievement verb가 순간에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나 완성점(중점)이 있다는 특징은 본고와 동일하게 제시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각각의 부류에 속하는 동사의 예인데 조민정(2001)에서는 semelfactive verbs에 ‘가리키다, 반짝이다, 건드리다, 기침하다, ㄸ다’를, achievement verbs에 ‘죽다, (잠이) 깨다, 깨닫다, (줄을) 끊다, 알다, 가지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동사들이 이질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특히 ‘반짝이다, 건드리다, 기침하다’와 ‘가리키다, ㄸ다’를 동일한 semelfactive verb로 볼 수는 없다. ‘-고 있-’, ‘-는 중이-’와 결합했을 때 사태의 반복을 나타내는지, 진행(또는 완료)를 나타내는지는 매우 다른 특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achievement verbs에 ‘알다, 가지다’를 포함시킨 것 또한 본고와는 다른 견해이다.

9) <표 1>의 어휘상 유형 분류를 한국어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주로 상태 동사에 대한 것이다. 상태 동사의 경우 많은 논의에서 한국어의 형용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I) 형용사가 아닌 다른 동사가 이에 속할 수 있는가, II) 형용사는 모두 동일한 어휘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본고는 어휘상 유형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므로, 형용사가 모두 상태 동사에 속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간주한 뒤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10) 이동 동사는 ‘운동장 한 바퀴’, ‘계단 3층’, ‘1km’ 등 이동 범위가 한정되면 완수 동사로 해석되고 명확한 범위 한정이 없는 경우 행위 동사로 해석된다.

이동 동사가 아닌 행위 동사인 ‘웃다’, ‘자다’의 경우 ‘-어 오-’와의 결합은 제약되지만 ‘-고 있-’과의 결합은 가능하다. 이때에는 ‘-고 있-’이 진행을 나타내는 것이 명확하다. 그러나 ‘-어 가-’의 경우 이동 동사를 제외하면 결합이 불가능한데, 행위 동사와의 결합 특성에서는 ‘-어 오-’와 ‘-어 가-’가 특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ㄱ. 내가 돌아봤을 때 그는 {웃고 있었다, *웃어 갔다}.
 ㄴ. 나는 강아지와 함께 {걷고 있었다, 걸어갔다}.
 ㄷ. 그는 오랜만에 침에서 {자고 있었다, *자 갔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동사들과 ‘-어 오-’가 전혀 결합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아래와 같은 맥락에서는 ‘웃다’, ‘자다’ 등과 ‘-어 오-’가 결합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다.

- (4) ㄱ. 그는 3년 동안 매일 4시간씩 {자 왔다, ?자고 있었다, 자곤 했다}.
 ㄴ. 그는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웃어 왔다, ?웃고 있었다, 웃곤 했다}.

(4)에서 ‘-어 오-’는 특정 시점(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사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나타낸다. 즉 ‘진행’이 아닌 ‘반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고 있-’의 사용이 다소 어색하거나 다른 의미(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지속성을 강조)를 나타내고 오히려 ‘-곤 하-’와 의미가 더 비슷하다. 즉, (4)에서 ‘-고 있-’이 사용되는 경우 ‘4시간 동안 자고 있는 사태’, ‘웃고 있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남을 나타내지만 ‘-어 오-’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태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전체 시간 동안(3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특성이 유지되는, 반복 또는 습관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아래의 예에서도 잘 나타난다.

- (5) 그는 (줄곧)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자 왔다}.

(5)에서 ‘-고 있-’이 사용되는 경우 특정 시점의 일회적 사태를 서술하는 것이지만 ‘-어 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가 침대에서 자는 사태’가 반복적/습관적으로 일어났음을 서술하는 것이다. ‘매일’, ‘N마다’ 등과 같이 반복성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사용되었을 때 진행상 표지가 반복상 또는 습관상을 나타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맥락 없이 행위 동사와 함께 쓰였을 때 일회적 사태의 진행이 아닌 어떤 사태의 반복적/습관적 발생만을 나타낸다면 진행상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이 아니다. 따라서 ‘-어 오-’는 전형적인 진행상 표지라고 보기는 어렵다.¹²⁾

11) 그러나 이러한 ‘-어 오-’ 역시 ‘오다’의 문법화로 나타난 것이므로 문법화 논의에서는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12) ‘-어 오-’가 (이동 동사가 아닌) 행위 동사와 결합했을 때 반복/습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어 가-’는 행위 동사와는 결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3)에서 ‘-어 가-’가 사용된 문장들이 비문법적이라는 것은 ‘-어 오-’와 비슷한데, (4-5)와 같이 ‘-어 오-’가 결합 가능한 환경과 비슷한 맥락에서 ‘-어 가-’는 전혀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후술하다시피 주로 과거 시제로 나타나는 ‘-어 오-’와 달리 ‘-어 가-’는 기준시점보다 이후의 시점을 달성 시점으로 도입하는 기능이 있어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모두 자연스럽다.

또한 ‘-어 가-’는 ‘다’, ‘모두’ 등과 같은 수나 양을 나타내는 부사와 어울려 쓰이는 것이 자연스러

2) 완수 동사와 ‘-어 오-’의 결합

전형적인 완수 동사 유형의 예시인 ‘집을 짓다’, ‘노래 한 곡을 부르다’ 등과 ‘-어 오-’의 결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 ㄱ. 그는 3년 전부터 집 한 채를 {지어 왔다, 짓고 있었다}.
 ㄴ. 그는 오랫동안 노래 한 곡을 {불러 왔다, 부르고 있었다}.

먼저 완수 동사와 ‘-어 오-’의 결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 오-’의 경우 ‘오랫동안’, ‘3년 전부터’와 같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의 범위를 지정하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시간 표현이 없으면 다소 수용성이 낮다. 이 경우에는 ‘-고 있-’으로의 대치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6ㄴ)에서 ‘-어 오-’는 앞서 행위 동사와의 결합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태가 특정 기간 동안 반복적/습관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고 있-’의 경우 일회적 행위를 나타낸다. 즉, ‘그는 오랫동안 노래 한 곡을 불러 왔다’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노래가 아닌) 특정한 노래 한 곡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러 왔음을 나타내는 반면 ‘그는 오랫동안 노래 한 곡을 부르고 있었다’의 경우 어떤 노래 한 곡을 (한 번) 부르는 시간이 길었음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6)의 경우 ‘-어 가-’와의 대치가 다소 어색하다.

- (7) ㄱ. ??그는 3년 전부터 집 한 채를 지어 갔다.
 ㄴ. *그는 오랫동안 노래 한 곡을 불러 갔다.

즉, 문장에 직접적으로 사태의 시작 시점이 발화시로 대표되는 기준 시점보다 이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 ‘-어 가-’의 결합은 제약된다.¹³⁾

3) 순간 동사와 ‘-어 오-’의 결합

다음으로 순간 동사와의 결합을 살펴볼 것인데, 순간 동사의 대표적인 예는 ‘반짝이다’, ‘기침하다’이다.

- (8) ㄱ. 별빛이 오랫동안 {반짝여 왔다, 반짝이고 있다, *반짝여 갔다}.
 ㄴ. 그는 어렸을 때부터 {기침해 왔다, ??기침하고 있다, *기침해 갔다}.
 ㄷ. 별빛이 지금 {*반짝여 왔다, 반짝이고 있다, *반짝여 갔다}.

운데 이러한 부사가 쓰이면 해당 동사(구) 또는 절은 어휘상 유형 중에서 완수 동사로 해석된다. 즉 아래의 예에서 ‘잠을 자다’, ‘물을 마시다’는 기본적으로 행위 동사이지만 부사 ‘다’가 나타남에 따라 행위의 종점이 설정되면서 ‘-어 가-’와의 결합이 가능해진다.

- ㄱ. 그는 잠을 다 자 간다.
 ㄴ. 그는 물을 다 마셔 간다.

13) 이는 ‘가다’의 화시 중심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문법화 과정을 다룬 4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 ㄹ. 그는 지금 {*기침해 왔다, 기침하고 있다, *기침해 갔다}.
- ㅁ. 별빛이 일몰 때부터 {*/?반짝여 왔다, 반짝이고 있다, *반짝여 갔다}.
- ㄴ. 그는 10분 전부터 {*/?기침해 왔다, 기침하고 있다, *기침해 갔다}.

(8)에서 ‘-어 오-’의 경우 특정 시점(일반적으로 현재)까지 해당 사태가 반복적/습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기준 시점(발화시)로부터 이전의 어떤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등의 표현이 있는 경우에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기준 시점의 이전 시점이 아닌 바로 그 시점에 사태의 초점을 맞추는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반면 ‘-고 있-’의 경우 ‘-어 오-’와는 반대로 ‘지금’과 같은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어렸을 때부터’와 같이 긴 기간 동안 지속된 사태에 사용되는 것은 다소 어색하다. ‘-고 있-’은 해당 사태(‘별이 반짝이는 사태’, ‘그가 기침하는 사태’)가 끊임없이 지속/진행될 수 있는 상황, 특히 ‘일몰 때부터’, ‘10분 전부터’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진행되는 사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어 오-’와는 다르다. ‘-어 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4) 달성 동사와 ‘-어 오-’의 결합

다음으로, 달성 동사의 대표적인 예는 ‘정상에 도착하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다’, ‘죽다’ 등인데 ‘-어 오-’와의 결합은 아래와 같다.

- (9) ㄱ. *그는 정상에 도착해 왔다.
 ㄴ. 나는 실험 도중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 왔다.
 ㄷ. *환자가 죽어 왔다.

(9)에서 ‘-어 오-’의 특성은 행위 동사와의 결합 특성과 일부 공유되는 특성으로 보인다. (9ㄱ), (9ㄷ)의 경우 ‘-어 오-’가 비문법적인 반면 (9ㄴ)의 경우 ‘-어 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특히 ‘도착하다’의 경우 이동의 의미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 오-’가 아닌 진행 방향이 화자 쪽임을 나타내는 ‘-어 오-’로 해석한다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9ㄱ), (9ㄷ)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환자들이’와 같이 다수의 사태가 발생하는 의미인 경우에는 ‘-어 오-’의 사용이 가능하다. 즉 달성 동사와의 결합에서는 ‘-어 오-’는 일반적으로 결합이 불가능하지만 다수의 사태를 나타내는 맥락(복수의 참여자)에서 사태의 반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 동사와의 결합과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달성 동사와 ‘-고 있-’, ‘-어 가-’의 결합 특성은 조금 다른데, 먼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 있-’은 달성 동사와 결합했을 때 비문법적이라기보다는 해당 사태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매우 길게 늘려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도착하고 있다’, ‘다다르고 있다’ 등). 또한 해당 사태가 여러 번 나타났음을 의미하거나(‘발견하고 있다’ 등), 해당 사태에 이르는 과정에 있음(‘죽고 있다’ 등)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복수의 사건을 나타내는 맥락(복수의 참여자)에서는 ‘-어 오-’와 마찬가지로 사태의 반복적 발생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 있-’의 의미는 ‘-어 가-’와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 (10) 가. 그는 정상에 {도착하고 있다, 도착해 간다}.
 나. 나는 실험 도중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발견해 간다}.
 다. 환자가 {죽고 있다, 죽어 간다}.

5) 상태 동사와 ‘-어 오-’의 결합

마지막으로 상태 동사와 ‘-어 오-’의 결합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 있-’, ‘-는 중이-’ 등과의 결합에서 상태 동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형용사로 ‘높다, 좋다, 예쁘다’ 등이고 둘째는 ‘알다, 믿다, 바라다’ 류의 동사이다.

- (11) 가. 저 산이 {*높아 온다, *높아 간다}.
 나. 나는 방학이 {*좋아 온다, *좋아 간다}.
 다. 머리가 {아파 온다, ??아파 간다}.
 르. 하늘이 {어두워 온다, 어두워 간다}.

(11)에서 대부분의 형용사는 ‘-어 오-’와의 결합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높다’, ‘좋다’ 등의 형용사는 ‘-어지-’의 결합 없이는 ‘-어 오-’와의 결합이 불가능한데, ‘-어지-’가 결합하는 경우 이미 이들의 어휘상 유형이 변하게 되므로(주로 완수 동사)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프다’, ‘어둡다’와 같은 형용사는 ‘-어 오-’와의 결합이 조금 어색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때에는 점진적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⁴⁾ 이는 ‘-어 가-’와도 공유하는 특성인데, 이와 관련하여 김선영(2016)에서는 중세 국어 시기의 ‘-어 가-’는 형용사와 직접 결합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으나 근대 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형용사에 ‘-어 디-’ (‘-어 지-’)가 결합하게 되면서 ‘-어 가-’와의 결합이 쇠퇴하였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어 가-’와 직접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의 분포가 매우 축소된 것이다.

- (12) 가. 나는 그 사람을 {알아 왔다, 알아 갔다}.
 나. 그는 그녀가 돌아오리라고 {믿어 왔다, 믿어 갔다}.

상태 동사의 두 번째 유형인 ‘알다, 믿다’ 류의 경우(12) ‘-어 오-’는 ‘오랫동안’ 등과 같이 기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와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준 시점까지의 상태 지속을 나타낸다. 반면 ‘-어 가-’의 경우 ‘점점 (더)’와 같이 점진적 변화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종점(‘완전히 알거나 믿게 되는 사태’)까지의 진행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2나)에서 ‘그는 그녀가 돌아오리라고 믿어 왔다’의 경우 ‘믿는 사태’가 균질적으로 지속되었음을 나타내지만 ‘그는 그녀가 돌아오리라고 믿어 갔다’의 경우 ‘믿지 않는 사태’로부터 ‘믿는 사태’로의 점진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4) ‘머리가 아파 온다’와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 상태 변화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화가 ‘나’, 즉 주어에게 일어난다는 방향성의 의미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는 ‘친구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와 같은 합성동사에서 나타나는 의미와도 비슷한데 이것이 ‘아프다’ 류의 형용사의 의미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3. ‘-어 오-’의 범주와 기능

서론에서 선행연구들에서 ‘-어 오-’, ‘-어 가-’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기준 시점 또는 종점과 같은 어떠한 시간축 상의 참조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며 이들이 기존의 진행상 표지 ‘-고 있-’, ‘-는 중이-’와 비슷한 의미 기능(진행, 지속 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어 오-’가 대체로 (기준 시점까지의) 반복이나 습관의 의미를 주로 나타낸다는 것을 보였다. 이에 ‘-어 오-’의 범주와 그 기능을 밝히기 위해서는 진행상, 연속상, 습관상, 반복상 등에 대한 개념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진행상과 지속상은 비슷하게 어떤 사태가 진행 중임(ongoing)을 나타내는데, 지속상은 추가적으로 행위의 주체가 의도적으로 그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지속상과 진행상은 문법화의 관점에서 ‘지속상 > 진행상’으로의 발달 과정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ybee, et al. 1995) 이와 관련하여 구종남(2011)에서는 ‘-어 오/가-’가 진행상이 아닌 지속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어 오-’가 ‘-고 있-’이 나타내는 진행의 의미와는 다소 다르고 문법화 단계도 낮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한 점이 있으나 지속상과 진행상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에 ‘-어 오-’를 지속상으로 보기는 어렵다.¹⁵⁾

다음으로 반복상과 습관상에 대해서 그 차이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Comrie(1976)에서는 습관상이 본질적으로 반복성을 나타내며 상황의 연속적 출현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특히 빈도와 횟수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것이 습관상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정수(1994)에서는 반복 횟수가 한정적이며 그러한 제한된 횟수의 반복을 나타내는 것을 반복상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연속되며 그 연속되는 기간 동안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연속상으로 볼 수 있다.(김천학 2016) 이러한 구분을 받아들였을 때 ‘-어 오-’가 나타내는 사태의 반복적 발생은 습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3) 그는 (어렸을 때부터) 침대에서 자 왔다.

위의 (13)는 ‘-어 오-’가 습관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인데 ‘그가 침대에서 자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사태는 이루어진 기간(어렸을 때부터 기준 시점인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 오-’가 반복상이 아닌 습관상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또한 ‘-곤 하-’ 등의 습관상은 일반적으로 기준 시점 이전부터 기준 시점까

15) 다만 ‘-어 가-’가 전형적인 진행상 표지인 ‘-고 있-’보다 문법화가 덜 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지속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 가-’의 범주는 본고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를 참고하거나 후속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어 가-’가 ‘-고 있-’과는 달리 “종점”으로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 가-’를 진행상으로 보더라도 고영근(2006)과 김효신(2018)에서 사용한 용어를 참고하여 ‘-고 있-’과 구분할 수 있을 듯하다. 고영근(2006)에서는 ‘-어 오/가-’를 ‘접근성 진행’으로, 김효신(2018)은 ‘-어 오-’와 ‘-어 가-’를 각각 ‘과거지향적 진행’, ‘미래지향적 진행’으로 분류한 바 있다. 언급한 것과 같이 ‘-어 오-’와 ‘-어 가-’는 기준시점 또는 종점을 참조점으로 하여 참조점까지의 지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조점으로서의 접근’ 또는 ‘참조점 지향적’과 같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어 오-’, ‘-어 가-’는 이동 동사로부터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도착점으로서의 이동’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을 ‘-어 오-’, ‘-어 가-’의 의미 표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고려하면 ‘-어 가-’를 ‘접근성 진행’, ‘참조점-지향적 진행’ 등으로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두 용어 사이에 큰 차이는 없으나 후자가 더 명확한 개념을 전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일단 ‘-어 가-’의 의미 기능을 ‘참조점-지향적 진행’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지의 습관적 사태를 나타내고, 기준 시점 이후에 대해서는 함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 오-’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어 가-’와 ‘-어 오-’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에는 없는 참조점 설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 있-’(또는 ‘-는 중이-’)와 결합이 가능하다. 즉, ‘-어 오-’, ‘-어 가-’에는 ‘습관상’, ‘진행상’의 의미 기능에 ‘참조점 설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 오/가-’가 ‘-고 있-’이나 ‘-는 중이-’와 결합하였을 때에는 ‘참조점 설정’의 기능이 더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¹⁶⁾

(14) ㄱ. 창수는 작년부터 열심히 공부해 오고 있다.

ㄱ' . 창수는 작년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ㄴ. 그는 밥을 (다) 먹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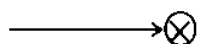
ㄴ' . 그는 밥을 먹고 있다.

즉 (14)와 같이 ‘-어 오-’와 ‘-어 가-’에 ‘-고 있-’이나 ‘-는 중이-’가 결합했을 때, (14ㄱ)에서는 ‘-어 오-’가 “현재까지”라는 참조점을, (14ㄴ)에서는 ‘-어 가-’가 미래에 ‘밥을 먹는 것을 완료하는’ 참조점을 설정한다. 이러한 참조점의 의미는 ‘-어 오/가-’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거나 세계의 일반적인 지식(밥을 먹는 것은 식사 시간이 끝나거나 밥을 다 먹으면 종료된다)에 의해 막연하게 환기될 뿐이다.

4. 이동 동사 ‘오다’의 ‘-어 오-’로의 발달

주지하다시피 ‘-어 오-’, ‘-어 가-’는 이동 동사 ‘오다’, ‘가다’로부터 발달한 보조용언 구성이다. 이동 동사 ‘오다’, ‘가다’는 사건 구조에서 출발점과 도착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김효신 2018) 이러한 특성이 ‘-어 오-’, ‘-어 가-’에도 남아 있다. 김종도(1996)에서는 아래와 같이 ‘오다’, ‘가다’의 영상 도식을 제시하였다.

(15) ‘오다’, ‘가다’의 영상 도식(김종도 1996:143)



[오다]



[가다]

위의 도식에서 화살표는 주어(행위자)의 이동 과정과 방향, X는 참조점, O는 근원이나 목표 지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오다’, ‘가다’의 영상 도식은 ‘-어 오-’, ‘-어 가-’의 도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어 오-’는 기준시점(시간 화시) 이전에 시작되고 기준시점까지 어떠한 사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점선으로 표시)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 기준시점 이후에도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는 이동 동사 ‘오다’가 참조점으로서의 이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참조점에 도달한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의 ‘참조점’이란 화시의 중심(center of deixis)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동 동사 ‘오다’의 화시 중심은 ‘여기(here)’로 대표되는 공간적 중심이다.¹⁷⁾

16) 이러한 현상은 어떤 형식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박재연 2007)와도 관련이 있다.

17) ‘화시(deixis)’란 발화나 발화 사건의 문맥 자질들이 어떤 언어의 어휘적 또는 문법적 수단에 의해 표현

반면 ‘-어 가-’의 경우 기준시점으로부터 이후에 사태의 종점이 설정되고 그 종점을 향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사건이 기준시점부터 일어났는지, 그 이전부터 일어난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종점에 도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이는 이동 동사 ‘가다’가 참조점으로부터의 이동을 나타내며 도착점에서의 도달을 항상 함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 오-’와 ‘-어 가-’는 이동 동사로부터 발달하였으며 전형적인 습관상 또는 진행상으로 완전히 문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참조점 지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때의 참조점은 ‘오다’의 경우 기준 시점(발화시)으로, ‘가다’의 경우 종점으로 설정된다.

특히 ‘-어 오-’의 경우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어 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 (16) ㄱ. 그는 옥상으로 올라왔다.
- ㄴ. 그는 어제 나에게 편지를 보내 왔다.
- ㄷ. 그는 줄곧 침대에서 자 왔다.

(16ㄱ)의 경우 형태론적 단위로, 이동 동사(‘오르다’, ‘내리다’, ‘날다’, ‘걷다’, ‘뛰다’ 등)와 결합해 하나의 동사로 작용한다. 이때에는 이동 동사로서의 ‘오다’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어오-’는 단어 형성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접사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문법화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6ㄴ)의 경우 ‘-어 오-’가 통사론적 층위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조용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에 ‘보내다’ 등의 본용언이 오지 못하면 사용될 수 없으므로 통사론적 의존성이 확인된다. 이때의 ‘-어 오-’는 어떠한 행위가 한 참여자로부터 다른 참여자(주로 화자)에게로 발생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꼭 타동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는 나를 향해 웃어 왔다’와 같은 구문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이때의 ‘X가 Y에게 V-어 오다’는 ‘X가 Y를 향해 V’, 그리고 ‘Y가 화자이거나, X보다 Y가 화자에게 가까움’을 동시에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¹⁸⁾ 이때 참조점이 되는 것은 공간적 중심으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래의 예에서 화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화자와 사건 참여자(‘오빠’, ‘오빠 친구’)의 심리적 거리보다는 공간적 거리에 의해 ‘-어 오-’의 사용이 허용 또는 저지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7) ㄱ. (미국에 있는) 오빠가 (한국에 있는) 오빠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 왔다.
- ㄴ. ??(한국에 있는) 오빠 친구가 (미국에 있는) 오빠한테 편지를 보내 왔다.

(17ㄴ)의 ‘-어 오-’는 본고의 주된 연구 대상인 습관상을 나타내는 ‘-어 오-’이다. ‘-어 오-’의 상적 기능은 기준 시점(발화시) 이전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습관적 사태를 나타낸다. 이때의 ‘-어 오-’는 이동 동사 ‘오다’의 참조점(화시의 중심) 설정 기능이 공간 층위(‘여기’)

되는 현상으로, 언어의 구조와 그 언어가 사용되는 문맥 간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개념이다.(Huang 2014) 즉, 발화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자질(발화 참여자, 발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공간 등)이 언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발화 맥락에 의해 지시값이 정해지는 범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발화 맥락’, 즉 ‘화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은 ‘직시’보다는 ‘화시’라고 생각되므로 본고에서는 ‘화시적’, ‘화시(소)’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특히 화시의 기본 범주로는 인칭 화시, 시간 화시, 공간 화시가 있으며 각각의 ‘중심’은 ‘나(I)-지금(now)-여기(her)’로 대표된다. 이외에도 사회 직시 또는 담화 직시를 설정하는 논의도 있다.

18) 비슷한 기능의 ‘-어 가-’는 ‘X가 Y를 향해 V’, 그리고 ‘X가 화자이거나, X가 Y보다 화자에게 가까움’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에서 시간 층위(‘지금’)으로 옮겨갔다고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이동 동사 ‘오다’는 본래 화시의 공간적 중심을 도입하는 기능을 하였기 때문에 (17ㄴ)의 ‘-어 오-’가 (17ㄷ)의 ‘-어 오-’보다 더 이동 동사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어의 ‘-어 오-’, ‘-어 가-’와 같이 이동 동사로부터 발달한 상 표지는 범언어적으로도 관찰되는데 Bybee, et al.(1994)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약 94개 언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진행상(progressive: 5개 언어)’, ‘선행상(anterior: 4개 언어)’, ‘완결상(completive: 2개 언어)’, ‘지속상(continuative: 2개 언어)’, ‘결과상(resultative: 1개 언어)’, ‘완망상(perfective: 1개 언어)’, ‘습관상(habitual: 1개 언어)’ 등으로 나타났다. 이때 이동 동사에는 ‘go’, ‘come’ 뿐만 아니라 ‘to pass by’, ‘approach’, ‘return’, ‘reach’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이동 동사가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범주는 상 범주 중에서는 ‘진행상’ 또는 ‘선행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어의 ‘-어 가-’가 ‘-어 오-’보다 더 일반적인 발달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조용언 구성 ‘-어 오-’의 상적 기능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어휘상 연구 및 진행상 표지 ‘-고 있-’과 ‘-어 가-’의 상적 특성을 일부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특히 ‘-어 오-’와 ‘-어 가-’가 나타내는 의미가 대칭적이지 않으며 전자는 습관상의 의미를, 후자는 진행상 또는 지속상의 의미를 나타냄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동 동사 ‘오다’의 특성이 ‘-어 오-’의 상적 의미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어 오-’와 ‘-어 가-’는 기준 시점 및 종점의 설정과 관련하여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 오-’의 경우 주절 서술어에 결합되는 경우 ‘-었-’과 결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준 시점이 발화시 현재로 설정되고 기준 시점까지의 사태의 반복적 발생을 나타내며 기준 시점 이후의 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어 오-’의 특성이 과거 시제 형태소와 함께 나타날 것을 요구하고 현재 시제 형태소와의 결합을 저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해서는 주절에서의 시제 선어말어미와의 결합뿐만 아니라 접속절에서 어떤 연결어미와 결합 가능하며 이때 시제 형태소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 오-’가 습관상을 나타내는 다른 형식인 ‘-곤 하-’와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보충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자면, ‘-곤 하-’는 과거 시제 표지 ‘-었-’과 결합하였을 때 기준 시점 이후에는 그러한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함축을 갖기 쉬운 반면 ‘-어 오-’는 그러한 함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어 오-’가 참조점(화시 중심)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곤 하-’는 ‘-ㄴ다’와의 결합이 자유롭지만 ‘-어 오-’는 일반적으로 ‘-ㄴ다’와의 결합이 제약되고 과거 시제 표지 ‘-었-’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히 ‘-어 오-’의 경우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등에서는 상적 의미 없이 단순히 행위의 방향성에 대한 의미 기능만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주로 ‘-어 오-’의 상적 기능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깊게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실제 말뭉치 예문을 검토하여 어휘상 유형(또는 상황 유형)과 ‘-어 오-’의 결합을 더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2004),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 고영근(2006), 「동작상에 대한 이해」,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1-30.
- 구종남(2011), 「‘-어 오다/가다’의 직시적 의미와 상적 특징」, 『한국언어문학』 76, 한국언어문학회, 5-35.
- 김선영(2016), 「형용사와 ‘-어 가다’」, 『한글』 311, 한글학회, 165-196.
- 김윤신(2008), 「상 보조 용언 구성 ‘-어 가다’ / ‘-어 오다’의 의미」, 『언어학』 52,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57-78.
- 김종도(1996), 「도움움직씨 ‘오다/가다’의 상적 의미」, 『한글』 233, 한글학회, 137-160.
- 김천학(2006), 「국어의 동사와 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천학(2016), 「한국어의 습관상에 대하여 - ‘-곤 하-’의 습관상 설정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52, 한국어의미학회, 87-109.
- 김효신(2018), 「한국어 상 보조용언 ‘가다’와 ‘오다’의 문법화 연구 -문법화 정도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25(4), 담화인지언어학회, 31-53.
- 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2019), 『(새로 쓴) 표준 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 남신혜·이윤진(2018), 「이동동사 기원 보조용언 구성의 용언 결합 양상 비교 - ‘-어 오다’, ‘-어 가다’, ‘-어 나가다’를 중심으로-」, 『2018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26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53-264.
- 도재학(2014), 「우연적 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국어학』 71, 국어학회, 259-304.
- 박소영(2004), 『한국어 동사구 수식 부사와 사건구조』, 태학사.
- 박재연(2007), 「문법 형식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 『한국어의미학』 22, 한국어의미학회, 73094.
- 유현경(2008), 「한국어 형용사의 시간구조 연구」, 『배달말』 43, 배달말학회, 211-238.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조민정(2001), 「국어의 상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ybee, J., Perkins, R., and Pagliuca, W.(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mrie, B.(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1977), *Semantics I,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1995), *Linguistic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C. S.(1997), *The Parameter of Aspect (2nd ed.)*, Kluwer Academic Publishers.
- Van Valin, R. and LaPolla, R.(1997),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ndler, Z.(1967), “Verb and times”, ch.4 of *Linguistics and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97-121.

박혜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03722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위당관 515호

전화번호: +82-10-4121-7631

E-mail: hjp1010@yonsei.ac.kr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2 <의미·유형론> 사회: 김진해(경희대)

**아프로-아시아어족 언어들에 나타난
동사문법범주 표시의 유형다양성 비교;
시제, 상, 법(TAM) 그리고 술어가/태,
논항색인/언표, 양극성(VIP)을 중심으로**

발표: 권명식(한국외대)

토론: 김아림(명지대)

아프로-아시아어족 언어들에 나타난 동사문법범주 표시의 유형다양성 비교; 시제, 상, 법(TAM) 그리고 술어가/태, 논항색인/언표, 양극성(VIP)을 중심으로

권 명 식¹⁾

<목차>

1. 서론
2. 동사문법범주표시 유형비교의 목표와 방법
3. 분석-통합 연속체로서의 언어표현 3.1 무표 불이행 범주
 - 3.1.1 유표표현 등장과 양분법적 확장, 3.2 동사연속과 계열동사 구문
 - 3.3 조동사 구문, 3.4 기능 형식어 전략, 3.5 술어표지 구문
 - 3.6 접사구조 3.7 통합 및 융합구조
4. 동사문법범주의 구분과 세분화 양상
 - 4.1 시제, 상, 법(TAM)
 - 4.2 술어가/태, 색인/언표 그리고 양극성(VIP)
 - 4.3 문법화와 복잡 유표화 과정
5. 개별 분과 사례
 - 5.1 고대 이집트어 5.2 셈어, 5.3 베르베르
 - 5.4 쿠쉬어, 5.5 오모어 5.6 차드어
6. 유형다양성 비교와 설명
 - 6.1 동사문법범주의 생성과 진화(문법화와 유표성 이론)
 - 6.2 표현형태 다양성과 구문패턴의 유형화, 6.3 유형다양성 설명
7. 나가는 말

1. 서론

언어유형비교는 단어구조의 복잡성을 기초로 한 형태유형분류(Schlegel 1818, Humboldt 1836, Sapir 1921)로부터 시작되어 문장의 구성성분 어순유형론(Greenberg 1966)을 거쳐 구성성분의 종속관계에 기초된 중심/주변 표시 양상 연구로 발전되었다(Tesnière 1959, Lehmann 1983/85, Nichols 1986). 이 논문에서는 동사의 문법범주에 주목하여 이에 관련된 동사구조 그리고 더 나아가 동사관련 구문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²⁾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 통합어로 분류되는 언어유형론에서 이미 단어 구성 형태소들의 분절가능성, 요컨대 형태소 경계에 따른 융합척도와 더불어 한 단어 안에 몇 개의 형태소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합척도(Comrie 1981:43)는 중요한 유형분류지표이다. 어휘로서의 동사와 문법범주표시로서의 문법형태소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따른 표시의 유형다양성은 언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으로 굴절어로 잘 알려진 아프로-아시아어족의 언어들에서 굴절과 통합(혹은 융합)이라는 전략이외에 고립/첨가어 단어구성의 기본이 되는 분석, 교착 전략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³⁾ 고립어나 교착어에서 볼 수 없는 굴절 패

- 1)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어학부 명예교수. mskwon@hufs.ac.kr 이 논문은 2022년도 담화인지언어학회와 한국영어학회 공동학술대회(11월 5일, 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를 주제로) 발표문임.
- 2) 유형비교연구는 문법관계 표시 할당패턴 분류로 이어졌고(Comrie 1978, Dixon 1979, Malinson & Blake 1981), 문법범주에 대한 유형비교 연구가 또 다른 경향으로 등장했다(굴절형태/Anderson 1985, TAM/Chung & Timberlake 1985). 아프리카-나이지리아-콩고어족에 나타난 명사 성(부류)범주와 동사 TAM 범주를 이미 비교연구를 한 바 있다(권명식 2021, 2022).
- 3) ‘분석형태’와 ‘통합형태’ 그리고 ‘굴절’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굴절형태로 표현되곤 하는 문법구분이 별도의 단어들로 실현될 때 이를 분석형태라 하고, 문법구분이 굴절 구축형태소 혹은 융합으로 실현될 때 통합 혹은 융

러다임 구조가 아무래도 주 관심이 되겠지만 고립/교착어에서 나타나는 분석패턴과 무표, 불이행 전략이 동시에 아아어족 몇몇 분파 언어들에서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371개 언어들, 6개 분파로 구성된 아프로-아시아 어족 언어들(Greenberg 1963a)은 아프리카대륙 북부 및 중부내륙 그리고 동부 아래로 펼쳐져 있으며 더 나아가 아라비아반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지리적 분포가 자못 넓고 지형과 역사적 사건과 함께 다양한 변화과정을 겪어왔다. 북으로는 인도유럽어, 남으로는 나일-사하라어족 및 나이저-콩고어족 언어들과 길고 깊은 상호접촉과정을 거쳐 유형변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⁴⁾ 요컨대 유형다양성의 한계와 그 범위 내에서의 변이들과 진화 양상들을 어떤 기준으로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기술될 수 있을 것인지가 비교의 주 목표가 된다. 유표성이론(Trubezkoy 1939, Jakobson 1957, 권명식 2021a), 문법화개념(Meillet 1912, Lehmann 1982, Heine et al. 1991, 권명식 1995:39) 그리고 단어 및 구문형태의 복잡성 척도(MacWhorter 2001, Dahl 2004, Miestamo 2008, 2017, Leufkens 2013, 권명식 2022:12)가 주 고려 기준이 된다.

2. 동사범주표시 유형비교의 목표와 방법

단어의 여러 품사들 중 동사는 명사와 함께 주요품사를 구성하며, 더욱이 명제구성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므로 문법범주의 기반이 되는 어휘범주로서 가장 다양한 변이형과 변화양상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동사문법범주는 동사 자체로부터 동사구, 더 나아가 문장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법사항들을 포함하게 된다. 그리하여 동사문법범주를 다룬다보면 주어진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패턴과 구조단면을 한 번에 개관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유형비교연구에서는 비교기준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것을 비교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문법은 단어자체의 특징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 및 그로인한 구조형성에 핵심역할을 담당하기에 동사관련 문법범주의 생성과 진화 양상들을 포괄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은 주어진 언어구조이해의 지름길이 된다.

유형연구는 언어변이와 변화 관련 다양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데 그 주 목적이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그 반대 측에 도사리고 있는 언어보편원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Greenberg 1963b, Chomsky 1965 ch.1). 그것은 그 어떤 추상적이고도 간결한 표현으로 나타내지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Seiler 1978a, Comrie 1981 ch.1, Croft 1990, ch.3). 그것을 고려한 새로운 시도가 암암리에 수행될 것임을 말할 필요가 없다. 언어보편 원리와 유형 다양성 논의 및 탐색이 구체적 언어데이터가 없다면 공허한 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아프로-아시아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은 무한하고 깊은 언어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어떤 최종의 결과에 이루지 못한다 해도 데이터 속에 녹아 있는 언어현실을 헤쳐지나간다는 것은 언어학자가 빼놓아서는 안 될 연구과정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유형비교의 방법을 미리 말한다면 구체적 언어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어진 전제와 가설, 혹은 모종의 이론을 모아가는 방식이 될 것이다.

합형태라는 용어가 대비적으로 쓰인다. 굴절은 특정 어휘단위에 관련된 문법범주가 다양한 형태들로 구분되어 실현 될 때, 특히 필수적인 패러다임을 구성할 때로 한정된다(cf. Matthew 1997, Haspelmath & Michaelis 2017, §3).

- 4) 동-셈어인 아카더어는 인접한 수메르 영향을 받아 기본어순이 VSO에서 SVO로 바뀌었고, 아프리카 뿔지역으로 이주한 암하라 등 에티오피아 셈어들은 토착 쿠쉬-오모어 영향을 받아 역시 동사 문말 SOV 및 중심후행 패턴이 두루 나타난다. 아프리카 중부 내륙 깊숙이 내려온 하우사 및 차드어들은 역시 인근 송가이, 만데 등의 영향으로 술어표지 및 굴절패러다임 축소현상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오모어의 경우도 인근 나일-사하라어와의 유사구조로 나타난다.
- 5) 유형다양성이란 주어진 공통의 언어기능을 표현하기 위한 전략이 변이(구조, 구문construction)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언어보편론과 유형론 연구의 핵심 모티브이다. 언어는 특정 목적과 의미를 바탕으로 문제해결(problem-solving) 방편으로 수행되는 하나의 (언술)행위(speech act)이다. 요컨대 이는 살아있는 운영과정으로 인간정신을 근간으로 하여 새롭게 구성하여(constructivist operational view) 만들어 나가는 창조행위이다. 이 같은 전체를 바탕으로 자일러(Seiler 1978:15)는 유형다양성 비교연구전략의 하나로 공통기능차원(common functional dimension)을 발굴하여 여기에 작용하는 두 개의 상호 반대되는 힘들과 그 사이에 초점으로 형성되는 범주들,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원리와 연속체, 변이, 함축, 그리고 위계라는 개념을 써서 접근하고자 했다. 동사와 문법범주 사이의 관계도 어휘와 문법이라는 양대 축을 기점으로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변이형/구조들 사이에서 초점범주들이 유형패턴으로 실현된다는 점이 같은 맥락에 있다.

3. 분석-통합 연속체로서의 언어표현

언어는 다양한 크기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형태소와 단어들의 집합으로 더 큰 구성성분인 단어, 문장이 각각 나타난다. 19세기 유형론에서 갈파하였듯이 언어는 이 성분들의 배열, 예컨대 단어 내 형태소들에 있어 어떤 메커니즘이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기능이나 개념들이 어휘요소와 관련하여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는 것이 형태유형론(morphological typology) 논의에서 중요하다. 고립유형, 첨가/교착유형, 굴절-, 혹은 통합유형이라는 슐레겔(Schlegel 1818)/홀볼트(Humboldt 1836)의 4분법이 고전적인 출발이지만 콤리(Comrie 1981:42)가 지적한 바와 같이 첨가어에 나타나는 형태소들이 굴절요소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굴절어를 특히 ‘융합어’로 부르기도 한다. ‘통합’이라는 용어는 ‘incorporated/synthesis’라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지만 고립어에서 융합어 유형으로의 변환은 사피어(Sapir 1921)의 용어를 빌어 분석적(analytical), 그리고 통합적(synthetic)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이를 일반화할 수 있다. 여기서 분석-통합 연속체로서의 언어표현이라는 일반 전체가 나온다(Gabelenz 1901:84-125, Lehmann 1980 §1-2, Haspelmath & Michaelis 2017). 나이저-콩고어족 언어들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권명식 2022), 어휘에서 문법으로 이행되어 나가는 변이들 사이에는 대강 7가지 단계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었다.⁶⁾ 그것은 무표 불이행 범주 > 동사연속 계열동사 구문 > 조동사 구문 > 기능어 및 형식어 표현 > 술어표지 구문 > 접사구문 > 융합 통합구문이 그것이다. 각 항목별로 그 구문의 주요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아래 §3.1에서 §3.7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3.1 무표 불이행 범주

동사어근 만 나타날 뿐 관련 문법범주에 대한 적극적 표시가 없다. 그러므로 무표(unmarked), 불이행(default) 범주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유표항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와 대립되는 문법기능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 예컨대 ‘I sometimes walk to school.’에서 동사 walk는 아무런 문법표지 없이 어휘로만 실현된다. 하지만 맥락에 따라 현재시제로 해석된다. 이는 ‘I walked to school yesterday.’에서 {-ed}라는 과거표지와 대립관계에 있으므로 무표 불이행 범주는 제로(Ø) 형태소로 불린다. ‘She walks to school.’에서 walks와 대립관계에서 무표항은 3인칭이 아닌 1, 2인칭 현재로 해석된다. 이는 영어 동사문법범주의 유표화과정을 보여준다. 적극적 문법범주가 형태적으로 표시될 때 기존의 무표 불이행 범주의 기능이 이와 대립되는 용법으로 새롭게 부각되게 되는 것이다. 무표-불이행 표지는 다른 문법범주 도출의 기본 출발점이 되므로 문법범주체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해 들어가는 기본이 된다. 이는 단일 언어 내에서 뿐만 아니라 타 언어들과의 비교차원에서도 유효하다.

단어구조 기반 형태유형론에서 고립어들은 무표 불이행 패턴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것이 그런 언어들을 고립어로 규정하게 한다. 아프로-아시아 어족 언어들에서도 통계적 출현빈도와 무관하게 이런 구문이 나타난다. 아래 (1)은 중기이집트어 이중타동문이다. 명사문법범주인 인칭, 격표시와 달리 동사인 경우는 아무런 문법표시 없이 홀 동사어근 {Rdj} ‘give’만으로 실현된다. 현재, 미완료상, 직설법(TAM), 술어가 2, 능동태, 진술, 긍정(VIP) 등의 동사문법범주들은 모두 제로 형태소(Ø), 요컨대 무표 불이행으로 나타난다.⁷⁾

6) “동사라는 어휘와 문법범주라는 시제, 상 등의 개념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문법화정도가 있다. 문법화의 정도(Lehmann 1995:123)에 따라 연속체를 이루는데 편의상 그 중간에 몇 개의 단계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동사연속과 계열구문은 동사(어휘)의 병렬이고 조동사 구문, 술어표지에 이어 접사형태로 문법범주가 표시되며 마침내는 동사 굴절로 패러다임 상으로 나타나는 통합형태가 문법화 최대지점이다. 문법구조의 정교화, 다각화과정은 통시적으로 유표성 개념(권명식 2021a)으로 설명된다. 무표적 어휘표현에서 대립되는 유표개념과 범주들이 분기되어 나온다. 마지막으로 복잡성 정도(권명식 2020 §3.1)에 따라 통시적으로 구문들이 비교될 수 있다. 이는 분석적 우연구문에서 통합적 굴절패러다임으로의 변화에서 그 복잡성 정도가 양극화된다.” 권명식 2022:46.

7) 무표항을 기본형으로 하여 유표항이 도출된다. 완료상(아래 3a), 미정형(Infinitive form)에 주어색인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어논항이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로 실현될 때이다(§5.1.1, (19a)). 수동태는 능동태에 대한 유표항이다(§5.1.1, (20)). 이는 양극성(긍정/부정), 법(직설법/가상법), 언표(진술/질문), 술어가-변동으로 확대된다.

(1) Middle Egyptian

Rdj sn-j t n nds
 give brother-1S POSS bread DAT poor.man
 'My brother gives bread to the poor man'

Bakir 1984:125, Claudi 1994:221

3.1.1 유표표현 등장과 양분법적 확장

긍정법과 부정법 대립은 가장 빈번한 무표/유표 대립의 예이다. 영어에서는 긍정법에 대립되는 부정법은 'I *do not* walk to school today.'에서처럼 조동사(do)와 부정표지 not이 수반된 유표구문이 나타난다. 양극성 범주의 긍정/부정 대립은 1차적 범주분기과정으로 나타낸다. 능동태/수동태, 미완료상/완료상, 현재/과거시제 등은 언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1차적 범주양분패턴이다. 아래 예문 (2)는 셈어에 속하는 아랍어 기반 피진-크리올로 남수단에서 쓰이는 누비어이다. (2a)는 무표 불이행 표현으로 동사 어근 {amsuku}만으로 실현된다. (2b, c)로 가면 미래시제[+FUT]와 진행상[+PROG]이 유표범주로 등장하여 무표항과의 양분 대립적 패러다임을 형성한다. 그 결과로 (2a)는 -FUT(현재 혹은 과거 등), -PROG(완료상 등)로 분화된 의미를 얻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2차 유표적 확대과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미래진행[FUT-PROG]이라는 복합 범주(시제와 상 범주)가 연이어 연결되어 실현된다(2d). 아랍 피진-크리올 누비는 문법범주의 생성과 진화 그리고 유표화 확대과정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2) Nubi (verb paradigm)

- | | | | |
|----|-------------------------|-----------------------|------------------------------|
| a. | <i>uwo amsuku</i> | 'He held.' | [무표 표현 Ø] |
| b. | <i>uwo bi-amsuku</i> | 'He will hold.' | [+미래/ 1단계 양분 > 무표항은 -FUT 획득] |
| c. | <i>uwo gi-amsuku</i> | 'He is holding.' | [+진행/ 1단계양분 > 무표항은 -PROG 획득] |
| d. | <i>uwo bi-gi-amsuku</i> | 'He will be holding.' | [미래시제, 진행상/2단계 유표확대] |

Owen 2014:260, 권명식 2020:16

다음 (3)은 연이어 발생한 두 개의 사건을 표현한 중기 이집트어 복문이다. 동사 다음에 오는 주어가 명사인 경우(3a 전반부 Ø)와 대명사인 경우(3a 후반부 -f와 3b -k), 동사에 문법표지가 달라지는 예이다. 명사가 오면 무표 불이행 패턴으로 동사어근만 나타나지만(3a), 주어가 대명사이면 유표로 예컨대 동사접미사 {-f} 혹은 {-k}가 온다(3b). 요컨대 주어인칭(성, 수) 색인이라는 동사범주의 실현여부가 논항자질(명사/대명사)로 나뉘고 있다.

(3) Middle Egyptian

- a. *h.f. sbkw, h.q3.-n-f pt*
 appear Sobek rule-PRF-3SG sky
 'Sobek has appeared, he has begun to rule the sky.'

- b. *š.m-k h.nf.-sn r h.nw*
 go-2SG.M with-3PL to home
 'You will go home with them.'

Allen 2000:248, 265 Haspelmath 2014:11-12

3.2 동사연속과 계열동사 구문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동사가 나타나지만 명제의미로는 하나의 상황을 표현하는 구문이 있다. 복합동사 구문(complex verb construction) 혹은 계열동사 구문(serial verb construction)⁸⁾으로 알려져 있다(Stewart 1963, Stahlke 1970). 이때 이 중 하나의 동사가 형태는 남아있으나 그 의미 및 기능은 추상적

문법범주의미로 진화하여 다양한 문법기능을 수행한다. 형태가 여전히 일반 동사 모습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어휘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공존하므로 어휘에서 문법으로 진행되는 문법화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고립어유형에서 흔히 나타나기에 아프로-아시아어족 언어들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아래 예문 (4)는 힌디/우르두, 벵갈리, 말라얄람, 페르샤, 싱알리, 편자비 등의 기층어들 기반으로 형성된 절프 아랍 피진어 문장으로 두 개의 동사가 한 문장에 온 사례이다. 서아프리카 계열동사구문에서 동사문법범주로 진화하는 것과 달리 여기서 동사들 간의 해석은 부문장 속 목적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V1, V2가 그저 병렬되는 복합동사구문으로 볼 수도 있다. 요컨대 ‘가서 일하다’라는 연속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일하러 간다.’라는 단일문의 목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 두 동사들 모두 주어 및 사건관련 동사범주표지가 없다.

(4) Gulf Pidgin Arabic

Ana jawd bā.dē.n ysī.r Jakarta stokol

1SG husband then go Jakarta work

‘Then my husband went to work in Jakarta.’

Næss 2008:87, Avram 2020:340

요루바, 에베 등 서아프리카 고립어 유형에서는 흔히 계열동사에서 동사범주가 문법화되곤 하지만 아래 (5) 누비에서 보듯 피진 아랍어에서는 다른 품사 예컨대 부사(usually, already)와 같은 어휘로부터 습관상, 혹은 완료상이 문법화되고 있다.⁹⁾ 요컨대 문법범주의 기원이 반드시 동사일 필요는 없음을 보여준다.

(5) Nubi a. *uwo zaidi arufu majibu*

3S usually/HAB know answer

‘S/He usually knows the answer’

b. *uwo ruwa ina kalas*

3S go there already/PF

‘S/He went there already’ or ‘S/He has gone there’

Khamis & Owens 2007:203

한 문장 안에 동사가 2개 이상 배열된다는 의미의 계열동사구문은 피진-크리올어에서만 발견되었다. 다음 (6)은 셈어인 아랍어에서 진화된 누비어 자동문으로 이동 동사 ‘come/go’가 미래 혹은 전망의미를 담는다. 미완료상으로 이미 정착된 {gi~gu} 형태는 ‘앉다’라는 동사의 분사형 *Gaaʕ.id* ‘sitting’에서 문법화된 것이다. (16b)에서 두 개의 동사 {go/do}가 나타나 각각 미완료 상-표지를 수반했으나 미래, 전망의 의미가 두 동사로 표현되고 있다.¹⁰⁾

(6) Nubi a. *úuwo gi ja káatif.*

8) 언어유형비교에서 계열동사구문은 비슷한 다른 구문들로부터 구별할 수 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준들 (Haspelmath 2016:296)이 제시된다. 동사가 여럿이지만 한 문장내에 단일 명제를 구성하여 복문과 구분되며, 동사들은 별도 단어들로 이루어져 동사복합어(verbal compounding)와도 구분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사들 사이에 연결요소가 결여되어 연속동사(converb)와 다르다(한국어 건너가다 < 건너다+가다). 동사들 사이 술어논항관계가 아니므로 종속절 혹은 조동사구문(§3.4)과도 구분된다. 굴절-융합어인 아프로-아시아어족에서는 이 기준에 꼭 들어맞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어 보다 넓은 의미의 복합/계열동사구문 차원(Aikhenvald 2006)에서 논의하였다.

9) 이 구문은 엄격히 말하면 계열동사구문은 아니지만 문법화가 완성된 단계에서의 의미 분석을 하면 HAB...V, V...PF로 실현되어 어휘와 문법범주가 분리되어 실현된 것으로 기능어 형식어전략(§3.4)과 술어표지전략(§3.5)이 중첩되는 양상을 보인다.

10) 이 구문도 엄격한 계열동사구문으로 볼 수 있을지의 의문은 남는다. 미완료-상 표지를 각각 수반하였기에(6b) 조동사구문(§3.3)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SG IPF come write

S/he will write (on a specific occasion).

b. *rutáan gu rwa gi so sunúu?*

language IPF go IPF do what

What is the [Nubi] language doing gradually? Kihm 2015:10, 2011:51

3.3 조동사 구문

계열동사 구문에 보다 더 문법화되어 문법범주표시가 복잡해진 구문이 조동사구문¹¹⁾이다. 이는 본동사보다 더 추상적인 일련의 동사들이 나름의 폐쇄 집합을 이루어 시제와 상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영어의 화법동사(will, would)나 일반 조동사(do, have)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음 (7)은 표준 아랍어 조동사 구문인데 필연을 나타내는 서법조동사가 본동사와 함께 3인칭 주어색인이 함께 오고 있다.¹²⁾ 조동사는 본래의 어휘의미와 새로운 문법기능이 혼합된 형태로 실현되어 다음에 소개할 기능어(§3.4)나 술어표지(§3.5)와 구분된다.

(7) Standard Arabic

ya-zibu ʔan ya-drusa l-ʔawlaad-u

3-must that/COMP 3-study.SUBJ. the-boy.PL-NOM

'The boys must study.'

Aoun et al. 2010:17

조동사 구문은 조동사와 본동사의 지위에 따라 보다 다양하게 세분화될 수 있다. 예컨대 같은 셈어지만 아랍어와 달리 암하라어(8)에서는 어순도 다르고(V-aux) 표시된 문법범주 범위도 다르다. 본동사는 동명사(VN verbal noun)로 바뀌고 존재동사가 와 존재 구문 형식을 띄지만 전체의미는 필연(OBL obligatory) 서법 기능을 한다. 본동사에는 목적어색인(O), 완료상(PFV) 등 복잡한 범주표시가 접미사로와 조동사와 차별화된다. '있다'와 '가다'라는 두 개의 동사가 이어지는 조동사구문이 타동화와 명사화과정으로 진행된 특이구문이다.

(8) Amharic *māhed allä-bbi-nn*

go-VN exist.PFV.3MSG-OBL-1SG.O

'I have to go.'

Crass & Meyer 2008:245

다음 (9)는 북 쿠쉬어어인 베자 조동사구문이다. 어순은 V-aux이지만 파생어미, 목적어색인이 본동사에 접미사 혹은 후철로 오고 그 다음에 미래, 전망을 나타내는 시제, 상의미가 이동 동사 come으로 표현된다. 영어와 달리 본동사에 보다 많은 동사범주가 표시되고 조동사에도 상과 주어색인이 표시되고 있어 위에 제시한 아랍어와 암하라어와 다른 조동사구조를 보여준다.

(9) Beja *hinin rhi-is-at=ok*

enej

1PL.NOM see-CAUS-POT=POSS.2SG.ACC come\IPFV.1PL

11) 동사에서 통시적 변화를 거쳐 문법기능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양태 축으로 하여 그 가운데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틀어 조동사요소로 보는 시각이 있다(Heine 1993, Kuteva 2001, Anderson 2006:7, 2011:2).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휘의미가 없는 술어표지(§3.5), 혹은 기능어(§3.4) 등이 조동사범주에 포함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을 각각 분리하여 구문의 표현패턴을 차별화했다.

12) 아랍어 구문은 영어와 달리 조동사에 주어색인을 할 뿐만 아니라 조동사-본동사 사이가 보어사 that로 분리되어 복문모습을 하고 있다. 'must study'라는 영어 조동사 표현과 달리 aux-V 응집력이 떨어진다.

SBJ.PRO V2-V2.DER-N.V=PRO

AUX.POT

‘We are going to show you!’

Vanhove 2014:32

3.4 기능 형식어 전략

베트남어나 요루바어 같은 전형적 고립어유형에서는 계열동사구문과 함께 문법범주를 하나의 형식어로 어휘처럼 표현하는 전략이 흔히 나타난다.¹³⁾ 굴절어 유형의 아프로-아시아어족 언어들에서도 그 같은 표현전략이 나타나는 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단어구조로 한정되는 유형분류가 언어체계 전반에 걸쳐 작용되는 지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굴절어에서는 그런 표현전략은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다만 이를 어휘제공어로 하여 새롭게 생성된 피진-크리올에서 연속동사구문처럼 나타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예컨대 아랍 피진-크리올인 누비에서는 부정범주를 단 하나의 형식어 {*mata*} 혹은 {*la*}로 표현되고 있으며, 진행상은 ‘stay’의미의 동사 {*gaafid*}가 그대로 문두에 오고 있다 (10c).

(10) Nubi a. *mata aš.urubu*

NEG drink ‘Don’t drink.’

b. *la ta-msuku*

NEG you-hold ‘Don’t(2M.PL) hold’

c. *gaafid b-i-msuk-u*

PROG INDC-PV-hold-M.PL

‘They are holding.’ (right now)

Owens 2014:256, 259, 261

3.5 술어표지 구문

주어와 동사 사이에 불연속 불변사가 등장하여 동사의 문법범주들을 포함시키는 전략이 술어표지 구문이다(Kwon 2018:7). 이는 아프리카 대륙 중부지역에 동서로 널리 분포되어 아프로-아시아어족 언어들 중 특히 남쪽에 위치하여 내륙 인접 언어들과의 접촉이 있는 언어들에서 흔히 나타난다. 술어표지 안에 어떤 문법범주들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분리되어 연이어 나타나는 지 등에 따라 더 세분화될 수 있다. 남부 쿠쉬어에 두루 나타나는데 동사선행 분절군(clitic cluster)으로 불리기도 했다(Kießling 1996, 2000). 아래 (11)은 동 쿠쉬어 아르보레 타동문인데 한정, 직설법과 함께 주어 인칭, 수 범주가 동사와 분리되어 표시되어 있다. 이 중 직설법이 동사범주이고 인칭, 수는 주어 색인이다.

(11=52) Arbore *mo 't-y kor kúure*

man DEF.IND-3SG tree cut:3SG.M:PERF

‘The man cut the tree.’

Hayward 1984:110, 권명식 2019:9

또 다른 남-쿠쉬어 알라그와 타동문이다. 주어와 술어 사이에 별도 기능어 {*loso*}가 오는데 그 안에 기원(법), 수혜(술어가), 목적어색인 등의 문법범주들이 포함된다.

(12) Alagwa *kúu lo-s-o hhab-it Juma*

2SG.M OPT-BEN-O.M tell-2SG Juma

‘You should tell Juma.’

Mous 2005:306, 권명식 2019:10

13) 예컨대 복수, 혹은 과거시제 같은 문법범주가 단일형태소이자 단어(형식어)로 동사와 분리되어 실현된다(cf. Aikhenvald 2007:3).

술어표지구문은 송가이, 만테, 크루 등 서아프리카 수단벨트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인접해있는 차드어인 하우스가 가장 유사한 구문양상을 보인다. 주어의 인칭, 성, 수(PGN) 범주와 동사의 완료상이 하나의 형태소 {yaa}로 융합되어 있다.

(13) Hausa *Abdū yaa karyà Kafār teebūr.*

Abdu 3MS.PERF break-I leg-of table

'Abdu broke the table's leg.'

Abdoulaye 2011:43, Kwon 2018:7

3.6 접사구조

동사어근을 중심으로 전후에 문법기능을 담당하는 구속형태소가 붙는 방식¹⁴⁾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전략이다. 고립어 유형에서도 간간히 나타나며 첨가어 유형 언어에서는 형태소경계가 투명하여 1:1 대응원칙을 따르며 융합어로 가면 한 형태소에 여러 범주들이 포함된다. 접사가 하나로 국한되지 않고 연이어 여러 차례 첨가되곤 한다. 또 다른 예문을 제시할 것 없이 이미 제시한 중기 이집트어의 경우(3b) 인칭, 성, 수를 나타내는 주어색인이 동사 접미사로 실현되고 있다. 누비 동사 패러다임을 보면 시제, 상이 접두사로 실현된다(2). 암하라 예문 (8)에서는 동사에 필연을 나타내는 서법(OBL)과 목적어 표지(O)가 동사 접미사로 실현된다. 접사 전략은 아주 혼란 것으로 북 쿠쉬어인 베자(9)에서는 사역을 나타내는 파생어미(CAUS)와 전망/가능성(POT), 그리고 여격표지가 모두 접미사로 실현되고 있다. 술어표지가 있는 알라그와에서도 정작 본동사에서 주어표지(인칭, 수)는 접미사로 실현된다(12). 접사전략은 아주 보편적인 것이기에 특이한 유형전략으로 보기 어렵다. 접사지만 여러 굴절범주들이 융합된 경우가 있어 형태소 분절이 불가능한 경우가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난다. 통합과 융합성 척도¹⁵⁾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굴절-융합어 유형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난다. 아프로-아시아어족 언어들이 대개 이 유형에 속한다.

3.7 통합 및 융합구조

교착어에서 융합굴절어를 구분할 때 범주의 융합이 중요하다. 형태소와 의미의 대응이 1:1이 아니며¹⁶⁾ 분절도 불가능하다.¹⁷⁾ 아래 (14)는 표준 아랍어 자동문과 타동문인데 동사에 인칭, 수, 성이 주어

14) 어근의미와 이에 관련된 문법기능이 한 단어로 실현되는 것이 가장 도상적(iconic)인 효율방식이다. 고립-분석어형에서는 이게 분리되어 나타나며 문법기능은 하나의 음운단어로 실현된다. 접사와 어근 사이에 음운변화(조화, 동화, 탈락, 삽입, 이화 등)가 나타나면 이들 사이 응집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Bickel & Nichols 2007:181). 첨가된 접사가 오직 하나의 기능만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여러 문법범주들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단어의 통합성 정도가 달라진다. 통합성이 극대화되면 어휘요소까지 병합하는 다중통합(polysynthetic) 유형이 나타난다(Aikhenvald 2007:8). 구속형태소가 하나의 어근으로 국한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게 구, 혹은 다른 어휘들에게 까지 붙을 수 있게 되면 이는 접사가 아니라 분절(clitics)이라는 다른 형태의 접속전략으로 넘어간다(Bickel & Nichols 2007:174-180).

15) 통합성척도는 분석과 통합의 정도를 말한다. 한 단어 안에 문법요소 및 어간등의 어휘의미를 얼마만큼 포함하느냐에 따른 분류로 분석어는 아무 것도 포함하지 않고, 반대로 다중통합(polysynthetic)에서는 그 포함정도가 극대화된다(Aikhenvald 2007:8). 한편 단어구성성분의 융합정도에 따라 융합성척도가 나타난다. 고립-첨가-굴절이라는 전통적 구분이 있으나 이를 고립-교착(concatenative)-비선형(nonlinear)으로 조정한 구분이 있다(Bickel & Nichols 2007:180). '굴절'이라는 용어가 '파생'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이므로 융합이라는 말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융합'이 한 어간이 포함하는 요소들의 량을 측정하는 형태유형론에서 쓰이므로 '굴절'이라는 전통용어를 쓰되 inflection이라는 용어와 차별하여 flexive(독일어의 flektierend)라는 말로 대체하여 쓰기도 한다(ibid.184). 한국어에서는 '굴곡'이라는 비슷한 표현이 있으나 유형논의가 거의 없는 편이므로 현재로서는 그냥 '굴절'이라는 알려진 용어를 조금 다른 의미로 써도 될 듯하다.

16) 형태와 의미/기능의 1:1 대응은 첨가어의 특징인데 굴절어에서는 패러다임 개념이 중요하다. 하나의 어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형태들이 범주의 차원에 따라 패러다임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특정형태는 여러 범주 혹은 기능을 나타내며, 반대로 하나의 범주 혹은 기능은 다시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그 전모를 한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형변화표라는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수평적 선형모형에서 나타나는 첨가방식과 구분하여 비선형(nonlinear)라는 용어가 쓰인다(Bickel & Nichols 2007, §1.3.3).

17) 분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첨가어에서 어근과 접사간의 음운변화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굴절어인 경우에는 대개 어간의 차이에 따라 어형변화가 달리 나타난다(독일어의 강변화와 약변화, 혹은 라틴어의 명사의 여러 변화 패턴 부류). 요컨대 굴절어의 어형변화는 어근의 부류에 따라 각기 다른 어형변화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이 교착

와 호응하여 표시되지만 그 형태를 따로 분절할 수 없다. 동사어근의미와 융합되어 있다(14a). (14b)에서는 인칭, 수, 성은 분류되지만 어근에 과거시제가 융합되어 있다. 예문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굴절-융합어에서는 계열관계에서 나타나는 어형변화 패러다임이 있다. 그것은 2차원, 혹은 3차원 문법 범주에 따라 칸(세포 cell)을 형성하여 개개 형태가 실현된다. 그것도 중첩과 융합이 함께 나타나곤 한다. 이런 패러다임 구조와 융합이 아프로-아시아어족 언어들에서 전형적으로 널리 나타나고 있다. 세세한 사항은 다시 개별 분과 언어들을 다룰 때 보다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14) Standard Arabic

- a. *daxala l-walad-u*
entered.3M.SG the-child-NOM
'The child came.'
- b. *katab-uu l-kitaab-a ʔams*
wrote-2M.PL the-book-ACC yesterday
'They wrote the book yesterday.'

Aoun et al. 2010:18, 22, 권명식 2019a:6

4. 동사문법범주의 구분과 세분화 양상

동사문법범주로는 시제, 상, 법(TAM)이 대표적이지만 이외에도 술어가/태, 색인/언표 그리고 양극성(VIP) 등 아주 다양하다. 동사의 어휘에 직결된 것이 있는가 하면(예컨대 어휘상/Aktionsart) 여기서 벗어나 주어진 상황에 대한 화자의 판단, 인식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당위/인지 서법),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 개입된 참여자들에 관한 정보(동사호응 색인) 및 정보출처까지 포함하는 범주들도 있다(증거성). 아프로-아시아 어족에 속한 언어들의 세부 내용을 유형적 특이성을 바탕으로 비교, 논의하려면 일반적인 비교 기준이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유형특이성 혹은 다양성 논의가 가능해진다. 세 개 항목으로 나누어 동사문법범주의 성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4.1 시제, 상, 법(TAM)

TAM 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aspect)이다(Comrie 1976, Bybee & Dahl 1989). 상은 동사의미로부터 나오는 여러 특질들 특히 시간구조와 관련하여 범주화된 것들이다(Jakobson 1971[1956]:134, 권명식 2022:10). 그러므로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상황에 대한 어휘적 분류가 논의에 도움 된다(Desclés & Guentcheva 2012:12). 언어자료를 기반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과정을 거쳐 동사가 상태, 행위, 완성 그리고 성취 동사로 분류한 벤들러(Vendler 1957) 것은 흔히 상태, 행위, 과정, 사건으로 구분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순간, 지속, 종결, 역동 여부에 따라 벤들러의 구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차별화되었다(Dowty 1972). 동사의 이와 같은 속성으로 말미암아 보다 명시적 범주인 상의 문법화가 나타난다. 한 번에 모든 체계가 주어지기 보다는 순차적으로 일반적 진화경로를 따라 상-범주가 정교화 된다는 사실은 문법화이론으로 그리고 구체적 데이터 비교 분석으로 어느 정도 정립되었다(Lehmann 1995[1982]:37, 권명식 2022:10-11, 48). 완료/미완료 구분이 일차적인데 미완료가 무표향이고(Bybee 2006:184f) 종결된 상황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완료상이다. 상-주도 고립어에서 이 같은 과정이 확인된다. 피진-크리올에서 나타나는 문법범주 형성과정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컨대 다음 표.1은 수단 아랍어의 동사 *masak* 'take'의 3인칭, 남성, 단수/복수, 완료, 미완료 변화 표이다. 형태적으로 완료형이 접사 없이 어근만으로 이루어져 보다 단순한 형태이다. 미완료가 되면 어근 모음이 하나 탈락되면서 모음시리즈가 a-a-에서 ø-u-로 바뀌었고, 여기에 접두사 형태가 첨가되어

어와 크게 구분되는 점이다. 이런 굴절어 특징을 'flexivity' 혹은 'introflexive'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Bickel & Nichols 2007, §1.4).

유표형태임을 보여준다. 형태차이에서 보듯 의미면에서도 수단-아랍어에서는 완료가 무표형이다.

표.1 수단 아랍어 동사 어형변화

	미완료(단수,	복수)	완료(단수,	복수)	의미
3M	<i>b-i-msuk</i>	<i>b-i-msuk-u</i>	<i>masak</i>	<i>masak-u</i>	'take'
3M	<i>ya-drus</i>	<i>ya-drus-u</i>	<i>daras</i>	<i>daras-u</i>	'study'

Dickins 2007, Kihm, n.d.:7

시제18)는 개념적으로 정의할 때 비교시점을 바탕으로 언제 사건이 발생 했는지를 나타내는 직시문 범범주인데 일차적 분화는 현재를 무표로 하여 미래, 혹은 과거가 구분된다.19) 예컨대 상과 시제는 언어마다 확연히 배타적으로 분리되기도 하지만 종종 서로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하우스 상, 시제를 설명하는 아래 인용을 보면 이를 하나로 묶어 3개의 상과 2개의 시제로 설명하고 있다.

“The basis of the Hausa conjugation is a three-way aspectual contrast between the Perfect (PFV, with a completive meaning), the Continuous (CONT) and the Subjunctive (SBJV). Added to this three-way contrast, Hausa has two Futures - a (simple) Future (FUT) and a Potential or Indefinite Future (FUT.INDF) - a Habitual (HAB), and a Rhetorical (RHT).” Caron 2013:5.

요컨대 완료, 지속(미-완료상), 가상, 미래,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완료/미완료(지속)는 상-범주이고, 가상은 범-범주이며, 미래만이 시제이고, 가능성(Potential)은 서범범주이다. 결국 시제부분은 현재시제 무표형을 기반으로 한 미래시제만 있을 뿐이다(±FUT). 시제의 일차구분을 과거로 하는 언어들도 있다(±PST). 범-범주20)는 직설법/가상법이 일차적이다.

4.2 술어가/태(V, valence/voice), 색인/언표(I, index/illocution) 그리고 양극성(P, polarity)

술어(valence)는 동사의 어휘 의미에 따라 0, 1, 2, 3으로 분류된다. 요컨대 동사로 표현되는 상황이 몇 개가 논항들을 본유적으로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술어가 달라진다. 제로-술어가는 비인칭구문으로 논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거나 가상 주어로 실현된다. 소위 3-술어의 여격구문이 사역화되면 참여논항은 4개로 증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본래 동사가 지닌 고정된 술어를 변동시키는 기제(valence-changing devices)에 따라 수가 감소되기도 하고 증가되기도 한다. 상태형이나 수동표지는 술어가 감소기제이고, 지향과 사역은 술어가 증대기제이다(Shibatani 2004). 이는 언어에 따라 파생적 성격을 띠는 경우와 굴절 성격을 지닌 경우가 있다. 태(voice)21)는 주어진 사건의 전개 방향에 따라, 보다

18) “시제(tense)는 상과 달리 비교기준이 요구되는 직시범주이다(Comrie 1985, Chung & Timberlake 1985, Dahl 2004). 상에서 무관했던 발화상황이 개입되어 발화시점(S, utterance/speech time)이 보통 그 기준이 된다. 기술된 상황이나 사건의 전후, 혹은 동시성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시제가 결정된다. 이 기준점은 발화점과 달리 과거, 혹은 미래로 이동될 수 있는데 이때 발화시간과 구분되는 기준시간(R, reference time)개념이 구분된다(Reichenbach 1947, Comrie 1981). 또 다른 경우 반투어에서 흔히 그러한데 발화시점에서의 거리(remoteness)에 따라 목전, 근접, 혹은 먼 시제가 과거 혹은 미래로 확대된다(Botne 2012). 시간흐름의 일직선상에서 전후가 아니라 직시중심으로부터의 거리만으로 시제가 결정된다(Botne 2003). 직시 중심이 현재의 발화상황 내부에 있을 수도 있으나, 때로는 여기서 분리되어 다른 차원으로 이동되고 그곳을 기점으로 하여 거리원근이 다시 결정되기도 한다(Botne & Kershner 2008).” 권명식 2022:11.

19) 시제의 1차 구분의 기준이 영어에서처럼 과거[PST]인 경우와 달리 앞의 누비어 예 (2b)에서 보았듯이 미래[FUT]가 그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무표형은 미래가 아닌 비-미래, 요컨대 현재/과거를 다 담게 된다.

20) “법(mood)과 서법(modality)은 상이나 시제와 달리 기술된 사건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실세계에 나타난 정보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 범주이다(Lyons 1977, §16-17, Palmer 1986, Hengeveld 1988). 이를 특히 서법이라 하는데 법(mood)에서는 문장에서 표현된 명제내용이 사실인지(REALIS) 아니면 가상(IRREALIS)인지를 보통 직설법(indicative mood) 혹은 가상법(subjunctive mood)으로 구분하여 표현한다(Lyons 1977:848).” 권명식 2022:11. 국내 연구서에서 modality를 ‘서법’ 대신 ‘양태’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21) “태는 동사로 표현되는 행위/상태와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행위자가 주어이면 능동태, 피해자가 주어이면 수동태가 된다. 주어가 행위자이며 동시에 행위대상이면 중간 태이다(Rutger 2013, cf. Shibatani

정확히 표현하면 코딩주체인 화자의 주의흐름(attention flow)에 따라 상황이 행위자에서 피해자로 가는 것($A > P$)으로 코딩된 문장이 무표인 능동태이고, 그 반대($P > A$)가 수동태이다. 그 중간에 중간(middle)태, 재귀, 상호, 반수동 등의 태-범주들이 더 세분화된다. 언표(illocution)²²⁾는 발화자의 발화행위(speech act)가 문장에 문법표지로 나타난 것으로 명령, 진술, 질문 등이 대표적이다(Hengeveld 2004). 색인(index)²³⁾은 보통 호응으로 알려져 있다. 문법관계를 나타내는 두 가지 형태표지 기제 중 의존소표시는 격-표지이고 중심표지 전략은 주어 및 목적어 등 논항과의 호응으로 나타난다. 이 문법범주는 본유굴절보다 더 문법화된 관계 맥락굴절요소로 문법화의 정점을 찍는다. 호응은 논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개념이지만 동사표지 중에는 논항과 무관한 것들 요컨대 대명사 논항들이 있기에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색인’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었다(Haspelmath 2013). 마지막으로 양극성(polarity)은 사실여부(truth value)를 그대로 표현하는 긍정(positive/affirmative)과 이를 부인하는 부정법²⁴⁾이 있다(Bhat 2004).

4.3 문법화와 복잡 유표화 과정

문법범주의 생성과 진화과정은 무표 불이행(unmarked default) 상태에서 유표적 범주의 출현과 이에 따른 양분 대립, 요컨대 유표성 이론으로 설명된다(Jakobson 1957, Aissen 1999, Haspelmath 2006, 권명식 2021a:73). 이 과정은 어휘에서 문법범주로의 점진적 진화과정, 요컨대 문법화 이론(Kurylowicz 1965, Lehmann 1995[1982], Heine et al. 1991, 권명식 1995)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 문법화 과정은 구조의 정교화, 혹은 공식적으로는 복잡성 척도(Miestamo 2008, 권명식 2022:10)로 설명될 수 있다. 반대로 복잡-정교화 된 통합/융합구문이 언어 외적 요인인 화용화(Kwon 2017, 권명식 2017)와 접촉에 의한 구조복제(Heine & Kuteva 2005)에 따라 보다 간단하고 투명한 분석적 단순구문으로의 구조변화로 나타나기도 한다. 유형비교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구조 단순성 개념(McWhorter 2001, Leufkens 2013, 권명식 2020a:87)을 바탕으로 그 특이성이 설명될 수 있다. 아아어족 언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언어 데이터와 관련지어 아래 §5에서 개별 분과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5. 개별 분과 사례

아프로-아시아 어족(권명식 2003:1120-1124)에 속하는 언어 총수는 371개 이다(Grimes 1996, Hayward 2000)²⁵⁾. 이중 쿠쉬어와 차드어가 ¼을 차지한다. 그린버그의 분류(Greenberg 1963)에 따라 이 어족은 5개 하위 어군들인 고대 이집트어, 베르베르, 쿠쉬, 셈어, 그리고 차드어로 나뉜다. 후일 플레밍의 연구(Fleming 1976)에 의해 새로 추가된 오모어가 있다. 아프리카-아시아어족은 다른 아프리카 어족과 비교하여 여러 면으로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예컨대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자와 더불어 많은 문헌을 보유하고 있다. 셈어에 속하는 아카드(Akkadian)어²⁶⁾는 기원전 3,000년에 이미 글자를 보유했고 고대 이집트어는 그보다 더 오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일하게 이를 앞선 언어로 기원 불명의

2004). 동사에 태-구분 표지가 있으면 voice, 동사에 형태표지 없이 어순이나, 주제배분으로 구분될 경우 디아테시스diathesis로 구분하기도 한다. 태는 언어구조의 층위에 따라 언어별로 달리 실현되는데 굴절어는 다른 범주와 혼합된 형태로, 첨가어(반투)는 단일 확장표지로, 고립어(만테/꾸아)에서는 표지 없이 의미역에 따른 어순차이로 보통 구분된다.” 권명식 2022:17.

22) “언표범주는 화자에 의해 표현된 언어행동, 예컨대 진술, 명령, 질문이 문법화된 것이다. cf. ‘the category of illocution is concerned with identifying sentences as instances of specific types of speech act’ Hengevelt 2004:1190. 서법과 마찬가지로 언표도 굴절/파생, 조동사, 기능어, 풀어쓰기 이외에 어조나 어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어조나 어순은 형태비교에서 제외된다.” 권명식 2022:11.

23) “색인(indexing)은 주어/목적어 등의 문법관계를 중심인 동사에 표시하는 것으로 호응이 대표적인데, 호응유발 논항 없이도 가능하므로 다른 용어인 색인이 도입되었다. 절의 주변인 논항에 표시되는 격, 혹은 부치사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를 특히 부표(flagging)라 한다(Haspelmath 2013, 권명식 2018).” 권명식 2022:11.

24) “부정법(negative mood)은 긍정(affirmative)에 대립되는 양극성(polarity) 범주인데 그 적용범위(scope)가 상보다 넓다. 문장은 동사(nucleus)와 동사구(core), 그리고 절(peripheral)에 따라 그 구성이 중층화(layering)되어있는데(Foley & Van Valin 1984, §3.2), 동사문법범주 적용범위는 층위에 따라 달라진다. 상이 동사에 적용된다면 에베어 부정법 적용은 법처럼 절단위에서 이루어진다.” 권명식 2022:13-14.

25) Wikipedia(2012)에는 375개 어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인구는 5억을 상회함.

26) 고대 아카드어는 중기에 바빌로니아어로, 그리고 후기에는 아시리아어로 이어지는데 북동 셈어 분과에 속한다. 이들은 기원이 불투명한 수메르인들로부터 선행문자 체를 이어받았다.

수메르어(조철수 2003)가 있다. 베르베르어와 쿠쉬어 그리고 셈어간에 존재하는 문법 유사성으로 지난 세기부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동사 앞에 오는 인칭대명사 전철 형태이다. 이 형태는 보통 다음 표.2와같이 재구된다.

표.2 아아-어족의 인칭대명사 접사 형태(서부-셈어 조어)²⁷⁾

	Sg.		Pl.	
1P	*ʔ-	(-ku)	*n-	(-na)
2P m.	*t-	(-ta)	*t-	(-tumu)
f.		(-ti)		(-tinna)
3P. m.	*y-	(-a)		(-ū)
f.	*t-	(-at)		(-ā)

Sasse 1981:138, 권명식 2004:205

다음 표.3은 아프로-아시아어족에 속하는 3개 분파 5개 언어들의 동사활용(주어색인) 양상이다. 인칭과 성, 그리고 수에 따른 패러다임 형태가 같을 뿐만 아니라 개개 활용형태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 이는 이들 분파들이 동일 계통언어들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표.3 주요 아아어의 동사 인칭, 수, 성 활용(주어색인) 사례(Sasse 1981:138)

		셈어		베르베르	쿠쉬어	
수/인칭	성	아카드어 '떼다'	아랍어 '쓰다'	타마지트 '고치다'	베자 '모으다'	소말리어 '알다'
(Sg.)1P		<i>a-prus</i>	<i>ʔa-ktub-u</i>	<i>dawa-r</i>	<i>ʔa-dbil</i>	<i>i-qiin</i>
2	m.	<i>ta-prus</i>	<i>ta-ktub-u</i>	<i>t-dawa-d</i>	<i>ti-dbil-à</i>	<i>ti-qiin</i>
	f.	<i>ta-prus-ī</i>	<i>ta-ktub-īna</i>	"	<i>ti-dbil-i</i>	"
3	m.	<i>i-prus</i>	<i>ya-ktub-u</i>	<i>i-dawa</i>	<i>ʔi-dbil</i>	<i>yi-qiin</i>
	f.	<i>ta-prus</i>	<i>ta-ktub-u</i>	<i>t-dawa</i>	<i>ti-dbil</i>	<i>ti-qiin</i>
(Pl.)1P		<i>ni-prus</i>	<i>na-ktub-u</i>	<i>n-dawa</i>	<i>ni-dbil</i>	<i>ni-qiin</i>
2	m.	<i>ta-prus-ā</i>	<i>ta-ktub-ūna</i>	<i>t-dawa-m</i>	<i>ti-dbil-nà</i>	<i>ti-qiinn-een</i>
	f.	"	<i>ta-ktub-na</i>	<i>t-dawa-nt</i>	"	"
3	m.	<i>i-prus-ū</i>	<i>ya-ktub-ūna</i>	<i>dawa-n</i>	<i>ʔi-dbil-nà</i>	<i>yi-qiinn-een</i>
	f.	<i>i-prus-ā</i>	<i>ya-ktub-na</i>	<i>dawa-nt</i>	"	"

셈어인 아카드어와 아랍어가 베르베르, 그리고 쿠쉬어인 베자와 소말리어에 이르기까지 인칭대명사, 단수/복수에 있어 그 호응어미 형태가 유사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아카드어, 아랍어 그리고 베자어에서 단수 2인칭 남성/여성을 구분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것도 공유되고 있다. 복수로 가면 이 구분이 아랍어와 타마지트어에서만 나타난다. 5개 언어들 모두 단어구조상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데, 어근을 중심으로 접두사와 접미사가 함께 변화한다. 이 두 접사가 함께 작용하고 있으므로 접환사(혹은 양접사)라 할 수 있다. 동사 문법범주인 TAM과 VIP를 중심으로 개개 분파들(§5.1-§5.6)의 언어자료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5.1 고대 이집트어

아프로아시아어족의 한 분파를 구성하고 있는 이집트어²⁸⁾는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27) 위에 표시되지 않은 2, 3인칭 차이 및 단수 복수는 전철이외에 후철로 표시된다. 참고삼아 괄호 안에 서부 셈어 조어 형태를 부기하였다.

28) 이집트어는 본래 리비아 베르베르어와 함께 '리비아-셈어'를 구성하여 셈어와 가장 가까운 그룹으로 여겨졌었다. 이후 이주해온 셈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동쪽의 쿠쉬어와도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곤 했다(Köhler 1975:281, 권명식 1988:168-170). 그리하여 북부 언어들은 '하미토-셈'어족으로 불리곤 했는데, 그린버그(Greenberg 1955)는 '셈어'의 언어학적 규정이 모호하고 인종과 문화 등 비과학적 기준을 그 근거로 한 것을 비판하여 이 용어를 포기했다. 그리고 셈어 이외의 언어들을 베르베르, 차드, 쿠쉬, 그리고 고대 이집트어로 세분

콥트어가 사라진 A.D. 1,300년대 까지 약 4,000년 이상의 문헌을 지닌 언어이다. 이는 지구상의 7,000여 언어들 중 그 어느 것도 이런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다른 언어들은 방언들과 하위 인근 언어들의 수평적 분류가 주 관심사이지만 이집트어는 그 문헌과 함께 역사적 언어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특이한 사례이다.

이 역사적 과정은 이 언어의 구조적 차이에 따라 전기 이집트어(Earlier Egyptian)와 후기 이집트어(Later Egyptian) 두 단계로 나뉜다(Störk 1981:150, Junge 1985, 권명식 2004:207). 전기 이집트어는 통합 구조를 하고 있고 후기어는 분석적 구조이다. 2단계 전후 구분은 보다 세분화되어 5단계로 나뉘는 데 그 기준은 글자의 형태변화에 따른 것이다. 초기 상형문자와 신성문자(hieroglyph), 신관체(hieratic), 데모트어(demotic, 민간체), 그리고 그리스 알파벳을 쓰는 콥트어(Coptic)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전기 이집트어는 초기(Old Egyptian, BC 3,000-2,000), 중기(Middle Egyptian²⁹), BC 2,000-1,300로 나뉘고 후기 이집트어는 후대, 혹은 말기 이집트어(Late Egyptian BC 1,300-700), 데모트어(Demotic, BC 7c~AD 5c.), 콥트어(Coptic, AD 4c-14c.)로 세분된다(Störk 1981:149-150, Kammerzell 2000:97, 권명식 2004:207). 여기서는 전기의 중기 이집트어와 후기의 콥트어를 중심으로 동사문법범주 실현양상을 살펴보고 그 구조 차이와 그 변화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5.1.1 단어구조와 동사문법범주

이집트어는 베르베르어와 셈어들처럼 자음 골격(consonant skeleton)과 모음시리즈로 단어가 구성된다.³⁰ 어휘의미는 자음골격으로 표현되며 파생 및 굴절에 의한 문법기능들은 모음 시리즈와 자음중첩 혹은 추가 접사들로 나타내진다. 예컨대 명사, 동사, 형용사(상태 동사) 등 단어어간이 두 개 혹은 세 개 자음으로 이루어진다(√SN 'brother', √GMJ 'to find', √SNB 'to be healthy'). 아래 (15)는 목적어가 없는 자동문으로 완료상 혹은 완료시제가 /n/으로 표시 된다.³¹ 앞에 이미 제시했던 문장(1, 3)과 비교해보면 거기서는 무표 어근만 나타나 미완료/현재(1), 완료(3a) 및 미래시제(3b)가 표현되고 있다.

(15) Middle Egyptian	<i>sdm.n.f</i>	
	hear.PERF.3msg ³²	
	'he has heard'	Gardiner, A. 1957:38, Gardiner, S. 2012:4

분명한 것은 후기 콥트어로 가면 TAM표지가 접미사에서 접두사로 바뀐다. 주어색인이 시제표지보

했다.

29) 이를 고전 이집트어(classical Egyptian)로 부르기도 함.

30) 자음골격과 어근 및 어간구성 그리고 접사에 의한 문법범주표현 양상의 특이성을 로프리에모와 뮐러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Earlier Egyptian was a language of the flecional or fusional type, in which morphemes were unsegmentable units combining many grammatical functions. /./ The basic structure of an Egyptian word was a lexical root, an abstract phonological entity consisting of a sequence of consonants or semi-consonants which varied in number from one to four, /./ Superimposed on the root as a separate morphological tier was a vocalic or semivocalic pattern, which together with the root formed the so-called stem, the surface form acquired by the root; the stem determined the functional class to which the word belonged. It was transformed into an actual word by mean of inflectional affixes (in Egyptian these were for the most part suffixes), Which conveyed deictic marker and other grammatical functions such as gender, number, tense, and aspect and voice." Loprieno & Müller 2012:119-120.

31) 모음은 표기되지 않으며 자음만 상형문자나 신관체로 표기되었는데 이하 자음은 이를 토대로 국제음성기호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다. 이집트어는 사어이며 오로지 문헌을 통해서 그 소리를 추론해 내야 하므로 그 정확한 발음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아프로-아시아어족의 다른 언어들과의 대응관계를 고려하고 주어진 문헌의 글자들, 예컨대 아카드어나 그리스어 표기를 참고하여 구성한 것이다(Schenkel 1990:24-57). 단어들은 자음만 표기되는 데 그 사이 점을 찍어 어근과 접사 경계를 나타낸다. 예컨대 *sn.t* 'sister' 에서 {*sn*}은 어근으로 '누이'를 의미하고 {*.t*}는 여성을 나타낸다. 후일 콥트어로 내려가면 그리스 문자를 빌어 모음도 표기된다. 콥트어는 상류 귀족이 쓰는 사히디 방언(Sahidic)과 일반 대중이 쓰는 보하리 방언(Bohairic)이 있는데 약간의 음성변이가 나타난다. Coptic, Sahidic *tôre* '버드나무(willow)', Bohairic *thôri* (Loprieno & Müller 2012:112).

32) PERF는 완료상(perfective aspect), 3은 3인칭(3rd person), m은 남성(masculine gender), sg는 단수(singular)를 나타낸다. 이후 형태소 번역에서 f =feminine, ATTR =attributive, CIRC =circumstantial(종속접속사), Du =dual, DEF =definite, INDF =indefinite, INF =infinitive, PCL =particle, PL =plural 의 약어임.

다 어근에 더 가까운 것은 이례적이다.³³⁾

- (16) Coptic *a-f-sôtm*
 PRET-3.SG.M-hear
 'he heard' Haspelmath 2014:17

콥트어에서의 분석패턴은 시제표지가 동사로부터 분리되어 문두의 주어에 전철로 나타날 때 극대화된다. 과거표지 {a-}가 문두 명사에 붙은 것을 보면 이것이 접사가 아니라 분철(proclitic)인 것을 알 수 있다. 통합정도가 접사인 경우보다 더 느슨해졌다.

- (17) Coptic *a-p^h[nou]tⁱ t^hamio n-ni-t^hêrion*
 PST-G[o]d create ACC-DEF.PL-beast
 'God created the beasts' (Early Bohairic, Genesis 1:25) Grossman 2014:206

전기 이집트어에서 후기어로 그리고 콥트어로 가면서 동사어근과 TAM표지 그리고 주어색인의 순서가 바뀌고(어근선행 > 후행), 그 중간단계인 후기어에서는 특히 조동사가 동사에 병합되어 쓰이는 다중통합구문 양상을 띤다(18b). 부정형(AOR) 시제표지가 전기어에서는 어근에 통합되어 있으나, 주어색인은 접미사로 표시되고(18a), 후기어로 가면 이 문법요소들이 접두사로 조동사에 붙어 나타나고 주어색인은 조동사와 본동사 어근 사이에 접두사로 나타난다(18b). 마지막으로 콥트어에서 다시 본동사의 접두사로 어두요소들이 배열된다(18c). 시제표지가 주어색인보다 더 멀리 어근으로부터 떨어진 것은(16, 18c)은 공식적 관점에서는 이례적이다. 이는 동사의 어근의미에 직접 연관된 문법범주들이 어근에 가까이 오고, 그렇지 않은 것들 요컨대 호응과 같은 관계굴절들은 어근에서 멀리 배치된다는 '적합성 원칙(principle of relevance, Bybee 1985)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통시적으로 보면 조동사 구문(18b)이 콥트어에서 통합구문(18c)으로 단축되는 과정(조동사 탈락)에서 생긴 부산물임을 알 수 있다. 언어 변화는 언어내적 요인(문법화 혹은 언어처리 기제 등의 기능적 요인들, Hawkins 1994, 2004) 뿐만 아니라 언어외적 요인들 요컨대 역사와 지리적 분포에 따른 개연적 변화과정의 결과로 특이한 유형이 나타날 수도 있음(Bickel 2013, §3)을 보여주는 예이다.

- (18) VOS > SVO
- | | | | | |
|---------------------|---|--------------------|---|----------------------------|
| a. Old Eg. | > | b. Late Eg. | > | c. Coptic |
| <i>sdm.hr-f</i> | | <i>hr-jr-f-sdm</i> | | <i>ša-f-sôtm</i> |
| hear.AOR-he | | AOR-do-he-hear | | AOR-he-hear |
| 'He usually hears.' | | | | Loprieno & Müller 2012:127 |

중기 이집트어는 미완료상이 무표 불이행범주이고 유표 완료가 되면 접미사 {-n}으로 실현되며 이어서 주어색인이 나타난다(15). 적용범위가 넓은 부정표지(NEG)는 동사어근과 분리되어 비교적 자유롭게 문두에 기능어로 나타난다(19a). 이는 술어전체 내용에 대한 진실여부 판단이기 때문이다. 목적어색인은 분철성격을 띄어 동사어근 뒤에 온다(19a).³⁴⁾ 미정형(infinitive) 형태 {-t}가 있어 전치사와 함께와 진행(PROG)상이 풀어쓰기 식 우연(periphrasis) 표현으로 실현되고 있다(19b).

33) 미래가 되면 주어색인-미래-어근 순서로 되돌아간다. *te-na-bôk* 2SG.F-FUT-go 'You will go.' 과거(a-), 미래(na-)에 더하여 습관(*ša-*), 과거부정(*mp-*)이 더 있다(Haspelmath 2014:21).

34) 동사에 주어색인이 없이 목적어 색인만 오는 것은 이례적이다(통사기능 위계 원칙에 위반됨). 주어는 별도표지(술어표지와 유사함)로 실현되어 그 역할이 분담되고 있다. 색인 표시에서 주어색인이 목적어색인에 우선한다는 언어자체 구성보편원리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언어외적 요인 요컨대 역사적 우연이나 개연성에 따라 이 보편원칙을 거스르는 특이 구조가 나타나곤 한다(Nichols 1992, 1997, Bickel 2011:443).

(19) Middle Egyptian

a. *nm jw-j r w3.h.-t*

NEG PCL-1SG to stop.INF-2SG.F

'I am not going to stop you.'

Allen 2000:178

b. *m-t. wj m h3.-t r km-t*

lo-2SGF 1SG.DEP in go.down-INF to Egypt

'(Look) I am going down to Egypt.'

Allen 2000:176, Haspelmath 2014:12

중기 이집트어에서 접미사로 나타났던 시제 및 주어색인(15)이 콥트어로 오면 반대로 시제-주어-어근 순으로 접두사로 변하는 것(18c)처럼 중기어에서 접미사로 실현되었던 수동표지 {-w}가 사라지고 일반주어-어근-목적어 식으로 배열된 유사 수동구문이 나타난다(20b). 이 때에도 시제가 주어색인 앞에와 동사속성에 가까운 것이 어근 가까이에 배열된다는 적합성원리(relevance principle, Bybee 1985:38)에 어긋난다.

(20) Middle Egyptian > Coptic

a. *sd.m-w-f*

hear-PASS-3SGM

'He was heard.'

»

b. *a-u-sotm-f (AYCOTMf)*

PRET-3PL-hear-3SGM

'He was heard.('They heard him.')

Haspelmath 2014:17

중기어에서 풀어쓰기 우연형식으로 표현된 진행상(19, 21a)은 콥트어에 오면 미-완료상 무표 불이행 통합구문(21b)으로 나타난다. 어휘로부터의 점진적 문법진화에 따는 문법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구조로의 교체방식을 따른 변화로 이는 언어외적 화용요인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다시 언어구조변화가 역사적 우연과 개연성, 그리고 지리적 분포에 바탕을 둘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Bickel 2007:243).

(21) Middle Egyptian > Coptic

a. *X sw hr sdm*

he on hear

'He is hearing.'

b. *f-sôm (qCwTM)*

3SGM-hear

'He is hearing, he hears.'

Haspelmath 2014:17

콥트어 동사 복합체의 또 다른 구성 특징은 동사어근 앞에 접두사로 시제와 주어인칭 색인 뿐만 아니라 관계사 및 목적어, 심지어는 주어 명사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22).³⁵⁾ 그리하여 합병유형(incorporated type) 특질을 내보인다.

(22) Coptic *e-unt-s-ou-šeere*

REL-have-3SGF-INDF-daughter

'who had a daughter'

[ə-wənt-əs-w-ʃɛʔrə]

Haspelmath 2014:19

관계문에서 주어명사가 한정, 성과 함께 시제 등의 문법범주와 더불어 동사 어근과 분리된 술어표지를 형성하는 구문이 나타나기도 한다(23). 이는 유형적으로 대단히 이례적인 구문이다. 왜냐하면 관

35) *peče-iēsous* say-Jesus 'Jesus said.' Haspelmath 2014:19. (22) 단어의 어근은 동사이지만 관련 문법범주표시 외곽에 다시 목적어 목적어가 옴으로서 일반 단어구성패턴을 벗어나 유형적으로 희귀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계표지와 과거시제가 관계절의 주어인 명사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칭 성 수표지도 주제표현 요소에 붙어 별도 술어표지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역사적 변화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언어변화는 언어자체 보편 메커니즘과 무관하게 우연하고 개연적 사건에 의해 기이한 구조가 야기될 수 있다.

(23) Coptic *p-ent-a-môusês shai etbêêt-f*
 DEF.M-REL-PRET-Moses write about-3SGM
 ‘he one of whom Moses wr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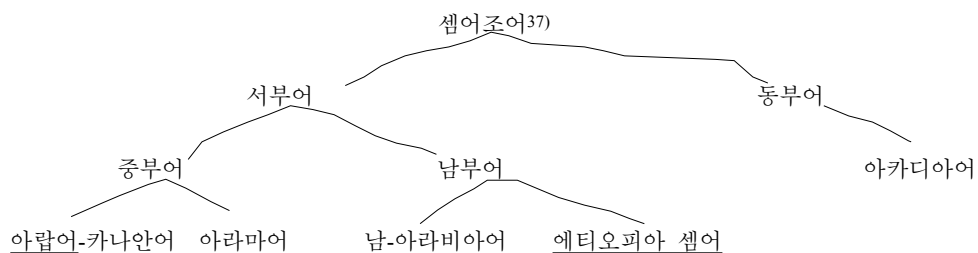
Haspelmath 2014:20

5.2 셈어

셈어³⁶⁾는 그린버그(Greenberg 1963)의 아프로-아시아어족(이하 아아어족)의 5개 분과 중 하나이다. 주로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아라비아 반도 북쪽 끝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어져 있고 반도 서쪽으로는 레반트-팔레스티나 지역과 맞닿아 있다.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오면 이집트를 거점으로 오늘날 리비아, 튀니스,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 등 북아프리카와 남쪽으로는 나일계곡, 누비아, 수단,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 아프리카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 이는 7세기 이후 계속된 이슬람의 아프리카 전파와 아랍인의 이주에 기인된다. 동북부 뿔-지역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남부 아라비아와 같은 계통의 에티오피아 셈어들이 BC 1천년 경 이주해 왔다. 이들은 특히 ‘에티오피아 셈어’로 알려져 있는 데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아랍어와 함께 셈어 구성의 양대 핵심을 이룬다(Köhler 1975:300, 권명식 1988:188).

셈어 화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문자를 개발하여 전수해 왔다. 쉐기문자로 된 문헌들이 발굴되어 이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비교는 문헌학 연구의 핵심인 동방학(Oriental Studies)으로 자리 잡았다. 아카디아어가 대표적인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빌로니아어, 앗시리아어로 내려오다가 사라지고 아라마어(Aramaic)으로 대체되었다. 이 언어는 7세기 이슬람을 계기로 부상하게 된 고전 아랍어 이전 중요 소통언어로서 메소포타미아-레반트 지역에서 쓰였다(Sasse 1981:227, 권명식 1988:187). 셈어의 계통분류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다. 셈어 조어는 동부와 서부로 나뉘는 데, 동부어는 아카디아를 말한다. 서부어들이 중부와 남부로 나뉘는데 중부 그룹에는 카나안어, 아랍어, 아라마어가 속하고 남부어는 다시 남-아라비아어와 에티오피아 셈어로 나뉜다(Hetzron & Bender 1976).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Edzard 2016:221).

표.4 셈어 계통분류



Huehnergard & Rubin 2011:262, Edzard 2016:221

남부-아라비아어와 에티오피아-셈어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여(남부어) 중부어와 차별화되는 것을 증명하는 언어적 증거는 무엇일까? 하위분류 방법의 하나인 공유된 혁신이 그 기준이다. 예컨대 남부

36) 셈어의 위치, 연구배경, 기원과 이주 경로 그리고 셈어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국내 소개서로는 권명식 2004: 222-228. 셈어에 대한 연구 개관 문헌으로는 Sasse 1981, Gragg & Hoberman 2012, Meyer & Wolff 2019 참조.

37) 셈어 기원지는 아라비아반도이고, BC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주하였고(아카디아어), 2차 서부해안 이주는 BC 2,000년 경 이루어졌으며(카나안-아랍), 마지막 남서이주는 BC 5세기경 시작되어 아랍어를 비롯하여 남부 아라비아어를 구성한다(권명식 2004:224-225).

어는 동사어간 첫 자음 다음 모음이 오지만(*yi-qattul*) 중부어는 모음 없이 자음연속으로 나타난다(*ya-qtul-u* Hetzron & Bender 1976:23-24). 또 다른 공유혁신 예로 1인칭 단수 접미사 형태에서 중부어는 {-t-}가 오는데(아랍어 *katab-tu* 'I wrote'), 남부어들에서는 {-k-}가 온다(암하라어 *s'af-ku* 'I wrote'). 2인칭이 되면 그 반대가 되어 남부어는 -k, 중부어는 -t가 온다(남부 암하라어 *sebber-k* 'you(m) broke', 중부어 *felleḡ-š ki* > š 'you(f.) wanted').

5.2.1 단어구조와 문법범주 표현

단어는 보통 어휘의미를 지닌 어근과 문법 범주를 나타내는 접사들, 그리고 어간변이로 이루어진다. 썸어에서는 어근과 어간, 어휘와 문법범주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고, 게다가 서로 중첩되어 수평선상에서의 단어구조 분석이 어렵다.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수직선상에서 비-선형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 표준 아랍어(MSA modern standard Arabic)를 바탕으로 썸어 단어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컨대 아랍어 동사는 명사처럼 어근이 어휘의미를 지니며 동사관련 문법범주들이 어간 및 접사에 표시된다. 표시되는 동사문법범주로는 논항색인에 따른 인칭, 수(단수, 복수, 쌍수), 성(남성/여성)이 있고, 시제와 상(과거 vs. 현재/미래 혹은 완료, 미-완료) 그리고 법(직설법, 명령법, 권유법)이 있다. 그러나 이런 범주들이 수평선상에서 어근을 중심으로 어간과 접사순서로 배열되어 나가는 선형방식(concatenate linear ordering)이 아니라 비선형(non-concatenate nonlinear) 형판모형(template) 방식으로 구성된 단어 속에 나타난다. 이런 식의 단어구성 방식은 어근-패턴 방식(root and pattern morphology)으로 불린다(Kász 2009:52). 그러므로 썸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선형 형판 모형이 어떤 것인지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썸어 단어의 비-선형 수직적 접근법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몇 새로운 개념들이 필요 된다. 첫째로는 자음골격(consonant skeleton), 혹은 어근자음(root consonant)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베르베르어 등 여타 다른 아아어족 언어들에서도 나타난다. 어근의 기본 의미는 자음 연속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쓰다(to write)’라는 개념은 세 개의 자음배열 KTB로 이루어진다. 이를 루트(뿌리)라는 기호를 써 √KTB로 표시하기도 한다. 그 다음은 자음(C), 모음(V)의 배열 패턴이라는 형판개념이다. 예컨대 완료상(perfective aspect)일 경우에는 CVCVC-VC 패턴으로 자음-모음이 배열된다. 미-완료상이 되면 CV-CCVC-V 패턴으로 배열이 달라진다. 세 번째로 자음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모음특질의 차이이다. 예컨대 /a - a/ 배열로 삽입되면 능동태가 되고, /u - i/ 가 되면 수동태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간을 단위로 하여 앞뒤에 접사가 더 추가될 수 있다. 접사 형태에 따라 문법정보가 달라진다. 예컨대 접미사 {-at}가 오면 3인칭, 단수, 완료에 여성이 되고, 환접사로 {ya-...-u}가 오면 3인칭, 단수, 완료 남성인 된다. 이와 같은 구조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표.5와 같다. 요컨대 썸어 단어는 4개의 수직적 층위들로 구성되며, 거기에 따라 나타내려는 내용이 달라진다.

표.5 썸어(아랍어) 단어의 4개 층위 구성 모형

	①어근자음(자음골격) √KTB ‘to write’ ②CV 배열 어간패턴 CVCVC 완료상/과거 ③모음음질(vowel quality) /a-a/ 시리즈 능동태(수동태는 u-i) ④접사/접미사 =at 3인칭, 단수, 완료, 여성 (남성은 ya-...-a) 어형태(word form) ‘she wrote’
--	---

Kász 2009:53

어근을 이루는 자음골격을 바탕으로 19개의 다양한 파생패턴, 요컨대 어간형판이 나타난다. $\sqrt{\text{KTB}}$ 를 바탕으로 한 파생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작가, 책, 쓰인 것(편지)’이라는 파생개념들이 형판 차이를 바탕으로 다르게 실현된다. (24c)에서 보듯 피동의미를 지닌 분사의미도 있다.

(24) Modern Standard Arabic(MSA)

- | | | |
|----|---------------|----------------|
| a. | <i>kātib</i> | n. writer |
| b. | <i>kitāb</i> | n. book |
| c. | <i>maktūb</i> | written/letter |

Kász 2015:2

굴절된 형태는 모음패턴과 추가된 접사로 된 또 다른 어간형판으로 나타난다. 가장 기본이 되는 무표 형태는 3인칭 단수 남성 주어 색인이 접미사로 첨가된 완료상이다(25a). 25b에서는 단수, 3인칭 여성명사가 주어로 오며, 어간은 미완료, 수동인 경우이다. 어간 형판 안에 태-범주가 포함되고 여기에 성과 인칭 등의 논항색인이 접사로 나타났다. 시제/상 범주는 어간 형판 안에 융합되어 나타나고(*katab* ~*uktab*) 접사로 주어색인의 인칭, 수, 성이 표현된다.

- | | | | | |
|----------|----|---|---------------------|-------|
| (25) MSA | a. | <i>katab-a</i>
write.PRF-3SG.M
'he wrote' | $\sqrt{\text{KTB}}$ | a-a-a |
| | b. | <i>t-uktab-u</i>
F-write.IPFV.PASS-3SG
'it/she was being written' | t...-u | u-a-u |

Kász 2015:2

샘어의 독특한 단어구성 및 문법 굴절범주 및 파생기능들이 표시되는 패턴은 네 가지 요소들, 즉 골격자음으로 나타나는 어근, 모음시리즈 및 자음 중첩 그리고 접사로 표시되는 어간 형판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될 수 있다. 프렘퍼(Premper 1991:642)는 아랍어 동사 *hakama* 'to judge'를 10개 어간형판으로 분류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정리했다.

표.6 아랍어 동사 $\sqrt{\text{HKM}}$ ‘판결하다’의 10개 어간형판과 그 파생의미

I	<i>hakama</i>	'to judge'	판결하다
II	<i>hakkama</i>	'to elect as judge'	판사로 뽑다
III	<i>hākama</i>	'to prosecute'	고발하다
IV	<i>'ahkama</i>	'to attach'	첨부하다
V	<i>tahakkama</i>	'to rule'	다스리다
VI	<i>tahākama</i>	'to go to court'	법정에 가다
VII	Ø		
VIII	<i>ihtakama</i> (<i>'ilā</i>)	'to let decide'	결정하게 하다
	(<i>alā</i>)	'to own' 소유하다	
IX	Ø		
X	<i>istahkama</i>	'to be strong, to strengthen'	강화하다

어간형판 I 이 무표 기본형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나머지가 도출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형판 II는 둘째 자음 C²의 중첩이며, 형판 III은 첫모음의 장음화로 설명된다. $\sqrt{\text{HKM}}$ 동사의 경우 VII, IX가 빈 형판으로 나타나는데 동사에 따라 도출형이 완벽하게 다 나타날 필요가 없다. 형태면에서의 어느 정도 규칙성과 경향이 나타나듯 의미, 기능 면에서도 단일한 기능이나 범주로 규정되기 어렵다. 의미들 사이에 유사성이 없지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본의미로부터의 변이가 너무 커 별도의 어휘소

로 간주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위 X 형판의미 ‘강해지다’는 기본형의미 ‘판결하다’와 판이 하게 다르다.

5.2.2 굴절범주 활용

아프로-아시아어족 언어들의 동사는 앞서 표.3에서 보았듯이 동사어근, 모음시리즈 그리고 접사 형태로 어휘의미, 파생의미 그리고 문법범주로서의 상과 주어의 인칭과 수 그리고 성이 표시된다. 하지만, 아래 표.7에서 보듯 동사는 문법범주인 시제와 상에 따라 어간변화가 접두사 혹은 접미사와 함께 몇몇 형판으로 나타난다. 고대 아카디어(Akk)와 아랍어(Arb), 남-아라비아어인 메흐리(Meh, Mehri)와 에티오피아 썸어인 게에즈(Geez)와 암하라어(Amh) 등 5개 썸어 동사의 어형변화 형태들이다. 암하라어에서는 사라졌지만 본래 썸어 동사는 변화 패턴에 따라 몇몇 부류(class)들로 나뉜다. 아카디아의 경우 /B-a~u, B-i, B-a, B-u/ 등 네 가지로 나뉘고 아랍어는 세 개, 메흐리는 B1, B2 두 개로 나뉘어 언어마다 구조(어형변화부류)에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표.7 썸어 동사어간의 시제, 상에 따른 어형 변화(conjugation) 비교

		시제(상/법)			
	어간부류	접미사 Stative/상태	과거(완료상)	접두사 현재(미완료상)	청유(가상법)
Akk	B-a~u	<i>paris-Ø</i>	<i>i-prus-Ø</i>	<i>i-parras-Ø</i>	<i>l-i-prus-Ø</i>
	B-i	<i>paqid-Ø</i>	<i>i-pqid-Ø</i>	<i>i-paqqid-Ø</i>	<i>l-i-pqid-Ø</i>
	B-a	<i>sabit-Ø</i>	<i>i-sbat-Ø</i>	<i>i-sabbat-Ø</i>	<i>l-i-sbat-Ø</i>
	B-u	<i>maqit-Ø</i>	<i>i-mqut-Ø</i>	<i>i-maqut-Ø</i>	<i>l-i-mqut-Ø</i>
Arb	B-a		<i>katab-a</i>	<i>ya-ktub-Ø-u</i>	<i>ya-ktub-Ø</i>
	B-i		<i>šarib-a</i>	<i>ya-šrab-Ø-u</i>	<i>ya-šrab-Ø</i>
	B-u		<i>hasun-a</i>	<i>ya-ḥsun-Ø-u</i>	<i>ya-ḥsun-Ø</i>
Meh	B1		<i>kātūb-Ø(~kātāb-C)</i>	<i>yā-kūtāb-Ø(~-kātāb-V)</i>	<i>yā-ktēb-Ø(~-ktāb-V)</i>
	B2		<i>ṭābār-Ø(~-ābr-V/C)</i>	<i>yā-ṭbōr-Ø(~-bār-V)</i>	<i>yā-ṭbōr-Ø(~-bār-V)</i>
Geez	B-ä		<i>nägar-ä</i>	<i>yā-näggər-Ø</i>	<i>yā-ngər-Ø</i>
	B-i/u		<i>läb(ə)s-ä</i>	<i>yā-läbbəs-Ø</i>	<i>yā-lbäs-Ø</i>
Amh			<i>nagg'är-'a</i>	<i>y'ä-nagr-Ø-all</i>	<i>yä-ngär-Ø</i>

Gragg & Hoberman 2012:179

아카드어(Akk)에서는 일반-동사에 더하여 형용사와 유사한 상태-동사들도 어형변화를 한다. 일반 동사는 시제(tense)/상으로는 과거/현재(완료/미완료) 그리고 청유(요청)이라는 3분법을 하고 있는데 모두 접두사형태 {i-, l-i-}가 붙는다. 청유는 시제라기보다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법(mood) 범주이다. 완료형이 가장 간단한 기본 형태이고(*i-prus*), 미완료(*i-parras*), 청유가 되면 어간 변이 및 추가 접사가 덧붙여진다(*l-i-prus*). 마지막 세 번째 범주인 ‘청유’는 실제 일어난 직설법(indicative mood)이 아니라 가상의 것을 나타내므로 가상법(subjunctive)이다. 이상 내용이 썸어의 시제, 상, 법(TAM, tense, aspect & mood) 구분패턴이다. 요컨대 완료와 미완료상의 형태를 보면 완료형이 보다 간단한 기본형(basis form)이고 미완료가 되면 어간도 길어지고 여기에 접두사까지 첨가되어 보다 복잡한 도출된 형태(derived form)가 나타난다. 동사에 따라 따르는 형판이 다르고 그에 따라 구분된 3개의 문법범주 실현양상이 달라지는데 규칙성의 정도가 완전하지 않으므로 이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형태와 의미 사이의 관계에서 어휘는 가장 변칙적이며 불규칙 임의적인 것이어서 기억에 의존되지만 문법은 규칙적이고 생산적이어서 예측 가능한 영역이다. 썸어 동사활용은 어휘와 문법이라는 양대 축을 기반으로 한 척도에서 그 중간 어느 지점을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5.3.3 문장 내 실현사례

문장은 언어의 계열관계가 아니라 통합관계가 드러난 것이므로 썸어가 갖는 계열관계 상의 패러다

임을 표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평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아주 단순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다음 (26a) 현대 표준 아랍어 자동문인데 동사 {*Dahika*}에는 상(완료)과 주어표지(인칭, 수, 성)가 어근과 함께 융합되어 나타난다. 미완료상, 혹은 여성, 2인칭 등은 패러다임 안에서 다른 형태로 선택된다. 이와 달리 구라게어(에티오피아 셈어)인 무헤르에서는 완료상이 형판으로 어근과 융합되어 있으나 주어색인(성, 수)은 접미사로 첨가되고 이어서 주절/종속절 여부를 알리는 요소(MVM main verb marker)가 표시되고 있다(26b).

- (26) a. Modern Standard Arabic *Dahika* *t-tifl-u*.
 laugh.PRF.3SG.M ART-child-NOM
 ‘The child laughed.’ Kász 2011:1
- b. Muher(Gurage) *sabbar-a-m*
 break\PFV-3SM-MVM
 ‘he broke’ Meyer 2016:19

아카드어 (27a)에서는 어순은 다르지만(SOV) 과거시제는 동사 어근에 융합되어 나타난다. 시제와 상 구분이 사실상 나타나지 않아 이를 완료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에티오피아 셈어(구라게/키스타네 27b)에서는 주어표지가 분리되어 접두사로 나타나고, 부정일 때는 여기에 별도 접두 부정표지가 덧붙여진다. 어간변이로 지시(JUSS)법만 어휘의미에 융합되어 있다. 같은 계통의 셈어지만 아카드는 분석패턴이고 키스타네는 보다 통합적이다. 분포(북부/남부)와 역사발전(접촉지역/고립지역)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 (27) a. Akkadian *bēl um bīt am I bni*
 lord NOM house ACC 3MSG build.PAST
 ‘The lord built the/a house’ Gragg & Hoberman 2012:209
- b. Kistane(Gurage) *ja-k’rəs* ‘Let him begin!’
 3SM-begin\JUSS
a-jə-k’ras ‘Do not let him begin!’
 NEG-3SM-begin\JUSS Meyer 2016:22

VSO어순의 게에즈에서는 별도 접미사로 주어색인과 함께 과거시제(완료상)가 동사어근에 표시된다.³⁸⁾ 미완료상일 경우는 환접사(circumfix) 형태로 실현된다(예컨대 3인칭 단수 남성 미완료, 지시법 jussive 복수에서는 *j-...-u*가된다). 어간에 오는 주어색인이 3인칭, 단수, 남성 완료일 때는 {-*ā*}였으나 (18a), 2인칭에서는 {-*kā*}로 바뀐다(28b, c).

- (28) Geez a. *sārĥ-ā* *nəguś bet*
 build-3M.SG.PST king house
 ‘The/a king built the/a house’ Gragg & Hoberman 2012:210
- b. *nägär-kä* c. *lābäs-kä*

38) 다른 셈어와 마찬가지로 게에즈어에서도 3자음골격으로 어근 및 어휘의미가 결정되고 그 사이에 모음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 어간형판(template)이 결정된다. 완료상에서는 CaCaC, 지시법(jussive)에서는 CCC(타동), CCaC(자동)이며, 마지막으로 미완료상에서는 CaCC:C로 기본어간이 형성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시 주어색인이 완료상에서는 접미사로, 미완료와 지시법에서는 접두, 혹은 양접사로 실현된다(Meyer 2016:11, 14).

tell.PFV-2SM

'you told'

dress.PFV-2SM

'you dressed'

Tropper 2002:88, Meyer 2016:18

암하라어에서는 다시 어근에 상이 표시되고 주어색인은 접미사로 분리된다. 암하라어에서도 자음 골격어근을 바탕으로 동사분포 및 삽입양상에 따라 4개의 형판어간이 나타나는데 이는 완료, 미완료, 지시에 이어 연결동사(converb) 구문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29a)는 완료상이고 (29b, c)는 미완료상인데 존재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합쳐져 주어색인이 환접사로 실현되고 있다. (29c)는 과거시제가 되면서 조동사 형태가 분리되고 인칭은 본동사에 접두사로 시제는 조동사에만 나타나 분석 구조를 보인다.

(29) Amharic

a. *lamma gəməd-u-n k'orrət'-ə*

L. rope-DEF-ACC cut.PF-3M

'Lemma cut the rope.'

Amberber 2005:298

b. *j-säbr³⁹-[u]-allä-u*(< *jisäbrallu*)

3-break.IPFV-[PL]-AUX.EX-3PL

'(i) they break, (ii) they will break, (iii) they (usually) break, etc.'

c. *ji-säbr-u näbbär*

3-break.IPFV-PL AUX.PST

'(i) they were breaking, (ii) they used to break, etc.'

부정법이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시제와 함께 별도의 술어표지가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면서 동사 어간으로부터 분리된다. 다음은 표준 아랍어 시제구분과 융합되어 실현된 부정문이다.

(30) Standard Arabic

a. *T-tullaab-u lam ya-drus-uu*

the-students-NOM NEG.PST 3-study-M.PL

'The students did not study.'

b. *T-tullaab-u lan ya-drus-uu*

NEG.FUT

'The students will not study.'

c. *T-tullaab-u laa ya-drus-uu*

NEG.PRS

'The students do not study.'

Aoun et al. 2010:6

표준 아랍어와 달리 에티오피아 셈어의 서-구라게어인 구메르에서는 동사어간에 접두사로 부정표지가 실현된다. 완료형 동사어간에는 주어색인 접미사에 이어 주절/종속절을 구분하는 별도표지가 와야 하는데, 부정이 되면 이 표지가 제로 표시된다(31a). 미-완료상에서는 주어색인이 접두사로 실현되기에 부정표지는 그 앞에 {a-} 형태로 첨가된다.

39) 암하라 동사 'brake'의 어근은 √SBR이고 미완료상어간은 *säbr*가 된다. 완료상어간은 *säbbär*로 바뀌고, 중립-연속동사형은 *säbrä*, 지시법은 *sbär*, 명령법은 *sibär-u*로 모음시리즈가 달라지면서 인칭색인이 첨부된다. 마지막으로 동명사에서는 *mä-sbär*가 된다. 기본 TMA구분은 3개(완료, 미완료, 지시법)이고 여기에 연결동사가 추가되어 4개 패턴을 이루는데, 명령법과 동명사는 접사까지 추가되어 이를 포함시키면 암하라 기본 어간패턴은 6개가 된다 (Meyer 2014:3).

(31) Gumer(W. Gurage)

- a. *affə-x^w-im.* vs. *an-affə-x^w.*
 see.PFV-1sS-M NEG-see.PFV-1sS-M
 ‘I saw.’ ‘I did not see.’
- b. *ərəd.* vs. *a-n-nəd.*
 1sS-love.IPFV NEG-1sS-love.IPFV⁴⁰⁾
 ‘I love.’ ‘I do not love.’

Völlmin 2018: 157-8

암하라어에서는 주어색인에 이어 목적어색인도 가능하다. 다음은 완료상으로 주어-목적어 순서로 논항 색인이 접미사로 배열되어 있다.

(32) Amharic

setijo-wa lidz-wa-n mæts'haf sətt'-ətʃt-at
 woman-DEF.F child-DEF.F-ACC book give.PF-3F.sub-3F.obj
 ‘The woman gave the girl a book.’

Baker & Kramer 2014:142

서부 구라게어인 구메르 예에서 보듯 완료상과 달리 미완료상과 지시법에서는 주어색인은 접두사로, 그리고 목적어 색인은 접미사로 분리되어 실현된다. 반대로 완료상에서는 목적어색인과 함께 주어 색인도 어근 뒤에 온다. 상 차이(PFV vs. IPFV)에 따라 색인위치가 달라지는(prefix vs. suffix)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33) Gumer

bar-ənaxə-m vs. *yiβi-xəvs.* *yəβə-xə*
 say.PFV-3smS-2smO-M 3smS-say.IPFV-2smO 3smS-say.JUS-2smO
 ‘he said you’ ‘he says you’ ‘let him say you’

Völlmin 2018:142

시제, 상, 논항색인 그리고 부정법에 이어 술어가 증대 기재인 사역형이 암하라에서는 동사 접두사로 별도 표시된다.

- (34) Amharic *ənnat bet-u-n ləğ-wa-n as-ṭärräq-äčč.*
 mother house-DEF-ACC child-POSS.F-ACC CAU-clean-3.SG.F.S
 ‘The mother had her child clean the house.’

Richter 1973:315

술어가 변동을 표시하는 요소는 암하라 사역형처럼 동사 어근 앞에 접두사로 나타난다. 다음은 서-구라게어의 술어가 감소(자동화 *tə-*)와 증대(사역 *a-/at-*)을 나타내는 예이다.

40) 아랍어와 게에즈는 VSO어순이고 아카드, 암하라처럼 구라게인 구메르도 SOV어순이다. 아카드는 분석패턴을 하고 아랍어는 접두, 접미사가 모두 나타나며 암하라도 그러하지만 접미패턴이 주종이다. 구메르는 상에 따라 주어색인이 달라지는데 완료에서는 접미, 미완료에서는 접두로 갈린다. 계통적으로 같은 셈어지만 유형적으로는 아주 다양한 상반된 패턴들이 공존하고 있다. 주어가 명사로 실현된 경우 SOV어순에 주어색인이 접미사로 실현된 완료상 타동문인데, 직설법표지가 맨 끝에 온다. *yunus Y. k'awa coffee afəttər-ə-m. make.ready.PFV-3smS-M* ‘Yunus prepared coffee.’ Völlmin 2018:100. S는 주어색인이고, M은 직설법 m이다.

경우도 있고(Kossmann 2005), 이를 좀 더 동부와 서부로 세분화하여 4개 그룹으로 나눈 경우도 있다(Aikhenvald 1990, 1995). 언어의 계통분류에서 공통조어가 분기되어 뻗어나간 양상은 보통 수형도(the tree diagram)로 나타내지지만, 베르베르 지역은 아랍어 전파, 사하라 횡단무역 및 확산과정에서의 접촉, 그리고 내부 분파들 간의 상호영향 등으로 고도로 동질화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이해될 때 단순한 분기과정에 기반 된 수형모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예컨대 코스만(Kossmann 2011)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블록모형(model of blocks)을 도입했다. 어휘 음성 및 문법특질의 상이성을 바탕으로 가장 이질적인 것을 하나하나 떼어내면서 동일한 그룹을 묶어가는 방식이다. 예컨대 베르베르는 우선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리타니의 체나가(Zenaga)가 음운 및 형태적 특질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니제르의 이웰메덴 투아렉에 의해 쓰이는 테체렛(Tetserrét)을 꼽고 있다. 이들은 7개 블록의 하나를 구성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나머지를 아래 표.8과 같이 정리했다.

표.8 베르베르 방언 7개 블록(Kossmann 2011:4)⁴⁴⁾

- A. 체나가(Zenaga) A.1 모리타니 체나가, A.2 니제르의 테체렛(Tetserrét)
- B. 투아렉
- C. 서부 모로코 블록 (남서 & 중부, i.e. 타셀히트Tashelhiyt & 타마지트 대부분)
 - b. *possibly including* 서북 모로코 베르베르(Ghomara, Senhadja de Sraïr)
- D. 체나틱 블록Zenatic B. (모로코 동부, 알제리서부, 사하라 오아시스, 튀니지, Zuara) *extending towards the east with* 소크나Sokna, 엘포카하Elfoqaha, 시와Siwa.
- E. 카빌레Kabyle (알제리북부) *possibly linked to the western Moroccan block*
- F. 가다메스Ghadames (리비아), *probably to be linked to Djebel Nefusa (Libya)*
- G. 아우질라Awdjilah (리비아).

5.3.1 동사와 동사범주표현

베르베르 동사는 명사와 달리 시제, 상, 법, 양극성 및 주어색인요소 등을 수반하여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연결순서는 다음 표.9와 같다. 여기서 대명사요소는 주어의 인칭, 성, 수(PGN)를 나타낸다. TAM은 시제, 상, 법을 나타내며 어근변화로 파생의미가 가미된다. 이와 같은 동사문법 범주들이 명확한 경계 하에 1:1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분절이 일관적이지 않은 요소들에 융합되어 실현된다.

표.9 베르베르 동사복합체 구성 패턴

Pron.TAM - (Derivator-) Consonant Root - Pron.TAM
 주어의 인칭, 성, 수. 시제, 상, 법 - (파생접사) - 자음골격어근 - 대명사요소

구체적으로 다음 예 (37)은 타마섹(남부 투아렉)의 동사활용 패러다임으로 과거 완료상인 경우이다(to write > wrote). 인칭과 수, 성에 따라 대명사요소(접두/접미~환접사)가 바뀌고 있는데 ‘쓰다’라는 어휘요소는 자음골격인 /KTB/이고 그 사이에 모음이 삽입되거나 접두요소 {*a-*, *tə-*, *i-*, *nə-*, *ək*} 혹은 접미요소{-*ay*, -*ad*, -*ab*, -*am*, -*mat*, -*an*, -*at*}가 가미된다. 이와 같은 단어구조가 아프리카 대륙 북부에 분포된 아프로-아시아어족 언어들의 일반적인 유형특징이다. 복수 2,3인칭에서 접미사로 성이 구분된다.

(37) Tamasheq √KTB

<i>a-ktab-ay</i>	'I wrote'	<i>nə-ktab</i>	'we wrote'
<i>tə-ktab-ad</i>	'you wrote' 2.SG	<i>tə-ktabam/ tə-ktab-mat</i>	'you wrote' 2.PL(m/f)
<i>i-ktab</i>	'he wrote'	<i>a-ktab-an/ əktab-nat</i>	'they wrote.' 3.PL(m/f)
<i>tə-ktab</i>	'she wrote'		

N. Christiansen & R. Christiansen 2002:5

44) 지역으로 구분하면 북부어는 카빌레, 타마지트, 쉴하(타셀히트), 와르글라, 제나티, 서부어는 제나가, 동부어는 시위, 가다메스, 마지막으로 남부어는 투아렉어인 타마섹이 있다.

동사 어휘의미는 자음골격으로, 그리고 문법 굴절범주는 모음시리즈와 자음중첩 등의 방식으로 어간 형판으로 표시되지만 파생의미가 더해질 때에는 기본 어간에 파생기능을 지닌 자음이 추가되어 네 개 자음으로 된 기본형(base form) 새 파생어간이 형성된다. 예컨대 아예르 투아렉의 ‘긁다’라는 동사는 /KRZ/ 세 개 자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여기에 사역(...하게 하다)이나 중간태(피동 의미)가 더해지면 S-KRZ, 혹은 M-KRZ라는 4자-골격이 형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로 다양한 굴절 요소들이 더해져 최종 형태가 나타난다. 아예르 투아렉 동사의 기저형과 실현 패러다임형태를 정리하면 다음 표.9와 같다. 굴절요소가 가미될 때 자음골격에 이어 모음시리즈가 작용한다. 예컨대 사역형 기저형에 완료상이 되면 ə-ə-ä 모음시리즈가 적용된다.

표.9 아예르 투아렉에 나타난 동사 어근 기저형과 그 굴절 및 파생 양상(Kossmann 2012:36)

어휘 및 문법기능/범주	형태	우리말 의미
기저형(to scrape)	√KRZ	‘긁다’
• 법-상-부정(MAN)-어간 완료상	əkraz	‘긁었다’(직설법-완료상-공정)
1인칭복수, 굴절 n-	nəkraz	‘우리들이 긁었다.’
사역형(sibilant/마찰음) ⁴⁵⁾	S-KRZ	‘긁게 하다’
• 완료상 ə-ə-ä 모음시리즈	əzzəkraz	‘긁게 했다’
굴절-환접사(2인칭 복수, 남성 t-...-am)	təzzəkrazām	‘너희들이(남성) 긁게 했다.’
중간태 확장 mm-	M-KRZ	‘긁히다’
• MAN-어간 미완료 t-, a-ä-a+the 모음시리즈	tamākraz	‘긁힌다’
굴절접미사 3인칭남성복수 -ān	tamākrazān	‘그들이(남성) 긁기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베르베르어는 단어구조는 썸어처럼 복잡한 양상을 지닌다. 주어의 인칭 성, 수(PGN)에 따른 의존형 인칭대명사 요소가 논항색인 패러다임을 구성한다. 가다메스(동부어)의 주어논항 색인 패러다임은 아래 표.10과 같이 정리된다. 동사가 행위동사이냐, 아니면 상태 동사이냐에 따라 어형 변화형태가 양분된다.

표.10 가다메스 인칭대명사(주어색인) 패러다임과 동사어형변화표(Kossmann 2012:45)

인칭, 수, 성	일반PGN	(타마섹) ⁴⁶⁾	상태동사 PGN
단수 1인칭	-āŋ	(ə-...-ay)	-āŋ
2인칭	t-...-ət	(tə-...-ad)	-ət
3인칭남성	y-	(i-)	-
3인칭여성	t-	(tə-)	-āt
복수 1인칭	n-	(nə-)	-it
2인칭남성	t-...-ām	(tə-...-am)	-it
2인칭여성	t-...-māt	(tə-...-mat)	-it
3인칭남성	-ān	(ə-...-an)	-it
3인칭여성	-nāt	(ə-...-nat)	-it

45) 사역, 수동, 상호 및 재귀형은 파생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음시리즈와 자음중첩으로 변형된 어간으로 표현되는 굴절범주와 달리 어간 앞 접두사로 표현된다. 예컨대 남부 투아렉의 타마섹에서는 사역은 sə-, 수동은 təwə-, 상호/재귀는 nā- 접두사가 온다. 예를 들면 ‘쓰다’라는 동사 자음골격 √KTB를 바탕으로 sə-ktəb ‘make write’, təwə-ktəb ‘be written’, nā-ktəb ‘write to each other’로 각각 실현된다(N. & R. Christiansen 2002:5).

46) 괄호 속의 주어색인은 동부어인 가다메스와 비교하기 위하여 남부 투아렉어인 타마섹(완료상)을 추가한 것이다(N. & R. Christiansen 2002:5). /a/는 음운지위가 약한 이음으로 이를 제거하면 동부와 남부어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북부 카빌레어도 비슷한 주어색인 패러다임을 갖는다(cf. Mettouchi 2011:112).

자음골격에 모음시리즈가 들어가는 방식이 셈어와 달리 가다메스(동부어)에서는 일원화된 어간 모습을 보인다. 이를 근간으로 환접사 형태의 주어색인이 온다.

- (38) Ghadames(E) a. *utāf-āʕ* ‘내가(1P.SG) 들어갔다(PFV).’
 t-utāf-māt ‘너희(여자, 2P.PL.F)들이 들어갔다.’
 b. *māttit-āʕ* ‘나는 작았다.’
 māttit-it ‘너희(여자들)이 작았다.’ Kossmann 2012:45

어근과 어간 그리고 파생 접사 등의 3단계 수평구조를 보면 파생접사가 붙은 어간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외각에 주어색인 및 문법범주가 오는 구조를 한다. 예컨대 북부 실하(Shilha) 그룹의 타설리트 사역구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39) Tashlhiyt(N) *t - [ss - lkam] - t*
 2.SG-CAUS-reach-2.SG.IMPFV
 ‘You cause to reach.’ Dell & Elmedlaoui 2013:9

문법범주는 완료/미완료로 나뉘고 완료는 다시 긍정/부정이 별도 형태를 하고 여기에 미정형(aorist) 범주가 합하여 보통 4개로 나뉜다. 다음은 완료상과 미완료상이 온 카빌레 예이다. 어간변이로 차이가 나타나므로 분절이 불가능하다.

- (40) Kabyle(N) a. *tə-mmut* *t-qif-t*
 SUB.3SG.F-die.PFV F-child[ANN]-F.SG
 ‘The girl died.’ Mettouchi & Frajzyngier 2013:6
 b. *Aqcic* *yetttru*
 boy.ABS⁴⁷⁾ 3SM.cry.IPF
 ‘The boy is crying’ Naï-Zerrad 2001, Creissels 2006:3

주어색인은 접두사(j-)로 오는 반면 목적어 색인은 선택적으로 후첨(enclitic)요소로(=t) 올 수 있다. 완료/미완료상 구분은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절된 요소로 확인할 수 없다. 41b는 미완료상이지만 어근과 융합되어 분절형태소로 파악할 수 없다. 부정은 별도 불변사로 불연속적으로 나뉘어 표현되고 있다(ur ... ara). 41c는 미래시제 혹은 가능성(potential)을 나타내는 범 범주인데 본동사와 분리되어 술어표지 형식으로 실현된다. 여기에는 직시중심으로 부터의 원근(distal vs. proximal)을 나타내는 요소가 붙는다. 본동사 {hu-}는 완료/미완료와 다른 미정형(aorist) 범주로 미래시제와 더불어 하나의 동사구 구문을 형성한다.

- (41) Kabyle
 a. *j-čč=t* *wəksu-m-nni*
 SBJ3SG.M-eat:PFV=ABSV3SG.M meat:ANN.M.SG
 ‘He ate the meat’ (‘object’) Mettouchi 2011:4

47) 베르베르는 유표주격할당어이다. 어순이 VSO인데 자동문에서 VS가 되면 주어는 주격이고(weqcic boy.NOM) 어순이 바뀌어 SV가 되면 주어는 절대격으로 표시된다(aqcic boy.ABS). 베르베르연구자들은 이를 ANN(annexed case), ABS(absolute case)로 구분하였으나 ANN는 무표로 대격에서도 쓰이고(41a), 전치된 주어에서도 무표로 쓰인다(40b, 42a). 비표유형론적으로 볼 때, 유표주격 그리고 절대격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b. *ur zəddɨ-əy ara jid-sənt //*
 NEG dwell:IPFV-SBJ1SG POSTNEG COM-PREP3PL.F //
 "I'm not living with them!" Mettouchi 2011:9
- c. *ad=dd hu-y / amk i / ʃɛf-nt*
 POT=PROX tell:AOR-SBJ1SG / how REL.REAL / live:IPFV-SBJ3PL.F
 'I will tell how they lived' Mettouchi 2011:16

이미 앞서 표.9에서 보았듯이 사역, 수동, 상호와 같은 파생기능은 보통 동사어간에 접미사 형태로 나타난다. 카빌레 경우에는 사역은 {s-/ss-}, 수동은 {ttw-}, 상호는 {my~~ms-}로 상범주와 함께 어근에 융합되어 실현된다. 이와달리 주어색인과 여격 술어표지는 분철로 어근 뒤에 첨가된다(42a).

(42) Kabyle

- a. *jəssi-s-nni ssəwwaj-nt=as i wə.xxam*
 daughter\ABS.PL-KIN3SG-CNS cook\CAUS.IPFV-SBJ3PL.F=DAT3SG LOC house\ANN.SG.M
 'his daughters prepared his meals at home.'
- b. *dajən ʔwəčč-nt*
 finished eat\PASS.PFV-SBJ3PL.F
 '(she thought) it was over, they had been eaten.' Mettouchi 2017:2-3

5.4 쿠쉬어

쿠쉬어의 수는 대개 30여개로 알려져 있지만(Appleyard 2012) 오로모, 소말리어의 개별 방언들을 별개언어로 취급한다든지, 아니면 콘소, 둘라이 방언연속체 중 몇몇을 개별 언어로 간주한다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⁴⁸⁾ 아프리카 대륙의 뿔-지역인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가 핵심 분포 지역이지만 베자어는 이집트 남단과 수단에서 쓰이고 있고, 오로모와 소말리는 케냐에서도 쓰인다. 남-쿠쉬어들은 탄자니아에 분포되어 있다(권명식 1988: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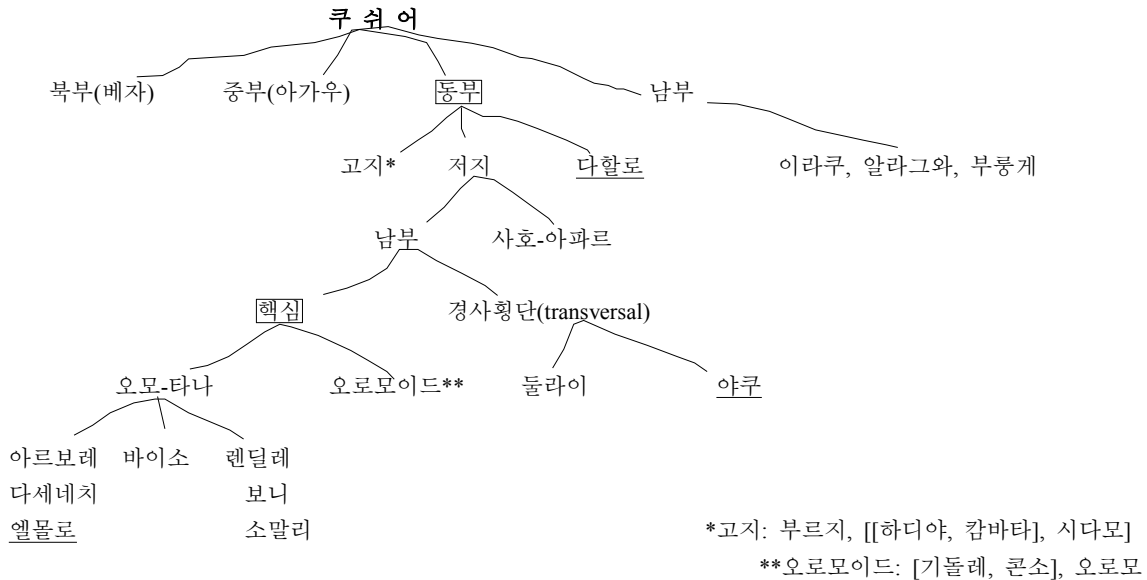
쿠쉬어는 아프로아시아어족의 한 분파로서 셈어, 이집트어, 베르베르어처럼 굴절적 성격을 띤다. 명사나 동사 어근과 어간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법범주들이 자음굴격을 기반으로 자음중첩 및 모음변이를 통해 표현된다. 인근 언어들과의 접촉이나 내적 변화에 기인된 다양한 유형적 특이성들이 나타난다. 단어구조를 바탕으로 몇몇 쿠쉬어들의 동사문법 범주표현 및 그 구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이 자음으로 /d', h, ʃ, t, gʷ/ 등이 있고, 모음은 북부아아어들과 달리 /e, o/가 추가된 5모음체계로 장/단 대립이 있다.

5.4.1 내부 분류

쿠쉬어가 아프로아시아어족의 한 분파라는 사실은 모두 다 인정한 사안이지만 그 내부 분류에 대하여서는 많은 이견들이 여전히 있다. 그것에 대한 논의는 토스코(Tosco 2000)와 헤이워드(Hayward 2003)가 있는데 쿠쉬어가 대개 네 개의 분파로 나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네 개 분파는 지리적 위치와 유사하게 북부, 중부, 동부 그리고 남부 쿠쉬어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동부어에 언어가 많고 분포 지역도 넓어 아주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고지어와 저지어로 나뉜다. 수형도로 표시하면 다음 표.11과 같다.

48) 예컨대 레위스(Lewis 2009)는 쿠쉬어 수를 45개로 산출했는데 5개 오로모 방언과 6개 소말리 방언을 각각 개별 언어로 산정했다(Mous 2012).

표.11 쿠쉬어 내부 분류(Tosco 2000, 권명식 2019:5)



북부어는 단 하나의 베자어로 구성된다. 중부어는 아가우 언어들로 불리기도 하는 데 빌린(10만), 캄탕가, 케만트, 아웅기(50만)가 있다. 동부어는 고지와 저지어로 나뉘는데 고지어로는 부르지, 하디아, 캄바타, 시다마가 있고 저지어는 다시 사호-아파르와 이를 제외한 핵심어와 경사횡단어들이 있다. 핵심어는 오모-타나와 오로모이드로 나뉘는데 아르보레, 다세네치, 엘물로 렌딜레, 소말리는 오모-타나 그룹에 속하고 오로모, 기돌레, 콘소는 오로모이드 언어들이다(권명식 2004:219-220, 2019:4-5). 이중 야쿠, 엘물로는 사멸되어 마사이 계열 언어로 대체되었고, 다할로는 사멸위기 언어로 스와힐리어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5.4.2 단어구조

같은 쿠쉬어라 해도 단어구조 차원에서 두 가지 다른 패턴이 존재한다. 북부어인 베자와 인근의 동부어인 사호, 아파르는 셈어나 이집트어 혹은 베르베르어에서 보았던 자음골격 패턴이 나타난다. 이는 주어진 단어의 어휘의미가 이 자음 골격으로 나타나고 파생이나, 문법범주들은 그 사이에 오는 모음 시리즈, 그리고 자음중첩이나 추가 접사들로 실현됨을 의미한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쿠쉬어들은 고정 명사어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접사가 붙는 첨가패턴을 보인다. 베자어 명사의 경우 자음이 2개 혹은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이로 다양한 모음이 삽입된다. 대개 10개 어형변이 패턴들이 나타난다.

(1) 파생(derivation); 파생은 어형성(word formation)의 한 패턴으로 어형을 바꾸어 별도의 어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예컨대 영어의 *pregnant*는 ‘임신한’이라는 형용사인 데, 어미를 바꾸면 *pregnantcy* ‘임신’이라는 명사가 된다. 마찬가지로 *exile*은 ‘망명’이라는 명사지만 *exilic*은 형용사로 ‘추방된’이라는 새로운 어휘가 파생된다. 영어와 달리 베자어 파생에서는 ‘임신’을 의미하는 명사는 N-K^w 자음 골격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이 모음 /a/가 들어가는 방식이 첫 번째 파생패턴이다. 동사형 ‘임신하다’는 CiCi 패턴인데, 여기서 파생된 명사는 CaC 패턴을 한다. 그 다음 명사 {tilu:l-a}는 CiCiC 패턴의 동사가 CiCu:Ca로 전환되어 형성된 경우이다. 요컨대 자음골격 사이 모음시리즈 변경으로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43) Beja(NC)

√NK ^w	<i>nak^w</i>	n. 'pregnancy'	<	<i>nik^wi</i>	v. 'become pregnant'
	CaC			CiCi	

√TLL	<i>tilu:l-a</i>	n. 'exile'	<	<i>tilil</i>	v. 'go far away from home'
	CiCuCa			CiCiC	Vanhove 2012:333

(2) 굴절 범주; 어휘의미가 변하지 않고 어형변화만 하여 문법기능이 달라질 경우가 굴절(inflexion)이다. 명사 경우에는 성, 수, 격 굴절패러다임(어형변화표)이 있지만 동사는 다른 아아어족 언어들처럼 인칭, 성, 수 그리고 TAM 및 VIP 문법범주들이 동사어근 혹은 어간에 표시된다. 예컨대 다음은 아파르(동부-저지/EL 쿠쉬어)의 인칭변화표로 접두사로 PGN이 구분된다.

표.12 아파르(EL) 동사 'to eat' 접두/접미 인칭변화

1Sg	<i>ok'me</i>	'I eat.'	1Pl	<i>n-ok'me</i>	'We eat.'
2Sg	<i>t-ok'me</i>		2Pl	<i>t-okmee-'ni</i>	
3SgM	<i>y-ok'me</i>				
3SgF	<i>t-ok'me</i>		3Pl	<i>y-okmee-'ni</i>	

Bliese 1981:110, Mous 2012:392

복부어인 베자어는 다른 쿠쉬어들과 달리 동사구조에서 자음골격패턴('root & pattern')을 보여준다. 자음골격, 모음시리즈 및 접사로 굴절 및 파생형태를 만들어가는 방법인데, 이는 셈어 및 베르베르어 경우와 유사하다. 다음 (44)는 √KTM 골격의 'arrive' 의미를 지닌 동사의 3인칭 단수/복수 완료/미완료 상 변화이다. 완료상에서는 어근형태(*ktim*)가 유지되지만 미-완료상에서는 골격만 남고(√KTM), 모음시리즈(*i > a-i*)와 접사(-*na*)가 인칭/수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미-완료 3인칭단수에서 어근 사이로 접요사가 들어와 변칙어간이 형성된다(445b).

(44) Beja(N)

a.	<i>i-ktim</i>	'he arrived'	3.SG.M PFV, prefix	
	<i>i-ktim-na</i>	'they arrived'	PFV	
b.	<i>k<an>ti:m</i>	'he arrives'	3.SG.M.IMPV infix <i>an</i>	
	<i>e:-katim-na</i>	'they arrive'	3.PL.IMPV √KTM, e:-a-i	Vanhove 2012:326

수동형이나 사역형을 만드는 파생법에서도 셈어나 베르베르 스타일의 골격-접사패턴을 따른다. 사역형에서는 S 자음이, 수동형에서는 T 자음이 접두요소로 실현되지만 모음시리즈는 각각 달라진다.

(45) Beja(N)

a.	<i>dir</i>	'kill'	Causative <i>so:dir</i>	'죽게 하다'	√DR > √SDR
	<i>kitim</i>	'arrive'	Cs. <i>si-katim</i>	'let arrive'	i-i > i-a-i
b.	<i>min</i>	'shave'	Passive <i>a:to:-man</i>	'be shaved'	√MN > √TMN
	<i>dibil</i>	'collect'	Ps. <i>at-daba:l</i>	'be collected'	i-i > a-a-a:

Vanhove 2012:327

복부 베자와 일부 중부어를 제외한 대부분 쿠쉬어들의 동사는 아주 복잡한 수평구조를 보인다. 성과 수에 따른 인칭변화뿐만 아니라 시제, 상, 법 그리고 부정이라는 동사범주들도 동사 어간에 붙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쿠쉬어 동사 구조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근과 파생어미가 붙은 어간 그리고 인칭 및 TAM-표지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선 파생접사만 해도 그 실현이 대단히 다양하다. 예컨대 남부 쿠쉬어의 파생접사 양상을 보면 아래 표.13과 같다(Kießling 2000:14).

표.13 남-쿠쉬 조어(PWR)⁴⁹⁾의 동사파행 형태소 어순과 기능

<i>*ila</i>	<i>*hiin~*hayn</i>	<i>*CV-, *CVCV</i>	verbal root	<i>*-im</i>	<i>*-aC</i>	<i>-it!</i>	<i>*-is</i>
					<i>*-V(V)C</i>		
					<i>*-aaC</i>		
수반	지향	상습/빈번	동사어근	지속	진행1,2/습관	중간-수동/계속	사역

**fjis* "steal": **fjis-im* DUR "steal for an extended period", **fjis-as-im* DUR-PRO1 "be in the process of stealing", DUR-HAB **fjis-aas-im* "steal habitually"

kaa.s* CAU "split", **kaa.t* MED "be split", **kaa.m-is* CAU-DUR "split for a long period", **kaa.am-is* ~kaam.am-is* "be in the act of splitting", **kaamaam-is* CAU-DUR-HAB "split habitually" Kießling 2000:14

9개 슬롯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요소들이 이러한 배열선상에서 선택적으로 실현된다. 이상 동사 구조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이미 제시한 북부 베자어의 자음골격-모음시리즈 패턴과 달리 동부, 남부어들은 수평패턴을 하여 크게 구조적 대조를 보인다. 그 중간유형이 중부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아래 빌린에서 동사어간에 인칭, 수, 시제가 융합되어 분절 불가능한 하나의 단어로 실현된다.

- (46) Bilin(C) a. *giri-l* *fixw*
 mountain-ALL go.3P.SG.PST
 ‘He went out to the mountain.’
- b. *giri-l* *mändärtäkw*
 mountain-LOC live.3P.SG.PRS
 ‘He lives on the mountain.’
- Appleyard 2012:488

이 같은 동사통합형태는 중부어 이외 다른 언어들에서도 간간히 나타난다. 예컨대 다음은 동부-저지어인 다세네치 자동문으로 완료상(PF)과 긍정법(A)이 어간에 통합된 경우이다. 주어가 주체화되면 별도 술어표지로 주어의 인칭 수가 표시된다(^{har} ^{hi} *kufi.bull* 3S die:PF.A 'The bull dies.' Mous 2005:312).

- (47) Dhaasanac(EL) ^h*ar* *kufi*
 bull:s die:PF.A
 'The/a bull died.' Mous 2005:312, 권명식 2019:14

대부분은 동부, 남부어들은 어근을 중심으로 한 수평구조를 한다. 예컨대 다음 (48)은 인칭, 성, 수 및 완료상이 접미사로 각각 분리되어 실현된 동부 시다마 예이다. 오로모에서는 성과 상-표지만 나타난다(49).

- (48) Sidaama *seeda* *mančo* *dag-g-ino*.
tall.NOM.F person.NOM.F come-3SG.F-PERF.3
‘The/A tall woman came.’
- 권명식 2019:15

49) 여기서 남-쿠쉬조어란 다할로, 아사스 마아 등을 제외한 언어들로 이라쿠(9), 부롱게, 고르와, 알라그와(24)를 말한다. 키슬링(Kießling 2000:4)은 이들을 서부 계곡어(West Rift languages)라 칭했다. PWR란 서부계곡 조어를 줄인 것이다.

- (49) Oromo *húrrée-n arká-Ø d'olki-t-i*
 fog-NOM sight prevent-F-IMPV
 'Fog reduces visibility.'
 Mous 2012:370

시다마나 오로모와 달리 쿠시어들 중에는 선택소(Selector), 혹은 술어표지라 불리는 별도 기능어로 동사문법범주를 표현하는 언어들이 있다. 여기에는 언어마다 포함되는 범주들이 다른데 남부어인 이라쿠(50)에서는 인칭, 상, 성이 표시되는 반면 동부 소말리어에서는 PGN에 초점범주까지 들어간다(51). 오모-타나그룹의 아르보레어에서는 한정, 직설법 범주가 술어표지에 들어가고 본동사에 별도로 PGN 및 상-범주가 들어가 분리-표시하는 양상을 보인다(52).

- (50) Iraqw(SC) *thuway ku hjeer*
rain(M) 3:IMPS:M insufficient:M
'Rain is insufficient.'
Mous 1993:203, 권명식 2019:14

- (51) Somali (LEC) *Cali moos* *w-uu* *cunay*
 Ali banana FOC.3.SG.M ate:3.SG.M
 ‘Ali *has eaten* a banana.’ Svolacchia et al. 1995:68, 권명식 2019:8

- (52=11) Arbore(OT) *mo* 'i-y *kor* *kúure*
man DEF.IND-3.SG tree cut:3SG.M:PERF
'The man cut the tree.' Hayward 1984:110, 권명식 2019:9

쿠쉬어에서는 TAM과 VIP라는 동사문법범주들 이외에 절의 연쇄구문에서 다음 절의 주어가 앞의 것과 같은 지, 혹은 다른 지를 표시하는 지시변동(*switch reference*) 장치가 있다. 다음은 캄바아타와 하디야 사례이다.

- (53) Kambaata (HE)
urr-úta qocc-éenáni-yan maccoocc-éemm
 door-F.ACC knock-3.HON.ICO-DS hear-1S.PVE⁵⁰)
 'I heard him(hon) knocking at the door.' (Lit. "He knocked at the door, I heard (it)."
 ‘그분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걸) 내가 들었다.’ Treis 2012:9. 권명식 2019:33)

- (54) Hadiyya (HEC)
- | | | | | |
|-------------|----------------|-------------|----------------------------|---------------------------|
| <i>manc</i> | <i>beetina</i> | <i>wo'o</i> | <u><i>uww-ukk-aare</i></u> | <i>ag-ukko</i> |
| man.NOM | boy.DAT | water | give-3mSP-DS | drink-3mSP ⁵¹⁾ |
- "The man gave water to the boy, and he [=the boy] drank it." '그 남자가 소년에게 물을 주자.
 그는 그걸 마셨다.' DS cf. '그 남자가 소년에게 물을 주고, 그는 그걸 마셨다.' SS
- Sim 1989:422, 권명식 2019:34

5.5 오모어

아프리카어의 계통분류에서 그룹들 간의 계통관계가 아직 규명되지 않아서 그냥 지역적으로 묶은 그룹이 둘 있다. 그 하나는 누바산 지역의 코르도판어이고, 다른 하나가 이 장에서 다루려 하는 오모

50) HON = honorific, ICO = imperfective converb, S =singular, DS = different subject

51) SP = simple perfect

어 그룹이다(Güldemann 2018). 그린버그(Greenberg 1963a)의 네 개 어족 분류 중, 북부에 위치한 아프로아시아어족은 다섯 개의 하위분파들로 구성되어 서쪽부터 베르베르, 고대-이집트어, 차드어, 셈어 그리고 쿠쉬어가 그것이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주로 분포된 쿠쉬어는 다시 북부, 중부, 동부, 서부, 남부로 나뉜다. 1969년 플레밍(Fleming 1969)은 서부 쿠쉬어를 분리하여 ‘아아리-카파(Aari-Kafa)’라는 새로운 명칭과 함께 이를 아아어족의 여섯 번째 분파로 설정했다. 그가 사용한 비교 방법은 어휘통계학과 문법 형태 비교이다. 소위 동류어(cognates)와 기초어휘(basic word) 비교를 통해 이들 간의 친소관계를 주장하였다. 동류어 백분율을 보면 쿠쉬어들 하위 분파 사이에 불과 12%정도에 불과 하여 다른 아프로-아시아어분파들보다 쿠쉬어가 더 이질적인 면모를 보였다. 그런데 아아리-카파 그룹은 10%도 채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플레밍은 아아리-카파를 쿠쉬어 하위 분파가 아니라 아아어족의 하위 분파로 간주했다.⁵²⁾

플레밍의 오모어 개개 명칭과 하위분류 내용을 사용 화자수와 함께 정리하면 아래 표.14와 같다. 마오(I)와 타-네(II), 마지(III), 아리-반나(IV)를 지역묶음(areal grouping)으로 간주한 귄데만(Güldemann 2018)과 달리 타일(Theil 2017)은 핵심-오모어와 디지, 아로이드로 삼분하여 분류했다.

표.14 오모어 하위분류(Theil 2017:370 & Güldemann 2018)

1. 핵심 오모어(3,68만명)
 - 1.1. Mao (=마오I 16,400): 간자(5,400), Hozo (3천), Seze (3천), Bambassi (5천).
 - 1.2. 공가(65만): Anfillo (500), Borna (2만), 카파(57만), Shekkacho (5.5만). =>타네II
 - 1.3. 예음사(81,600).
 - 1.4. Gimojan (2,946,010): 1.4.1 오메토(2,765,070): 바스케토(57,800), Dorze(20,800), 가모(Gamo-Gofa-Dawro 1,240,000), Kachama-Ganjule (4,070), 마알레(53,800), Koorete (104,000), Melo (20,200), Oyda (16,600), 윌라이타(1,230,000), Zaysete (17,800). 1.4.2 Chara (6,940), 1.4.3 벤치(174,000).
2. Dizoid (=마지III 64,760): 디지(21,100), Nayi (3,660), 세코(40,000).
3. Aroid (=아리-반나IV 261,000): 아아리(155,000), 디메(6,500), Gayil(55,700), 하메르-Banna (42,800), 하로(Karo 1,000).

지리적으로, 그리고 계통적으로 쿠쉬어와 어느 정도 구분되지만 유형적으로는 동사문법범주들이 쿠쉬어에서처럼 동사어근 융합형과 접미사로 분절되어 첨가되는 두 가지패턴이 나타난다. 어간 융합형을 보면 오메토 그룹의 가모가 대표적인데 인칭, 성, 수와 함께 상-범주가 표현된다.

(55) Gamo(Ometo) *šankanča-z-ii dangarsa wodides*
 hunter-M.DEF-NOM elephant.ACC killed:3MSG.PFV
 ‘he hunter killed an elephant.’ Hompó 1990:364, Amha 2018:824

가모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어는 쿠쉬어에서처럼 접미사로 문법범주가 표시된다. 디메(상-인칭), 세코(절연쇄표지), 하마르(시제-법), 바스케토(PGN-시제), 그리고 윌라이타(PGN과 상이 하나의 형태소로 융합됨) 예이다.

(56) Dime(Aroid IV) *kəné ʔéft-ím deis-i-n*
 dog bird-ACC kill-PF-3
 ‘A dog killed a bird.’ Murgeta 2008:47

52) 플레밍은 문법 형태소 특질도 증거로 제시했는데 쿠쉬어에서는 남성 k, 여성 t로 구분을 하는데 반하여 아아리-카파는 이런 성-구분이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구분했다. 인칭대명사 패러다임 형태에서도 1인칭 복수 /n/이외에는 대응이 없고, 음절구조에서도 쿠쉬어들과 달리 아아리-카파는 단음절 구조를 보였다. 1974년 플레밍은 이들 언어들이 쓰이는 오모강 분지 지역 이름을 따 ‘오모어’로 개칭했다(Fleming 1974).

- (57) Sheko(Dizoid III) *dēygn̄ yi-fyáyyn'-ara kòb-tə*
 girl.F.DEF 3FS.POSS-frog.F.DEF-ACC take-SS
 'The girl took the frog and ...' Hellenthal 2010:258
- (58) Hamar *fora durbo ?is-idi-ne*
 Fora porridge eat-PST-DECL
 'Fora ate porridge.' Binyam 2016:85
- (59) Basketo *ot-a-d-i kedd-i-de*
 (타네II) pot-3MS-DEF-NOM fall-3MS-PAST⁵³)
 'The pot fell(항아리가 쓰러졌다).'
- (60) Wolaytta(마지III)
naʔ-ái ?iss-í maxááp-aa shamm-íis.
 child-NOM.M.SG. one-OBL. book-ABS.M.SG. buy-PF.3M.SG.
 "The boy bought a book(아이가 하나의 책을 샀다)." Wakasa 2008:1041

계통적으로 오모어가 아니라는 주장과 지리적 분포로도 본 그룹과 멀리 떨어져 나일-사하라어 지역에 있는 마오는 유형적으로도 아주 복잡한 접미사구조를 보인다. 부정, 시제, 인칭 및 범 범주가 접미사로 연이어 나타난다.

- (61) Northern Mao(I)
 a. *tjám-á-gà-t-bí-f-á*
 count-NEG-FUT-1SG-NPST.AUX-DECL
 'I will not count(나는 세지 않을 것이다).' Ahland 2012:385, Amha 2018:827
- b. *rá-m-íʃ ha-pò:n-á*
 Ram-SBU AFF⁵⁴)-go.out-DECL
 'Rama left(라마가 떠났다).' Ahland 2012: 472

5.6 차드어

아프로아시아어족의 6개 하위 분파 중에서 차드어의 언어수가 가장 많다. 2012년 프라이징기어와 샤이(Frjzyngier & Shay 2012)는 140에서 160여개로 추정했으나, 8년 뒤 2020년 카롱(Caron 2020)은 170개로 추정했다. 가끔적 개개방언들도 하나의 언어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는 에스놀로그(Ethnologue, Lweis et al. 2015) 통계에서는 이미 195개로 규정한 바 있다. 아프로아시아어족의 북부 분파인 이집트어, 셈어, 베르베르어와 달리 남부에 위치한 쿠쉬어, 오모어와 함께 차드어는 성조가 있으며 구조면에서도 다른 양상들을 내보인다. 이는 언어의 내부변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인접한 수많은 다른 언어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야기된 변화의 결과이다. 북부로는 베르베르 분파인 투아렉이 있고 남쪽으로는 나

53) 바스케토에서는 앞서 콥트어(위 예문 16 & 20b)에서 보았던 변칙적 형태소 배열(Pst-subj-R)이 나타나고 있다. 어근에 가깝게 시제가 오고 그 다음 외곽에 주어인칭 색인이 오는 것이 보편적인데 그 반대 배열(R-subj.-Pst)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특이한 역사적 과정을 암시하는 것이다.

54) AFF는 직설법 긍정(affirmative)을 나타낸다(Ahland 2012:470). 참고로 증거성, 예컨대 전해들은 정보(hearsay)을 나타내는 동사범주도 접미사로 표현된다(ibid).

이저-콩고 어족에 속하는 폴라니와 아다마와 우방기어, 구르어가 있는가 하면 동편으로는 나일-사하라 어족에 속하는 사하라어족(카누리, 카넬부)도 차드어와 인접해 있다. 여기에 슈와 아랍어, 송가이, 중부-수단어족(다자, 바키르미, 사라)이 더 있는데, 이들은 각기 어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판이하게 다르다.

170여개의 차드어들 중에서 2,500만 명의 모어화자를 보유한 가장 큰 언어는 하우사어이다. 교역과 행정, 학문의 언어로서 하우사어를 모어가 아니라 2차적으로 배워 사용하는 인구가 2,000만 명에 달한다. 합치면 무려 4,500만 명의 화자를 보유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랍어 다음으로 큰 언어이다. 그 다음으로 20만 명 이상의 화자를 보유한 언어들이 12개가 있고(웅가스, 자아르, 히기, 마사, 탕갈레 등.), 5만에서 20만 사이의 언어들(마르기, 볼레, 응기짐 등)과, 2만에서 5만에 달하는 화자들의 언어가 16개이다(완달라, 라망, 글라브다 등). 더 내려가면 1,000명이하의 언어들과 사멸위기 상황에 놓인 언어들도 있고, 이미 사라진 언어들도 있다(Caron 2020:345).

차드어는 주로 차드호를 중심으로 차드, 남서쪽 니제르, 나이지리아로부터 카메룬 북부에 분포되어 있다. 대개 네 개 분파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우사를 포함한 서부분파(I), 중부의 비우-만다라(II), 동부분파(III) 그리고 마사 그룹(IV)으로 나뉜다. 셴어, 이집트어 혹은 베르베르처럼 동질적인 언어구조를 보이지 않고 유형적으로 다른, 그리하여 아주 다양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전체 언어들 중 불과 1/4 정도가 기술되어 있으므로 차드-조어의 재구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연구가 잘 된 몇몇 언어들(하우사, 기다르 등)을 중심으로 그 구조적 특징, 요컨대 동사문법범주표시 다양성을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5.6.1 동사어휘의 의미와 술어가 그리고 동사분류(하우사의 단계 grade)

동사 구조를 논할 때 동사어근의 의미(술어가)에 따라 동사는 비-인칭동사, 자동사, 타동사, 이중타동사로 구분된다. 영어 예를 들면 {*to rain, to come, to kill, to give*}가 그것인데 동사-술어에 따라 문장 패턴이 달라진다(예컨대, *It rains. He came. He killed it. She gives it to her*). 요컨대 문장은 패턴에 따라 비-인칭 구문, 자동문, 타동문, 그리고 이중 타동문으로 나뉜다. 영어에서는 동사 자체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그 의미를 바탕으로 구분될 뿐이다. 하우사어는 이와 같은 구분이 네 가지 모형으로 나타나는데(A-D form) 성조와 모음 시리즈로 구분된다. 아래 표.15에서 수평적으로 네 개의 형태로 구분된다. 이는 목적어의 유무(자동/타동), 혹은 1개, 두 개에 따른 구분이다(타동/이중타동). 첫 번째 /___Ø 는 목적어가 없다는 표시이고(자동사), 두 번째 /___PRO.OBJ 는 목적어가 오지만 대명사요소로 온다(대명사 목적어)는 뜻이고, 세 번째 /___N 는 명사로 목적어가 오는 경우이고⁵⁵⁾, 마지막 /___PRO.BEN 는 간접목적어 여격명사가 온다는 것(이중 타동문과 여격 수여동사)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수직적으로는 8가지 단계가 있다(Parsons 1960). 그 형태는 스키마(schema)로 표시될 수 있다. 예컨대 제로 단계는 기본적으로 고-성조를 하는 단음절 동사로서 단어 끝이 /-i, -a/로 끝난다(e.g. *fi* ‘eat’ 또는 *ɗa:* ‘pull’, 혹은 CiCa: 동사들, e.g. *kira:* ‘call’). 이와 같은 형태적 특징과 함께 의미, 기능적 특징도 결부된다. 예컨대 타동사(2단), 자동사(3단), 구심(ventive 사건이 화자로 가까워 짐(6단), 원심(5단 사건이 화자로부터 멀어져 감), 수동(7단), 사건의 철저성(totality, finality 4단)이 그것이다.⁵⁶⁾ 하우사어의 단계 분류는 다른 언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형태적, 의미적 그리고 통사적 정보가 어느 정도 스키마로 나타내진다는 점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⁵⁷⁾

55) 이는 술어가 이외에 명사/대명사 구분을 한 것인데 이는 지시물인 명사구 현저성-위계(Silverstein 1976)에 따른 구분이다.

56) 하우사 단계구분은 술어가와 원근(proximity vs. obviativity) 구분과 함께 태(수동), 그리고 철저성(타동성) 범주가 포함된다.

57) 하우사어 동사범주는 별도의 술어표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사 어근은 어휘 의미 및 파생의미를 지닌다. 그 형태에 따라 8가지로 구분되어 그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하우사 문법연구의 핵심이다. Parsons(1960)으로부터 시작되어 Newman(1973), Furniss(1981)로 이어져 나갔는데, 최근 압둘라에는 RRG(역할과 지시문법 Role and reference grammar) 모델을 토대로 이 동사단계를 새롭게 정리하였다. 요지는 1단동사가 기본형이며 여기서 1차 과정으로 2, 3단계가 도출된다. 2단은 전/후경(figure/ground)을 구분하고, 3단은 성취(achievement)동사이다. 2차 과정으로 4단, 8단이 도출되는데 4단은 전체성(totality)을, 8단은 여기에 직시중심(deictic center) 의미가 가미된다. 마지막 3차 과정으로 6단, 7단 동사가 나오는데 직시중심의 6단에 이어 7단의 강조 및 수동(intensive &

표.15 하우사어 동사 분류 형태와 단계

	A form	B form	C form	D form
	/___Ø	/___PRO.OBJ	/___N	/___PRO.BEN
Grade 0	-i: H -a/-o: H	-i: H -a/-o: H	-i: H -a/-o: H	-i: H -a/-o: H
Grade 1	-a: H-L-(H)	-a: H-L-(H)	-a H-L-(L)	-a: H-L-(H)
Grade 2	-a: L-H-(L)	-e: L-H-	-i L-H (pds)	
Grade 3	-a L-H-(L) (pds)			
Grade 4	-e: H-L(H)	-e: H-L(H)	-e H-L(L)	-e: H-L-(H)
Grade 5	-ar H	-ar H [dà]	-ar [dà] H	-ar [dà] H
Grade 6	-o: H	-o: H	-o: H -o: H	
Grade 7	-u L-H (pds)			

cf. Newman 2007:679, Caron 2013:29

5.6.2 술어표지: 주어 색인과 동사범주(상, 법, 시제)

하우사 인칭대명사는 주어의 인칭과 성, 수 범주로만 구성되지 않고, 거기에도 동사범주인 상, 법, 시제 등이 포함된다. 그리하여 이를 술어표지(PM predicate marker)⁵⁸⁾로 불린다. 예컨대 아래 표.16 패러다임은 인칭대명사가 완료상일 때 나타나는 형태이다. {zoo} ‘오다’라는 동사와 결합하여 *Sun zoo*가 되면(3P.PL.PFV-come), ‘그들이 왔다.’라는 완료의미가 된다. 완료범주가 동사어간에 붙지 않고, 주어인 대명사에 융합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술어표지 안에 주어인칭과 수, 성 그리고 상의 구분이 하나의 포트망토 형태소로 융합되어 실현된다.

표.16 하우사 인칭대명사-술어표지(완료상)

	SG.	PL.	
1	<i>naa</i>	<i>mun</i>	
2m.	<i>kaa</i>	<i>kun</i>	
f.	<i>kin</i>		
3m.	<i>yaa</i>	<i>sun</i>	<i>zoo</i> 'They have come.'
f.	<i>taa</i>		
	<i>an</i>		

Kraft & Kirk-Greene 1978:36

아래 표.17은 하우사어 술어표지 패러다임의 완료상인 경우 인칭과 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형태들이다. 완료상은 다시 일반 단문인 경우(PF)와 초점화기능(FOC)이 있는 관계문이나 복문인 경우로 그 형태가 세분화 된다. 그리고 부정이 되면 부정표지(NEG)와 함께 다른 패러다임이 나타난다. 사실 여기서는 완료상만 제시하였으나, 미완료상이 되면 그에 따른 다른 패러다임이 따로 나타난다. 예컨대 1인칭 단수에서 완료의 *na*: 대신, 미완료 한정미래는 *zan*, 미래조건은 *naa*, 습관상은 *na kan*, 지속은 *ina*, 관계문-지속은 *ni ke*로 실현된다(Smirnova 1982:56-57).

표.17 하우사 술어표지 형태(완료상/시제) Caron 2013:16

	Perfect	Relative Perfect(FOC)	Negative Perfect(NEG1a.PFV... NEG1b)
1 s.	<i>na:</i>	<i>na</i>	<i>bàn... ba</i>
2 m.s.	<i>ka:</i>	<i>ka</i>	<i>bàkà... ba</i>

passive) 기능을 갖게 된다(Abdoulaye 1992:292, 장태상 2003:1198-1204).

58) 서-아프리카 다른 언어들과 달리 하우사어의 경우는 동사범주인 TAM(시제, 상, 법) 뿐만 아니라 주어의 인칭, 성, 수가 함께 온다. 그리하여 술어표지(PM)라는 용어대신 인칭이 포함된 PTAM(인칭-술어표지)로 불리기도 한다(Abdoulaye 1992:95). 이 요소는 하나의 단어로 동사 앞에 오기 때문에 동사선행 대명사(PVP, pre-verbal pronoun)으로 불리 PTAM중 인칭대명사 주어를 따로 분리하여 부르기도 한다.

2 f.s.	<i>kin</i>	<i>kikà</i>	<i>bàkì... ba</i>
3 m.s.	<i>ja:</i>	<i>ja</i>	<i>bàì... ba</i>
3 f.s.	<i>ta:</i>	<i>ta</i>	<i>bàtà... ba</i>
1 pl.	<i>mun</i>	<i>mukà</i>	<i>bàmù... ba</i>
2 pl.	<i>kun</i>	<i>kukà</i>	<i>bàkù... ba</i>
3 pl.	<i>sun</i>	<i>sukà</i>	<i>bàsù... ba</i>
4 imp.	<i>an</i>	<i>akà</i>	<i>bà'à... ba</i>

5.6.3 동사문법범주 표시 유형과 사례

쿠쉬어에서 그랬던 것처럼 차드어의 문법범주표시 양상은 크게 접사 유형과 술어표시 유형으로 나뉜다. 접사유형에서는 동사어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법범주가 첨가되는 방식이고, 술어표시 유형은 어근으로부터 분리되어 별도의 자립형태소 안에 여러 문법범주들이 하나의 포트망포 형태소를 구성하고 이 변이형들은 다시 수직적으로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아래 몇몇 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우-만다라(중부) 그룹의 라망은 어근 앞에 장소 혹은 행동동사(미래시제로 문법화됨)가 오고 어근 뒤에는 인칭, 수 표지가 접미사로 나타난다(62).

(62) Lamang

- a. *ŋ-skwéb-i*
in-come-1P.SG ‘나는 (지금) 오고 있다.’ [진행상(progressive aspect)]
- b. *tághà-skwéb-i*
upon-come-1P.SG ‘나는 곧 온다. ~오겠다.’ [의도서법/현재진행]
- c. *dá-skwéb-i*
go-come-1P.SG ‘나는 올 것이다.’ [미래시제, prospective modality]

Wolff 1981:253

또 다른 비우-만다라 B-그룹에 속하는 기다르에서는 타동문에서 술어표지가 오지만(63b) 자동문에서는 접사유형으로 나타난다(63a). 주어와 목적어가 대명사 요소(색인)로 나타나 동사 어근에 접사 형태로 통합되는데, 주어(3인칭 남성, 복수 *à...-n* ‘they’)는 동사 어간을 중심으로 앞뒤로 분리되어 있고, 목적어와 상 표지가 접미사로 실현된다. 목적어 표지 {-nə}가 완료 시제 {-ka} 앞에 오는 특이한 배열이다(63a).⁵⁹⁾ 타동문에서는 술어표지가 나타나지만 여기에는 상(PROG)과 주어 색인 성(F)만 표시되고, 목적어색인(인칭, 성 3M)은 어간에 접미사로 나타나(63b) 두 개의 색인표시패턴이 상보적으로 분리되어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어호응표지가 아니라 목적어 호응표지가 동사어근에 오는 것도 이례적이다.

- (63) Gidar a. *a-pərm-nə-n-ka*
3M-hear-3M-PL-PRF
‘They heard it.’ Frajzyngier & Shay 2008: 281
- b. *ma win ta-t əzgəl-ni*
mother child PROG-F feed-3M
‘The mother is feeding the baby(M).’ Frajzyngier & Shay 2008: 281

59) 이 변칙적 배열 사례는 이미 앞의 콧어(16), 오모어인 바스케토(59)에서 살펴본 바 있다.

계통적으로 동일한 비우-만다라(A-그룹)에 속하지만 마르기는 고립어적 분석패턴을 보인다. 현재시제와 2인칭 단수표지가 하나의 자립형태소로 동사어근과 분리되어 실현되고 있다. 계통과 유형의 괴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요컨대 계통과 무관하게 유형이 아주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 (64) Margi a. *à sá gù*
PRES go-astay 2P.SG 'you go astray(너는 탈선했다.)'
b. *á wì gú* 'you run'
c. *á vəl gù* 'you fly' Kenstowicz 1994: 312f

하우사는 전형적인 술어표지를 보여준다. 아래 예는 인칭, 수, 상 그리고 초점여부를 단일 형태소 {*sun*}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17에서 보듯 이 요소는 여러 문법자질과 범주들을 기반으로 하여 수직적 비선형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다.

- (65) Hausa *ma:ta: sun⁶⁰ tsajà:*
woman.PL 3PL.PFV.NFOC stop
The women stopped. Caron 2013:15

5.6.4 차드어 기원과 이주 그리고 아아어족 내에서의 위치

차드어를 포함한 5개 하위 분파들의 조어인 아프로-아시아어족의 기원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다. 1965년 디아코노프는 아아어족을 북부와 남부로 대별하여 북부는 이집트어-베르베르-셈어(EBS)로 하고, 남부는 차드어-쿠쉬/오모어(C'CO)로 하였다. 그리고 기원지를 사하라 사막 남쪽 경계지역으로 제안했다. 1988년 그는 보다 구체적인 이주 경로와 시기를 바탕으로 3단계를 구분했다. 1만 년 전 이집트어(E)가 최초로 나일강 하구로 이주하였고, 그 다음 9,500년 전 차드 모어(C)의 동서 이주가 뒤따랐으며, 마지막으로 베르베르, 쿠쉬, 셈어(BCS)의 동, 서, 남 이주가 9,000년 전 시작되었다는 것이다(Diakonoff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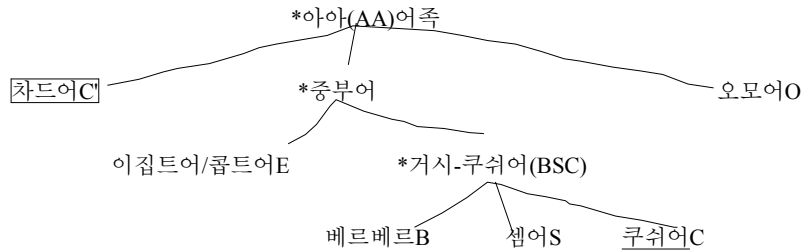
1975년 벤더(Bender 1977)는 아아어의 기원지를 청나일과 백나일의 합류지점인 카르툼으로 상정했다. 그리고는 1997년 내부 분류와 함께 새로운 이주 경로를 제시했다. 한편 버널(Bernal 1980)은 언어학적 증거가 아니라 고고학적 증거를 토대로 케냐와 에티오피아 국경 오모 지역을 기원지로 설정했다. 벤더 역시 3단계 이주 가설을 제시했는데 첫 단계는 이집트어, 오모, 차드어(EOC)의 북부, 서부, 남부 이주이다. 이는 버널의 시나리오와 일치하는 데, 1만년 전경 모종의 '폭발'이 일어나 차드어(C)와 오모어(O) 분파의 이주를 선두로 이집트어(E) 북부 이주가 뒤따랐다는 것이다. 이는 BSC(베르베르-셈-쿠쉬)를 뒤에 남겨 놓았는데 8만에서 7만 년 전 경 베르베르(B)가 북서로 떨어져 나가고, 셈어와 쿠쉬어(SC)가 동부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그 원인은 이주, 정복, 교역이 관여된 것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셈어(S) 화자들이 에티오피아지역에서 홍해를 넘어 아라비아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 같은 가설의 근거는 언어 다양성과 분포지역의 상호관련성에서 나타나는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요컨대 언어수가 적고, 유형 다양성이 단조롭고 간단한 경우가 최근의 확산 결과이고 언어수가 많고, 분포지역은 좁지만 언어수와 다양성이 클수록 오래된 것이라는 원리이다(Greenberg 1957:48-9). 전자는 셈어(S)이고 후자는 오모-차드어(OC)이다. 그러므로 아아어족의 기원지는 메소포타미아나 근동 레반트 지역이 아니라(전통적으로 선진 문명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믿어 왔다), 아프리카 내륙 지역이라는 것이다. 기원지와 이주 단계 및 경로는 아아어족의 하위분류와 직결된다. 벤더(Bender 1997:22)

60) 하우사 술어표지(PTAM)가 문장구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예컨대 완료에서는 *sun*이었으나, 지속(미완료)가 되면 *sunàa*가 되고, 미래는 *zàa su*, 습관형은 *sukàn*, 가상법에서는 *sù*로 변한다. 그러므로 12개로 구분되는 술어표지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것이 하우사문법의 관건이라 하겠다. 가상법이 가장 간단하고 완료/미완료(지속)에 이어 관계절에서만 나타나는 관계(완료/지속)이 있고 부정(완료/지속)에 더하여 미래, 결과(eventual), 습관형이 있다(cf. Smirnova 1982:56-57, Abdoulaye 1992:95-96).

는 아아어족을 아래 표.8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18 아아어족 하위분류와 차드어 위치(Bender 1997:22)



EOC'는 계통단위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BSC는 공유혁신과 동사의 3자음골격 구조 및 접두사 활용 패러다임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기에 하나의 단위를 이룬다(=거시 쿠쉬어). 쿠쉬어는 단일 어족이 아니라 6개의 어족으로 이루어 졌다는 주장이 있(Hudson 1977). 벤더는 여기에 셈어와 베르베르를 추가하여 거시 쿠쉬어를 상정했다(BSC). 인도유럽어의 기원지는 오늘날 터키 지역인 아나톨리아나 흑해 북부로 보고 있는데 벤더는 인구어가 셈어와 함께 북부 이주한 거대 쿠쉬어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이제까지 아프리카인들이 셈어, 이집트 헤게모니 속에서 변방어로 간주되곤 했는데 그 반대의 역발상이 대두되었다.

6. 유형다양성 비교와 설명

언어구조의 특이성과 다양성은 한 마디로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구체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 나가야 한다. 그 특이성은 언어보편성 혹은 보편 원리를 염두에 둘 때 거기서부터 얼마나 이탈되어 나갔느냐에 따라 그 특이함의 정도가 부각된다.⁶¹⁾ 동사문법범주는 동사어휘에 내재된 여러 특질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 코딩될 때 이들이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Bybee 1985). 이런 전제로부터 형태적 측면으로, 어휘와 문법범주의 융합성 척도가 나타난다(아래 표.19).⁶²⁾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한 유형분류가 가능해진다. 의미면으로 보면 인간이 세상의 현상을 파악해 나갈 때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하며 어느 것을 부차적인 것, 혹은 그 다음 단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인지척도에 대한 생각이 또 다른 기준이 된다.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각기 다른 문법범주들이 개별 언어마다 다르게 실현되게 된다(아래 표.21). 두뇌의 진화, 그에 따른 감지와 인지, 그리고 인식이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지에 대한 것은 언어학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류 진화의 생물학적, 인류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그리고 역사적 사회적 변화과정, 인구집단의 지리적 분포 및 이동은 알게 모르게 언어구조 다양성 형성에 기여를 한다. 어디까지 실증적으로 이를 규명할 수 있을 지는 그 다음의 문제이지만 오늘날 엄청난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의 혁신으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진전을 보고 있다.

6.1 동사문법범주의 생성과 진화(문법화와 유표성이론)

371개에 달하는 아프로-아시아어족 언어들의 구조는 다양하기 그지없다. 여기서는 대략 40여개 언어들을 6개 분파별로 나누어 여기에 나타난 동사관련 문법범주들로 그 고려대상을 줄였다. 그럼에도

61) 예컨대 어근과 문법범주 형태소 배열에 있어 어근, 파생접사, 굴절요소 등의 순으로 배열되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접두어 등 접미어든 이 원칙을 따른다. 하지만 콥트어(16), 바스케토(59), 기다르(63a)는 이 원칙에 벗어난 특이구조를 하고 있다. 유형의 분포가 균등하지 않고 특정 유형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요컨대 사용빈도가 많고 분포가 넓은 것이 보편적인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이와 달리 이 것이 역사적 개연성의 결과일 뿐 언어보편성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글로벌 차원의 유형 분포에서도 편중과 불균등한 현실이 나타난다. 유형다양성 설명에서 이 같은 현상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Bickel 2007, 2015).

62) 동사문법범주가 어휘와 분리되어 문장의 다른 위치에 나타나는 술어표지나 기능어 전략은 융합성 척도에서 가장 낮은 패턴으로 이 같은 전략은 문법화(Lehmann 1982)와 반대되는 화용화(Kwon 2017, 권명식 2017) 전략을 따른 것이다. 언어의 표현성이 아니라 소통용이성과 경제원리가 주도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불구하고 나름의 다양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어휘와 달리 문법범주를 TAM과 VIP로 줄였으나 시제, 상, 법 사이에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상호 긴밀히 연관된 부분이 있어 어떤 경우에는 그 부분이 어려운 경우가 허다했다.⁶³⁾ VIP에 속하는 술어가, 태, 색인, 언표 및 양극성 범주도 그 성격이 제각각 다르며 주어진 언어체계 내에서 나타나는 양상 또한 다양했다.⁶⁴⁾ 아아어족에 속하는 371개 언어들 중 40여 샘플 언어를 바탕으로 그 다양성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핵심유형패턴을 헤아려보기 위하여 몇 가지 전략을 구사해보았다. 언어비교는 토대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선 인간이 갖는 인지와 소통이라는 거대한 두 가지 기능에서 출발한다.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문법범주로서 언어구조체계 안에서 구체화된다. 동사인 경우 그것이 TAM & VIP로 표출되는 것이다. 모든 언어들에서 이 범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전략은 구체적 형태로서의 구문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유형화 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어휘와 문법을 양대 축으로 한 나이저-콩고어들의 동사문법범주 비교연구(권명식 2022)에서 7개 기본패턴들을 도출한 바 있다(위 §3.1-§3.8). 아프로-아시아어족과 사뭇 다른 유형의 언어들이긴 하지만 나이저-콩고 어족에서 도출된 7개 패턴을 비교의 출발점으로 삼아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보고자 했다. 아래 패턴(표.19)은 분석-통합연속체 내에서 나타나게 된 7개 주요유형을 융합성정도 혹은 분석적도에 따라 일직선상에 배열한 것이다. 그리하여 주어진 데이터(총 65개 예문)가 이 중 어디에 속하는 지를 규정해보고자 했다.

표.19 동사문법범주의 7개 표현패턴

무표-불이행(Ø) > (양분에 의한 유표출현) > 계열동사 구문(V1-V2) > 조동사 구문(Aux-V) > 기능형식어(gW) > 술어표지(PM) > 접사(affix) 형태 > 통합 융합(portmanteau morpheme) 형태

고립어와 첨가어가 주종을 이루는 나이저-콩고어들과 달리 굴절성향의 아프로-아시아어족 언어들 비교에서는 자음굴격과 모음시리즈라는 독특한 형태과정이 나타나, 위 7개 구문패턴 이해에 있어 별도의 특질이 첨가되었다. 이 논문에 제시된 65개 예문들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20과 같이 분류된다. 이 패턴은 주어진 언어의 대체적 유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일한 언어라 해도 구문(construction)에 따라 여러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여 언어명이 중복적으로 나타났다. 예문 번호를 제시하여 구체적 구문에 따른 분류임을 분명히 했다. 무표-불이행의 경우는 사례가 하나로 제한되었고⁶⁵⁾ 계열동사, 조동사 구문, 기능형식어 패턴도 나이저-콩고어에 비하여 적었다. 술어표지는 중부 내륙 나이저-콩고 및 나일-사하라 접촉지역 언어인 차드어와 쿠쉬어에 주로 나타났다. 접사유형이 가장 많았는데 이 패턴이 전 세계 글로벌차원에서 해당된다. 요컨대 유형패턴이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고 특정 패턴으로의 쏠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유형의 보편성과 일반성의 문제논의와 연결된다.

접미사가 주류를 이루지만 접두사로 나타난 것은 (*)표로 표시했고, 접환사인 경우에는 (**)로 표시하여 구분했다. 포트망토 융합패턴은 주로 북부 아아어들에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자음굴격/모음시리즈 패턴⁶⁶⁾은 성격상 표.5-6, 9로 주어진 설명을 기입했다.

63) 예컨대 하우스어의 술어표지 na:는 완료시제(Caron 2013:16, 표.17), 혹은 완료상(perfective)으로 규정되고 있는데(Smirnova 1982:56) 핵심기능은 상이고 완료시제는 부차적 해석일 것이다.

64) 예컨대 중심-후행어인 베자어에서는 사역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술어가 변동표지가 어근에 가장 가까이 오고 논항색인이 그 다음에 오는데 주어, 직접목적어가 아니라 간접목적어가 후철형식으로 온다(9). 반면 구라게 샘플어인 구메르에서는 어근에 완료상이 융합되어 나타나고 주어인칭 색인은 접미사, 부정법은 접두사로 실현된다(31a). 아랍어 부정법은 별도 기능어로 나타난다(30).

65) 아아어족 언어들은 굴절어들로 고립어유형에서 빈번한 무표-불이행 패턴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랍어기반 피진-크리올이나, 남쪽 나이저-콩고, 만데 접촉지역의 차드어에서 혹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유형의 편중은 지리적, 역사적 특이성을 반영하고 있다.

66) 자음굴격과 모음시리즈 패턴은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아주 특이한 유형이지만 아프로-아시아어족 테두리 안에서 보면 오히려 보편적 경향을 내보인다. 계통과 지리적 분포 그리고 언어내적 요인에 따라 보편성개념이 상대적으로 갈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20 동사문법 범주의 형태/구문 변이의 다양성 8단계

무표불이행 > 계열동사 구문 > 조동사 구문 > 기능어 > 술어표지 > 동사접사 > 포트망토 융합 > 자음골격									
고대 이집트어	겔프 피진-	표준 아랍어(7)	누비(10)	아르보레(11, 52)	무헤르(26)	표준아랍어	타마섹(37)		
	아랍어(4)	암하라(8,29b,c)	마르기(64)	알라그와(12)	게에즈(28)	(14, 26)	표준아랍(표.5,6)		
	누비(5,6)	베자(9)	아랍어(30)	이라쿠(50)	가다메스(38)	하라리(36)	투아렉(표.9)		
	-		카빌레(41b)	하우사(13, 65)	카빌레(40, 41)	빌린(46)	셈어(표.7)		
	카빌레(42b)	-	소말리(51)	시다마(48)	다세네치(47)	베자(43)			
	-	중기이집트어(19, 30)		오로모(49)	가모(55)	구메르(35)			
	고대이집트어(19a)	암하라(29c)	디메(56)	아카드(27a)					
		아랍어(30)	세코(57),	구메르(33)					
			바스케토(59)	카빌레(40b)					
			월라이타(60)	암하라(36)					

- 접사유형으로 접미사가 오는 언어 추가: 하마르(58), 마오(61), 커발레(41), 수단 아랍어(표.1), 구메르(31a), 암하라(34). *접사유형으로 접두사가 오는 언어들: 누비(2), 콥트어(16, 18c), 키스타네(27), 구메르(31), 베자(44), 암하라(34), 라망(62), 기타르(63). **접사유형으로 환접사가 오는 언어들: 아카드, 아랍어(30), 타마지트, 소말리 & 셈어(이상 표.3) 베자(43), 카빌레(40), 투아렉(표.9).

6.2 표현형태 다양성과 구문패턴의 유형화

표현형태 다양성과 구문패턴 유형화는 공식적 비교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지만 통시적 언어변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진화단계로 이해될 수도 있다. 유형다양성은 동시에 언어구조의 복잡-정교화 과정으로서 문법화 정도(권명식 2022:10)로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무표-불이행 단계는 문법범주의 구분이 부재한 경우로 필요한 개념이나 기능은 화행맥락이나, 주어진 상황 혹은 세계에 대한 대화참여자의 지식에 근거되어 표현이전에 유추되는 방식이다. 여기서부터 보다 적극적인 범주가 유효항으로 나타나면 그것 이외의 기능과 의미만 무표항으로 분류되게 된다. 예컨대 미래시제가 나타나면 그 나머지 현재나 과거 등은 -[FUT] 개념범주 안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언어의 분별성 요구가 충족되어 간다. 복잡-정교화과정(Miestano 2008)의 또 다른 설명으로 유효성이론(Jakobson 1957)은 범주의 생성과 구분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언어사용 같은 언어현실을 잘 반영한다. 양분법에 의한 유효범주의 출현은 문법의 진화패턴을 잘 설명해 준다. 어휘에서 문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열동사 구문, 조동사 구문, 기능어 패턴 혹은 술어표지전략 등 다양한 중간 단계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때로 서로 중첩되어 명확한 경계를 긋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접사전략과 포트망토 융합은 어휘와 문법의 통합이라는 궁극적 단계라 할 수 있다. 물론 음성변화 마모에 의해 이 형태가 사라지고 기능만 남아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단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주어진 문법범주 개념이나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문, 혹은 어떤 구조로 나타나는 가는 유형화하기 용이하지만 반대로 이 논문에서 언급된 언어자료들을 바탕으로 동사관련 문법범주들이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고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논문 제목에서 이미 제시했듯이 TAM & VIP라는 문법범주들이 이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데이터를 바탕으로 취급되고 있는 지를 우선 도표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유형 비교적 논평을 곁들이고자 한다. 다음 표.21은 동사관련 문법범주와 그와 관련된 취급 언어데이터 사례이다.

아프로-아시아어족 언어들은 시제체계보다 상-체계 주도언어들이다. 시제는 거의 문법화되어 있지 않다. 표.7의 셈어의 경우에서 보듯 완료/미완료 구분이 일차적이며 이에 따라 과거 및 현재시제 의미가 맥락에 따라 부차적으로 해석될 뿐이다. 아랍어가 피진-크리올화 되는 과정에서 시제가 생성된다(누비). 영어에서는 [과거]가 유효화 되지만 누비에서는 미래가 유효로 기능한다. 현재, 과거의미는 -FUT에서 해석된다.⁶⁷⁾ 상 범주는 동사어휘의미를 바탕으로 완료/미완료로 구분되고 미완료인 경우 습관(중기 이집트어3a), 지속(남-쿠쉬어, 표.13), 진행(누비2)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는 일반적 미-완료상

분화과정과 일치한다. 아아어족 대부분의 언어들이 완료/미-완료상 구분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시스템에 의거하여 동사범주가 표시되고 있다. 후기 이집트어(18)에서 미-정형(Aorist)이 나타나는데 시제, 상 구분 이전의 무표 범주이다.

표.21 동사관련 6개 문법범주들과 취급된 언어데이터

T(시제)	A(상 & 어휘상)	M(법 & 서법)	V(술어가 & 태)	I(색인 & 연표)	P(양극성)
누비(2)	누비(2) +PROG	아랍어(7)	중기이집트어(20)	하우사(표.17)	중기이집트어(19)
+FUT		의무서법	남쿠쉬어 수반, 지향	PGN-색인	표준아랍어(29)
빌린(17)	중기이집트어(3a)	암하라 필연서법(8)	(빈번, 지속, 진행,	술어표지(완료, 관계, 부정)	
PST				중기이집트(3b)	
바스케토 HAB		전망(<come)	습관, 중간, 수동,	베자(9, 44)	아예르(표.9)
(59) PST 누비 PF(5b)		(9)	사역(표.13)	아르보레(11)	북-마오(61a)
콥트PST IPFV(6a)		아르보레 직설법(11)	하우사 동사단계(표.15)	콥트(16)	
(17) PF(13)		알라그와 기원법(12)	타동2단, 자동3단,	알라그와(12)	
마르기(64) 베자PFV/IPFV(44)		라망 의도(62c)		아랍어(25)	
PRS		하마르(58) 직설법		무헤르(26b)	
셈어 TAM미분리		콥트어 진행(21)	구심/원심(5단),	암하라(29)	
(완료 > 미완료) 표.7		마오 직설법(61)	수동(7단), 철저성4단	하라리(36b)	
표.9 투아렉 자음결구 & 접사(완료/미완료, 직설, 긍정, 사역, 중간태)		후기이집트(18)	권고: 키스타네(27b)	타철히트(39)	
		미정형(AOR)	구메르(33)	베자 사역, 수동(45)	카바타(53)

- 주어색인(추가): 하디아(54), 가모(55), 디메(56), 바스케토(59), 윌라이타(60), 마오(61)

법/서법 범주는 직설법(아르보레11)/가상법 구분이 핵심이다. 이는 현실/비현실(+REALIS, IRREALIS)로 나타난다. 이는 명제의미를 기준으로 문법화된 것인데 발화참여자인 화자의 판단이나, 평가가 개입되면 서법으로 나타난다. 의무, 전망, 필연(암하라8) 등이 그 예이다. 에티오피아 셈어인 구라게 그룹의 키스타네(27b)와 구메르(33)에서는 명령법과 유사한 권고법(jussive)이 나타난다.

색인은 보통 동사호응으로 알려져 있다. 동사에 표시된 PGN 호응은 별도 논항이 있어 이를 유발시킨 것이지만(문법색인) 반투어에서처럼 논항이 병치(apposition)된 관계로 존재하는 호응이 있다(교차색인). 마지막으로 논항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프로색인(pro-index)이 있다. 여기서는 이 구분 없이 동사에 표시된 대명사요소를 모두 색인 범위로 넣었는데 대부분 아아어족 언어들이 여기에 속한다. 각 분파별 예를 들면 콥트어(16), 셈어인 표준 아랍어(25)와 게에즈(28), 베르베르어인 타바쉴(37)과 카빌레(40), 쿠쉬어인 빌린(46)과 소말리(51), 오모어인 디메(56)와 윌라이타(60), 마지막으로 차드어인 라망(62)과 기다르(63)가 그것이다. 이 중에는 색인이 동사어간이 아니라 술어표지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아르보레 11, 이라쿠 50, 하우사 13, 소말리 51). 알라그와의 경우(12)는 술어표지가 있으나 색인은 동사어간에 표시되었다. 색인에 이어 태(voice)는 수동, 중간태, 채귀, 상호 등이 있으나 언어에 따라 굴절 혹은 파생 영역으로 그 특성이 나뉜다. 여기서는 남쿠쉬어의 여러 태들이 나타났고(표.13), 하우사어인 경우 동사의 단(7단/수동, 표.15)으로 표시되었다.

하우사 동사의 단계 분류는 특이한 현상인데 술어가와 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원심/구심을 구분하여 직시중심인 화자와 사건의 거리를 나타내는 범주였다. 여기에 더하여 ‘철저성(4단)’은 보다 알려진 용어로 ‘타동성’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술어가(valence)는 동사의 어휘의미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별도의 문법범주로 나타나지 않는다. 술어가 변동기체로서의 수동, 지향, 상태, 사역이 있어 별도로 취급되었다. 연표는 발화행위와 결부된 것으로 화자의 언술행위가 직접 문장형태에 나타난 것이다. 직

67) 누비 이외에 시제가 나타난 경우는 콥트어(19)와 빌린(41), 그리고 바스케토(59)였다. 그러나 이들 언어에 나타난 과거와 현재시제는 바로 완료상과 미-완료상에 대응되는 것으로 상-체계의 일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설법/가상법과 달리 보통 의문, 명령, 요청, 지시, 저주, 기원 등의 화행이 문장에 표시된다. 끝으로 양극성은 긍정, 부정을 말하는데 특히 유표범주인 부정이 긍정을 기반으로 유도된다. 하우스에서는 술어표지로 나타나고, 중기 이집트어(19)와 표준 아랍어(29)에서는 별도 기능어로 실현된다. 아예르 투아렉에서는 자음골격으로 표현된다(표.9). 북-마오에서는 접미사로 실현되었다(61a).

6.3 유형다양성 설명: 계통관계, 지리적 분포, 역사적 진화

유형다양성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간단하게 말해서 인지와 소통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결과로 이해된다. 인지와 소통은 다시 언어습득과 언어처리라는 보편과제와 맞닿아 있다(Hawkins 1994, 2004). 유형다양성의 유형화에 따라 각기 다른 8단계 양상들이 나타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문법화(Heine et al. 1991)라는 보편적 문법범주 진화원리에 따를 것이라는 설명 반대편에는 화용화(Kwon 2017)라는 언어소통상의 필요성, 요컨대 언어외적 요인의 작용으로 문화화에서 볼 수 있는 복잡, 정교화의 정반대 구문들의 출현을 볼 수도 있다. 언어변화의 보편원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상반된 이 두 원리들 요컨대 변별성에 기반 된 표현요구와 소통현장에서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화용성, 이 두 원리를 아우르는 일반 보편원칙은 어떤 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Gabelentz 1901, Seiler 1978). 인간의 진화(뇌와 발성기관), 인구의 변동, 언어집단의 기원과 이주, 언어의 확산과 주변화, 언어집단이 향유하고 있는 생태계, 요컨대 언어구조 외적 요인들이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언어집단과 언어 그 자체에 영향을 주어 오늘날의 언어들의 독특한 언어유형다양성이 진화와 적응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산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것(Nichols 1992, 1997, Bichel 2007)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7. 나가는 말

아프로-아시아어족(Sasse 1981, Frajzyngier & Shay 2012, Meyer & Wolff 2019)은 지리적으로 넓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 역사적 추이도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오늘날 존재하는 370여개 언어들의 특징을 동사와 동사문법범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장 잘 정립된 문법범주인 TAM과 VIP가 40여개 샘플언어들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두루 살펴보았다. 무표범주에서 유표 범주로의 이행이라는 일반적 원리를 염두에 두고 이로부터의 과정과 일탈을 유형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굴절어가 갖는 일반적 특징들이 아아어족 언어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 지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단어의 자음골격과 모음시리즈 삽입 그리고 접사에 의한 파생, 굴절범주 표현 메커니즘은 그 복잡한 어형변화 패러다임과 함께 아아어족 언어들의 일반적인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족의 변방에 위치한 언어들(예컨대 아카드와 하우스 등)이 인근 다른 어족 언어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아아어족 보편 유형과 동떨어진 특이 패턴들이 어순, 성조, 분석 구문, 술어표지, 기능어 사용 등의 전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특히 아아어족 언어들에 맞지 않는 고립-첨가적 패턴이 셈어기반 피진-크리올인 누비, 혹은 고대 이집트어의 최종 진화 변이형이 콥트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계통의 언어라 해도 언어외적 접촉 혹은 고유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언어구조가 급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 계보의 언어들의 문법범주 다양성 비교를 통해 언어들의 보편적 특성과 원리들을 함께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방식의 유형다양성 비교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권명식, 1988. 『아프리카학 입문, 역사비교언어학적 접근』. 명지출판사.
 권명식, 1995. “스와힐리어의 담화행태, 텍스트에 나타난 품사의 은유적 전이” 『한국외대논문집』 28:29-47.
 권명식, 2003. “아프리카제어 개관” 변광수(편) 2003. 『세계의 주요 언어』, 도서출판 역락, 1105-1127.
 권명식, 2004. 『아프리카어 연구 입문, 계통분류 및 구조 비교 분석』. 한국외대 출판부.
 권명식, 2017. “화용화와 재-어휘화, 샤바 스와힐리어에 나타난 언어변화를 중심으로”, 2017학년도 한국

- 아프리카학회 상반기 학술회의 논문집. 9-37. (2017년 06월 03일 한국외국어 대학교 이문 캠퍼스 교수회관 강의실 발표).
- 권명식. 2018. “아프리카 언어들에 나타난 문법관계 표시전략의 유형비교, 색인과 격-표시 그리고 구성 성분 어순을 중심으로”, 2018년도 『한국 아프리카 학회 상반기 학술회의 논문집』 47-71. (2018년 6월 9일 토요일, 뉴욕 주립 대학교 대한민국 인천 송도캠퍼스에서 발표).
- 권명식. 2019. “쿠쉬어 통사관계 표시의 유형적 특성, 시다마어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6집, 3-44.
- 권명식. 2019a. “유형비교의 방법과 실제, 아프리카 언어들에 나타난 특이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언어공학연구소,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주최 “세계의 언어: 언어유형과 자원화” 상반기 정기 학술회의(05.31, 금) 기초강연집』 1-30.
- 권명식. 2020. 아프리카 피진-크리올에 나타난 언어변화의 의의, 문법화와 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아프리카 학회 하반기 정례학술회의(2020. 12. 04. 금) 발표논문집』 3-28.
- 권명식. 2020a. 역사언어학과 피진-크리올어, 아프리카 접촉어들에 나타난 변화패턴이 갖는 역사언어학적 의의를 중심으로, 『[사]한국언어학회 겨울 학술회의(2020, 12.12 토) 발표논문집』 75-97.
- 권명식. 2021. 명사 부류와 호응 표시의 유형 다양성 비교, 나이지-콩고어 명사부류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 학회 하반기 정례학술회의(2021. 12. 04. 토)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602호. 발표논문집』 9-59.
- 권명식. 2021a. 유효성과 도상성을 바탕으로 한 유형 다양성 비교, 아프리카 언어들의 문법관계 표시 패턴을 중심으로. 『[사]한국 언어학회 여름학술회의(2021, 06.19.토) 발표논문집』 73-96.
- 권명식. 2022. 동사 문법범주 표시의 유형 다양성 비교, 나이지-콩고어의 동사확장체계와 시제, 상, 법 (TAM)을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한아재단 공동학술회의 (2022년 6월 4일. 숙명여자 대학교 백주년기념관 6층 신한은행 홀, 이건수장학회강의실) 논문집 9-56.
- 장태상. 2003. "하우사어" 변광수(편) 2003. 『세계의 주요 언어』, 도서출판 역락, 1181-1209.
- 조철수. 2003. "수메르어" 변광수(편) 2003. 『세계의 주요 언어』, 도서출판 역락, 1263-1280. 1211-1240.
- Abdoulaye, Mahamane L. 1992. *Aspects of Hausa morphosyntax in role and reference grammar*. dis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 Abdoulaye, Mahamane L. 2011. “Relative clauses in Hausa: a grammaticalization perspective” in *JALL* 32: 1-41.
- Ahland, Michael Bryan. 2012. *A grammar of Northern Mao (Màwés aas'è)*. Ph.D diss. University of Oregon.
- Aikhenvald, Alexandra Y. 1990. On Berber cases in the light of Afroasiatic languages. In Hans G. Mukarovsky (ed.), *Proceedings of the 5th International Hamito-Semitic Congress*, Vol. 1: Hamito-Semitic, Berber, Chadic, 113-122. Wien: Afro-Pub.
- Aikhenvald, Alexandre Y. 1995. ‘Split ergativity in Berber languages’, *St. Petersburg Journal of African Studies* 4:39-68.
- Aikhenvald, Alexandra Y. 2006.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typological perspective. *Serial Verb Constructions: A Cross-linguistic Typology*, ed. by A. Aikhenvald & R. Dixon. 1-68.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ikhenvald, Alexandra Y. 2007. Typological distinctions in word-formation. in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2nd. edition vol. III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65.
- Aissen, Judith. 1999. "Markedness and subject choice in Optimality Theor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7: 673-711.

- Allen, James P. 2000. *Middle Egyptian: An introduction to the language and culture of hieroglyph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mberber, Mengistu. 2005. "Differential subject marking in Amharic", Amberber & de Hoop (eds.) 2005. *Competition and variation in natural languages: The case for case*. Elsevier Ltd.
- Amha Azeb. 2018. The Omotic language family. ch. 26. Script.
- Anderson, Gregory D. S. 2006.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nderson, Gregory D. S. 2011.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in the languages of Africa.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s* 40(1-2). 1-409.
- Anderson, Stephen N. 1985 Inflectional morphology. In Shopen, Timothy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vol. I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0-201.
- Aoun, Joseph, E. Benmamoun & L. Choueiri. 2010. *The syntax of Arab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ppleyard, David L. 2012a. Cushitic. in Edzard, Lutz (ed.) 2012. *Semitic and Afroasiat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orta Linguarum Orientalium, Neue Serie 24)*.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9-295.
- Avram, Andrei. 2020. Arabic pidgins and creoles. in C. Lucas & S. Manfredi(eds.) 2020. *Arabic and contact-induced change*. 321-347.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 Azeb Amha. 1995. Case in Basketo. *African Languages and Cultures* 28 (1):1-7.
- Baker, M. & R. Kramer. 2014. "Rethinking Amharic prepositions as case markers inserted at PF" *Lingua* 145: 141-172.
- Bakir, A. M. 1984. *Notes on Middle Egyptian grammar.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Egyptian language*, 1. Warminster: Aris & Phillips. 2nd edition.
- Basset, André. 1952. *La langue berbère*. London/New York/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 Bender, M. Lionel. 1977. Upside-Down Afrasian. *Afrikanistische Arbeitspapiere* 50: 19-34.
- Beniam, Mitiku Cherinet. 2013. *Harari: A descriptive grammar*. Addis Ababa: Addis Ababa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Bernal, Martin. 1980. Speculations on Afroasiatic origins. ms.
- Bhat, D. N. S. 2004. Negation. in Booij et al. (eds.) 2004. ch.113. p.1207-1212.
- Bickel, Balthasar. 2007. Typology in the 21st Century: Major current developments. *Linguistic Typology* 11: 239-51.
- Bickel, Balthasar. 2011. Grammatical relations typology. In *The Oxford Handbook of Language Typology*, ed. Jae Jung Song, 399-44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ickel, Balthasar. 2015. Distributional typology: statistical inquiries into the dynamics of linguistic diversity. In Bernd Heine & Heiko Narrog (eds.),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Analysis*, 2nd edition, 901-92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ickel, Balthasar & Johanna Nichols. 2007. Inflectional morphology. in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2nd. edition vol. III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69-240.
- Binyam Sisay Mendisu 2016. Negation in Hamar. in Binyam Sisay Mendisu & Janne Bondi Johannessen (eds.) *Multilingual Ethiopia: Linguistic Challenges and Capacity Building Efforts*, Oslo *Studies in Language* 8(1), 2016. 83-108.
- Booij G., C. Lehmann, J. Mugdan & S. Skopeteas (eds.) 2004. *Morphology, an international handbook on*

- inflection and word-formation*. vol. 2. Walter de Gruyter. Berlin.
- Botne, Robert. 2003. Dissociation in tense, realis, and location in Chindali verbs. *Anthropological Linguistics* 45, 390-412.
- Botnes, Robert. 2012. Remoteness distinctions. in Binnick, Robert.(ed.) 2012. *The Oxford handbook of tense and aspect*. Oxford University Press. 536-562.
- Botne, Robert & Tiffany. L. Kershner. 2008. Tense and cognitive space: On the organization of tense/aspect systems in Bantu languages and beyond. *Cognitive Linguistics*, 19,2:145-218.
- Bybee, Joan L.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John Benjamins.
- Bybee, Joan L. 2006. Language change and universals. R. Mairal & J. Gil(eds.) *Linguistic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79-194.
- Bybee, Joan L. & Dahl, Ö. 1989. The creation of tense and aspect systems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Studies in Languages* 13,1: 51-103.
- Caron, Bernard. 2013. *Hausa Grammatical Sketch*. ms.
- Caron, Bernard. 2020. Chadic. in Vossen & Dimmendaal (eds.) *Oxford handbook of African languages*. Oxford university press. 341-358.
- Chaker, Salem. 1995. *Linguistique berbère. Etudes de syntaxe et de diachronie*. Paris and Louvain: Peeters.
- Chung, Sandra, and Alan Timberlake. 1985 Tense, aspect, and mood. In Shopen, Timothy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vol. I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58.
- Claudi, Ulrike. 1994. "Word order change as category change", In W. Pagliuca (ed.), *Perspectives on grammaticalization*, 191-231. Amsterdam: John Benjamins.
- Comrie, Bernard. 1976. *Aspe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mrie, Bernard. 1978. Ergativity. in *Syntactic typology: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language*, 329-394.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ed.) W. Lehmann.
- Comrie, Bernard. 1981 On Reichenbach's approach to tense. In Hendrick, Roberta A., Carrie S. Masek, and Mary Frances Miller (eds.), *Papers from the Seventeenth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24-30.
- Comrie, Bernard.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mrie, Bernard. 1985 *Te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ass, Joachim & Ronny Meyer. 2008. "Ethiopia." in Heine, B. & D. Nurse (eds.) 2008. *A linguistic geography of Af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p.228-250.
- Creissels, Denis. 2006. The construct form of nouns in African languages: a typological approach. 36th Colloquium on African Languages and Linguistics August 28-30, 2006 Leiden University.
- Croft, William. 2004[1990]. *Typology and Universals*.(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hl, Östen. 2004. Tense. Booij G., C. Lehmann, J. Mugdan & S. Skopeteas (eds.) 2004. *Morphology, an international handbook on inflection and word-formation*. vol. 2. Walter de Gruyter. Berlin.. ch.110. p.1180-1190.
- Dell, F. & M. Elmadlaoui. 2013. Syllables and gemination in imperfective stems in Tashlhiyt Berber. *Brill's Annual of Afroasiatic languages and linguistics*. 5:1-34.
- Desclés, Jean-Pierre & Zlatka Guentchéva. 2012. Universals and typology. in Binnick, Robert.(ed.) 2012. *The Oxford handbook of tense and aspect*. Oxford University Press. 123-154.

- Diakonoff, Igor M. 1988. *The Afrasian Languages*, Nauka, Koskva.
- Dickins, James. 2007. Khartoum Arabic. In K. Vesteeh et al. (eds), *The Encyclopedia of Arabic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2, 559-571. Leiden: Brill.
- Dixon, Robert M. W. 1979. "Ergativity" in *Language* 55: 59-138.
- Dowty, D. R. 1972. *Studies in the logic of verb aspect and time reference in English (Studies in Linguistics, 1)*.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Texas, Austin.
- Edzard, Lutz. 2016. On the role of South Arabian and Ethio-Semitic within a comparative Semitic lexicographical project. *Oslo Studies in Language* 8(1): 219-242.
- Fleming, Harold C. 1969. "The classification of West Cushitic within Hamito-Semitic." In: Daniel McCall et al. (eds.). *Eastern African History* (Boston University Studies in African History, vol. 3), 3-27. New York: Frederick Praeger.
- Fleming, Harold C. 1974. "Omotic as an Afroasiatic family",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s*, Supplement 5: 81-94.
- Foley, William A. & Van Valin, Robert D., Jr. 1984, *Functional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Studies in Linguistics, 38).
- Frajzyngier Z. & E. Shay (eds.) 2012. *The Afroasiatic langu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rniss, Gramham L. 1981. Hausa disyllabic verbs: comments on base forms and extensions.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s*. 12: 97-129.
- Gabelentz, Georg von der 1901. *Die Sprachwissenschaft*. Leipzig: Tauchnitz (1. Aufl. 1891) Neudruck Tübingen² 1972.
- Gardiner, A. 1957. *Egyptian Grammar* (3r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diner, Shayna. 2012. Middle Egyptian morphotactics. ms.
- Gragg, Gene & Robert Hoberman. 2012. Semitic. in Frajzyngier, Zygmunt & Erin Shay (eds.) 2012. *The Afroasiatic Langu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5-235.
- Greenberg, Joseph H. 1955.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 Classification*. New Haven CT: Compass Publishing Co.
- Greenberg, Josepy H. 1957. *Essays in Linguistics*. Phoenix. Chicago.
- Greenberg, Joseph H. 1963.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Greenberg(ed.) *Universals of Language*.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pp.73-113.
- Greenberg, Joseph H. 1963a. *The Languages of Africa*. The Hague: Mouton.
- Greenberg, Joseph H. (ed.) 1963b. *Universals of Language*.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Grimes, Barbara F. (ed.) 1996.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13th edition*. Dallas: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and the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 Grossman, Eitan. 2014. No case before the verb in Coptic. In: Eitan Grossman, Martin Haspelmath & Tonio Sebastian Richter (eds.) *Egyptian-Coptic linguistics in typological perspective*. Berlin & New York. De Gruyter Mouton. 203-225.
- Grossman, Eitan & Tonio Sebastian Richter. 2014. The Egyptian-Coptic language: its setting in space, time and culture. In: Eitan Grossman, Martin Haspelmath & Tonio Sebastian Richter (eds.) *Egyptian-Coptic linguistics in typological perspective*, 69-101. Berlin: De Gruyter Mouton
- Güldemann, Tom. 2018.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alogical language classification in Africa" in Güldemann, Tom(ed.) 2018. *The languages and linguistics of Africa*. De Gruyter, Mouton.
- Haspelmath, Martin. 2006. Against markedness (and what to replace it with). *Journal of Linguistics* 42: 25-70.
- Haspelmath, Martin. 2013. "Argument indexing: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yntactic status of bound

- person forms" in Bakker & Haspelmath(eds.) to appear. *Language across boundaries: Studies in memory of Anna Siewirska*.
- Haspelmath, Martin. 2014. A grammatical overview of Egyptian and Coptic. In: Eitan Grossman, Martin Haspelmath & Tonio Sebastian Richter (eds.) *Egyptian-Coptic linguistics in typological perspective*, 103-143. Berlin: De Gruyter Mouton.
- Haspelmath, Martin. 2016. The Serial Verb Construction: Comparative concept and cross-linguistic generalization. *Language & Linguistics* 17,3:291-319.
- Haspelmath, M. & S. Michaelis. 2017. Analytic and synthetic, typological change in varieties of European languages. ms. p. 3-21.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awkins, John A. 1994. *A Performance Theory of Order and Constituen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wkins, John A. 2004. *Efficiency and Complexity in Gramma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yward, R. J. 1984. *The Arbore Language: A first investigation including a vocabulary*. Hamburg: Helmut Buske [Kuschitische Sprachstudien 2].
- Hayward, Richard J. 2003. 'Omotic: The "empty quarter" of Afroasiatic linguistics'. in J. Lecarme(ed.) *Research in Afroasiatic grammar II: Selected Papers from the 5th Conference on Afroasiatic Languages*, Paris, 2000, 241-62. Amsterdam: John Benjamins.
- Heine, Bernd. 1993. *Auxiliaries: Cognitive Forces and Grammatic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Heine, B., U. Claudi & F. Hünemeyer.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ine B. & T. Kuteva. 2005. *Language contact and grammatic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llenthal, Anne-Christie. 2010. *A grammar of Sheko*. Ph.D dissertation at University of Leiden.
- Hengeveld, Kees. 1988. Illocution, mood and modality in a functional grammar of Spanish. *Journal of Semantics* 6.3-4:227-269.
- Hengeveld, Kees. 2004. Illocution, mood, and modality. In Booij et al. (eds.) 2004. Morphology. 1190-2101.
- Hetzron, R. & M. Bender 1976. The Ethio-Semitic languages. in Bender, Bowen & Cooper (eds.) 1976. *The Languages of Ethiopi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ompó, Éva. 1990. Grammatical relations in Gamo: A pilot sketch. In R. J. Hayward (ed.), *Omotic language studies*, pp. 356-405. Lond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 Hudson, Grover. 1977. Language classification and the Semitic prehistory of Ethiopia. *Folia Orientalia* 18: 120-166.
- Huehnergard, John and Aaron D. Rubin. 2011. Phyla and waves: models of classification of the Semitic languages. In Stefan Weninger (ed.), *The Semitic Languages*, 259-278. Berlin: de Gruyter.
- Huehnergard, John and Na'ama Pat-El.(eds.) 2019. *The Semitic languages*. Routledge. ch.1 Introduction. 1-21.
- Jakobson, Roman. 1957[1971].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In: *Selected writings*, vol. 2, 130-147.
- Junge, F. 1985. Sprachstufen und Sprachgeschichte.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Supplement 6: 17-34.
- Kammerzell, Frank. 1995. Egyptian possessive constructions: a diachronic typological perspective. *STUF(Sprachtypologie Universalien Forschung)*. 53,1: 97-108.
- Káasz, Csilla. 2009. *Kausativ im Arabischen*. Schriftliche Hausarbeit zur Erlangung des Grades eines Magister Artium (M.A.) der Philosophischen Fakultät der Christian-Albrechts-Universität zu

- Kiel. Allgemeine und Vergleichende Sprachwissenschaft.
- Kenstowicz Michael. 1994. *Phonology in Generative grammar*. Blackwell, Cambridge MA.
- Khamis, C. & J. Owens. 2007. Nubi (Creole Arabic). 199-216.
- Kießling, Roland. 1996. Verbal inflectional suffixes in the West Rift group of Southern Cushitic. in Griefenow-Mewis & Voigt(eds.) *Cushitic and Omotic Languages, Proceedings of the 3rd International symposium*, Berlin, March 17-19, 1994. 59-70.
- Kießling, Roland. 2000. Some salient features of Southern Cushitic (Common West Rift), *Lingua Posnaniensis* 42:69-89.
- Kihm, Alain. 2011. Pidgin-creoles as a scattered sprachbund. *Journal of Pidgin and Creole languages*. 26,1:43-88.
- Kihm, Alain. 2015. Inflectional scarcity in pidgin/creole languages: what it tells us about their formation and morphological theory. ms. 25pp.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67947035>
- Kihm, Alain. n.d. Inflectional scarcity in pidgin/creole languages: what it tells us about their formation and morphological theory. (CNRS, Paris).
- Köhler, Oswin. 1975. "Geschichte und Probleme der Gliederung der Sprachen Afrikas, Von den Anfängen bis zur Gegenwart" in Baumann (ed.) 1975. *Die Völker Afrikas und ihre traditionellen Kulturen*. Wiesbaden: Franz Steiner. pp. 135-373.
- Kossmann, Maarten 2005. *Berber loanwords in Hausa*. Köln: Rüdiger Köppe.
- Kossmann, Maarten. 2011. Berber subclassification. unpublished manuscript. Leiden University. pp.9.
- Kossmann, Maarten. 2012. Berber. in Frajzyngier Z. & E. Shay (eds.) *The Afroasiatic langu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aft, Charles & Kirk-Greene. 1978 [1973]. *Hausa, teach yourself books*. Hodder and Stoughton.
- Kuteva, Tania. 2001. *Auxili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won, Myong-shik 2017. "Pragmaticalization and Relexification as a Contact Induced Linguistic Change in Building Shaba Swahili, in DRC", *the 7th Institute of African Studies HK International Conference*, at Global campus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on 12th October, 2017.
- Kwon, Myong-shik 2018. "On typological peculiarities of grammatical structure in African linguistic contact areas", *the 8th Institute of African Studies HK International Conference*, at Global Campus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on 25th October, 2018.
- Lehmann, Christian. 1980. Aufbau einer Grammatik zwischen Sprachtypologie und Universalistik. in Brettschneider G. & Ch. Lehmann(eds.) 1980. *Wege zur Universalien Forschung. Sprachwissenschaftliche Beiträge zum 60. Geburtstag von Hansjakob Seiler*.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p.29-37.
- Lehmann, Christian. 1983. Lektion und syntaktische Relationen. *Folia Linguistica* 17:339-78.
- Lehmann, Christian. 1985. "On Grammatical Relationality" in *Folia Linguistica* 19:67-109.
- Lehmann, Christian 1995[1982] *Thoughts on grammaticalization* Lincom Europa, München, Newcastle.
- Leslau, Wolf. 1995. *Reference grammar of Amharic*. Wiesbaden: Harrassowitz.
- Leufkens, Sterre. 2013. The transparency of creoles. *Journal of Pidgin and Creole Languages* 28(2). 323-362.
- Lewis, M. Paul(ed). 2009.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16th edition. Dallas, SIL International.
- Lewis, Paul M., Gary F. Simons & Charles D. Fennig. 2015.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18th eds. Dallas, TX: SIL International.
- Loprieno, Antonio & Müller, Matthias. 2012. Ancient Egyptian and Coptic. In: Frajzyngier, Zygmunt & Shay, Erin (eds.), *The Afroasiatic Languages*. (Cambridge Language Survey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2-144.
- Lyons, John. 1977. *Semantics*. two volu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llinson, Gramham & Barry Blake. 1981. *Language Typology*. Amsterdam: North-Holland.
- Matthews, P. H. 1997.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cWhorter, John H. 2001. The worlds simplest grammars are creole grammars. *Linguistic Typology* 5(2-3). 125-166.
- Meillet, Antoine. 1912. L'evolution des formes grammaticales. *Scientia* 12. (reprinted in A. Meillet. 1948. *Linguistique historique et linguistique generale*, vol.1:130-148. Paris: Deouard Champion).
- Mettouchi, Amina. 2008. Case-marking, syntactic domains and information structure in Kabyle (Berber). in Frajzyngier, Z & E. Shay (eds.). *Interaction of syntax and morphology: Case studies in Afroasiatic*. TLS, John Benjamins: Amsterdam. 7-40.
- Mettouchi, Amina. 2011. The interaction of state, prosody and linear order in Kabyle (Berber), Grammatical relations and information structure. Paper presented on 17th. June 2011 at the 14th Italian Meeting of AfroAsiatic Linguistics in Turin. To appear in A. Mengozzi & M. Tosco (eds.) *Data and Perspectives in AfroAsiatic*, John Benjamins: Amsterdam Philadelphia.
- Mettouchi, Amina. 2017. Predication in Kabyle (Berber), KAB. In Mettouchi, Frajzyngier & Chanard (eds), *Corpus-based cross-linguistic studies on Predication* (CorTypo). <http://cortypo.huma-num.fr/Publication>.
- Mettouchi, Amina. & Z. Frajzyngier. 2013. A previously unrecognized typological category: the state distinction in Kabyle (Berber) in *Linguistic Typology*. 17,1:1-30.
- Meyer Ronny. 2016. Aspect and tense in Ethio-Semitic languages. in Edzard, Lutz (ed.) *The morpho-synthetic and lexical encoding of tense and aspect in Semitic*. Wiesbaden: Harrassowitz, 159-39.
- Meyer Ronny & Ekkehard Wolff. 2019. Afroasiatic linguistic features and typology. in Wolff(ed.) *The Cambridge handbook of African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estamo, Matti. 2008. Grammatical complexity in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In M. Miestamo, K. Sinnemäki & F. Karlsson (eds.), *Language complexity: Typology, contact, change* (Studies in Language Companion Series 94), 23-41. Amsterdam: Benjamins.
- Miestamo, Matti. 2017. Linguistic diversity and complexity, *Lingue e Linguaggio* XVI.2: 227-253.
- Mous, Maarten. 1993. *A Grammar of Iraqw*. Hamburg: Helmut Buske.
- Mous, Maarten. 2005. "Selectors in Cushitic" Voeltz, Erherd F. (ed.) 2005.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 Typ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303-326.
- Mous, Maarten. 2012. Cushitic. in Frajzyngier, Zygmunt & Erin Shay (eds.) 2012. *The Afroasiatic Langu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343-422.
- Murgeta, Seyoum. 2008. *A grammar of Dime*. Ph.D dissertation at the University of Leiden.
- Nait-Zerrad, K. 2001. *Grammaire moderne du kabyle*. Paris: Karthala.
- Næs, Unn Gyda. 2008. "Gulf Pidgin Arabic": Individual strategies or a structured variety? A study of some features of the linguistic behaviour of Asian migrants in the Gulf countries. Oslo: University of Oslo. (Master's dissertation).
- Newman, Paul. 2007. Hausa. in Kaye (ed.) *Morphologies of Asia and Africa*.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vol. 1. 677-712.
- Newman, Paul. 1973. Grades, vowel-tone classes and extensions in the Hausa verbal system.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s* 4: 297-346.
- Nichols, Johanna. 1986 'Head-marking and dependent marking grammar', in *Language* 62: 56-119.

- Nichols, Johanna. 1992. *Language Diversity in Space and Tim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ichols, Johanna. 1997. Modeling ancient population structures and population movement in linguistics and arche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6:359-384.
- Owens, Jonathan. 2014. The morphologization of an Arabic creole. *Journal of Pidgin and Creole Languages* 29:1 (2014), 232-98.
- Parsons, f. W. 1960. The verbal system in Hausa: forms function and grades. *Afrika und Übersee* 44,1: 1-36.
- Reichenbach, Hans. 1947. *Elements of Symbolic Logic*.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Richter, Renate. 1973. Studies of the Verb in Amharic. In: Büttner, Th. and Brehme, G. (eds.), *African Studies - Afrika-Studien. Dedicated to the 3rd International Congress of Africanists in Addis Ababa*, December 1973. Berlin: Akademie-Verlag, 31-48.
- Palmer, Frank R.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emper, Waldfried. 1991. Lexical Causation as a Fundamental Characteristic of the Arabic Verbal System. In: Seiler, Hansjakob & Premper, Waldfried (eds.), *Partizipation - das sprachliche Erfassen von Sachverhalten*, 635-657. Tübingen: Narr Verlag.
- Roettger, Timo B. 2017. *Tonal placement in Tashlhiyt: How an intonation system accommodates to adverse phonological environments* (Studies in Laboratory Phonology 3). Berlin: Language Science Press.
- Rutger, Allan. 2013. "Diathesis/Voice (Morphology of)". *Encyclopedia of Ancient Greek Language and Linguistics*. doi:10.1163/2214-448X_eagll_COM_00000099.
- Sasse, Hans-J. 1981. "Afroasiatisch" in Heine, B., T. Schadeberg & E. Wolff(eds.). 1981. *Die Sprachen Afrikas*. Helmut Buske Verlag, Hamburg. 129-148.
- Schenkel, W. 1990. *Einführung in die altägyptische Sprachwissenschaft. Orientalistische Einführungen*.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wellschaft.
- Seiler, Hansjakob 1978. "The Cologne project on language universals: questions, objectives and prospects" in Seiler (ed.) *Language universals*.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p.11-25.
- Seiler, Hansjakob (ed.) 1978a. *Language universals*.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 Shibatani, Masayoshi. 2004. Voice. in Booij et al. (eds.) 2004. ch.108. p.1145-1165.
- Silverstein, M. 1976. Hierarchy of features and ergativity. *Grammatical categories in Australian languages*, ed. by R. M. W. Dixon, 112-71. New Jersey, NJ: Humanities Press.
- Sim, Ronald J. 1989. *Predicate Conjoining in Hadiyya. A Head-Driven PS grammar*. PhD thesis, University of Edinburgh.
- Smirnova, M. 1982. *The Hausa language, a descriptive grammar*. (translated by G. Campbell).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Stahlke, Herbert F. W. 1970 Serial verbs.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s*. 1.1:60-99.
- Stewart, John M. 1963. Some restrictions on objects in Twi. *Journal of African Languages* 2.2:145-149.
- Störk, Lothar. 1981. "Aegyptisch" in Heine, B., T. Schadeberg & E. Wolff(eds.). 1981. *Die Sprachen Afrikas*. Helmut Buske Verlag, Hamburg. p. 149-170.
- Svolacchia, M. et al. 1995. Aspects of discourse configurability in Somali. In K. Kiss (Ed.), *Discourse Configurational Languages*. pp.65-68.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Tesnière, Lucien. 1959. *É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 Klincksieck.
- Theil, Rolf. 2017. Is Omotic Afroasiatic? a critical discussion. unpublished manuscript.
- Tosco, Mauro. 2000. Cushitic overview. *Journal of Ethiopian Studies*, 23 (2), 87-121.
- Treis, Yvonne 2012. *Switch-reference and Omotic-Cushitic contact in Southwest Ethiopia*. LLACAN (CNRS,

- INALCO), Villejuif, France.
- Tropper, Josef. 2002. *Altathiopisch. Grammatik des Ge'ez mit Übungstexten und Glossar*. Munster: Ugarit.
- Trubetzkoy, Nikolaj. 1939. *Grundzüge der Phonologi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Vanhove, Martine. 2012. Roots and patterns in Beja (Cushitic): The issue of language contact with Arabic. in Vanhove, M., T. Stolz, H. Otsuka & A. Urdze (eds.) *Morphologies in Contact*. Berlin, Akademie Verlag. 311-326.
- Vanhove, Martine. 2014. Beja Grammatical Sketch. In Mettouchi, A. and C. Chanard (eds.) *The CorpAfroAs Corpus of Spoken AfroAsiatic Languages*. 68 pages. DOI: <http://dx.doi.org/10.1075/scl.68.website>.
- Vendler, Z. 1957. Verbs and times. *Philosophical Review*. 66:143-160.
- Völmin, Sashca. 2017. *Towards a grammar of Gumer, Phonology and morphology of a Western Gurage variety*. Doctorial Thesis, University of Zürich.
- Wakasa, Motomichi. 2008. *A Descriptive Study of the Modern Wolaytta Language*. Ph.D. thesis. University of Tokyo.
- Wolff, Ekkehard. 1981a. "Die Tschaddischen Sprachen" in Heine, Schadeberg, Wolff (eds.). 1981 *Die Sprachen Afrikas*. Helmut Buske Verlag, Hamburg. 239-262.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3 <인지언어학> 사회: 채숙희(서울디지털대)

The COVID-19 Pandemic and Changing Meanings of Flatten the Curve: A Cognitive Semantic Approach

발표: 강지인, 권익수(한국외대)

토론: 최진선(한국기술교육대)

The COVID-19 pandemic and changing meanings of *flatten the curve*: A cognitive semantic approach

Ji-in Kang & Iksoo Kw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22년 한국영어학학회, 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November 5, 2022

1.

Introduction

2.

Preliminaries: The Flatten-the-Curve Strategy & Theoretical Background

3.

Data Collection: iWeb and Coronavirus corpora

4.

Data Analysis

5.

Discussion

6.

Conclusion

01 Introduction – Preliminaries

- (1) This is a small curved device that your ophthalmologist surgically puts in your cornea. Intacs help flatten the curve of your cornea to improve vision.
- (2) a. Cover your cough, wash your hands, six feet distancing[,] those things work. And if we do that, we can flatten the curve.
- b. The oversimplified narrative was that a vaccine would flatten the curve of e-commerce sales. But that thought has quickly been dismissed.

- (1): to make the central corneal curvature flatter physically
- In (2a), the phrase *flatten the curve* is employed to describe the desired effect of controlling an epidemic by taking protective measures.
- The speaker of (2b) uses the same phrase to describe decreased e-commerce revenues.

01 ● — ● — ● — ● — ● — ● — ●

Introduction: The aim of this paper

To explore the meaning extension of *flatten the curve*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the phrase used before and after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pandemic,

To analyze the conceptual motivation behind the construals of the phrase,

- Specifically, the polysemous senses of *flatten the curve* within theories of Cognitive Linguistics such as frame semantics (Fillmore 1985) and frame metonymy (Dancygier and Sweetser 2014)
- By investigating attested data obtained from the iWeb and the Coronavirus Corpora, and

To argue that the phrase's usage patterns correlate with the real-world experiences of the pandemic.

02 Preliminaries – The Fattening-the-Curve strategy

Flattening-the-curve: a pandemic mitigation strategy suggested by epidemiologists.

- It aims to slow the increase rate of daily new COVID-19 cases by taking preventive measures such as social distancing, stay-at-home orders.
- Though it stretches out the pandemic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the primary goal of the strategy is to prevent hospitals from becoming overwhelm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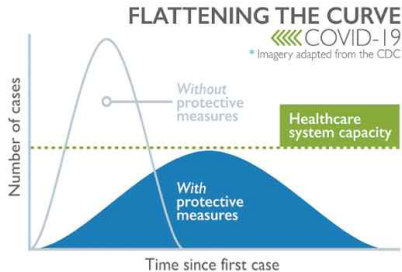


Figure 1.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s *Flattening-the-Curve* Graph

Frame semantics

To understanding the phrase *flatten the curve* in the context of the pandemic, one must be able to associate knowledge of the disease, the concept of number of newly confirmed cases, and the capacity of the medical system with the expression.

- An interpreter must come up with relevant frames (Fillmore 2006[1982]) for coherent understanding in a given context; frame invocation (Fillmore 1985; Ziem 2014)

(3) A month ago, if someone had said he was 'locked down' to help
'flatten the curve,' I'd have figured he was a baseball pitcher.

- The speaker's remark in this example evokes a pre-pandemic frame for these terms.
- Before the pandemic, for this language user, the invoked frame behind the expression *flatten the curve* would be the frame BASEBALL, but it is now the frame PANDEMIC, instantiated by COVID-19 (see Pannain and di Pace 2022 on 'covid frame').

Conceptual metonymy

In general, metonymy is using one entity to stand for another entity that is related to it (Dancygier and Sweetser 2014: 100; Lakoff and Johnson 1980: 35).

- Frame metonymy, specifically, is based on a relationship between parts of the same frame.
- These phenomena include lexical ones such as shorthand expressions or abbreviations (Dancygier and Sweetser 2014; Pannain and di Pace 2022), and constructional frames (Dancygier and Sweetser 2005).
- The metonymy that this paper argues is involved in the polysemous meaning construction of *flatten the curve* is PART OF THE PROCESS FOR EFFECT OF THE PROCESS (e.g., *bite* in *I'm heading out for a bite* means not just the momentary action of biting, but the resulting event of eating a light meal or snack)

Data Collection Process

- Two corpora: the iWeb Corpus and the Coronavirus Corpus
- Keyword: *flatten the curve*

1) The iWeb Corpus

- Data produced before 2018
 - A total of 38 tokens were collected.
 - Eleven were used to indicate a curved part of a physical entity.
 - Twenty-seven tokens described a line on a graph
- (4) Before the heat is gone turn the work on its side and flatten the curve and draw it out for the mane.
- (5) You could also potentially flatten the curve, with the typical climate remaining roughly the same but the instances of extreme events increased.

2) The Coronavirus corpus

- Data produced after 2020
- Period: 2020.03 – 2021.06 (US)
- A total of 2,709 tokens of relevance
- Irrelevant data was excluded:
 - Names or slogans (e.g., *The drone technology is being tested by the Westport Police Department as a part of their 'Flatten the curve' Pilot Program.*)
 - Duplicated data (identical sentences posted and reposted on the same webpage)
 - Cases in which the exact meaning was unclear due to lack of contextual information (e.g., description of an image that involves a sign stating '*flatten the curve*')

2) The Coronavirus corpus

- Taxonomy
 - The contexts where they appear: Epidemiological vs. Non-Epidemiological
 - Whether the phrase rigorously focuses on lowering a slope of a graph:
 - Rigorous vs. Non-Rigorous
 - Rigorous sense: diminishing increases between daily infection numbers, even though the total daily number continues to rise

Table 1. Example Situations for Rigorous (i) and Non-Rigorous (ii) Senses of *Flatten the curve*

	Day 1		Day 2		Day 3		Day 4	
		+ 200		+ 100		+ 20		...
(i)	100		300		400		420	...
(ii)	100	- 10	90	- 20	70	- 40	30	...

2) The Coronavirus corpus

- Taxonomy
 - The contexts where they appear: Epidemiological vs. Non-Epidemiological
 - Whether the phrase rigorously focuses on lowering a slope of a graph: Rigorous vs. Non-Rigorous
 - Epidemiological-Rigorous (ER), Epidemiological-Non-Rigorous (ENR), Non-Epidemiological-Rigorous (NER), Non-Epidemiological-Non-Rigorous (NENR)

Table 2. Semantic Categories and Overall Frequency Counts of *Flatten the curve*

Epidemiological		Non-Epidemiological		Total
Rigorous (ER)	Non-Rigorous (ENR)	Rigorous (NER)	Non-Rigorous (NENR)	
2,425	235	8	41	2,709

Flatten the curve: before the pandemic

(6) In our current environment, GDP is stagnant and increasing interest rates will flatten the curve[,] not make it profitable to banks.

- The speaker of (6) shares his/her opinion about a yield curve which requires an explanation: a non-bell-shaped line that graphically represents the interest rates of bonds.
- The invocation of the COORDINATE PLANE frame was necessary for associating the phrase with a decreased rate of change (e.g., variables on the horizontal (x) and vertical (y) axes, points marked by values of a pair of x and y, a graph plotted on the coordinate plane, etc.)
- The types of graphs in the iWeb corpus data vary depending on the contexts in which they are used (e.g., a bell-shaped graph, non-linear graph (non-bell-shaped graph)).

04 • — • — • — • — • — • Data Analysis – After the beginning of pandemic

Flatten the curve: after the beginning of pandemic

- The COORDINATE PLANE frame remained salient in the instances produced after the outbreak as the construals of the four ER, ENR, NER, and NENR categories required the BELL CURVE frame as well as the PANDEMIC frame.
- The polysemous senses of the four categories could be explained by PART OF THE PROCESS FOR EFFECT OF THE PROCESS metonymy.

1) Epidemiological-Rigorous (ER)

(7) The goal is to 'flatten the curve.' Rather than letting the virus quickly rampage through the population and burn itself out fast, the idea is to spread all those infections out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 The speaker makes his point clear: People should aim not to end the COVID-19 pandemic, but to slow down its spread so that the daily number of confirmed cases does not exceed the level that hospitals can handle.
- What the phrase *flatten the curve* means would not be fully understood until one realizes that the frame element 'curve' refers to a specific shaped part of a graph in coordinate space, which indicates the change in the numbers of daily confirmed cases of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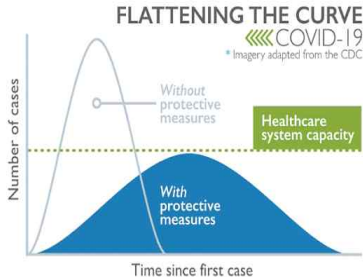


Figure 1.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s *Flattening-the-Curve* Graph

2) Epidemiological-Non-Rigorous (ENR)

(8) But Adrian College President Jeffrey Docking said the college is now beginning to flatten the curve. ... “[W]e have flattened the curve this week, going from 165 active cases of COVID-19 down to 57,” Docking said...

- The speaker of (8) says the active COVID-19 cases at the college have gone from 165 to 57, which simply indicates that the total number of infected people in the specific locale has decreased, which is not related to lowering the slope of a graph representing the daily confirmed patients.
- An extended case via the PART OF THE PROCESS FOR EFFECT OF THE PROCESS metonymy: If the curve is flattened enough for its peak to reach the bottom of the y-axis, it indicates that the number of new cases per day is near zero, a sign the virus is no longer spreading.
- A part of the flattening-the-curve process (a flat curve) refers to the effect of the process (a reduced number of cases in the late stages of the pandemic) in example (8).

3) Non-Epidemiological-Rigorous (NER)

(9) ...in order to avoid overwhelming the capacity of their local election offices, voters must flatten the curve of mail ballot requests by requesting theirs as soon as possible.

- If voters wait until the last minute to send their ballots, there will be a surge of mail ballots to the local election offices, which might overwhelm the capacity of the election office staff to take care of the counting process.
- (9) shares the same schematic structure of the frame BELL CURVE from the ER category in the sense that lowering the slope of a graph prevents the peak of a curve from exceeding a certain level on a y-axis.
- Hence, the addressees, who have experienced the phrase frequently enough to conjure up the BELL CURVE frame, would have no difficulty in understanding (9).

4) Non-Epidemiological-Non-Rigorous (NENR)

(10) While most of the market was cheering the Covid-19 vaccine news, tech stocks were getting hammered. The oversimplified narrative was that a vaccine would flatten the curve of e-commerce sales.

- As people had been in lockdown to slow the spread of the virus during the pandemic, e-commerce revenues had increased significantly.
- In (10), the PANDEMIC frame is evoked by the text's mention of COVID-19 and vaccines, which motivates addressees to associate the phrase *flatten the curve* with the pandemic.
- The flat curve in the BELL CURVE frame is a salient part of the decreased value on the y-axis, which motivates the use of the phrase *flatten the curve* to mean 'decrease' even in non-epidemiological contexts.

Flatten the cur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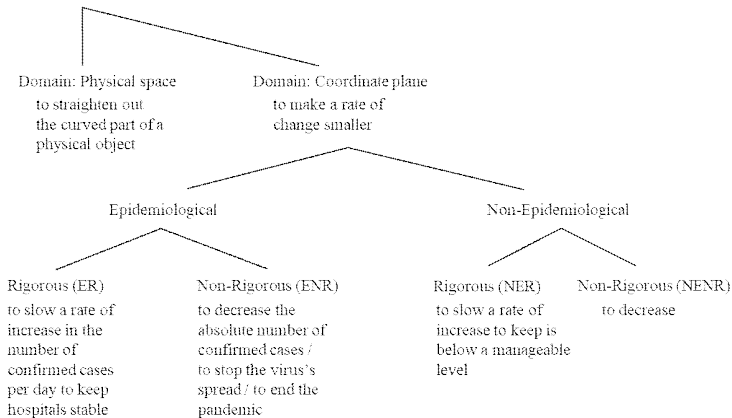


Figure 2. Semantic Network of *Flatten the curve*

The polysemous senses of the four categories can be explained by the PART OF THE PROCESS FOR EFFECT OF THE PROCESS metonymy.

A flattened curve served as a salient part of the flattening-the-curve scenario to refer to one of the effects of the scenario

- The Rigorous categories focused on the effect of lowering the growth rate of the value, resulting in the construal of slowing the growth rate of daily confirmed cases.
- The NER category contains instances in which an interpreter must invoke the schematic structure of the BELL CURVE frame as in the ER category. That is, members of the NER category require knowledge that making a smaller slope of a bell curve can keep its peak below a certain level, although it can increase the width of the graph horizontally.
- The Non-Rigorous senses focused on the lessened value on a bell curve, which motivated the 'decrease' construal in both Epidemiological and Non-Epidemiological context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al-world experiences and actual frequencies of the phrase

- The total number of the tokens is closely related to the overall pandemic trend in the US.
- Phase 1 was the time when the concept of the pandemic became widely known around the world, and massive numbers of infections started to occur worldwide.
- Phase 5 shows a lull in the number of infections because it had already passed the largest surge of infections in Phase 4.

Table 3. Frequency Count of *Flatten the Curve* by the US COVID-19 Phases

Category Phase	Epidemiological		Non-Epidemiological		Total
	Rigorous (ER)	Non-Rigorous (ENR)	Rigorous (NER)	Non-Rigorous (NENR)	
Phase 1	1,277 (95.51%)	46 (3.44%)	1 (0.07%)	13 (0.97%)	1,337 (100%)
Phase 2	438 (87.95%)	52 (10.44%)	1 (0.20%)	7 (1.41%)	498 (100%)
Phase 3	358 (81.00%)	68 (15.38%)	6 (1.36%)	10 (2.26%)	442 (100%)
Phase 4	265 (82.30%)	49 (15.22%)	0 (0.00%)	8 (2.48%)	322 (100%)
Phase 5	87 (79.09%)	20 (18.18%)	0 (0.00%)	3 (2.73%)	110 (100%)
Total	2,425	235	8	41	2,709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al-world experiences and actual frequencies of the phrase

- The ratio of the Rigorous category in the Epidemiological context keeps decreasing.
-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the Non-Rigorous category in both contexts gradually increases.
- Instead of focusing on the rates of increase in infection, the significance of decreasing the absolute number of new cases grows, and it is reflected in the rising ratio of the Non-Rigorous category.

Table 3. Frequency Count of *Flatten the Curve* by the US COVID-19 Phases

Category Phase	Epidemiological		Non-Epidemiological		Total
	Rigorous (ER)	Non-Rigorous (ENR)	Rigorous (NER)	Non-Rigorous (NENR)	
Phase 1	1,277 (95.51%)	46 (3.44%)	1 (0.07%)	13 (0.97%)	1,337 (100%)
Phase 2	438 (87.95%)	52 (10.44%)	1 (0.20%)	7 (1.41%)	498 (100%)
Phase 3	358 (81.00%)	68 (15.38%)	6 (1.36%)	10 (2.26%)	442 (100%)
Phase 4	265 (82.30%)	49 (15.22%)	0 (0.00%)	8 (2.48%)	322 (100%)
Phase 5	87 (79.09%)	20 (18.18%)	0 (0.00%)	3 (2.73%)	110 (100%)
Total	2,425	235	8	41	2,709

This study has analyzed the polysemous senses of the phrase *flatten the curve* from a frame semantics point of view with attested data from the iWeb and the Coronavirus Corpus.

- The COORDINATE PLANE frame remained salient in the instances produced after the outbreak as the construals of the categories required the BELL CURVE frame as well as the PANDEMIC frame.
- The polysemous senses of the four categories could be explained by PART OF THE PROCESS FOR EFFECT OF THE PROCESS metonymy.
- It show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requency of each semantic category and the US pandemic phases.

07

References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Interim pre-pandemic planning guidance: community strategy for pandemic influenza m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early, targeted, layered use of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PDF file]. Retrieved from http://www.pandemicflu.gov/plan/community/community_mitigation (Accessed on March 14 2022).
- Croft, W. 1993. The role of domains in the interpretation of metaphors and metonymies. *Cognitive Linguistics* 4 (4): 335–370.
- Dancygier, B. & Sweetser, E. 2005. *Mental Spaces in Grammar: Conditional Construc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ncygier, B. 2009. Genitives and proper names in constructional blends. In Vyvyan Evans and Stéphanie Pourcel. (eds.). *New directions in Cognitive Linguistics*. 161- 181.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Dancygier, B., & Sweetser, E. 2014. *Figurative langua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llmore, C. J. 1985. Frames and the semantics of understanding. *Quaderni di Semantica*, 6(2), 222-254.
- Fillmore, C. J. 1997. *Lectures on Deixis*. Stanford: CSLI Publications.
- Fillmore, C. J. 2006. Frame semantics. In Geeraerts, D. (Ed.), *Cognitive Linguistics: Basic Readings*, 34, 373-400. Berlin: Walter de Gruyter.
- Geeraerts, D. 2002. Structuring of word meaning I: An overview. In A. Cruse, F. Hundsnurscher, M. Job & P. R. Lutzeier (eds.). *Lexicology: an International Handbook on the Nature and Structure of Words and Vocabularies*, 304–318. Berlin: Mouton de Gruyter.
- Jenson, H. B. 2020. How did “flatten the curve” become “flatten the economy?” A 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ian Journal of Psychiatry*, 51, 102165.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07

References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 Johnson, M. 1999.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 Pannain, R., & di Pace, L. 2022. Metonymy and the polysemy of Covid in Italian. *Review of Cognitive Linguistics*, 20(1), 231-257.
- Paradis, C. 2011. Metonymization: A key mechanism in semantic change. In R. Benczes, A. Barcelona, and F. J. Ruiz de Mendoza Ibáñez (eds.). *Defining Metonymy in Cognitive Linguistics: Toward a Consensus View*. 61-88.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Radden, G., & Dirven, R. 2007. *Cognitive English Grammar*.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Ruiz de Mendoza Ibañez, F. 2000. The role of mappings and domains in understanding metonymy. In A. Barcelona (ed.). *Metaphor and Metonymy at the Crossroads: A Cognitive Perspective*, 109-132. Berlin: Mouton de Gruyter.
- Ruiz de Mendoza Ibañez, F. 2011. Metonymy and cognitive operations. In R. Benczes. & A. Barcelona. & F. J. Ruiz de Mendoza Ibáñez. (eds.). *Defining Metonymy in Cognitive Linguistics: Towards a Consensus View*. Amsterdam: John Benjamins, 103-123.
- Ruiz de Mendoza Ibañez, F. J. & Diez Velasco, O. J. 2002. Patterns of conceptual interaction. In R. Dirven & R. Pörrings (eds.). *Metaphor and Metonymy in Comparison and Contrast*, 489-532. Berlin: Mouton de Gruyter.
- Ziem, A. 2014. *Frames of Understanding in Text and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S1A5A2A0103924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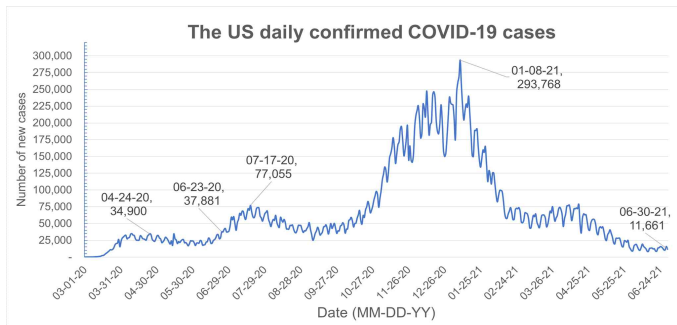
08 • • • • •

Appendix

Table 4. Time Period of Each Phase

Phases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Phase 5
Time Period	Mar 2020 – Apr 2020	May 2020 – Jun 2020	Jul 2020 – Sep 2020	Oct 2020 – Jan 2021	Feb 2021 – Jun 2021

Figure 3. Graph of Daily Confirmed COVID-19 Cases in the US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3 <인지언어학> 사회: 채숙희(서울디지털대)

Processing of Evidentiality in Korean

발표: 염희선(서울대), 김세영(한양대)

토론: 이은경(이화여대)

Processing of Evidentiality in Korean*

¹Seckin Arslan, ²Say Young Kim, ³Sun-Young Lee, ²Miseon Lee, ⁴Sumi Lee, ⁵Youngin Lee,

⁶Chansong Cho, ⁷Heesun Yeom & ⁸Sook Whan Cho

¹CNRS, University of Cote d'Azur

²Hanyang University

³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⁴University of Arizona

⁵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⁶Naver

⁷Seoul National University

⁸Sogang University

Purpose

This research aimed at investigating how evidentiality is processed in groups of gracefully healthy aging individuals. As well known in the literature, evidentiality is a grammatical category marking of information sources for how a speaker knows information in his/her statement. The present study tests central questions regarding the nature of sentence processing change in human life span in Korean. One main objective was to explore how aging brain accommodates processing of evidentiality in Korean with a focus on the question of whether other cognitive functions (i.e., working memory and source memory) predict any potential decline in evidentiality processing as individuals grow older.

Evidentiality is a grammar form that marks information sources from which a speaker knows events in his/her statement. Korean obligatorily marks this form in their grammars via inflectional forms that are suffixed to finite verbs; compare. In Korean ‘-te-’ suffix codifies that the information in a proposition is known from direct witnessing or firsthand information while ‘-tay’ suffix encodes that the information in a proposition is known from indirect sources, as illustrated in (1)-(2) below.¹

¹ Similarly, two evidential forms are available in Turkish. Direct evidential (–DI) signals that information expressed in a proposition comes from a firsthand source (e.g. speaker’s own experience), and the indirect evidential (–mİş) encodes that information is based on a non-firsthand source. We have also observed an interestingly comparable set of responses from Turkish-speaking younger and older adults, which we leave for future work due to limited time given at the present conference.

- (1) Mary-ka achim-ul mek-koiss-te-la.
Mary.NOM breakfast.ACC eat.PRES PROG.DIRECT EVID.DEC
'Mary was having breakfast' [witnessed]
- (2) Mary-ka achim-ul mek-koiss-tay.
Mary.NOM breakfast.ACC eat.PRES PROG.INDIRECT EVID and DEC (merged)
'Mary was having breakfast' [inferred/reported].

In this study, we aimed to understand whether evidentiality processing is affected in healthy aging, and if so, how far declining working memory and source memory capacities contribute to evidentiality processing difficulty in aging.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word-by-word reading experiment in order to investigate how evidentiality processing is modulated in healthy aging in a life-sample group of Korean adults in the 18-80 age range.

Methods

Participants

Two groups of adul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younger group of adults (Young Group) with 50 native speakers of Korean in 20s ($M=23.02$, $SD=2.25$, range=20-29; 38 females, 12 males) and an older Group (Old Group) with 50 Korean native speakers in 50-70s ($M=56.84$, $SD=4.74$, range=50-70; 25 females, 25 males) (1 in his 70s (1 male), 13 in their 60s (6 females, 7 males), 36 in their 50s (19 females, 17 males)). Table 1 below presents cognitive profiles of the participants. All the participants were tested with a visuospatial working memory task, the Corsi block-tapping task (Corsi, 1972). The participants in the Old Group were further screened with a dementia screening task by adopting the 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ang, Na, & Hahn, 1997). As it turned out, all of the participants in the Old Group scored high and passed the screening, and no one was removed from the experiment.

Table 1. Means and ranges of age and cognitive task scores of participants (N=100)

Group	Age	Corsi (forward)	DementiaTest
Young	23.06 (20-29)	6.28 (1-10)	NA
Old	56.84 (50-70)	5.56 (1-7)	5.96 (5-7)

Materials and Procedure

We constructed a total of 3260 sentences, consisting of 80 sentence sets in 2 Evidentiality Types (Direct vs. Indirect) x 2 Match Types (Match vs. Mismatch) and 40 additional fillers. An example of a stimulus set is as in (3) below. (Note: The second sentence in each type (“Phal-i...”) is constructed as a null-subject structure as it is more natural in spoken Korean, given the evidentiality morphemes, than its counterpart with a subject.)

(3) Four Types of Stimulus Materials:

a. Witness-Direct (Match)

Nay-ka onul kulim-ul kulye-ss-e. Phal-i celi-tela

I-NOM today painting-ACC draw-PST-DEC arm-NOM ache-DIRECTEVI

saayngkak-pota nemu.

thought-than very

‘I drew a painting today. (I felt my) arm ache much more than (I) thought.’

b. Report-Direct (Mismatch)

*YH-ka onul kulim-ul kulye-ss-e. Phal-i celi-tela

I-NOM today painting-ACC draw-PST-DEC arm-NOM ache-DIRECTEVI

saayngkak-pota nemu.

thought-than very

‘*YH drew a painting today. (I felt my) arm ache much more than (I) thought.’

c. Report-Indirect (Match)

YH-ka onul kulim-ul kulye-ss-e. Phal-i celi-telay

I-NOM today painting-ACC draw-PST-DEC arm-NOM ache-DIRECTEVI

saayngkak-pota nemu.

thought-than very

‘YH drew a painting today. (I heard that her) arm ached much more than (she) thought.’

d. Witness-Indirect (Mismatch)

*Nay-ka onul kulim-ul kulye-ss-e. Phal-i celi-telay

I-NOM today painting-ACC draw-PST-DEC arm-NOM ache-DIRECTEVI

saayngkak-pota nemu.

thought-than very

‘*I drew a painting today. (I heard that his/her) arm ached much more than (he/she) thought.’

(Note: The asterisk marks ungrammaticality due to a mismatch.)

In each of the sentence types, the speaker delivers an event that he/she has either experienced or witnessed. In cases where the speaker has experienced the event, the use of the direct evidential -TELA is grammatical. Hence, (a) is grammatical, while (b) is not. On the other hand, in the event where the speaker has witnessed (or heard about) an event that a third-person experienced, the use of the indirect evidential -TELAY is grammatical as in (c), but not in (d).

The participants were each given 120 sentences as one of four stimulus types (in a counterbalanced manner), consisting of 80 experimental sentences, i.e., one of the four possible versions of each set of sentences, and 40 fillers. To be more specific, the experiment was designed in a Latin square design, and the participants were equally assigned to 20 Direct-Match sentences, 20 Direct-Mismatch sentences, 20 Indirect-Match sentences, and 20 Indirect-Mismatch sentences.

Results

We excluded 16 participants (4 from Young Group and 12 from Old Group) based on their low accuracy (0% score in all of the conditions) and reading times shorter than 200ms or longer than 10000ms for further analyses. Results from per-word reading times are presented in Figure 1 and Tabl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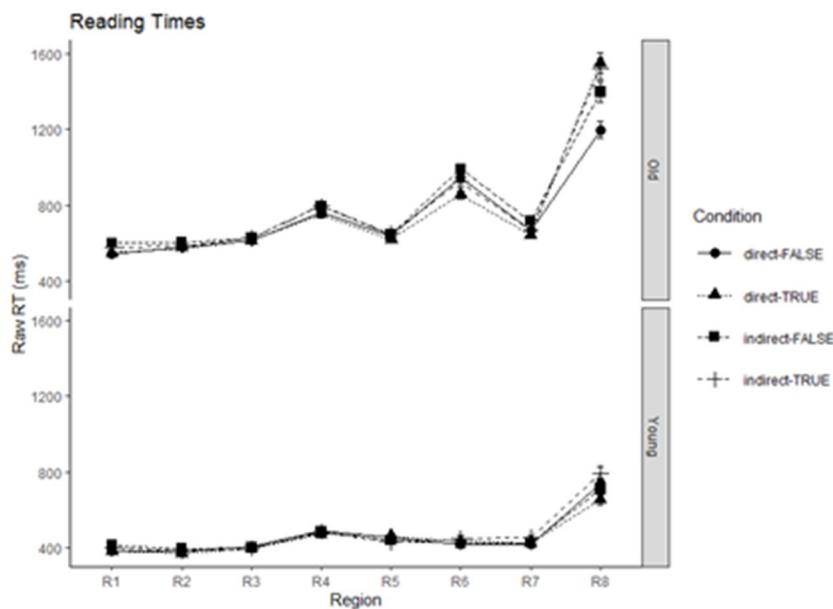


Figure1. Raw reading times across regions of interest (critical verb is at R6) per age group

Table 2. Raw reading times and standard deviations per region, and end-of-sentence acceptance rates and response times.

	Young				Old			
	Dic-Mat	Dic-Mis	Ind- Mat	Ind-Mis	Dic-Mat	Dic- Mis	Ind-Mat	Ind-Mis
R6	426 (150)	409 (131)	439 (163)	414 (115)	863 (432)	972 (544)	944 (506)	987 (588)
R7	415 (106)	408 (97)	445 (157)	418 (103)	642 (242)	675 (300)	662 (279)	710 (348)
R8	628 (330)	762 (412)	841 (559)	716 (347)	1674 (1158)	1276 (919)	1827 (1359)	1610 (1220)
Acceptance rate	0.88 (0.17)	0.77 (0.30)	0.77 (0.16)	0.77 (0.31)	0.62 (0.38)	0.81 (0.23)	0.59 (0.36)	0.90 (0.18)
Response Times	874 (795)	885 (484)	1090 (593)	928 (526)	1074 (660)	1008 (496)	1119 (522)	904 (395)

(Notes. Dic, direct; Ind, indirect; Mat, match; Mis, Mismatch)

The mixed model outputs showed that the processing of evidential verb forms at the critical region 6 was largely predicted by Age ($t = 10.392$, $p < .001$). Reading times for this region significantly increase as age increases, suggesting that the Old Group took more time to read words at the critical region. However, this fixed effect of Age was not surprising in light of the relative reading speed per age group. More importantly, a fixed effect of Mismatch ($t = -2.440$, $p = .0147$) and Evidentiality ($t = 2.646$, $p = .008$) was significant,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reading times for the critical region were faster for the direct evidential morpheme in both groups. In addition,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Age and Mismatch ($t = 4.572$, $p < .001$) indicates that the Old Group was more affected by the match type than the Young Group. Similarly,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Age and Evidentiality was also significant ($t = -2.428$, $p = .015$), suggesting that the Old Group was more affected by the evidentiality morpheme than the Young Group. No interaction among the three variables (Age, Mismatch, and Evidentiality) was significant.

At region 7 (a post-critical region), a fixed effect of Age and Evidentiality was each significant ($t = -8.90$, $p < .001$ for Age; $t = 3.72$, $p < .001$ for Evidentiality). This means that reading times for this post-critical region 7 were affected by Age and Evidentiality. It was found that reading times were shorter in the Young Group than in the Old Group. More critically, reading times were shorter in the direct evidential condition than in the indirect evidential condition in both groups. In addition,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Age and Mismatch was significant ($t = 2.37$, $p = .018$). The Old Group took more time to process the Mismatch types than the Match types, unlike the Young Group, the reading times in the Old Group being slower in the Mismatch condition than the Match condition. In contrast, the Young Group showed slightly faster reading times in the Mismatch than in the Match condition.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Age and Evidentiality was also significant ($t = -2.428$, $p = .015$), indicating that the Old Group was influenced by evidentiality more strongly than the Young Group. A three-

way interaction among the variables (Age, Mismatch, and Evidentiality) was significant ($t = 2.04, p = .042$). This result is likely to be related to the finding that the Old Group took longer to read the Mismatch types regardless of evidentiality while the Young Group took longer to read the Match types of the indirect types than the Mismatch counterparts.

The spill-over region (Region 8) has shown a set of fixed effects of Age, Mismatch, and Evidentiality ($t = -8.716, p < .001$ for Age; $t = 6.139, p < .001$ for Mismatch; $t = 3.824, p < .001$ for Evidentiality).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Age and Mismatch ($t = -8.05, p < .001$) and a three-way interaction as well ($t = 5.789, p < .001$).

As regards the end-of-sentence acceptability rates, the model outputs have shown a significant fixed effect of Mismatch ($\beta = -.21, SE = 0.10, z = -2.185, p = 0.028$), and of Evidential conditions ($\beta = -0.48, SE = 0.10, z = -4.870, p < 0.001$), and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of Mismatch x Evidential ($\beta = 0.68, SE = 0.20, z = 3.468, p < 0.001$) and Age x Mismatch x Evidential ($\beta = -1.61, SE = 0.27, z = -5.928, p < 0.001$).

With respect to the model outputs from the end-of-sentence response times, results have shown a fixed effect of each of the three variables ($t = -82.52, p = .013$ for Age; $t = 3.34, p < .001$ for Mismatch; $t = 1.98, p = .048$ for Evidentiality).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interaction of Age x Mismatch ($\beta = -.16, SE = .05, t = -3.42, p < 0.001$), indicating that the Old Group was more affected by the Mismatch factor than the Young Group. In addition, there was a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 of Age x Evidential x Mismatch ($\beta = .23, SE = .07, t = 3.53, p < 0.001$), which points to a possibility that the effect of Evidentiality is associated with the Match types as observed in the Young Group, but not in the Old Group.

Acknowledgment

This project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19-R-22.

References

Corsi, P. 1972. Memory and the medial temporal region of the brain. Montreal: McGill University Dissertation.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4 <영어교육&전산언어학> 사회: 이영희(아주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구글 플레이스토어
영어 학습법 앱 사용자 리뷰 분석**

발표: 한수미(한림대)

토론: 송상헌(고려대)

발표자: 한수미(한림대학교), 김기연(한림대학교)

제목: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영어 학습 앱 사용자 리뷰 분석

연구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 분야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영어 학습 앱의 사용자 리뷰를 분석하여 만족,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앱 개선, 마케팅' 등에 기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어 학습 앱의 사용자 리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들 중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감성 분석을 진행했고 분류된 리뷰 데이터에 LDA 토픽 모델링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긍정 리뷰에서 첫 번째 토픽에 해당하는 단어 암기, 두 번째 토픽에 해당하는 일상 회화에 관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예문 활용이라 정의한 세 번째 토픽과 개인 게임 성취 모형이라 정의한 다섯 번째 토픽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역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토픽들은 현시점의 영어 학습 앱이 가진 강점들이며 특히 영어 학습과 직결되는 단어 암기와 일상 회화에 대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영어 학습 앱의 특징 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부정 리뷰에서는 첫 번째 토픽에 해당하는 콘텐츠, 두 번째 토픽에 해당하는 오작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기능 관련이라 정의한 다섯 번째 토픽을 통해 영어 학습 앱의 각종 기능에 대해 사용자들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음을 알 수 있다. 콘텐츠는 사용자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동시에 더 많은 사용자를 불러 모을 수 있는 요소이기에 영어 학습 앱 개발자들의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오작동 관련한 토픽은 영어 학습 앱 사용자 경험에 있어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이기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긍정 및 부정 리뷰의 여섯 번째 토픽은 각각 과금 구조와 가격이었는데 유사한 토픽이 긍정 및 부정 리뷰에서 동시에 도출된 것을 통해 사용자들의 평가가 중립적임을 알 수 있었다. 사용자의 결제는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영어 학습 앱에 결제하는 행위에 대해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 사용자들이 과금을 통해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영어 학습 앱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분석해 영어 학습 앱에 대한 개선점 및 마케팅 시사점을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영어 학습 앱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영어 학습 앱을 통한 개인의 성취도 향상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앱 관련 연구는 해당 분야 앱의 개선점 및 마케팅 시사점에 주목하여 앱의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영어 학습 앱 자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 리뷰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영어 학습 앱 리뷰의 긍정 및 부정 요소는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먼저, 영어 학습 앱 제공자는 본 연구에 사용된 리뷰의 긍정 요소를 마케팅 전략 수립과 미래 콘텐츠 개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어 암기와 일상 회화 학습 기능은 기존 영어 학습 앱 사용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요소이다. 이를 강점으로 삼아 해당 니즈를 가진 잠재적 소비자 군에 특화된 마케팅을 전개해 기업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섯 번째 토픽에 해당하는 개인 게임 성취 모형은 게임, 흥미, 친구 등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곧 개인들의 경쟁을 통해 성취도를 높이는 방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 실무자는 타인과의 경쟁을 통한 자신의 성취를 목표로 하는 온라인 게임에 열광하는 사용자층에게 이를 어필해 소비자의 추가 유입을 기대할 수 있고 추가적인 화제성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리뷰에 나타난 부정 요소는 영어 학습 앱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정 리뷰의 첫 번째 토픽인 콘텐츠의 경우 업데이트, 수업 등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 바, 기존 사용자들이 영어 학습 앱의 콘텐츠 업데이트에 관한 불만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콘텐츠가 적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용자들의 콘텐츠 소모 속도가 빠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콘텐츠의 공급량을 점검하고 콘텐츠의 공급 또는 소모 방식의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 이는 곧 서비스의 지속성 측면에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오작동이라 정의된 두 번째 토픽을 통해 기존 사용자들이 영어 학습 앱이 오작동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 학습 앱 제작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용자들의 불만 요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들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하고, 기존 사용자 유출을 막아야한다. 이미 구매력을 한번 행사한 사용자는 미래에 다시 한번 구매하기 쉬워서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 학습 앱 제작사들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용자 리뷰 부정 요소를 바탕으로 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4 <영어교육&전산언어학> 사회: 이영희(아주대)

The Combined Effects of Task Sequencing and Task Complexity on L2 Writing

발표: 이지영(육사)

토론: 이영희(아주대)

The Combined Effects of Task Sequencing and Task Complexity on L2 Writing

이지영 (Jiyong Lee)

육군사관학교

While the importance of task sequencing in task-based research and syllabus design has been emphasized, there is a gap in the literature regarding whether the order in which tasks are presented actuall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L2 performance. The aim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ask sequencing actually had an effect on L2 written performance. A writing task with three levels of task complexity was given to 88 EFL learners, with one group carrying the three task versions out in the order of increasing task complexity (Simple-to-complex), and the other group in the order of decreasing task complexity (Complex-to-simple). It was found that the cognitive load of the task, as well as learners' syntactic complexity and lexical diversity shown in their L2 writing,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ask sequencing and its interaction with task complexity. Pedagogical implications are noted with regard to the differential effects that task sequencing has on L2 writing, as presenting tasks in the order of increasing task complexity resulted in greater syntactic complexity, while presenting tasks in decreasing task complexity led to greater lexical diversity.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4 <영어교육&전산언어학> 사회: 이영희(아주대)

Tense Markers Do Not Impact Presupposition Projection In Korean

발표: 송상헌, 신운섭(고려대)

토론: 김태식(서울과기대)

Tense Markers Do Not Impact Presupposition Projection In Korean

Unsub Shin^{*} & Sanghoun Song^{} (Korea University)**

A clause-embedded proposition or content is said to project if it is the clausal complement of factive predicates, e.g., *John knows that it is raining* (Kiparsky and Kiparsky, 1970). Recently, experimental studies found that the occurrence of projection may vary depending on contextual factors such as person of subjects and tense markers (Marneffe et al., 2019; Degen and Tonhauser, 2022). Yet, it has not been studied whether the contextual factors impact the presupposition projection in Korean. This study uses the two corpora of 2020 and 2021 Korean CommitmentBank (KCBs) to investigate whether person of subjects and tense markers such as *ku* ('he') and *-ass/ess* (PST) are relevant to projection phenomena. KCB annotated naturally occurring sentences that structurally embed a propositional hypothesis as clausal complements (Table 1)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2). In addition, KCB performed a large-scale judgment task, in which at least 19 native speakers are recruited to assess the certainty of the propositional hypothesis on the 7-point-Likert scale. Notably, KCB used gradient certainty scores as manifestation of whether the target clausal complement is projective or non-projective. In Experiment I, we performed significance testing for the examination of contextual factors as categorical predictors of certainty scores (Table 2). The results suggest that tense markers do not strongly impact certainty scores in both KCBs, whereas statistical significance of person features vary depending on KCBs. In

Experiment II, we performed independence testing of two contextual factors to see if they have interrelationships using Chi-squared test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n interrelationship between person of subjects and tense markers in 2020 KCB, even though the same effect is not observed in 2021 KCB. Based on our empirical findings, we propose that the role of Korean tense markers in projection phenomena is unclear as in English, even though there can be a (spurious) relationship between contextual factors (De Marneffe et al., 2019). This implies that tense markers do not explain projection variability, i.e., the deviance from the linguistic characterization of (non-)factive predicates, from the cross-linguistic perspective.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noted that our data analysis also varies depending on the use of two KCBs, even though these corpora share the same annotation design.

Key words: Korean CommitmentBank, presupposition projection, certainty scores

References

- De Marneffe, M. C., M. Simons. and J. Tonhauser. 2019. The commitmentbank: Investigating projection in naturally occurring discourse. In *proceedings of Sinn und Bedeutung* 23(2), 107-124.
- Degen, J. and J. Tonhauser. 2022. Which predicates are factive? An empirical investigation. *Language* 98(3).
- Kiparsky, P. and C. Kiparsky. 1970. Fact. In M. Bierwisch and K. E. Heidolph (Eds.), *Progress in linguistics*, 143–173. The Hague, Paris: Mouton.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2. 2021 Research and Analysis of Korean CommitmentBank. URL: <https://corpus.korean.go.kr>

Unsub Shin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Korea
[02841] 145, Anam-ro, Seongbuk-gu, Seoul, Korea
+82-10-2789-0686, prab35@korea.ac.kr

Sanghoun So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Korea
[02841] 145, Anam-ro, Seongbuk-gu, Seoul, Korea
+82-2-3290-2177, sanghoun@korea.ac.kr

Sentence Example	
그 미지의 땅에서 금과 원유가 쏟아져 나올 줄은 러시아도 몰랐을 것이다.	
(Non-)factive predicate	-ㄴ 줄은 모르다 ('way-COMP + not know')
Embedding type	-ㄴ 것이- ('will')
Tense feature	-았- ('PST')
Person feature	러시아 ('3rd')
Certainty scores	$M = 6.85, SD = 0.37$

Table 1. Sentence examples in 2021 Korean CommitmentBank

2020 Korean CommitmentBank				
	First	Second	Third	Sum
Past	44	6	88	138
Present	167	37	131	335
Future	4	0	1	5
Sum	215	43	220	478
2021 Korean CommitmentBank				
	First	Second	Third	Sum
Past	12	1	7	20
Present	29	8	33	70
Future	1	0	3	4
Sum	42	9	43	94
ANOVA results				
	2020		2021	
Tense	$p = 0.103$		$p = 0.846$	
Person	$p < .0001$		$p = 0.312$	

Table 2. Data distribution of contextual factors and results of significance testing with reference to certainty scores

2020 Korean CommitmentBank			
	First	Non-first	Sum
Past	44	94	138
Non-past	171	169	340
Sum	215	263	478
2021 Korean CommitmentBank			
	First	Non-first	Sum
Past	12	8	74
Non-past	30	44	20
Sum	42	52	94
Chi-squared test results			
	2020	2021	
Factors	$p < .001$	$p = 0.193$	

Table 3. Data distribution of modified contextual factors and results of independence tes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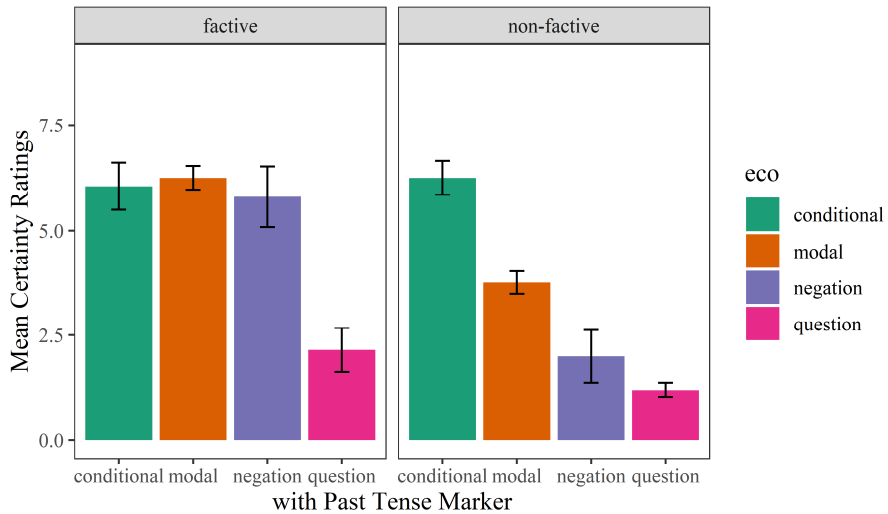


Figure 1. Selected examples of projection phenomena in Korean. Factivity of predicates typically impacts the mean certainty ratings under certain embedding environments, e.g., modal *-keyss* and negation *-ani*.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5 <음성학&음운론> 사회: 최재혁(목포대)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Foreign Accent of Chinese EFL Learners from the Perspective of Language, Speaker and Listener Factors

발표: Xiao-Xia Kong(전주대)

토론: 오영일(서울과기대)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Foreign Accent of Chinese EFL Learners from the Perspective of Language, Speaker, and Listener Factors

Xiao-Xia Kong (Jeonju University)

EFL learners tend to speak English with a foreign accen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get a full understanding of the influential factors for the perceived foreign accent in EFL situations. In the analysis of relationships, the dependent variable was foreign accent scores while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language factors (sentence type, speech rate, pitch range, mean pitch, intensity), speaker factors (L1, gender, personality, L2 proficiency, L2 pronunciation proficiency, L2 percentage use; attitude, motivation, self-efficacy, self-concept, strategy), and listener factors (gender, teaching experience; attitude, self-efficacy, self-concept).

To obtain data on the dependent variable, one production experiment and one perception experiment were conducted. In the production experiment, 20 English majors from China were asked to read 15 sentences, generating 300 speech samples. Additionally, 60 native speech samples of four native speakers (two males and two females) were chosen from a corpus and used as a comparison for the nonnative productions and a check on the judgments of nonnative listeners. In the perception experiment, 24 listeners (eight Chinese EFL teachers, eight male English majors, and eight female English majors) were asked to rate the foreign accent detected in the 360 speech

samples on a 5-point Likert scale from “1-no foreign accent” to “5-strong foreign accent”. To collect data on the independent variables, two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speakers and listeners respectively to inquire about their language background and views of foreign accent and pronunciation learning. Praat and SPSS were employed to run the experiments and do the data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language factors such as sentence type, pitch range, mean pitch, and intensity were related to foreign accent ratings. Specifically, more foreign accent was detected in yes-no questions and Wh-questions rather than in the remaining three sentence types in declarative forms; more foreign accent was detected in the speech samples spoken with a wider pitch range, a higher mean pitch, and a stronger intensity. In addition, native English speech and Chinese-accented speech differed significantly in speech rate, pitch range, and intensity.

Five of six primary variables regarding speaker factors were shown to have a relationship with foreign accent scores: (a) L1: less foreign accent was detected in the speech samples of native English speakers than that of Chinese EFL learners; (b) Gender: males spoke with a significantly weaker foreign accent than females did; (c) Personality: extroverts had a significantly stronger foreign accent than introverts and ambiverts; (d) L2 proficiency: speakers with higher L2 proficiency tended to have a weaker foreign accent; (e) L2 pronunciation ability: L2 pronunciation ability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magnitude of foreign accent; (f) L2 percentage use: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2 percentage use and foreign accent scores.

Among the 16 predictors generated by the five secondary variables of speaker factors, four predictors reveal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foreign accent scores including Metacognitive strategy, Cognitive strategy, NA-foreign accent, and SE-pronunciation outcomes; seven predictors were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foreign accent scores including Self-concept, SE-pronunciation skills, Social strategy, Memory strategy, Cognitive attitude, Compensation strategy, and Affective strategy; five

predictors showed no relationship with foreign accent score including NA-pronunciation mistakes, Conative attitude,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cademic motivation.

All the listener factors except gender were found to have an influence on foreign accent ratings. Specifically, teacher listeners (teaching experience), the “pronunciation is very important” group (attitude), the “high self-efficacy in pronunciation” group (self-efficacy), and the “negative self-concept of pronunciation” group (self-concept) tended to be more sensitive and more stringent with foreign accent than their matched group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magnitude of foreign accent can be influenced by language, speaker, and listener factors. The findings of language factors can enlighten pronunciation teaching and learning by prioritizing the content in pronunciation class; the findings of speaker factors can enlighten pronunciation teaching and learning by adjusting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according to speaker characteristics; the findings of listener factors can enlighten pronunciation assessment by establishing the rating criteria and reducing the rater bias caused by rater characteristics.

Key words: foreign accent, Chinese EFL learners, language factors, speaker factors, listener factors

References

- Anderson-Hsieh, J., Johnson, R., & Koehler, K.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ve speaker judgments of nonnative pronunciation and deviance in segmentals, prosody, and syllable structure. *Language Learning*, 42.4, 529-555.
- Busch, D. 1982. Introversion-extraversion and the EFL proficiency of Japanese students. *Language Learning*, 32.1, 109-132.
- Dollmann, J., Kogan, I., & Weißmann, M. 2020. Speaking accent-free in L2 beyond the critical period: The compensatory role of individual abilities and opportunity structures. *Applied Linguistics*, 41.5, 787-809.
- Flege, J. E., Munro, M., & MacKay, I. 1995. Factors affecting strength of perceived foreign accent in second language.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97.5, 3125-3134.
- Flege, J. E. 1988. Factors affecting degree of perceived foreign accent in English sentence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84.1, 70-79.
- Kang, O. 2010. Relative salience of suprasegmental features on judgments of L2 comprehensibility and accentedness. *System*, 38.2, 301-315.
- Kang, O., Vo, S. C. T., & Moran, M. K. 2016. Perceptual judgments of accented speech by listeners from different first language backgrounds. *The Electronic Journal for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20.1, 1-24.
- Kolly, M.-J., Boula de Mareüil, P., Leemann, A., & Dellwo, V. 2017. Listeners use temporal information to identify French- and English-accented speech. *Speech Communication*, 86, 121-134.
- Liu, X., & Lee, J.-K. 2012. The contribution of prosody to the foreign accent of Chinese talkers' English speech.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4.3, 59-73.
- Moyer, A. 1999. Ultimate attainment in L2 phonology: The critical factors of age, motivation, and instruc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1.1, 81-108.
- Moyer, A. 2007. Do language attitudes determine accent? A study of bilinguals

- in the USA.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28.6, 502-518.
- Munro, M. J., & Derwing, T. M. 1995. Foreign accent, comprehensibility, and intelligibility in the speech of second language learners. *Language Learning*, 45.1, 73-97.
- Munro, M. J., & Derwing, T. M. 1998. The effects of speaking rate on listener evaluations of native and foreign-accented speech. *Language Learning*, 48.2, 159-182.
- Piske, T., MacKay, I. R. A., & Flege, J. E. 2001. Factors affecting degree of foreign accent in an L2: A review. *Journal of Phonetics*, 29.2, 191-215.
- Sardegna, V. G., Lee, J. H., & Kusey, C. 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earner attitudes and motivations for pronunciation (LAMP) inventory. *System*, 47, 162-175.
- Thompson, I. 1991. Foreign accents revisited: The English pronunciation of Russian immigrants. *Language Learning*, 41.2, 177-204.

Xiao-xia Kong,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Jeonju University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55069
357510351@qq.com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5 <음성학&음운론> 사회: 최재혁(목포대)

A Longitudinal Study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Production Link in Second Language Speech

발표: 김동현(금오공대)

토론: 윤원희(계명대)

A Longitudinal Study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Production Link in Second Language Speech

Donghyun Kim*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The present study examines (1) how second language (L2) speech sound contrasts are acquired longitudinally and (2) how L2 speech perception and production are linked within an individual learner. The study addresses these issues by examining developmental changes in production and perception of English vowel contrasts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during their first year of immersion in Canada. The study first examines changes in production of English vowel contrasts by Korean adult and child learners. Then, it further investigates how and to what extent developmental changes in production are related to those in perception. Results revealed that L2 learners showed improvement in the production of L2 vowel contrasts, producing spectrally more distinct vowel contrasts over tim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is improvement manifested more in child L2 learners than in adult L2 learners. Importantly, a close link between perception and production was found in child learners after 8 months of exposure when their production abilities had also significantly improved. These results corroborate previous findings that accurate production of L2 speech contrasts is contingent on perceptual abilities at early stages of L2 speech acquisition (Flege et al., 1999).

Key words: L2 speech perception, L2 speech production, perception-production link,

* Corresponding author

longitudinal research, individual differences

References

- Flege, J. E., MacKay, I. R. A, & Meador, D. 1999. Native Italian Speakers' Perception and Production of English Vowels.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06.5, 2973-2987.

Donghyun K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iberal Arts & Teacher Train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61 Daehak-ro, Gumi, 39177, South Korea
+82-54-478-7863, dkim@kumoh.ac.kr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5 <음성학&음운론> 사회: 최재혁(목포대)

Diminutives in American English and Mexican Spanish

발표: 김지예(SUNY Stony Brook)

토론: 박해일(경희대)

Diminutives in American English and Mexican Spanish

Ji Yea Kim (Stony Br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count for the phonological distribution of diminutive suffix forms in American English and in Mexican Spanish (English: *-i* and *-si* as in *beti* and *betsi* ‘Elizabeth’; Spanish: *-it*, *-sit*, and *-esit* as in *otelito* and *otelsito* ‘hotel’, and *madresita* ‘mother’).

As diminutives are not frequent in English as in Spanish, the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 (Davies 2010-) was used to collect data for actual English diminutives that end in *-i* or *-si* in order to investigate in what phonological environment each of the two suffix forms appears. Regarding Mexican Spanish, two acceptability judgment tasks were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distribution of *-it*, *-sit*, and *-esit*, which had been proposed as diminutive suffix “allomorphs” in previous studies (e.g., Aguero-Bautista 1998, Kenstowicz 2005, Norrmann-Vigil 2012, Eddington 2017).

Results show that diminutive suffix forms with /s/ share the phonological distribution with no-/s/ forms to some extent both in English and in Spanish. This suggests that /s/-forms in diminutives can be accounted for not by an allomorphic analysis but by an epenthetic analysis (Kim 2022a, 2022b). This study contributes to a typology of diminutives and epenthesis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Key words: diminutives, American English, Mexican Spanish, phonological distribution, epenthetic analysis

References

- Aguero-Bautista, C. 1998. Cyclic and Identity Effects in Spanish Diminutives and Augmentatives. Unpublished Phonology Generals pape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Davies, M. 2010-.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Provo: Brigham Young University. <http://corpus.byu.edu/coca/>
- Eddington, D. 2017. Dialectal Variation in Spanish Diminutives: A Performance Model. *Studies in Hispanic and Lusophone Linguistics* 10.1, 39-66.
- Kenstowicz, M. 2005. Paradigm Uniformity and Contrast. Downing, L. J., T. A. Hall, and R. Raffelsiefen (eds.). *Paradigms in Phonological Theory*, 145-16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J. Y. 2022a. Consonant Epenthesis in English Diminutive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47.3, 385-406.
- _____. 2022b. *Morphophonological Consonant Epenthesis in Suffix Realizations*. Doctoral Dissertation. Stony Brook University.
- Norrmann-Vigil, I. 2012. Accounting for Variation of Diminutive Formation in Porteño Spanish. *Mester* 41.1, 99-122.

Ji Yea Kim
Ph.D.
Department of Linguistics
Stony Brook University
100 Nicolls Rd, Stony Brook, NY 11794-4376, U.S.A.
jiyea.kim@stonybrook.edu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6 <의미·화용론> 사회: 백미현(충남대)

**궁전예식장은 가고 웨딩팰리스만 남아:
외래어 선호와 은유**

발표: 나익주(전남대)

토론: 이창봉(가톨릭대)

‘궁전예식장은 가고 웨딩팰리스만 남아’:
외래어 선호와 은유

나익주 (전남대학교)

1. 머리말

- 이때 인터뷰를 참관하던 한 관계자는 “안병영 부총리가 교원평가라는 워딩을 하셨기 때문에 교장도 포함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 2004.2.06.)
- [팩트체크] 대통령 출퇴근 때, 체증 감추려 CCTV 통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 서초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을 해야 하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 차가 좀 더 막힐 수 있단 얘기도 나왔는데, 또, 막히는 길을 가리려고 CCTV를 통제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바로 팩트체크 해보죠. 이지은 기자, 정확히 어떤 주장인 거죠? (JTBC 2022.05.11.)
- ‘식사정치’로 풀어보는 정치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루저는 김○○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제일 큰 루저가 김○○ 대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합뉴스 2015.7.1.)
- 이탈리아 네오 클래식 브랜드 ‘메트로시티’가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로 썸머룩의 포인트를 더할 타임피스 컬렉션을 론칭했다. 5가지 컬렉션으로 구성된 총 38가지의 특별한 디자인으로 라인업된 타임피스 컬렉션은…… (서울경제 2022.5.13.)
-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키워드 ‘민간 이니셔티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2022.5.3.)
- 정부의 연간 세수입 전망을 과도하게 올리기에는 이르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경정을 하려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확실한 에비던스(증거)가 필요하다"며 "최소한 3월 세수입 추계치는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2022.04.21.)
- 흥행 기원을 위해 아침 산책을 갔다가 오바한 나머지 잠깐 졸았다. (스타투데이 2018.12.29.)
- 나가사키 원폭투하 때 피해를 본 조선인들 중에는 고종의 손자인 이우 왕자도 있어요, 약간은 조선의 셀럽이었어요. (유튜브 역전다방 2022.6.15.)
- 이 대리, 비행기 표 부킹하고 컨펌해 주어요.
- 이런 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에요.
- 먼저들 출발 하세요, 난 중간에서 조인할게요.

2. 언어 순수주의 대 언어 자유주의

- 바니걸스 / 토끼소녀 · 어니언스 / 양파들
- 투에이스 / 금과은 · 패티김 / 김혜자

· 퍼모스트 / 빙그레

· 락히 / LG

· 동부 / DB

· 선경 / SK



3. 민간 영역의 외래어와 외국어 음역

· 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 아르델 웨딩컨벤션, 웨딩홀 라루체 (아이리스홀),
노블레스 웨딩홀컨벤션, 라플레이스 웨딩하우스, 더바인웨딩홀, 드메르 웨딩홀, 더라운 웨
딩센터

· 까사델라루체, 앤제리너스, 스타벅스, 카페베네, 이디아커피,
할리스커피, 투썸플레이스, 커피빈&티리프, 비엔나커피하우스, 커피숍 폴모스트

· 까사델헤어, 제이진헤어, 버터바버샵, 아이펠마르 뷰티헤어, 르마레 헤어살롱, 헤어살롱
토니앤가이

- 위브더제니스, 아이파크, 더샵 레이크파크, 더샵 센트럴스타, 더샵 퍼스트월드, 타워팰리스, 트라팰리스, 갤러리아팰리스, 하이페리온 타워, 메타폴리스, 위브포세이돈, 리첸시아, 펜타포트, 트럼프월드, 리더스뷰, 더샵 센텀스타, 래미안 첼리투스, 엑소디움, 위브센티움, 베르디움, 아델리움, 메가트리움, 그라시움, 리츠빌카일룸, 피오레, 리젠시빌, 루센티아, 래미안 블레스티지, 트루엘, 힐스테이트, 아데나루체, 미켈란첼로빌, 아이유셀 메가시티, 와이시티 (비교: 풍경채, 어울림)

4. 공공 언어의 풍경

-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데이케어센터, 플로팅아일랜드(세빛섬), 맘프러너 창업스쿨, 시프트(서울시 장기임대주택 프로그램), 디자인월드플라자, 도시갤러리프로젝트
- 리버프런트, 에코델타시티, 에코스마트시티, 굿모닝콜, 메디컬스트리트, 드림스타트, Bridge of BUSAN 통합 브랜드 네이밍, 로컬푸드, 마이스산업, 희망드림론, K-move 센터, Work Together 센터, 아웃리치(Out reach, 지역 주민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봉사 활동), R&E 페스티벌, 그린시티 대전 프로젝트, 목적교 르네상스 프로젝트, 서울정책 아카이브, 클린업 시스템, B2B시스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에코투어, 3아웃(out) 7업(up) 프로젝트
- ‘그린필드형 투자’, ‘밸류 체인’(외교부), ‘Safe & Clean Hub’(검찰청), ‘Support-chain’(산업통상자원부), ‘Go! Region, Get Vision’(지역박람회 표어), ‘홈리스’(보건복지부), ‘2012년 탐라이스 생산 시범사업’(농림부), ‘그린스타트 운동 확산을 위한 그린 리더 참가 신청서’(환경부)

5. 왜 궁전예식장보다 웨딩팰리스를 선호할까?

사대주의의 영향과 오리엔탈리즘의 그림자
 ‘위’를 향한 욕망의 발현으로서의 외국어 상표

다른 나라의 언어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낱말을 그 의미를 전달하는 한국어 낱말로 바꾸어야 하고 그러한 낱말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낱말을 새로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어 국수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어에 이미 존재하는 낱말로도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러한 외국어 음역 표현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바로 위의 기사문에 들어있는 ‘팩트’와 ‘체크’ ‘루저’ ‘론칭(런칭)’ ‘이니셔티브’ ‘에비던스’가 그러한 음역에 해당한다. 이들은 각각 영어 낱말 fact와 check, loser, launching, initiative, evidence를 음역한 표현으로 ‘사실’과 ‘점검(확인)’ ‘패자’ ‘출시’ ‘주도(안)’ ‘증거’로 대체해도 기사의 작성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애초에 한국어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나 대상을 지칭하는 전문적인 첨단 학문 분야의 외국어 용어를 소개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어 음역 표현의 사용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팩트’ ‘루저’ ‘에비던스’ 등은 전문적이거나 특별한 사용역(register)을 갖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굳이 이러한 음역 표현의 사용을 선호하는 것일까? 배움과 지식이 많은 전문가를 존중하고 선망하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의식이 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물론 어떤 사물이나 사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할 때 자신의 유식함을 과시하기 위해 음역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위의 기사에서 기자들이나 전문가들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팩트체크’ ‘루저’ ‘론칭’ ‘이니셔티브’ 등의 표현이 더 편리하거나 더 적절하다고 느껴서 사용했을 것이다. 이 인지적 무의식의 한가운데에 한 은유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이 은유가 바로 음역 표현의 빈번한 사용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흔히들 외국어 음역 표현의 만연이 우리들의 마음속 사대주의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사고 과정은 본질상 대부분 은유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개념적 은유 이론에 따라 해석한다면 ‘마음속 사대주의’는 당연히 은유적인 사고 과정의 일부일 것이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서 [상대국은 위]이고 [자국은 아래]이다. 이 사대주의 은유가 [국가는 사람] 은유와 다시 결합할 때, [자국은 은유적으로 나약한 사람]으로 개념화되고 [상대국은 강력한 사람]으로 개념화된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침략을 하기보다는 침략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식민지로 전락해 지배를 받았으며, 사대주의를 생존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택하기도 했다. 이 사대주의 전략은 자국은 약한 존재로서 아래에 있으며 위에 있는 강한 상대국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다. 은유적으로 말하면, 자국은 늘 [아래]였고 상대국은 [위]였다. 그러면 자국의 언어인 한국어는 [아래]이고 상대국의 언어는 [위]이다. 식민지 이전까지는 중국어가 [위]였고,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어가 [위]였다.

이제는 우리의 사고 속에서 서구의 언어-특히 영어-가 [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은유적 사고에서는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대주의’의 영향보다 서구인들이 동양과 동양인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구성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일련의 고정관념인 오리엔탈리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 틀에서 서양(인)을 대표하는 특성은 문명, 강함, 성숙, 합리성, 안정성, 화려함 등인 반면, 동양(인)을 대표하는 특성은 야만, 허약, 미성숙, 비합리성, 불안정성, 초라함 등이다. 어떤 문화에서나 이러한 특성은 흔히 물리적인 수직성 개념 [위-아래]의 관점에서 은유적으로 이해한다. 은유적으로 [강함은 위]이고 [약함은 아래]이며, [성숙은 위]이고 [미성숙은 아래]이며, [문명은 위]이고 [야만은 아래]이며, [합리성은 위]이고 [비합리성은 아래]이며, [화려함은 위]이고 [초라함은 아래]이다.

5. 맺음말

은유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은 위]와 [동양은 아래]로 요약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서구어(영어)는 위]가 되고, [한국어는 아래]가 된다. 수많은 언론 보도와 전문가 토론, 일상의 한국어 대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어(음역) 표현은 이 오리엔탈리즘 사고의 반영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박정운. 2001. “앞으로 한 달 뒤에 만납시다: 시간의 개념적 은유 이론,” 언어와 언어학회, 28, 85~107.
- 이창봉. 2011. “은유를 통한 기쁨의 이해,” 인간연구, 20, 197-225.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임혜원. 1997. “선거 기사문에 나타난 은유: 선거는 전쟁이다,” 담화와 인지, 4(1), 89~110.
- Edelman, Murray. 1971. Politics as symbolic action : mass arousal and quiescence. Chicgo: Markham.
- Fillmore, Charles. 1982. Frame Semantic. In In-Seok Yang ed.,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111-137. Soeul: Hanshin.
- Galle, W. B. 1956.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 Proceedings of the Philosophical Society, 51, 166-198. London: Harrison and Sons Ltd.
- Kövecses, Zoltan. 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이정화 외 3인. 2003. 『은유: 실용 입문』. 한국문화사.)
- Lakoff, George.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eorge. 1996/2002. Moral Politics: How conservatives and liberals thin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eorge. 2006a. Thinking Points: Communicating Our American Values and Vision. New Jersey: Farrar, Straus and Giroux. (나익주 옮김. 2007. 『프레임 전쟁』. 서울: (주)창비.)
- Lakoff, George. 2006b. Whose Freedom?: The Battle over America's Most Important Idea. New Jersey: Farrar, Straus and Giroux. (나익주 옮김. 2009. 『자유는 누구의 것인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Lakoff, George. 2008. The Political Mind: Why We Can't Understand the 21st century Politics. with the 18th century reason. New York: Penguin. (나익주 옮김. 2009. 『폴리티컬 마인드: 21세기 정치는 왜 18세기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가?』. 서울: 한울.)
- Lakoff, George. 2014. Don't think of an elephant! New Jersey: Chelsea Green. (유나영 옮김. 2015.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서울: 와이즈베리.)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1980/2002.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 . 나익주 옮김. 1995/2006.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서광사/박이정)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1999. The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the Western though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진 . 임지룡 . 윤희수 . 나익주 옮김. 2002. 『몸의 철학: 서구 사상에 대한 신체화된 마음의 도전』. 서울: 박이정)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6 <의미·화용론> 사회: 백미현(충남대)

시간 부사어 ‘이미’, ‘아직’, ‘벌써’ 연구

발표: 여현정(영남대)

토론: 예선희(중앙대)

2022 한국영어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시간부사어 ‘이미’, ‘아직’, ‘벌써’ 연구

여 현 정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yth2093@naver.com

논의의구성

1. 서론
2. ‘이미’
3. ‘아직’
4. ‘벌써’
5. 결론

01 서론

● 논의의 목적

- ①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 부사어 ‘이미’, ‘아직’, ‘벌써’가 출현할 때 문장의 나머지 부분들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를 밝힘으로써 이들 시간 부사어의 중심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 ② 시간부사들이 시제/상 체계와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음에 따라(임유종 1999: 87), 시제/상 연구에서 시간 부사어는 시제 표지의 특성을 논하거나, 상황의 상적 특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간 부사어는 기능과 형식에서 모두 풍부하고 다양한 종류의 표현들을 구성하며, 화자가 시제와 상보다 더욱 미묘한 시간성의 정도를 부호화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Klein 1994: 158), 집중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01 서론

● ‘이미’, ‘아직’, ‘벌써’ 연구의 필요성

- ① 시간 부사어는 단순히 시제나 상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보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문장의미에서 각기 다른 의미 역할을 하고 있다(임채훈 2003: 158).
- ② 시간 부사어 ‘이미’, ‘아직’, ‘벌써’는 단순히 시간의 구간을 한정하거나, 시간 구간의 빈도나 지속 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③ Klein(1994: 149)에서는 기능이 분명하지 않은 다수의 부사들이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범주에 포함하기 어려운 시간부사어로 ‘still, already’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국내 연구들에서 ‘이미’, ‘아직’, ‘벌써’와 관련하여, 이들의 기능과 관련된 매개변수 등에 관하여 최근까지도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 온 바 있다.

01 서론

● 연구 경향

- ① 권선옥(1985)에서는 ‘이미’와 ‘아직’에 대해 **시제 표시의 부사**라 정의 하였다.
- ② ‘이미’, ‘아직’, ‘벌써’는 **‘상부사’**로 가장 많이 논의되어 온 듯하다. 김진수(1985)에서는 ‘이미’와 ‘벌써’가 완료상 부사인 것으로 보았다. 민현식(1991)에서는 ‘이미’, ‘아직’, ‘벌써’를 ‘상 관련 시간 부사’로 분류하고, ‘이미’와 ‘벌써’를 ‘완료상 부사’로, ‘아직’을 ‘진행상 부사’로 규정하였다. 임서현 · 이정민(1999)에서는 ‘쌍대성(duality)’의 개념을 통해, ‘이미’와 ‘아직’을 각각 완료상,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상 부사’로서 정의하였다. 임유종(2005)에서도 ‘이미’, ‘아직’, ‘벌써’가 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논의한 바 있으며, 염재일(2014)에서는 ‘이미’와 ‘아직’, ‘이미’와 ‘벌써’의 의미를 비교하며, 이들을 모두 ‘상부사’로 볼 수 있음을 밝혔다.
- ③ ‘이미’, ‘아직’, ‘벌써’가 시제나 상 부사로 논의되어온 그간의 경향과는 다르게, 장채린(2013)에서는 ‘이미’를 **‘상과 양태의 영역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시간 부사’**로 정의하였으며, 문숙영(2019)에서는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아직’과 ‘이미’를 [계속]과 [변화]의 **‘국면 부사(phasal adverbs)’**로 정의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01 서론

● 연구 방법

- ① 상황의 상적 특성은 ‘상황의 내적 시간 구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Smith(1991/1997: 112)에서는 시간 부사가 문장의 상적 의미(aspectual meaning)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어떠한 점에서 시간 부사어가 상적 의미에 기여하는지에 관하여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 ② Klein(1994)에서는 시간 부사어와 문장 나머지 부분 사이의 상호작용이 부사어의 의미와 위치에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상이나 특히 어휘 내용의 고유자질과 같은 요소들에 의존적이라고 논의하였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이미’, ‘아직’, ‘벌써’가 문장에 출현할 때 문장 나머지 부분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를 중심으로 이들 시간 부사어의 기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endler(1967), Croft(2012) 등에서 제시된 ‘상태’, ‘행위’, ‘완수’, ‘성취’의 상적 유형을 큰 틀로 삼아, ‘이미’, ‘아직’, ‘벌써’의 결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들이 공기하는 경우에 드러나는 시간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③ 본 연구에서 ‘이미’, ‘아직’, ‘벌써’의 용례 추출 및 말뭉치에서 이들의 출현을 확인하기 위해 약 100만 어절의 《연세 문어 균형 말뭉치》, 《연세 구어 균형 말뭉치》를 활용하였다.

02 '이미'

● '이미'와 상적 특성

① 다음 예문들을 통해 '이미'가 행위성 상황, 완수성 상황, 성취성 상황과 결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1) 가. 어머니가 칼을 이미 갈았다.

나. 영희가 이미 떡볶이를 먹었다.

다. ... 나 김현희는 바레인에서 독약 앰플을 깨무는 순간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

② (1가)에서 '칼을 가는' 상황은 행위성 상황, (1나)의 '떡볶이를 먹은' 상황은 완수성 상황, (1다)의 '죽은' 상황은 성취성 상황으로 볼 수 있다.

02 ‘이미’

● ‘이미’와 상적 특성

③ 염재일(2014: 687)에서 ‘이미’가 사용되는 술어에 대하여 “완료”나 “미완”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것으로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완성성]의 상적 자질을 갖는 다음의 상태성 상황에서 ‘이미’의 출현이 제약되는 것으로 보인다.

(2) 가. 하늘은 높다. (이호승 1997: 52)

나. ?하늘은 이미 높다.

④ (2가)는 이호승(1997: 52)에서 제시된 예문으로서, 사물의 고유한 속성, 즉 시간적인 변화를 입지 않는 항구적인 성질을 갖는 경우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2가)의 상황은 완성점이 없는 [-완성성] 상황이라 할 수 있으나, (2나)에서와 같이 ‘이미’가 출현한 경우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02 '이미'

● '이미'와 상적 특성

⑤ 한편, 장채린(2013: 282-283)에서는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이 '이미'가 상태성 동사와의 공기 제약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그렇지 않기도 함을 논의하였다. 아래의 (3가)가 적절한 맥락에서 “(간을 본 후) 된장국은 이미 짜요”, (3나)가 “아니요, 책상은 이미 저에게 높은걸요.”와 같이 발화되면 적절한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가. ?된장국은 이미 짜다. (장채린 2013: 282)

나. ?책상은 이미 높다.

다. 수지는 이미 예쁘다.

라. 수지는 이미 착하다.

⑥ (2나), (3가), (3나)에서처럼 [-완성성]의 상태성 상황에 '이미'가 제약되지만, (3다), (3라)에서처럼 결합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상황의 특성에 기인하기 보다, (3다), (3라)와 같은 문장이 은유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쁘다', '착하다'는 모두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변화가 없는 상태성 상황이지만, 문장이 은유적으로 해석될 때 '예쁘다', '착하다'는 충족해야 할 조건처럼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3다)는 이미 '예쁜'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3라)는 이미 '착한'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3가), (3나)와는 달리 '이미'의 출현이 어색하지 않다.

02 ‘이미’

● 매개변수와 ‘이미’의 기능

① 선행된 다음의 논의들에서는 ‘이미’가 사건시나 발화시 이외의 매개변수를 요구한다고 언급하였다.

(5) 가. 「이미, 벌써」는 U(발화시)나 E(사건시) 기준시 이전 완료상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어휘 의미는 “어떤 PR시간까지 동작이 완료되리라 예상하여 화자나 청자가 전제했던 기준시”인 **가상적 기준시 PR(전제 기준시, presupposition reference time)**의 관점에서 쓰이는 것이 원칙이다. (민현식 1991: 63)

나. ‘이미’의 의미는 **평가 시점** 이전의 어느 시점에 상황의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의 결과가 평가 시점까지 유지되는 완료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임서현 · 이정민 1999: 437)

다. ‘이미’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참조시**로서 “상황의 변화가 있는 시간”이 요구되며, ‘이미’가 가리키는 시간은 참조시 ‘이전’부터 시작된다. (장채린 2013: 292)

라. ‘이미’는 적어도 **기준이 되는 시간** 즉, **주제시**를 기준으로 주제가 되는 상황유형이 성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이미’는 주제시와 같거나 그 이전에 주제 상황유형이 성립하면 된다(염재일 2014: 692-694).

② 이러한 논의들을 살펴볼 때 선택한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문장에서 ‘이미’가 출현할 때 적어도 ‘이미’가 관여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러한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부터의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02 '이미'

● 매개변수와 '이미'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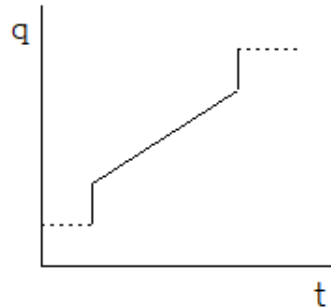
- ③ (5가)의 '전제 기준시'는 '화자나 청자가 전제했던 기준시'를 의미한다. 이는 민현식(1991: 63)에서 다른 매개변수로 제시하고 있는 '발화시'나 '사건시'와 구분이 되는 매개변수인 것으로 보인다.
- ④ (5나)의 임서현 · 이정민(1999: 438)에서는 '이미'의 경우에는 '상황 변화의 결과가 평가 시점까지 유지되는 완료상'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로 미루어볼 때 평가 시점은 적어도 '상황 변화의 결과' 이후의 상황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 ⑤ (5다)의 장채린(2013: 280)에서는 문숙영(2005: 30)의 논의를 토대로 한국어의 경우 시간 부사류가 지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발화시나 상황시가 아닌 기준시로 기능하는 경우에 '참조시'라는 술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여기에서 '참조시'는 '기준시'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⑥ (5라)의 염재일(2014: 684)에서는 "기준이 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주제가 되는 상황이 발화시점에 성립하는 가가 문제가 되므로 보통은 현재가 된다. 그러나 항상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논의하며, 문장 전체의 주제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02 '이미'

● 매개변수와 '이미'의 기능

⑦ 본고에서는 Croft(2012)의 논의에 기반하여 '이미'의 중심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Croft(2012)에서는 상황의 상적 특성은 '상적 지형(aspectual contour)'을 가진다고 논의하며, 상황의 상적 특성을 2차원의 형상으로 나타내었다. Croft(2012)에서는 예문 (6)의 경우를 [그림 1]과 같이 형상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6) I ate an apple pancake. (Croft 2012: 62)



[그림 1] 예문 (6)의 2차원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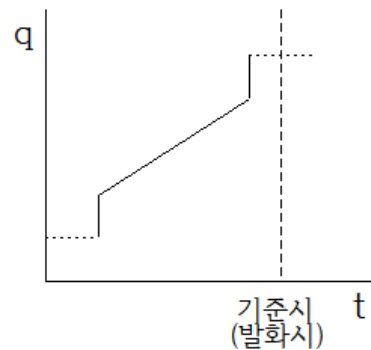
⑧ (6)에서 t 는 시간(time)을, q 는 질적 상태(qualitative states)를 의미한다. Croft(2012)의 분류에 따르면, (6)은 완수성 상황 중, '(증가성) 완수'이며, 이러한 완수성 상황은 시작 단계, 지향적 변화 단계, 완결 단계가 윤곽화 된다(Croft 2012: 62).

02 '이미'

● 매개변수와 '이미'의 기능

⑨ 다음의 예문 (7)은 완수성 상황에 '이미'가 결합한 경우로, 2차원의 형상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에서는 '김밥을 먹은' 상황의 단계, 즉 김밥을 먹기 시작한 단계, 김밥을 먹는 지향적 변화 단계, 김밥을 먹은 완결 단계가 윤곽화 되며, '이미'는 기준시(발화시) 이전에 윤곽화된 단계를 위치시킨다.

(7) 나는 이미 김밥을 먹었다.



[그림 2] 예문 (7), “나는 이미 김밥을 먹었다.”의 2차원 형상

02 '이미'

● 매개변수와 '이미'의 기능

⑩ 임서현 · 이정민(1999: 437)에서 '이미'의 의미는 평가 시점 이전의 어느 시점에 상황의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의 결과가 평가 시점까지 유지되는 완료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이미'를 “완료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정의하였다. 그러나 (3나)의 '칼을 가는' 행위성 상황에도 '이미'의 출현이 가능한 것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이미'가 결과 상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성 상황일 때만 발화시점에서 결과상태가 유지될 수 있으며(여현정 2021: 101), [+결과성]의 해석은 [+완성성]을 갖는 동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이호승 1997: 34).

⑪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가 상황이 윤곽화하는 단계를 기준시로부터 앞선 시점에 위치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시간 부사어로 보고자 한다.

03 '아직'

● '아직'과 상적 특성

① 다음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은 상태성 상황(8가), 행위성 상황(8나), 완수성 상황(8다), 성취성 상황(8라)과 모두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8) 가. 하늘이 아직 파랗다.

나. 영희가 아직 학교에 다닌다.

다. 철수가 아직 밥을 먹는다.

라. 영희가 아직 눈을 뜨고 있다.

② '아직'의 결합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의미를 살펴보면, (8가)는 '파란'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8나)의 경우는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의미가 드러난다. (8다)는 현재에 '밥을 먹는' 상황이며, (8라)는 '눈을 뜨고 있는' 결과의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따라서, (8)에서는 '아직'에 의해 현재의 시점까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공통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직'이 '현재의 시점'이라고 하는 특정한 기준 시점 관계하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으며, (8)에서 '아직'은 행위가 '발화시'까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표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03 '아직'

● 매개변수와 '아직'의 기능

① 그러나 다음의 용례들을 살필 때, '아직'이 '발화시'와만 관계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다음 예문들은 각각 '-었-', '-더-'와 '아직'이 공기하는 경우이다.

(9) 가. 해는 아직 수평선 뒤에서 꾸물거리고 있었지만 ...

나. 아직 팔과 다리에는 부목이 묶여 있었다.

(10)가. 그 여자친구 아직 만나더라?

나. 주위를 둘러보면은, 그~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여자는, 아직 없더라구요.

② 먼저, (9가)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상황은 '-었-'에 의해 현재의 발화시를 기준으로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해석되는데, 여기에서 '아직'은 이러한 특정한 '과거'의 시점까지 상황이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9나)의 '묶여 있는' 상황 역시, '-었-'의 출현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아직'에 의해 '묶여 있는' 상황이 특정한 '과거'의 시점까지 지속되었다는 의미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03 '아직'

● 매개변수와 '아직'의 기능

③ (10가)의 경우는 '-더-'로 인하여 '여자친구를 만나는 상황'을 인식한 시점으로 화자의 시점이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하게 된 시점과 '여자친구를 만나는 상황'이 일어난 시점은 동일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아직'은 바로 화자가 상황을 인식한 시점까지 '여자친구를 만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10나)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데, '그런 여자가 없다'고 인식한 시점은 과거이며, '아직'은 이러한 인식이 일어난 시점까지 '그런 여자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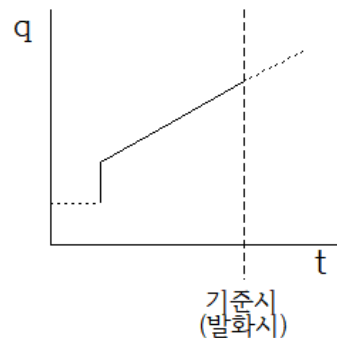
④ 염재일(2014: 679)에서는 “‘아직’이 주장하는 바는 ‘지금’ 혹은 주제시에 관한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는데, ‘아직’이 출현한 예문들을 살필 때, ‘아직’은 (8)에서와 같이 ‘발화시’까지 상황이 지속됨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9)에서처럼 특정한 ‘과거’의 시점, 혹은 (10)과 같이 화자가 상황을 인식한 시점(view point)까지 상황이 지속됨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다 명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03 ‘아직’

● 매개변수와 ‘아직’의 기능

⑤ 다음의 상적 지형의 형상을 통해, ‘아직’이 의미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다. (8나)의 “영희가 아직 학교에 다닌다”는 ‘학교에 다니는’ 행위성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다음의 형상에서와 같이 시작 단계, 지향적 변화 단계를 가진다. 다만, 행위성 상황은 행위의 자연적 ‘끝점’이 없으므로, 완결된 행위를 나타내는 결과 상태로의 전환은 이어지지 않는다.

다음의 [그림3]에서 ‘아직’은 상황의 지향적 변화 단계가 기준시(발화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시하며, 이러한 지향적 변화 단계가 기준시(발화시) 이후에도 지속됨을 내포한다(문장에 따라 기준시는 발화시, 인식시, 사건시가 될 수 있다). 이는 “‘아직’은 사건이나 행위가 완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논의한 임서현·이정민(1999: 439)의 언급과도 관계된다.



[그림 3] 예문 (8나), “영희가 아직 학교에 다닌다.”의 2차원 형상

03 '아직'

● 부정문에서의 경우

① 그러나 부정문에서 '아직'은, 앞서 살핀 긍정문에서의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예문은 각각 상태, 행위, 완수, 성취성 상황에 '아직'이 결합한 경우이다.

(11) 가. 하늘이 아직 안 파랗다.

나. 타봤어? 나는 아직 안 타봤는데.

다. 클래식 아직 못 봤는데, 내용도 다 알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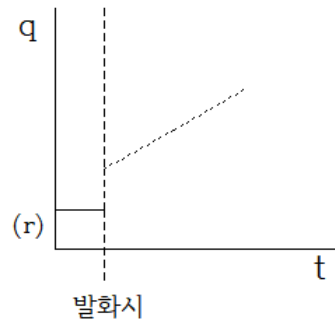
라. 개네 언니는 아직 못 마쳐서 ...

② 앞서 살핀 긍정문의 경우에서는(예문 8, 9, 10), '아직'에 의해 기준시까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상황의 시작이 전제되나, (11)의 부정문에서는 공통적으로 상황의 시작이 전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문의 경우에는 상황이 시작되는 지점 이전, 즉 상황의 시작에 선행하는 '상황외 상태(rest state)'가 윤곽화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11)의 경우, '아직'에 의해 '파랗지 않은' 상황, '안 타본' 상황, '클래식(영화)을 못 본' 상황, '못 마친' 상황이 발화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지속된다는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03 ‘아직’

● 부정문에서의 경우

③ ‘아직’에 의해 윤곽화되는 부분은 다음의 2차원 형상에서 나타낼 수 있다. (11나)의 “나는 아직 안 타봤는데.”는 행위성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다음의 형상에서와 같이 시작 단계, 지향적 변화 단계를 가진다. 행위성 상황의 부정은, 상황의 시작 단계 이전을 지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아직’에 의해 상황이 시작되기 이전 단계가 발화시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형상화할 수 있다.



(r: rest state)

[그림 4] 예문 (11나), “나는 아직 안 타봤는데.”의 2차원 형상

④ 따라서, 부정문에서 ‘아직’은 문장에서 ‘상황외 상태’가 문장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시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긍정문과 부정문에서 ‘아직’은 공통적으로 상황이 윤곽화하는 단계가 기준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시간 부사어라고 볼 수 있다.

04 '벌써'

● '벌써'와 상적 특성

① '벌써'는 아래와 같이 상태성 상황(12가), 행위성 상황(12나), 완수성 상황(12다), 성취성 상황(12라)에서 모두 출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2) 가. 나이두 벌써 많잖아.

나. 아 벌써 가?

다. 어, 나 저녁 벌써 먹었거든.

라. 수지가 벌써 학교에 도착했다.

04 ‘벌써’

● ‘벌써’의 기능과 매개변수

① 민현식(1991: 67)에서는 ‘벌써’를 강조 완료상을 기능으로 갖는 완료상 부사로 논의하였으며, 임서현 · 이정민(1999: 449)에서는 ‘벌써’는 ‘이미’와 같은 의미 사용에 더하여 ‘예상과 달리 어느새’라는 의미가 추가되어 상황의 변화가 예상보다 더 빨리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의미를 부가적으로 갖는 것으로 보았다.

② 염재일(2014: 690-691)에서는 ‘벌써’가 ‘이미’와 의미적으로 큰 차이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 다음의 경우에서와 같이 ‘벌써’는 주제에 대한 조건이 없고 ‘이미’보다 강한 의미를 가진다고 논의하였다.

(13) A: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철수가 왔어.

B: {벌써, ??이미}?

(염재일 2014: 691)

04 ‘벌써’

● ‘벌써’의 기능과 매개변수

③ (13B)에서 ‘벌써’는 화자가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한 시점보다 이전에 상황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예상과 달리 어느새(임서현 · 이정민 1999)’, ‘기대보다 일찍(염재일 2014)’의 의미와도 동일한 선상에 있다. 그러나 위의 (13)에서 ‘벌써’는 가능하고 ‘이미’가 어색해 보이는 것이 단일한 이유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말뭉치 검색 결과, ‘이미’의 경우 ‘아직’과 ‘벌써’에 비해 구어에서의 출현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아직		벌써	
	출현 빈도	비율	출현 빈도	비율	출현 빈도	비율
문어	551	79.4	370	53.6	150	56.2
구어	143	20.6	320	46.4	117	43.8
계	694	100	690	100	267	100

<표 1> ‘이미’, ‘아직’, ‘벌써’의 말뭉치 출현 양상

04 ‘벌써’

● ‘벌써’의 기능과 매개변수

- ④ 염재일(2014: 691)에서는 다음의 (14가, 나)에서와 같이 ‘벌써’가 ‘기대보다 일찍’을 의미하지 않는 용례를 제시하며, 여기에서의 ‘벌써’는 기대되는 시간이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제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미’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14다)에서처럼 말뭉치에서 이러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14) 가. 나는 그 일을 벌써 잊었고 지금은 마음이 편하다. (염재일 2014: 691)

나. 벌써부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 너 좋아해. (염재일 2014: 691)

다. 어, 나 저녁 벌써 먹었거든.

- ⑤ (14)에서의 ‘벌써’는 염재일(2014: 693)의 논의를 따른다면, (문장의) 주제시가 ‘벌써’의 주제시보다 훨씬 오래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04 '벌써'

● '벌써'의 기능과 매개변수

- ⑥ 먼저 (14가)에서 '벌써'가 출현한 선행절은 상대시제를 따른다. 따라서 '일을 잊은' 상황은 후행절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때 '벌써'의 출현은 내가 그 일을 잊은 시점이 기준시(후행절의 사건시)으로부터 훨씬 오래전의 일이라는 의미를 더하게 된다. (14나)의 선행절은 절대시제로 해석되므로, 여기에서 '벌써'는 '말을 하려고 한' 상황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훨씬 이전의 일이라는 의미를 더한다. (14다)에서도 '-었-'의 출현으로 저녁을 먹은 상황이 과거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벌써'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훨씬 이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벌써'가 '훨씬 오래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었-'과 공기할 때에만 가능하며 상황이 훨씬 이전에 일어난 것이라는 의미를 더하게 된다. 이때 '벌써'의 기준시는 '-었-'이 과거로 해석되는 기준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04 ‘벌써’

● ‘벌써’의 기능과 매개변수

⑦ 한편, 염재일(2014: 692)에서는 ‘벌써’가 기대보다 일찍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여도 쓸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15가)의 ‘집에 가려고 하는’ 상황과, (15나)의 ‘기다려지는’ 상황은 발화하는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벌써’에 의해 설정되는 ‘기대 시점’이 현재의 시점(발화시)보다 이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15가)의 기대 시점은 현재 철수가 집에 가려고 하는 시점보다 이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집에 가려고 하는’ 상황이 현재의 일임에도 기대보다 일찍이라는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15나)는 ‘다음 일요일’이라는 보다 명확한 기대 시점이 제시되는 경우로서, 이러한 기대 시점 역시 현재보다 이후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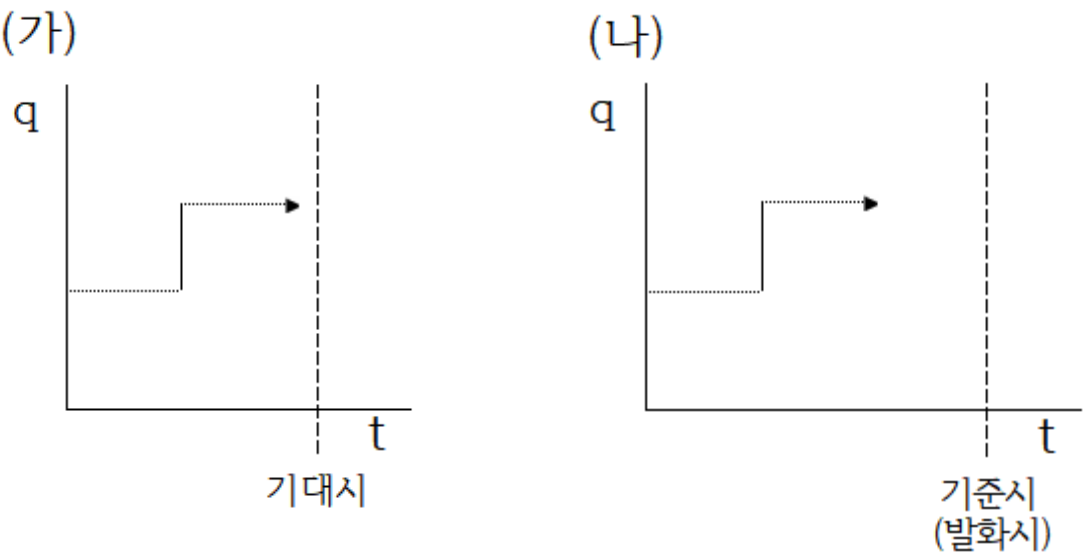
(15) 가. 철수가 {벌써, ?이미} 집에 가려고 한다. (염재일 2014: 692)

나. 벌써 다음 일요일이 기다려집니다.

04 ‘벌써’

● ‘벌써’의 기능과 매개변수

⑧ 다음의 상적 지형의 형상을 통해, ‘벌써’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에서 ‘벌써’는 화자가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한 시점보다 이전에 상황이 일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릇이 깨진 상황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훨씬 이른 시점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 5] 예문 (16) “그릇이 벌써 깨졌다.”의 2차원 형상

04 ‘벌써’

● ‘벌써’의 기능과 매개변수

- ⑨ 먼저, (16)은 [그림 5]에서와 같은 상적 지형을 가진다. ‘그릇이 깨진’ 상황은 성취성 상황으로, t 차원상 한 점에서 발생한, q 차원상의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 단계를 가진다(Croft 2012: 59-60). [그림 5]의 (가), (나)에서 상황은 모두 ‘전환’의 단계를 윤곽화한다.
- ⑩ 그러나 (가)와 (나)에서 ‘전환’ 단계의 시간적 위치는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가)에서 전환의 단계는 ‘벌써’에 의해 화자가 기대하는 시점인 ‘기대시’를 기준으로 앞서 일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화자가 예상한, 혹은 기대한 시점보다 이전에 행위가 일어났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나)의 경우 ‘벌써’는 ‘기준시(발화시)’를 기준으로 훨씬 이전에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⑪ 따라서 ‘벌써’는 화자가 기대하는 시간인 ‘기대시’와 상황시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라는 두 가지 매개 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점 이전에 상황이 윤곽화하는 단계를 위치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벌써’는 ‘기대시’보다 이전에 상황이 일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준시’로부터 훨씬 이전에 상황이 일어났음을 의미할 수 있다.

05 결론

① Klein(1994: 230)에서는 많은 시간 부사어들이 비시간적으로 사용되는데, 시간적 기능과 비시간적 기능이 서로 어떻게 관계되느냐에 관한 문제가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 지적하였다. 본 논의에서 살핀 ‘이미’, ‘아직’, ‘벌써’는 시간 부사어이지만 직접적으로 상황이 일어난 시점을 한정하거나, 시간 구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시간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점이나 시구간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문장에서 시간과 관련한 매개 변수와의 일정한 관계 속에서 이들 시간 부사어들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으며, 상황의 시간적 속성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분명 시간적 기능과 관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본 연구에서 살핀 ‘이미’, ‘아직’, ‘벌써’의 기능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미’는 상황이 윤곽화하는 단계를 기준시로부터 앞선 시점에 위치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 ‘아직’은 상황이 윤곽화하는 단계가 기준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 ‘벌써’는 ‘기대시’와 ‘기준시’라는 두 가지 매개 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점 이전에 상황이 윤곽화하는 단계를 위치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 권선옥. 1985. 한국어 시간부사어의 의미 분석,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수. 1985. 언어와 논리-‘이미’, ‘벌써’와 ‘아직’을 중심으로, 『목원어문학』 5, 47-55.
- 문숙영. 2005/2009. 한국어의 시제 범주, 태학사.
- 문숙영. 2019. 한국어 부사 및 부사절의 언어유형적 특징, 『국어국문학』 17, 5-53.
- 민현식. 1991. 국어의 시상과 시간부사, 한국학술정보.
- 여현정. 2021. ‘-았-’의 기능 및 관련 현상 연구: 정신공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74, 83-112.
- 여현정. 2022. 한국어 시간 관련 문법 표지 연구: 정신공간 이론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염재일. 2014. 상부사 아직, 이미, 벌써의 의미와 화용 비교, 『어학연구』 50(3), 669-695.
- 이익섭·채완. 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지영. 2010. ‘아직’의 통시적 변화, 『국어학』 59, 103-129.
- 이호승. 1997. 현대 국어의 상황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서현·이정민. 1999. 한국어 상 부사의 쌍대성(duality)에 관한 연구-‘이미’와 ‘아직’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35(3), 431-464.
- 임홍빈·장소원. 1995. 국어문법론 1, 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임유종. 1999. 한국어 부사 연구, 한국문화사.
- 임유종. 2005. 수식언의 문법, 경진문화사.
- 임채훈. 2003. 시간부사의 문장의미 구성, 『한국어 의미학』 12, 155-170.
- 장채린. 2013. 시간 부사 ‘이미’ 연구, 『한국어 의미학』 42, 269-295.
- 조민정. 2000. 국어의 상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동주. 1995/201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 태학사.
- 최동주. 2021. ‘찾다’, ‘이기다’, ‘도착하다’의 상적 특성 - ‘-고 있-’ 결합형을 중심으로 -, 『한국어학』 91, 395-421.

- Comrie, B.(1976),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mrie, B.(1985), *Ten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ft, W.(2012), *Verbs: Aspect and Causal Structure*, Oxford/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lein, W.(1994), *Time in Language*, Routledge.
- Klein, W. and Ping Li(2009), *The Expression of Time*, Berlin: Mouton de Gruyter.
- Smith, C.(1991/1997), *The Parameter of Aspect(Second Edi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Vendler, Z.(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6 <의미·화용론> 사회: 백미현(충남대)

일간지 헤드라인에 재현된 해외입양인 표상에 대한 고찰

발표: 신진원(부산대)

토론: 박용예(서울대)

일간지 헤드라인에 재현된 해외입양인 표상에 대한 고찰

신진원(부산대)

연구배경

- 신문과 같은 언론 매체에서 그려낸 특정 표상(representation)은 그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보편적 독자의 시각을 반영하여 만들어지지만, 그들이 선택한 표상 방식으로 인해 독자들이 갖는 그 대상에 대한 시각이 형성(Fairclough 1995)
- 한국사회가 보여주는 해외입양인과 같은 소수집단에 대한 시각은 신문과 같은 언론 매체가 이들을 어떻게 재현해 내고 있는가와 연관

연구목적

- 해외입양인을 다루는 국내 신문 뉴스 헤드라인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사회적 행위자들을 밝히고 그들이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를 담화분석을 통해 조사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텍스트 생산자인 저널리스트의 언어 선택이 한국 사회가 지니는 해외입양인에 대한 관점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논의

선행연구 (1)

해외입양인 관련 연구

- 해외입양에 대한 사회현상 조사 그리고 관련 문제 해결에 관한 사회학적 탐구 중심 연구: 장윤수 2008, 임영언·임채완 2012, 김재민 2013 등
- 영화와 소설과 같은 대중문화 속에 재현된 해외입양인에 대한 담론 연구: 유지영 2013, 우미성 2015, 장미영 2018 등

선행연구 (2)

사회적 행위자 표상 연구

- 국외 연구: 주요 언론들이 이슬람, 정치인, 이민자 등을 어떻게 표상했는가와 관련한 CDA

Aghagolzade et al.(2013), Rezaei et al.(2020), Rahardi et al.(2020), Ahlstrand(2021), Hart (2011, 2014) 등.

선행연구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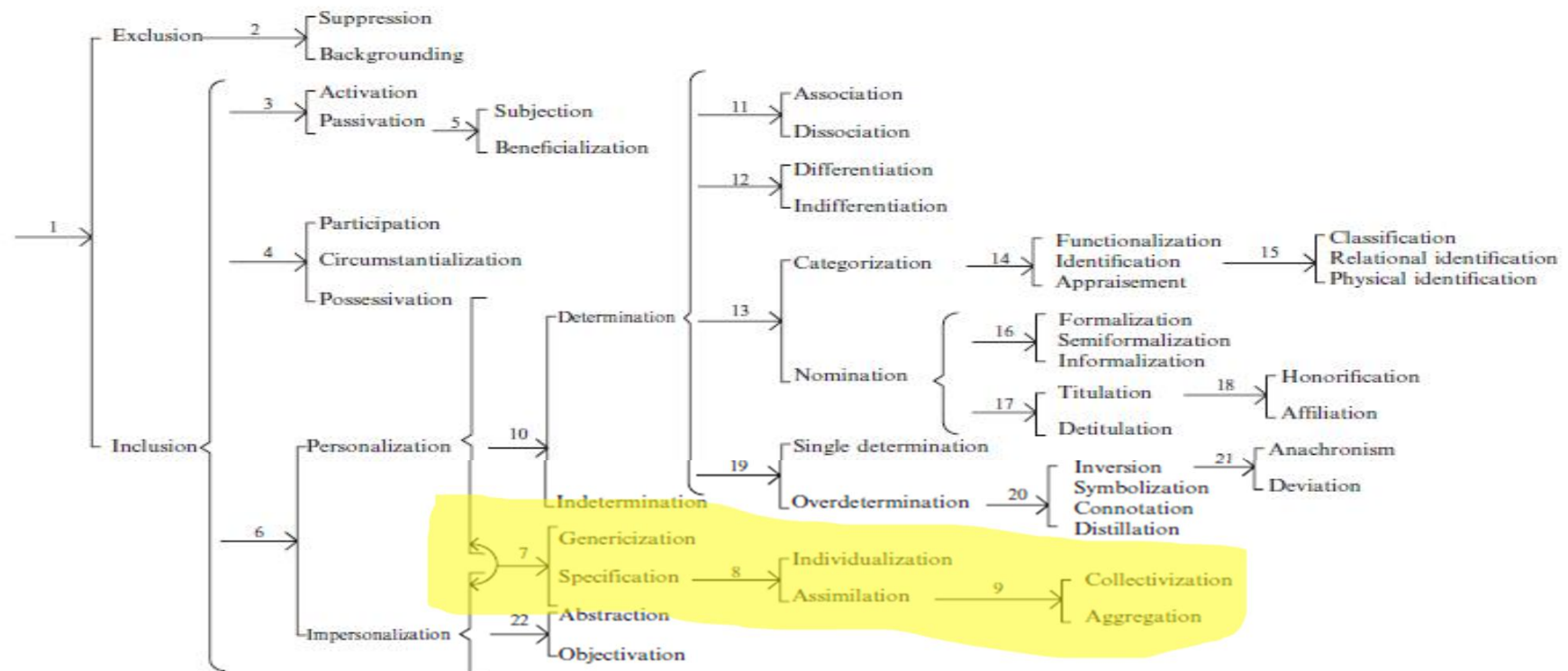
사회적 행위자 표상 연구

- 국내연구: 국내 언론들이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표상방식의 차이 검증
 - 김병건(2018):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표상방식을 SFL의 타동성분석을 중심으로 분석
 - 김병건(2020)이 공영방송 뉴스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정치권력 변화에 따른 보수와 진보의 표상 차이를 밝혀내기 위해 사회적행위자표상 개념과 동사성분석을 이용하여 텍스트 분석을 시도
 - 신문적·왕림·김진해(2020)는 신문기사에 나타난 사회적행위자표상 이론과 개념적 은유이론을 통해 한중 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정당화 전략을 분석

이론적 배경

- 사회적 행위자 표상이란?
-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란 사회적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사회학의 용어.
- Van Leewen (2008)의 사회적 행위자 표상 모형은 언어사용과 상황적 사회적 맥락과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언어학의 관찰 개념과 관련
- 체계기능언어학의 타동성 분석이 언어사용과 화자의 상황적, 사회적 맥락과의 관련성을 언어적 범주에서 접근했다면 Van Leewen의 사회적 행위자 표상 모형은 그 접근을 사회-의미론적 범주로 확장한 경우
- Van Leewen의 사회적 행위자 표상 모형에서 언어사용과 그 언어사용자의 사회적 맥락과의 관련이 실현되는 방식 중 상당 부분은 담화에서의 사회적 행위자를 어떻게 지칭하는가와 관련하여 설명됨
- 지시 전략은 복잡한 망으로 구성됨

Van Leewen(2008) 사회적 행위자 표상 모형



사회적 행위자 표상 모형

Hart(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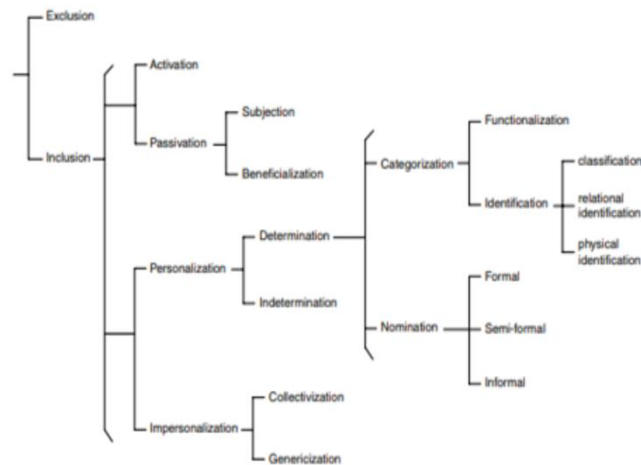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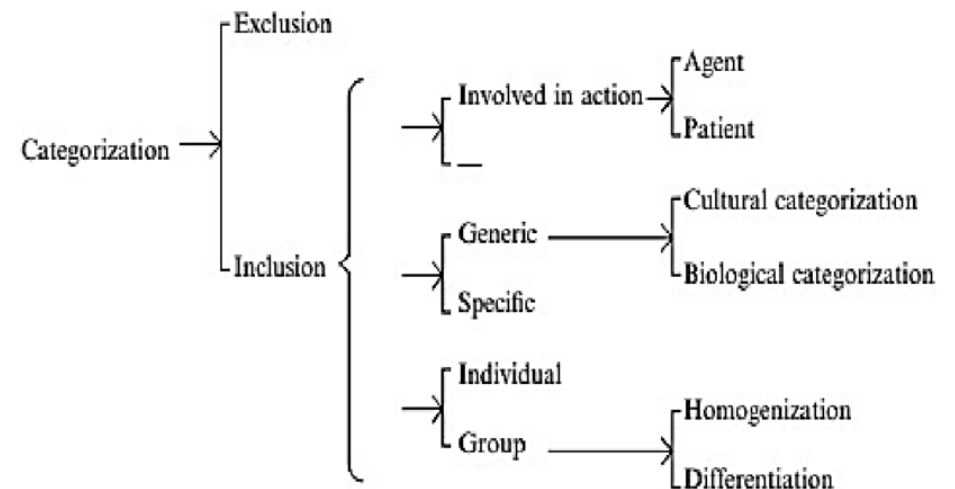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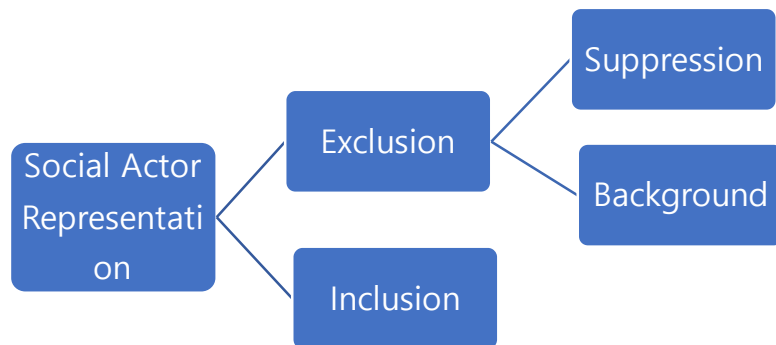


Figure 1.4. Partial system network for representation of social actors (adapted from van Leeuwen 1996: 66)

Velu & Kaur(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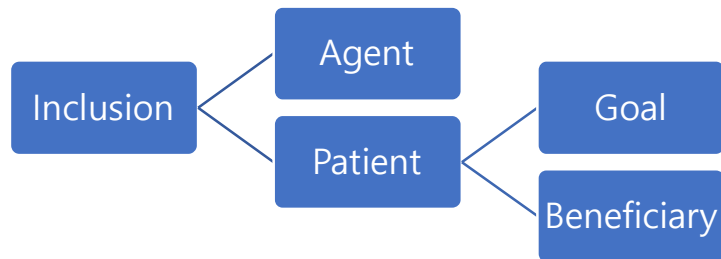


포함 VS 배제



- 1) 돌아온 입양아 박혜진씨의 희망찾기(포함)
<동아일보 2011,07,28>
- 2) 한국서 한국을 찾는 힘든 여행(배경)
<문화일보 2000,09,06>
- 3) 미혼모 적극 지원해 해외입양아 줄여야(배경)
<세계일보 2008,07,03> ,

능동화 VS 수동화



1) 청각장애 해외입양아의 한국사랑 18년 만에 모국찾은
김벌리씨(행위주체)

<국민일보 2002,0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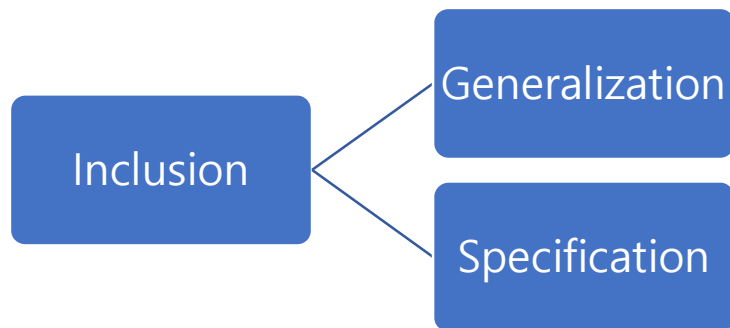
2) 미국 시민권 취득 못해 불법 체류자로 내몰리는 한인
해외 입양인 2만명(대상)

<국민일보 2019,05,25>

3) 미국 의회, 해외입양아 자동적 시민권 부여(수혜자)

<한국일보 2000,10,16>

일반화 VS 구체화



1) 해외입양아에 사랑을(일반화)

<서울신문 2001,0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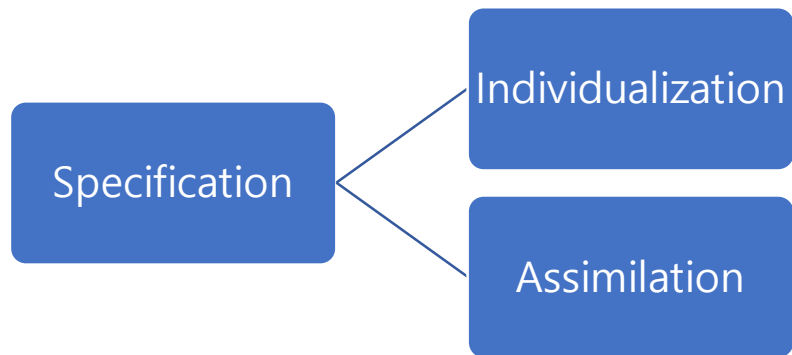
2) 해외입양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일반화)

<매일신문 2007,06,04>

3) 가난에 외국입양 조종현씨 26년만에 부모 만나(구체화)

<문화일보 2001,07,19>

개별화 VS 단체화



1) 친아버지 만난 입양아 출신 준태 씨 "이 손 잡는 데 25년 다시는 안놓칠래요"(개별화)

< 동아일보 2011,12,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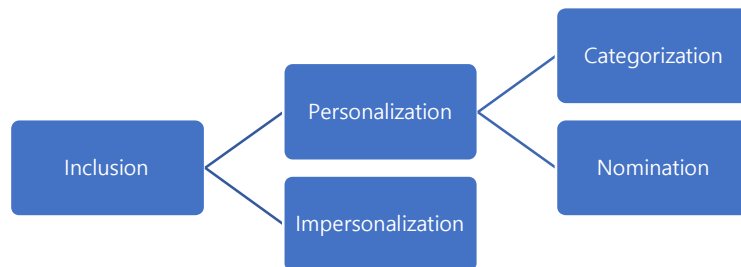
2)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닌' 해외 입양인 2만 6000명(집단화)

< 중앙일보 2017,10,31 >

3) 수잔 브링크 그후 15년 美 유럽 입양아들(집단화)

< 문화일보 2004,05,06 >

범주화 VS 지명



1) 프랑스 입양아, 18 년만에 가족 찾았다(범주화)

<세계일보 2005,0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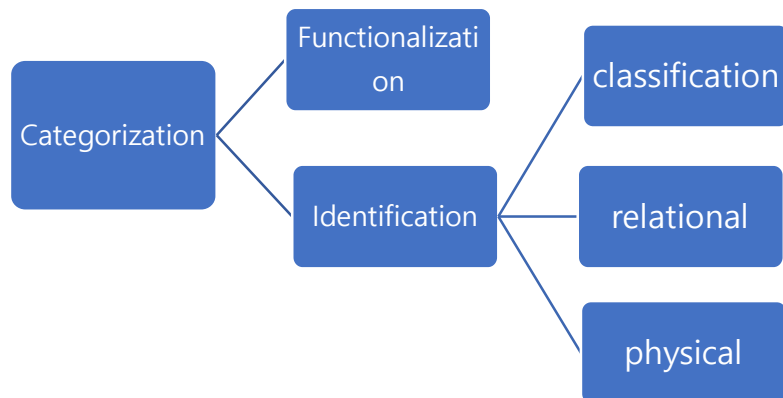
2) 벨기에 입양인 출신 세계적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자
선 공연 (범주화/ 지명)

<중앙일보 2018,12,04>

3) 4년 품에 그린 어머니 꼭 찾고 싶어" 69년 벨기에 입
양 양상욱씨 10 회 째 방문(범주화/ 지명)

<세계일보 2003,11,20>

직능화 VS 정체화



1) 요아킴 한센의 연인, 로드 FC출전 해외입양아 女 파이터(관계적 정체화/직능화/분류)

<세계일보 2013,05,20>

2) 효녀 김민선 '눈물 펑펑' - 해외입양아 상봉 프로그램 출연 (관계적 정체화/지명)

<경향신문 2005,09,02>

3) 두 다리 없는 美입양소년 킹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 (신체적 정체화/분류/지명)

<국민일보 2001,03,28>

<분류>의 구분기준

<혈통>

- 50만 해외입양동포 권리, 국가가 찾아줘야 <한국일보 2019,07,11>
- "750만 재외동포, 교과서에 그들의 존재는 없었다" <내일신문 2020,06,08>
- 혼혈해외입양아 문제 초등교과서에 싣기로(<중앙일보 2007,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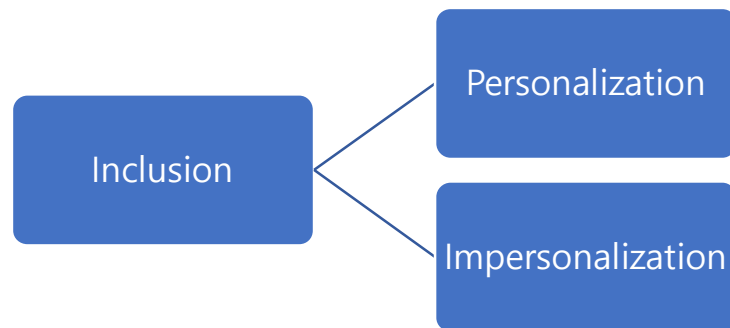
<국가>

- '월드허그파운데이션' 도움으로 한인 입양인 시민권 취득했다 <국민일보 2019,04,11>
- 국제미아가 된 한국인 입양아 <동아일보 2007,12,17>
- 프랑스 입양아, 18년만에 가족 찾았다 <세계일보 2005,07,13>
- 엄마 찾다 길 잃은 미국 입양아, 32년 만에 가족상봉 <한국일보 2019,12,23>

<규범>

- 고아수출국 오명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국민일보 2015,10,14>
- 가슴으로 낳은 아이 입양<동아일보 2007 09 03>
- 미국의 입양문화 "남의 아이 기르는 것도 축복"<문화일보 2001,05,07>

의인화 VS 非의인화



1) 선희 엔겔스토프 "나는 엄마가 간직한 비밀"(추상화)

<문화일보 2021,05,27>

2) 올려라, 그러면 웃으리라 - 총무로 흥행코드 '코미디'서 '눈물'로 선회 조짐(추상화)

<문화일보 2004,12,07>

3) "쌍천만 감독 비법요? 가장 큰 비극서 출발하는 희극 이죠"(추상화)

<한국일보 2018,08,25>

4) 최루성 뉴스 이대로 좋은가(추상화)

<경향신문 2010,11,30>

연구질문

- 1) 해외입양인 관련 신문 헤드라인에서 주요 사회적 행위자는 누구인가?
- 2) 신문 헤드라인에서 주요 사회적 행위자들에게 할당된 역할은 무엇인가?
- 3) 주요 사회적 행위자로서 해외입양인은 어떤 방식으로 표상되는가?
- 4) 해외입양인에 대한 표상방식과 한국사회의 관점과는 어떻게 관련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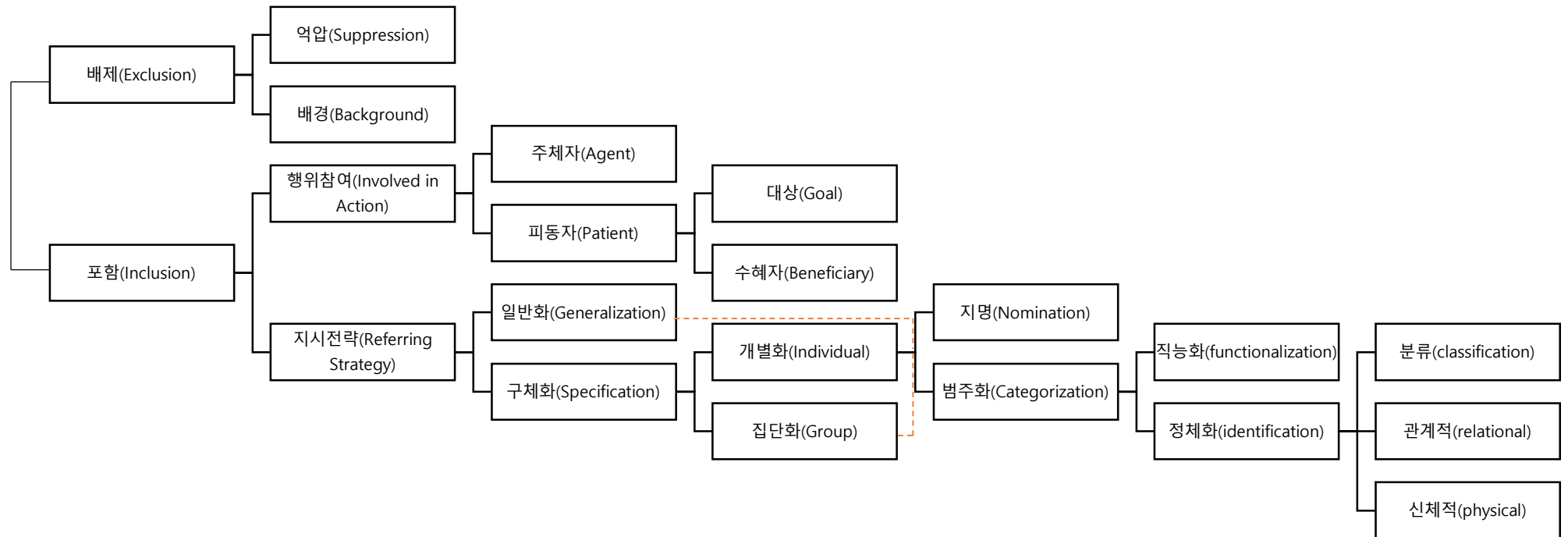
분석대상

-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에서 추출한 신문 헤드라인
- 기간: 200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중앙지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11개의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검색 키워드 <해외입양>, <해외입양아>, <해외입양인>로 추출된 헤드라인을 대상으로 해외입양인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텍스트만을 분석 대상으로 분류
- 추출된 헤드라인은 총 170건

분석내용과 방식

분류	내용	방법
식별	누가 포함되는가? 누가 배경으로 존재하는가?	의미절 내에 포함된 Conscious Entity 의 존재가 가시적인가? 비가시적인가?
역할할당	주요 사회적 행위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행위가 포함된 의미절에서 사회적 행위 자는 agent, goal, beneficiary 인가?
표상방식	일반화 VS 구체화, 개별화 VS 집단화 지명 VS 범주화	Van Leewen의 표상모형을 기반한 지칭 방식 분류

분석틀 설계



텍스트 분석 예시

[표1] 사회적행위자 식별과 역할분담 분석 예시

날짜	신문명	헤드라인	사회적행위자 식별	역할할당
2007 0214	중앙	혼혈 해외입양아 문제 초등 교과서에 실기로	입양아	대상(신다)
2009 0508	경향	뷰파인더에 잡힌 한국입양아들의 일상	입양아	대상(잡히다)
2009 0617	서울	해외입양아에 비빔밥 잔치국수 대접	입양아	수혜자(대접받다)
2010 0211	서울	해외취터제로 4년간 입양 25% '뚝' 버려진 아이들 두 번 운다	입양아	대상(버저지다) 주체(올다)
2011 1229	동아	친아버지 만난 입양아 출신 준태 씨 "이 손 잡는 데 25년 다시는 안놓칠래요"	입양아, 친부	주체(만나다) 주체(안놓치다) <u>목적(만나다)</u> 대상(안놓치다)
2013 0918	세계	요아킴 한센의 연인, 로드FC 출전 해외입양아 女파이터	입양아	주체(출전하다)
2014 0227	한국	한국 사회는 책임 없나	한국사회 입양아(배경)	대상(책임지다) <u>주체(책임지다)</u>
2018 1204	중앙	벨기에 입양인 출신 세계적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자선 공연	입양아	주체(공연하다)

[표2] 해외입양인 표상 방식 분석 예시

날짜	신문명	헤드라인	일반화/구체화 (집단/개별)	하부전략
2007 0214	중앙	혼혈 해외입양아 문제 초등 교과서에 실기로	집단화	범주화(분류: 혈통/공간)
2009 0508	경향	뷰파인더에 잡힌 한국입양아들의 일상	집단화	범주화(분류: 국가)
2009 0617	서울	해외입양아에 비빔밥 잔치국수 대접	일반화	범주화(분류: 공간)
2010 0211	서울	해외취터제로 4년간 입양 25% '뚝' 버려진 아이들 두 번 운다	집단화	범주화(분류)
2011 1229	동아	친아버지 만난 입양아 출신 준태 씨 "이 손 잡는 데 25년 다시는 안놓칠래요"	개별화	지명/범주화(분류)
2013 0918	세계	요아킴 한센의 연인, 로드FC 출전 해외입양아 女파이터	개별화	지명/범주화(직능화/분류)
2018 1204	중앙	벨기에 입양인 출신 세계적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자선 공연	개별화	지명, 범주화(분류: 출신, 공간, 계층/직능화)

분석결과 (1)

- 주요 사회적 행위자 별 포함과 배경, 억압의 빈도수

	포함	배경	억압
해외입양인	120	24	32
친부모(가족)	27	4	
한국(국가, 정부, 사회, 공기관)	24	25	
입양국가	12		
입양부모	3		

- 해외입양인이 주요 사회적 행위자로 명시적 표상된 <포함>의 경우는 해외입양인의 부모찾기, 한국방문, 성공적 또는 비극적 사례, 정부정책 등을 다루는 헤드라인
- 해외입양인이 맥락상 독자의 추론으로 존재가 확인되는 <배경>경우는 주어와 목적어 부사 등의 생략으로 사회적 행위자가 비명시적이 된 경우: 1) 사실 전달 보다는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스토리라인으로 소개되는 경우, 2) 해외입양인 관련 헤드라인 담화에서 한국정부가 포함된 정책 논의 경우
- van Leewen(2008)은 영어에서 텍스트 생산자가 사회적 행위자를 <배경>으로 만드는 것은 각 언어의 특성, 장르 관습, 저자의 의도적 선택
- <억압>의 경우는 주로 한국정부, 한국사회가 주요 사회적 행위자로 등장하여 입양과 관련한 조치와 대책 등을 논의를 다루는 헤드라인.
- 해외입양인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는 물론 해외입양인이지만, 관련 문제의 본질이 해외입양인 스스로에게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 때문에 이들이 사회적 행위자로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친부모와 한국정부로 수치가 비슷
- 해외입양 문제의 책임과 해결이 친부모와 한국정부와 사회에 놓여 있다고 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 투영: 담화는 우리가 사는 물리적, 정신적 세상을 표상하며 그 세상의 구조, 관계, 절차, 사고 등을 표상(Fairclough 2003: 126)
- 친부모의 경우, 해외입양 관련 뉴스의 상당 부분이 혈육 찾기와 같은 서사로 이루어졌으며, 이 경우 친부모가 명시적인 표상으로 나타남
- 친부모의 경우 친모(12)의 비율이 친부(3)의 비율보다 훨씬 높음: 입양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체는 친부보다 친모라는 관점이 형성
- 한국정부, 사회, 국가 등은 <포함>의 경우 친부모와 빈도수가 비슷하지만 추론으로 알 수 있는 존재인 <배경>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음
- 문제 해결에 대한 촉구에서 주체나 대상으로 정부가 생략된 채 나타남
- 입양국가와 입양부모, 후원자 등 그 밖의 사회적 행위자이며 모두 명시적 표상인 <포함>으로만 나타남

분석 결과 (2)

- 주요 사회적 행위자 별 역할 할당 빈도 수

	Agent (행위주체)	Goal (대상)	Beneficiary (수혜자)
해외입양인	51	47	26(+)/3(-)
친부모(가족)	9	21	0
한국(국가, 정부, 사회, 공기관)	13(25)	11(1)	0

- 해외입양인은 <행위주체>, <대상>, <수혜자>의 역할이 모두 할당
- <행위주체>의 경우 '찾다', '취득하다', '돌아오다', '방문하다', '놓치다', '떠돌다'의 행위자
- <대상>의 경우, '버려지다', '잃어버리다', '내몰리다'의 대상
- <수혜자>의 경우, (관심, 혜택, 지원, 사랑 등) '받다'의 수령자,
- 해외입양인은 행위의 행위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행위의 대상이나 영향을 받는 수혜자로서 피동자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음
- 주체자의 행위에 의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받는 수혜자로, 긍정적 영향은 주로 정부의 조치나 정책의 혜택을 받는 존재로, 부정적 영향의 정부와 친부모, 한국정부, 입양국가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하는 존재로 나타남

- 한국사회나 정부의 역할은 <행위주체>와 <대상>이지만 특징적인 것은 비명시적인 배경으로 나타난 경우는 <행위주체>가 훨씬 많음.
- 해외입양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로서 정책과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주체, '찾아주다', '무책임하다', '기울이다', '자성하다', '펼치다', '추진하다'의 <주체자>, 한국정부, 한국, 국가, 한국사회 등으로 지칭하며 정책 실현을 요구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맥락
- <대상>은 해외입양인에 의해 행해지는 '방문하다', '돌아 오다'의 목적지, 해외입양인이 방문하고 배우는 대상으로 쓰인 경우로, '모국', '고국', '한국' 등의 지칭으로 불리우는 경우.
- 친부모의 경우 <대상>으로서의 역할이 높음, 버리거나 입양 보낸 주체로도 나타나지만 해외입양아가 찾거나 만나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존재

분석 결과 (3)

- 해외입양인 표상 방식

범위	하위	빈도수	특징
일반화		58	'해외입양아'가 일반적
구체화	집단화	33	숫자화 + 범주화
	개별화	53	지명과 범주화

일반화와 집단화의 예시 및 특징

- 해외입양아 '잃어버린 뿌리' 찾기 <세계일보 2016,02,12>
- 잃어버린 나를 찾아 입양인들이 돌아온다 <세계일보 2016,06,10>
- 해외입양아 친부모 찾아줍니다 - 입양연대 '가족찾기 사이트' 개설 <문화일보 2004,12,13>
- 해외입양아 12만명 넘는다니 <세계일보 2008,05,15>
- "750만 재외동포, 교과서에 그들의 존재는 없었다" <내일신문 2020,06,08>
- 50만 해외입양동포 권리, 국가가 찾아줘야 <한국일보 2019,07,11>
- 미국 시민권 취득 못해 불법체류자로 내몰리는 한인 해외입양인 2만명 <국민일보 2019,07,11>
- 전세기 타고 해외입양 간 '2198 + α '명, 잘 살고 있을까 <세계일보 2019,05,13>
-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닌' 해외 입양인 2만 6000명 <중앙일보 2017,10,31>
- 무책임한 '모국' 한국 떠도는 '무국적' 해외입양아 2만 6000명 <서울신문 2017,10,31>

- <일반화>와 <집단화>된 해외입양인은 기존에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던 입양인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는 기능(Hart 2014)
- '버려지다' '떠돈다', '돌아오다'의 <행위주체>, <대상>, <수혜자>
- <일반화>와 <집단화>로 지칭되는 경우가 <개별화>로 나타나는 경우 보다 훨씬 큼
- <일반화>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른 수식이나 설명 없는 '해외입양아', '입양아', '해외입양인', '아이' 등의 순으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음: 대부분은 '아이'와 연결되어 있으며, 심지어 성인이 되어 부모 찾기 위해 돌아온 성인에게도 입양아와 같은 지칭을 쓰면서, 돌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줌
- <집단화>의 경우 해외입양인을 수량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정부가 <포함>이나 <배경>으로 나타나는 맥락에서 존재
- <집단화>와 같이 쓰이는 하위 전략으로서 <분류>는 '동포', '한인 입양아' 등 같은 혈족임을 밝히는 분류와 숫자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해외입양인 집단에 대한 사회가 갖는 관점은 이들을 같은 혈족으로 본다는 점을 시사

분석 결과 (4)

- 개별화의 표상 방식과 하위 전략

범위	하위	빈도수	특징
지명		22	특정 맥락 사용
범주화	직능화	5	지명과 함께
	정체화	32	분류: 26 (국가/종족/ 공간/규범) 관계적 정체화: 3 신체적 정체화: 3

개별화의 예시 및 특징

- 선희엥겔스토프 "나는 엄마가 간직한 비밀 (성공인) <한겨레 2021,09,03>
- 벨기에 입양인 출신 세계적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자선 공연 (성공인) <중앙일보 2018,12,04>
- 시몬 은미 '뿌리의 집' 국제협력팀장 (후원자) <내일신문 2018,02,12>
- 친아버지 만난 입양아 출신 준태 씨 "이 손 잡는 데 25년 다시는 안놓칠래요 (상봉자) <동아일보 2011,12,29>
- 돌아온 입양아 박혜진 씨의 희망찾기 (부모찾기) <동아일보 2011,07,28>
- 수잔 브링크 "가슴아픈 5월" 한국 가족과 사업 문화적 갈등으로 끝내 절연 (유명인) <국민일보 2004,05,06>
- 수잔 브링크 그후 15년 美 유럽 입양아들 (유명인) <문화일보 2004,05,04>
- "34년 품에 그린 어머니 꼭 찾고싶어" 69년 벨기에 입양 양상욱씨 10회째 방문 (부모찾기) (세계일보 2003, 11,20>
- 청각장애 해외입양아의 한국사랑 18년만에 모국찾은 김벌리씨 (부모찾기) <국민일보 2002,07,10>
- 해외입양아 모국방문' 참가한 리 주리치씨/"단 하루라도 엄마와 함께 지냈으면" (부모찾기) <문화일보 2002,0710>
- 외국입양 26년만에 모자상봉 김형례.조종현씨 (상봉자) <한겨레 2001,07,20>
- 가난에 외국입양 조종현씨 26년만에 부모 만나 (상봉자) <문화일보 2001,07,19>
- 개념미술가 케이트 허스 (성공자) <서울신문 2001,07,09>
- 두 다리 없는 美입양소년 킹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 (유명인) <국민일보 2001,03,28>
- 美 입양 후 숨진 현수 사건 계기 '입양 장사' 논란 홀트복지회 "1명 보낼 때마다 523만원 적자 (유명) <동아일보 2000,06,09>

- Hart (2014)에 따르면, 신문에서는 강력한 사람은 <개별화>하며 평범한 사람은 <집단화>하는 경향
- 개별화되어, 이름으로 지칭되는 <지명>의 경우는 다음의 몇 가지로 구분
 - 1)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경우
 - 2) 이미 한국 사회나 국제 사회에서 신분이나 이름이 알려진 경우
 - 3) 친부모를 찾기 위해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노출된 경우
 - 4) 친부모를 찾았거나 상봉한 경우
- <개별화> 중 <지명>은 특정한 이름으로 지칭되는 경우로, <개별화>에서 보통 지명과 <범주화>과 함께 쓰이는 경향
- <범주화> 중 가장 많이 나타난 <분류>의 경우 국가나, 종족으로 구분하여 분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관계적 정체화>는 효녀, 모자, 부자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정체화>는 보통 장애를 갖은 해외입양인을 지칭
- <개별화>가 나타나는 경우는 '만나다', '방문하다', '찾다', '공연하다' 등의 행위주체로 나타남

- 그 외
- 국가: 모국, 고국, 고향, 국가, 한국, 정부, 고향, 입양대국/고아수출국
- 친부모의 경우: 친모, 친부, 어머니, 아버지처럼 가족관계로 분류화하여 지칭하였음 또는 가족, 혈육, 뿌리 등으로 지칭-> 가족 관계로만 지칭(관계적 분류화)
- 양부모의 경우: 양부모, 입양부모, 수양부모(관계적 정체화/분류화)
- 대상국: 지명으로만

논의 및 결론

- 해외입양인 문제는 당사자 외에 친부모, 한국정부나 사회가 주요 행위자가 됨
- 한국정부는 문제 해결의 맥락에서 비명시적 존재로 자주 존재하는 데 정부나 사회가 본 문제의 책임자이며 해결자라는 한국사회 전체 무의식을 반영
- 입양인은 가족을 찾고 만나는 맥락에서는 행위주체이지만, 해외입양 과정과 해결에서는 정부나 친부모가 하는 행위과정의 대상과 수혜자로 존재
- 입양인에 대한 일반화된 지칭이 '아이'와 관련되었다는 점은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입양인을 돌봐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투영
- 성공적 입양인을 다루는 헤드라인에서는 입양인은 개별화되지만, 해외입양인 전체 문제와 해결 맥락에서는 집단화되거나 일반화로 존재
- 해당 장르 관습에서 한국사회는 개별 입양인을 입양된 국가로 구별하고 전체 집단의 경우 국가와 혈통으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
- 전체 집단으로의 지칭에서 입양인은 피를 나눈 같은 혈통으로 인정함으로써 입양인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우리 민족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연구의 한계

- 헤드라인이라는 장르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음
- 텍스트 생산자 개인의 맥락과 해석자로서 연구자의 맥락에 의한 주관성이 항상 존재

참고문헌

- 김병건. (2018).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의 표상에 대한 연구. *겨레어문학*, (61), 271-296.
- _____. (2020). 정치권력에 따른 '진보'개념의 변화에 대한 연구. *스토리앤이미지텔링*, 20, 15-37.
- 김재민. (2013).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해외입양인. *민주주의와 인권*, 13(1), 237-272.
- 신문적, 왕림, 김진해. (2020). 한·중 코로나 19 관련 신문기사의 비판적 담화 분석-의료진 및 확진자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57), 97-129.
- 우미성. (2015). The Diasporic Homecoming: Framing International Korean Adoptees in *Black Butterfly* and *Anna's Will*. *비교한국학*, 23(2), 451-478.
- 유지영. (2013). 소수자로서의 해외입양인-영화< 국가대표 > 의 해외입양인 재현을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22), 49-76.
- 임영언, 임채완. (2012). 해외입양 한인 디아스포라: 한국 내 주요 신문보도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6, 77-104.
- 장미영. (2018). 다문화 공간과 타자성 사유 방식. *문화와 융합*, 40, 311-346.
- 장윤수. (2008). 한인디아스포라와 해외입양.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27-251.
- Aghagolzade, F., Kheirabadi, R., & Golfam, A. (2013).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linguistic representation of Iranian and western actors of Iran's nuclear program in international media (Van Leeuwen's Model (2008)). *Language Related Research*, 4(1), 1-19.
- Ahlstrand, J. L. (2021). Strategies of ideological polarisation in the online news media: A social actor analysis of Megawati Soekarnoputri. *Discourse & Society*, 32(1), 64-80.
- Fairclough, N. (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London Addison Wesley Longman
- Fairclough, N. (2003).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Psychology Press.
- Hart, C. (2011). Force-interactive patterns in immigration discourse: A Cognitive Linguistic approach to CDA. *Discourse & Society*, 22(3), 269-286.
- _____. (2014). *Discourse, Grammar and Ideology : Function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Bloomsbury Publishing Plc. 2014. (크리스토퍼 하트, 김동환·이미영 역, 담화, 문법, 이데올로기 : 인지언어학과 비판적 담화 분석, 로고스라임. 2017)
- Rahardi, H. R., Indrayani, L. M., & Soemantri, Y. S. (2020). Jokowi and Prabowo's Image in Online News Articles: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 Rezaei, S., Kobari, K., & Salami, A. (2019). The Portrayal of Islam and Muslims in Western Media: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ultura*, 16(1), 53-73.
- Van Leeuwen, T. (2008). *Discourse and Practice: New Tools for Discourse Analy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elu, U. R. A. R., & Kaur, S. (2018). Mirroring m=Men in Society: Dynamics of Images of the " Self" and " Other" in Malaysian Televised Show.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JLC)*, 29-45.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7 <통사론&의미론> 사회: 오영일(서울과기대)

Resolving Ambiguity in a Null Argument Construction with Two - place Psychpredicates

발표: 안현아(군산대)

토론: 박상희(덕성여대)

Resolving ambiguity in a null argument construction with two-place psych-predicates

Hyunah Ahn (hyunah@kunsan.ac.kr)
Kunsan National University, Gunsa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thematic role of an overt NP in a null argument construction with two-place psych-predicates can be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discourse structure. Topic shifts in English are marked with full NPs, and topic continuation with pronouns (Gordon et al., 1993; Grosz et al., 1995); however, it remains unclear whether Korean covert and overt NPs could be equivalent to English unstressed pronouns and full NPs, respectively. The argument drops were shown to pattern systematically based on the shift and continuation of the discourse topic (Ahn, 2017; 2018). The findings, however, were obtained from experiments whose designs could not separate the effects of prosody, syntax, and discourse, and the measurements were not time-sensitive.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so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yntax and discourse without the conflation of prosody. A self-paced reading task was conducted to probe the real-time processing of overt and covert NPs in a null argument construction with two-place psych-predicates in Korean. A significant interaction was observed between argument realization and topic shift. The results indicate that readers find argument drops natural only when the dropped argument is a continued topic.

Two-place psych-predicates in Korean, in combination with its argument drop feature, produce ambiguity. *Minho must be scared* (1) and *Minho must be scary* (2) are segmentally identical. When both arguments are overtly realized, the first NP is the experiencer and the second stimulus. With one of the two arguments dropped, the thematic role of the overt NP is determined by the context. The present study aimed to test the hypotheses that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the discourse influences the argument drop patterns and that the dropped NP in Korean is the existing topic equivalent to unstressed pronouns in English.

- | | | | | | |
|-----|-----------------------------|--|--------------------------|----------|------------------------|
| (1) | Minho-ka
Minho-NOM | (Yengho-ka)
(Yengho-NOM) | mwusewun
scared/scary | ka
KA | po-a-yo
AUX-DEC-HON |
| (2) | (Yengho-ka)
(Yengho-NOM) | Minho-ka
Minho-NOM | mwusewun
scared/scary | ka
KA | po-a-yo
AUX-DEC-HON |
| (3) | Context | Last night, Cengmi told Yuna about her violent boyfriend.* | | | |
| | a. | Yuna-ka kekcengsulewu-ss-nunci, she advised her to leave him.
Yuna-NOM worried/worrisome-PST-CONJ | | | |
| | b. | Cengmi-ka kekcengsulesu-ss-nunci, she advised her to leave him.
Cengmi-NOM worried/worrisome-PST-CONJ | | | |
| (4) | Context | Last night, Cengmi found about Yuna's violent boyfriend. | | | |
| | a. | Yuna-ka kekcengsulewu-ss-nunci, she advised her to leave him.
Yuna-NOM worried/worrisome-PST-CONJ | | | |
| | b. | Cengmi-ka kekcengsulesu-ss-nunci, she advised her to leave him.
Cengmi-NOM worried/worrisome-PST-CONJ | | | |

In the context of (3) *Cengmi* stimulates a worry in *Yuna* and vice versa in (4). The discourse topic in (3a) is shifted to *Yuna*, the experiencer of the psych-predicate *kekcengsulep* (worried or worrisome), from *Cengmi*, the stimulus in the context sentence. On the other hand, (3b) repeats *Cengmi* when the topic of the critical sentence is shifted to *Yuna*. (4a) continues the discourse topic of the context sentence to the critical sentence, and it omits *Cengmi*, the continued topic while (4b) keeps *Cengmi*, an argument no longer a topic and drops *Yuna* the shifted, current topic of the sentence.

The assumption was that overt NPs indicate topic shifts and covert NPs topic continuation, and the prediction was that reading times would be shorter in (3a) and (4a) compared to (3b)

and (4b) if the relationship between argument drops and topic shift/continuation holds viable.

A total of 80 participants ($f=64$) were recruited who were not exposed to another language until age 12 and whose length of residence in a foreign country before age 7 was not greater than 6 consecutive months. Due to COVID-19, online experiments using pcibex (Zehr & Schwartz, 2018) were conducted with all participants in a Zoom session. Twenty stimuli as in (3) and (4) were Latin-squared into four lists. Measurements were taken of reading time per region and accuracy of responses to comprehension questions.



Raw reading time data (left: Region 0 = critical; Region 1 = spillover) were analyzed using linear mixed-effects modeling (Bates et al., 2015), and accuracy data with logistic mixed-effects modeling (Jaeger, 2008). Reading time data showed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thematic role and topic shift ($\beta = 25.1$, $SE = 7.68$, $t = 3.267$, $p = 0.001$), and the accuracy data showed a main effect of thematic role ($\beta = -1.161$, $SE = 0.169$, $z = -9.530$, $p < .001$), which was not found in previous studies (Ahn, 2017; 2018) and a significant interaction of thematic role and topic shift ($\beta = -0.704$, $SE = 0.324$, $z = -2.175$, $p = 0.030$).

The results suggest that readers are sensitiv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rgument drop patterns and discourse information structure and that Korean covert NPs, marking topic continuation, play the same function as English unstressed pronouns while overt NPs have the function of full NPs indicating the discourse topic shift.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investigate why the present study showed the main effect of thematic role while the previous studies didn't.

* All items were presented in Korean. The examples are given partially in English to save space. Also, Yale Romanization was used for Korean transliteration.

References

- Ahn, H. (2017). The prosodic resolution of syntactic/semantic ambiguity: An exemplar-based account. *Language Research*, 53(3), 501-524.
- Ahn, H. (2018). Prosody, Syntax, and Discourse: A Three-way Interactio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43(1), 73-100. <https://doi.org/10.18855/lisoko.2018.43.1.004>
- Bates, D., Maechler, M., Bolker, B., & Walker, S. (2015). Fitting Linear Mixed-Effects Models Using lme4.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67(1), 1-48.
- Gordon, P. C., Grosz, B. J., & Gilliom, L. A. (1993). Pronouns, names and the centering of attention in discourse. *Cognitive Science*, 17, 311-347.
- Grosz, B. J., Joshi, A. K., & Weinstein, S. (1995). Centering: A framework for modeling the local coherence of discourse. *Computational Linguistics*, 22(2), 203-225.
- Jaeger, T. F. (2008, Nov). Categorical Data Analysis: Away from ANOVAs (transformation or not) and towards Logit Mixed Models. *J Mem Lang*, 59(4), 434-446. <https://doi.org/10.1016/j.jml.2007.11.007>
- R Core Team. (2021).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In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https://www.R-project.org/>
- Zehr, J., & Schwarz, F. (2018). PennController for Internet Based Experiments (IBEX). <https://doi.org/10.17605/OSF.IO/MD832>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7 <통사론&의미론> 사회: 오영일(서울과기대)

Japanese derivational argument ellipsis

발표: 박동우(한국방통대)

토론: 허세문(홍익대/한국외대)

Japanese derivational argument ellipsis

Dongwoo Park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The aim of this presentation is two folded. First, I propose that null arguments in Japanese are arguments elided in the course of derivation (see also Takahashi 2020; cf. Saito 2007, Sakamoto 2019). Additionally, I argue that case-marked nominals and PPs functioning as pivots of Japanese clefts are generated outside the presupposition CP and that the null element coindexed with the pivot is in fact a null operator, which moves to the highest position of the presupposition CP, contra Hiraiwa and Ishihara (2012).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7 <통사론&의미론> 사회: 오영일(서울과기대)

Exclusive *Pakkey* and Multidimensionality

발표: 박상희(덕성여대)

토론: 허세문(홍익대/한국외대)

Exclusive *Pakkey* and Multidimensionality*

Sang-Hee Park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semantics of exclusives such as English *only* and Japanese *shika* has been a subject of much debate, with questions raised about the status of two implications they convey: e.g., *Only Max arrived* is known to express (i) Max arrived (the *prejacent*) and (ii) nobody other than Max arrived (the *exclusive* content). The exclusive content is generally claimed to be an at-issue entailment addressing the QUD, whereas the prejacent is taken as secondary to the exclusive content or not-at-issue (Kuno 1999; Beaver & Clark 2008). Besides, so-called mirative implication is said to be possible with exclusives, i.e., that the prejacent falls short of what is expected to be the case (Zeevat 2002). 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explores the semantics of the Korean particle *pakkey*, with the goal of teasing apart the different status of its prejacent, exclusive and mirative implications. Taking into account various data, I show that the prejacent of *pakkey* is best characterized as a primary/at-issue entailment just as the exclusive is, and that its mirative implication is a non-speaker-oriented implicature, i.e., ancillary entailment in the sense of Potts (2005).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distinction among these meaning types, which has hitherto received little attention among studies on *pakkey*, while offering additional empirical support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emantics of exclusivity.

Key words: exclusives, exceptives, multidimensionality, (not-)at-issue, Korean

* First author

References

- Beaver, D. and B. Clark. 2008. *Sense and Sensitivity*. Blackwell.
- Kuno, S. 1999. The Syntax and Semantics of the *Dake* and *Shika* Constructions.
In S. Kuno and B. Vaux (eds.), *Harvard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ume 7, 144-172, Cambridge, MA: Department of Linguistics, Harvard
University.
- Potts, C. 2005. *The Logic of Conventional Implicatures*. Oxford University Press.
- Zeevat, H. 2002. Position paper delivered at *One Day Only*, Amsterdam, May 10,
2002.

Sang-Hee Park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Cha Mirisa College of Liberal Arts
Duksung Women's University
33, Samyangro 144-gil, Dobong-gu, Seoul, 01369 Korea
+82-901-8612, sangheepark@duksung.ac.kr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8 <문법화&의미·통사론> 사회: 박진호(서울대)

Grammaticalization of 'Waist' Word Yāo in Chinese

발표: Li Liu(충남대)

토론: 김윤정(창원대)

The Grammaticalization of 'Waist' Word *Yāo* in Chinese

LIU Li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I. Background

II. The diachronic development of *yāo*

1. The development of *yāo*

2. The development of *yào*

III. Mechanisms of the grammaticalization of *yào*

IV. Reasons for grammaticalization of WAIST in Chinese

V. Conclusion

I. Background

- Body parts are important sources for grammaticalization.

TABLE 5.3. Quantitative Distribution of Types of Source Concepts
(sample, 125 African languages)

Source Concept	ON	UNDER	IN	FRONT	BACK	Total
Body parts	46	26	63	83	103	321
Landmarks	34	50	1	1	0	86
“Relational concepts”	28	24	30	18	1	101
Other sources	1	4	3	7	2	17
No etymology available	23	24	21	8	15	91
No data available	2	6	9	17	13	47

Cited from Heine et al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128

TABLE 5.2. Source Concepts of the Body Part Model

Body Part	Spatial Concept				
	ON	UNDER	IN	FRONT	BACK
Head	40			6	
Back	2				80
Face	2			47	
Shoulder	2				
Buttock/anus		22			22
Foot		4			1
Belly/stomach			58		
Heart			2		
Eye				14	
Forehead				8	
Mouth				6	
Breast				6	
Chest				2	
Palm of hand			3		

- 'Waist' is seldom found to be a source for grammaticalization.

Table cited from Heine et al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126

- WAIST is grammaticalized to great extent in Chinese.
-

1. How does the grammaticalization of WAIST occur in Chinese?
2. What is the mechanism behind it?
3. Why is WAIST grammaticalized or more grammaticalized in Chinese than in other languages?

II. The diachronic development of *yā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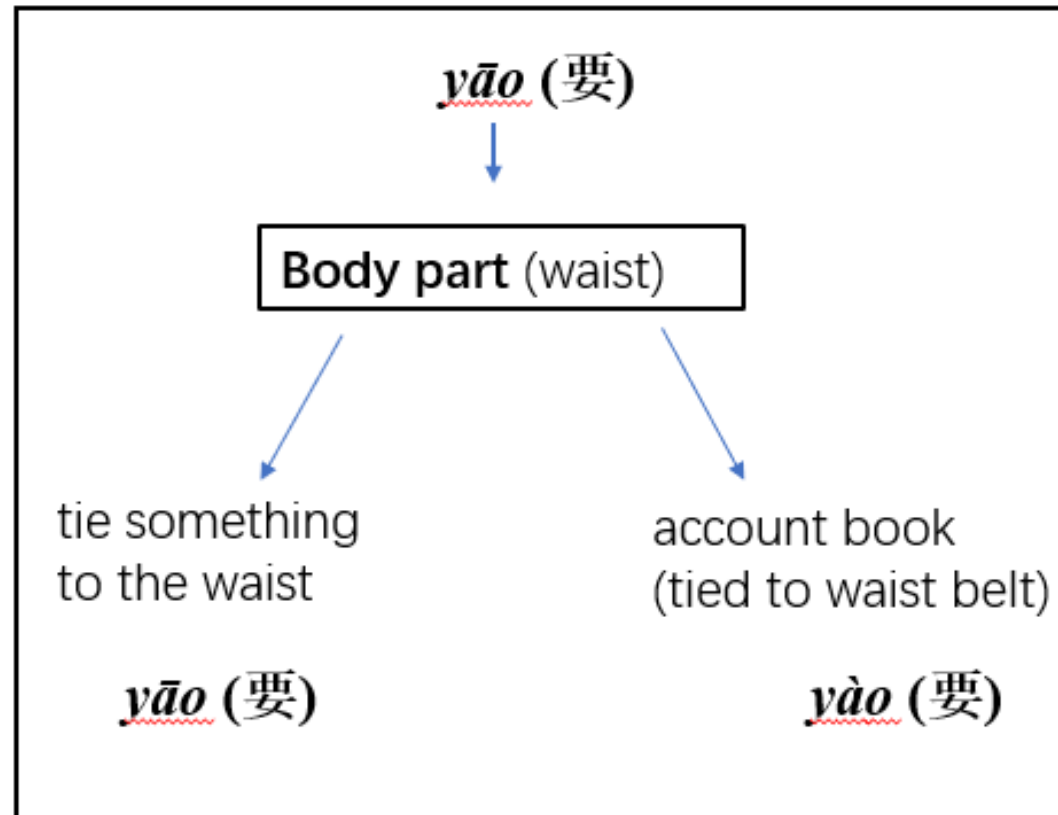
要，身中也，象人自臼之形。（《说文·臼部》）
Yāo, shēn zhōng yě, xiàng rén zì jiù zhī xíng. (*Shuō Wěnn·Jiù Bù*)

Yāo, body middle AUXI, like human self joint AUXI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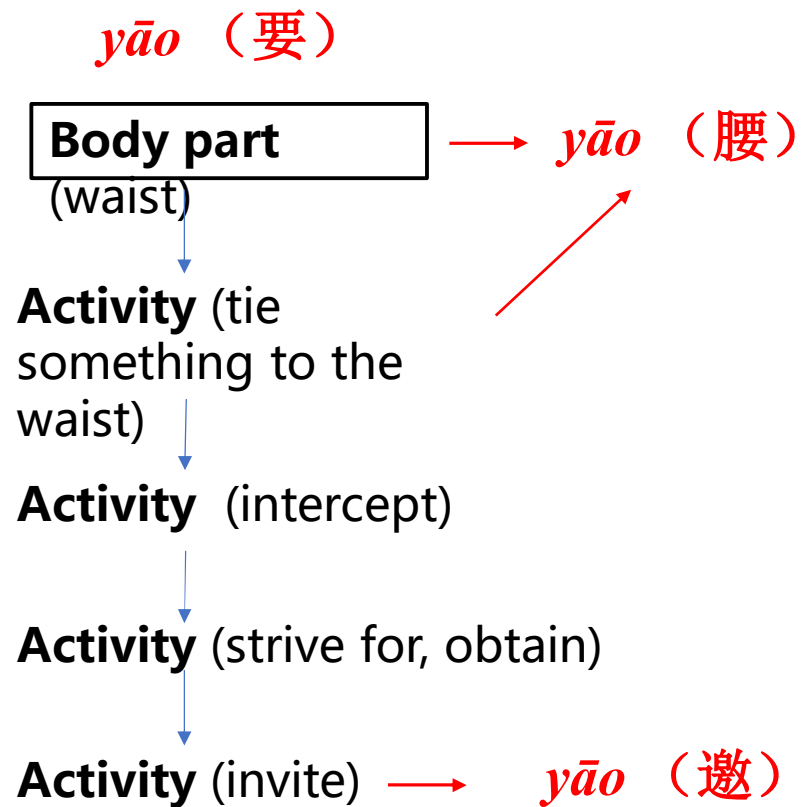
‘*Yāo* refers to the middle part of human body, with the form representing a human holding the joint (waist) by herself.’



Picture cited from: <http://qi yuan.chaziwang.com/etymology-13109.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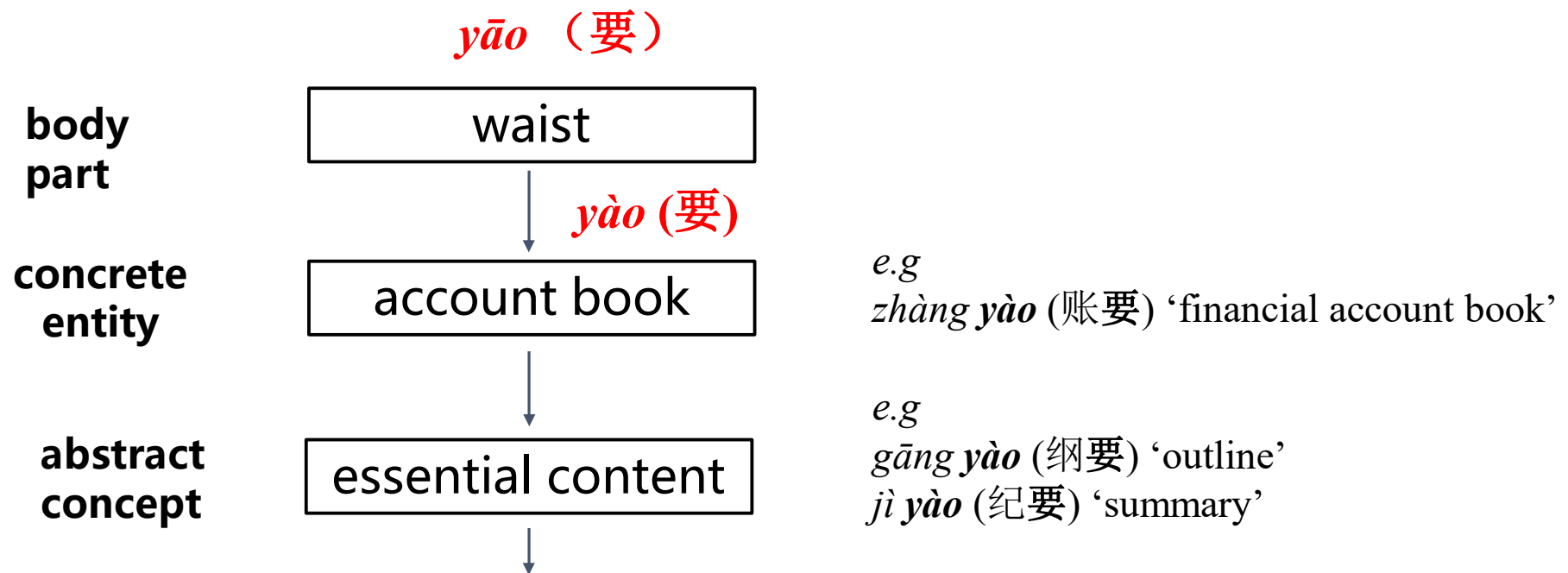


1. The development of *yāo*



Picture cited from internet:
<https://baijiahao.baidu.com/s?id=1671156413697404455&wfr=spider&for=pc>

2. The development of *yào*



quality

significant

zhòng yào (重要) ‘**important**’
jiāo tōng yào dào (交通要道) ‘**vital** traffic line’

ask for;
demand v.

yào zhàng (要账) ‘**demand** payment of a debt’
suǒ yào pèi cháng (索要赔偿) ‘**ask for** compensation’

activity

request v.

他 要 我 给 他 一 杯 咖 啡。
tā yào wǒ gěi tā yī bēi kā fēi
3-SG-MASC request 1-SG give 3-SG-MASC one cup coffee
‘He **asked me to** give him a cup of coffee.’

want v.

我 要 一 杯 咖 啡。
wǒ yào yī bēi kā fēi
1-SG want one cup coffee
‘I **want** a cup of coffee.’

dynamic
modality

will
(willingness)

谁 要 参 加 演 讲 比 赛?
shuí yào cān jiā yǎn jiǎng bǐ sài
who will take part in speech contest?
'Who **is willing to** take part in the speech contest?'

deontic
modality

must
(obligation
); ought to

我 要 工 作 , 不 能 去 看 电 影。
wǒ yào gōng zuò , bù néng qù kàn diàn yǐng
1-SIG have to work, NEG can go watch movie
'I **have to** work so I cannot go watching movies.'

epistemic
modality

must
(possibility)

人 生 要 死 , 何 为 苦 心!
rén shēng yào sǐ , hé wéi kǔ xīn
human life must die, what for bitter heart
'Everyone **must** die, there is no need to be sorrowful.'

time

↓

will (future)

明天我 要 参加 面试。
Míng tiān wǒ **yào** cān jiā miàn shì.
tomorrow 1-SIG will take interview
'Tomorrow I **will** take an interview.'

condition

↓

if; on the
condition
that

你 要 给 我 钱, 我 就 帮 你。
Nǐ **yào** gěi wǒ qián, wǒ jiù bāng nǐ.
2-SIG if give 1-SIG money, 1-SIG part. help 2-SIG
'**If** you give me money, I will help you.'

providing options

↓

either...or

...

要么 你 来 我 家, 要么 我 去 你 家。
Yào me nǐ lái wǒ jiā, **yào me** wǒ qù nǐ jiā.
either 2-SIG come my house, or 1-SIG go 2-SIG-POSS house
'**Either** you come to my house **or** I go to yours.'

yāo



Body part (waist)

yāo



Activity (tie something to the waist)



Activity (intercept)



Activity (strive for, obtain)



Activity (invite)

yào



Object (account book; essential content)



Quality (significance)



Activity (ask for; obtain; request; want)



Modality (will; ought to; must)



Future (will, be going to)



Condition (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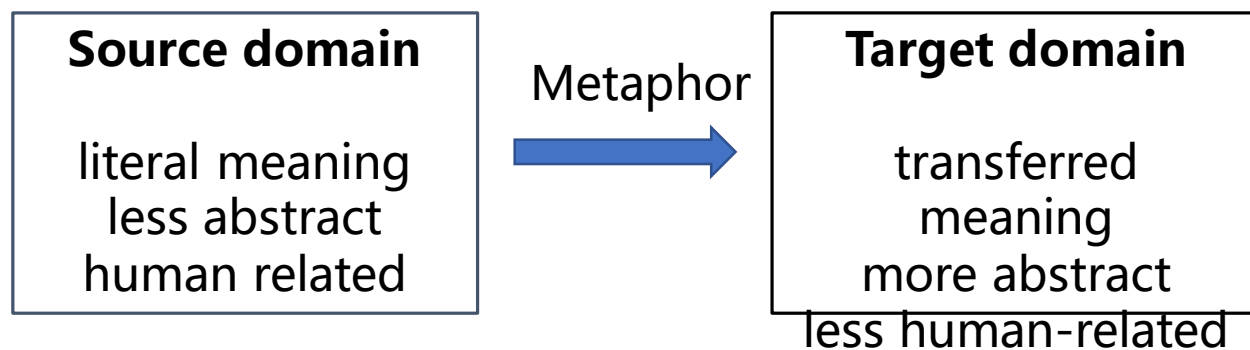
Providing options (either...or...)

III. Grammaticalization mechanisms of *yào*

◆ The grammaticalization process of *yào* is **metaphorical and discrete**.

Word class: noun > adjective > verb > modal auxiliary > tense particle > conjunction > syntactical pattern

Conceptual category: PERSON > OBJECT > QUALITY > ACTIVITY > MODALITY > TIME > CONDITION > TEXT



◆ The grammaticalization process of *yào* is also **metonymic and continuous**.

(1) 我要一杯咖啡。

Wǒ yào yī bēi kā fēi.

'I want a cup of coffee.'

(2) 我要学游泳。

Wǒ yào xué yóu yǒng.

a. 'I want to learn to swim.'

b. 'I will/ am willing to learn to swim.'

(3) 明天有个会议, 谁要参加啊?

Míng tiān yǒu gè huì yì, shuí yào cān jiā a?

'There will be a meeting tomorrow. Who is willing to take it?'

IV. Reasons for grammaticalization of WAIST in Chinese

- Special “waist belt” culture in ancient China



Pictures cited from: <https://baijiahao.baidu.com/s?id=1716196293293093632&wfr=spider&>



The significance of WAIST in Chinese culture:

Physically: central hence the core part of human body
 Culturally: representing health and masculinity
 Socially: representing identity, social status and wealth.



Perceptual salience of WAIST in people' s cognition



Frequency of use of 'waist' word
yāo



Grammaticalization of
yāo

Pictures cited from: <https://baijiahao.baidu.com/s?id=1716196293293093632&wfr=spider&foi>

Conclusion

- Through diachronic study of the development of ‘waist’ word *yāo* in Chinese, it is found that the original *yāo*, referring to human body part ‘waist’ develops into two divergent branches: *yāo* and *yào*, with the same morphological form ‘要’, but different tones in pronunciation. *Yāo* mainly undergoes a series of semantic changes while *yào* undergoes great extent of grammaticalization from a human-related concrete noun belonging to PERSON category to a non-human related fixed syntactical pattern belonging to abstract TEXT category.
- The mechanisms of the grammaticalization of *yào* from *yāo* is both metaphorical and metonymic and the grammaticalization process is both discrete and continuous.
- WAIST is greatly grammaticalized in Chinese mainly because special cultural and social connotations attached to WAIST, which guaranteed the perceptual salience of WAIST and the frequency of use of the waist lexeme *yāo*.

Thank you!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8 <문법화&의미·통사론> 사회: 박진호(서울대)

Word order contrast in German, Korean, and Chinese DOC: pied-piping and (un)saturation

발표: 임익희(신한대)

토론: 조기석(사이버외대)

Word order contrast in German, Korean, and Chinese DOC: pied-piping and (un)saturation

Ick-Hee Ihm
(Shinhan University)

1. Introduction

The basic, unmarked sentence in German displays a V2 word order, as shown in the data (1) below (quot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V2word_order).¹⁾

- (1) (a) Die Kinder spielten vor der Schule im Park Fußball.
The children played before school in the park Soccer
(b) Fußball spielten die Kinder vor der Schule im Park.
Soccer played the children before school in the park
(c) Vor der Schule spielten die Kinder im Park Fußball.
Before school played the children in the park soccer.
(d) Im Park spielten die Kinder vor der Schule Fußball.
In the park played the children before school soccer.
(e) *Vor der Schule Fußball spielten die Kinder im Park.
Before school soccer played the children in the park
(f) *Fußball die Kinder spielten vor der Schule im Park.
Soccer the children played before school in the park.

The non-subject-initial V2 sentences from (1a) to (1d) have the finite verb *spielten* 'played' in the second position, with various constituents occupying the first position: the subject (1a), the object (1b), the temporal modifier (1c), and the locative modifier (1d).²⁾ The sentences

1) Throughout this paper, the finite verb is underlined and other salient elements (e.g. non-finite verbs) are bolded.

(1e) and (1f) are ill-formed because the finite verb does not occupy the second position. Unlike the finite verb, non-finite verb forms are positioned sentence-finally, as shown in the data (2) below (quoted from Fallick (2015: (3))).

- (2) a. Ich habe in München dieses Auto **geklaut**.
 I have in Munich this car stolen
 'I stole this car in Munich.'
- b. Fritz soll ein Auto **klauden**.
 Fritz should a car steal
 'Fritz should steal a car.'

When an overt complementizer *dass* 'that' is present in subordinate clauses, a finite verb or a tensed auxiliary verb should be positioned clause-finally, as shown in the data (1) below ((3a) is quoted from Müller (1998: (82)), and (3b, c) from Fallick (2015: (5a, b)), (3g, h) from <https://semantics.uchicago.edu/kennedy/classes/f06/a4.pdf> (11)).

- (3) a. Ich glaube, **daß** man besser nicht Kindern Bonbons **gibt**. (a finite verb)
 I believe that one better not children sweets gives.
 'I believe that one should rather not give children sweets.'
- b. Ich weiß **daß** die Kinder das Brot **gegessen haben**. (perfect aspect auxiliary)
 I know that the children the bread eaten have
 I know that the children have eaten the bread.
- c. Ich glaube **daß** Fritz ein Auto **klauden soll**. (modal auxiliary)
 I believe that Fritz a car steal should
 I believe that Fritz should steal a car.
- f. Ich glaube, **dass** John Mary ein Geschenk **gegeben hat**. (perfect aspect auxiliary)
 I believe that John Mary one gift given has
 I believe that John has given Mary one gift. (from native speakers)
- g. *Ich weiß **daß** die Kinder haben das Brot **gegessen**.

2) The data in (1) are synonymous with 'The children played soccer before school in the park.'

- I know that the children have the bread eaten
 I know that the children have eaten the bread.
 h. *Ich weiß **daß** das Brot haben die Kinder **gegessen**.
 I know that the bread have the children eaten
 I know that the children have eaten the bread.

On the other hand, when the complementizer is absent, i) verb-second order is required, as shown in the data (4) below ((4a, b) quoted from http://ozziefallick.github.io/files/german_v2_order.pdf (6)).³⁾

- (4) a. Ich weiß die Kinder haben das Brot **gegessen**.
 I know the children have the bread eaten
 'I know that the children have eaten the bread.'
 b. Ich weiß das Brot haben die Kinder **gegessen**.
 I know the bread have the children eaten
 'I know that the children have eaten the bread.'

ii) in the case where DOC is used, the two objects is followed by a (non)-finite verb, as shown in the data (5) below (cf. (1e, f))(5a) is quoted from Müller (1998: (80b)), (5b) from Jorge Hankamer & Vera Lee-Schoenfeld (2005: (1)).

- (5) a. Ich glaube, ∅ Kindern Bonbons **gibt** man besser nicht.
 I believe children sweets gives one better not
 'I believe that one should rather not give children sweets.'
 b. Dem Hans ein Buch **geschenkt** habe ich.
 the Hans (DAT) a book (ACC) given have I I
 'What I did was give Hans a book.'
 c. Ich glaube, ∅ Mary ein Geschenk hat John **gegeben**.
 I believe Mary one gift has John given
 I believe that John has given Mary one gift. (from native speakers)

3) 1. It is not generally possible for clauses with dass to show verb-second order (See Vikner 1995: (66)).
 2. Verb second order is still maintained even when the complementizer is filled in Modern Irish. See Carnie & Guilfoyle(2000: 42(8)) for details.

Korean also can have the same word order as German, as shown in (6-7) below.⁴⁾

- (6) a. sensayngnim-kkeyse haksayng-tul-eykey kwacey-lul
 the teacher-NOM(HON) the student-PL-DAT an assignment-ACC
 naycwu-si-ess-e.
 give-HON-PAST-DECL⁵⁾
 ‘The teacher gave the students an assignment.’
 b. haksayng-tul-eykey kwaceylul naycwusiessta
 the student-PL-DAT an assignment-ACC give-HON-PAST-DECL
 sensayngnimkkeyse.
 the teacher-NOM(HON)
 ‘the students an assignment gave the teacher.’
- (7) a. Yenguy-ka Chelswueykey imeyilul ponay-ss-e.
 Yenguy-NOM Chelswu-DAT e-mail-ACC send-PAST-DECL
 ‘Yenguy sent Chelswu an e-mail.’
 b. Chelswueykey imeyilul ponay-ss-e Yenguy-ka
 Chelswu-DAT an e-mail-ACC send-PAST-DECL Yenguy-NOM
 ‘Yenguy sent Chelswu an e-mail.’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rgue that i) the mechanism that underlies ‘two objects plus a verb’ word order DOC type of the two languages is same: pied-piping, but ii) the domain of pied-piping

4) 1. See the section 2 of Park&Yoo (2019) for a brief overview of the theory of Korean scrambling.

2. See Lee (2007: 33-42) regarding the distinction between scrambling and topicalization.

3. Personal communication: Chung-Hoon Lee (Sogang University) and Kyoungmi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5) The Korean data in this paper are transcribed using the Yale romanization system (Martin 1992). The following is the list of common abbreviations used in morpheme glosses throughout the paper: NOM=nominative; GEN=genitive; ACC=accusative; DAT=dative; DECL=declarative; PRES=present; PAST=past; FUT=future; HON=honorific; PL=plural

displays differenc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research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2 discusses problems with previous analyses. Section 3 shows that pied-piping mechanism underlies the word order DOC type of the two languages as an alternative analysis. Section 4 provides concluding remarks.

2. Previous analyses

2.1 Takano (2000) and problem

Takano (ibid.) argues that remnant movement of α is impossible if the head of XP has moved out of α . It can explain the ungrammaticality of examples below (taken from Abels (2003: (179))).

- (8) a. John looked up Mary's phone number.
b. *... up Mary's phone number John looked.
- (9) a. John looked Mary's phone number up.
b. *.. Mary's phone number up John looked.
- (10) a. John gave Mary a pencil.
b. *... Mary a pencil John gave.
- (11) a. The D.A. accused the defendants during the trials.
b. *... the defendants during each the trials the D.A. accused.
- (12) a. John told Mary that she should leave.
b. *... Mary that she should leave John told.

Takano (ibid.), however, appears to be wrong because the head of VP has moved out of the VP, the remnant movement of XP can be fronted, as shown in (13) below.

- (13) a. (Ich glaube) [[_{VP2} Kindern Bonbons t_1] gibt_{t_1} man besser nicht t_2].
I believe children sweets gives one better not
I believe that one should rather not give children sweets.'
b. [[_{VP2} Dem Hans ein Buch t_1] geschenkt_{t_1} habe ich t_2].

the Hans (DAT) a book (ACC) given have I
 'What I did was give Hans a book.'

We have seen that the remnant movement of the VPs that have their head V moved out can be allowed.

2.2 Fanselow (1991), Lenerz (1995), Müller (1998), Abels (2003)

The above researchers argue that a verb raises prior to remnant VP topicalization, that is, first the verb moves out of the VP, and at a later point the VP moves successive cyclically to the beginning of the clause. However, there are data calling the remnant analysis into question, as shown in (14) below.

- (14) a. Hans gab ihr ein Buch
 Hans gave her a book
 'Hans gave her a book.'
 b. *[ihr ein Buch] gab Hans
 her a book gave Hans (Haider (1990: 96(a)))

- (15) a. Hans schlug ein Buch auf
 Hans opened a book on
 'Hans opened a book.'
 b. *[Ein Buch auf] schlug Hans
 a book on open Hans (Haider (1990: 96(b)))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above researchers, (14b) is predicted to be grammatical. But the state of affairs is not so. Example (14a) shows that V2 movement strands the particle in German. It shows that when the particle is topicalized together with the object, the sentence is ungrammatical, which is unexpected in the light of the analysis of the above researchers. In what follows, I will discuss the derivation processes of (5a-c) and (6-7) by appealing to pied-piping mech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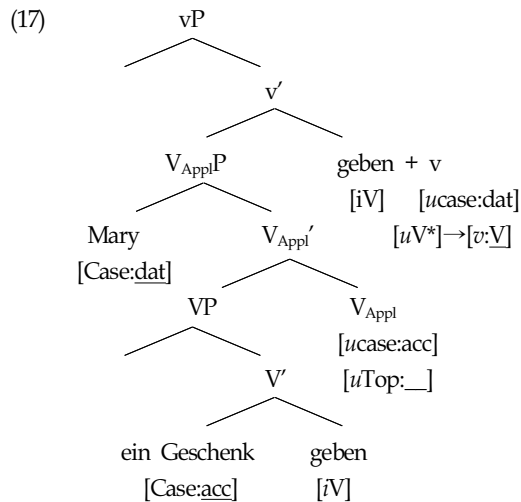
3. Proposal: pied-piping and different pied-piping domain

3.1 German: pied-piping available (Biskup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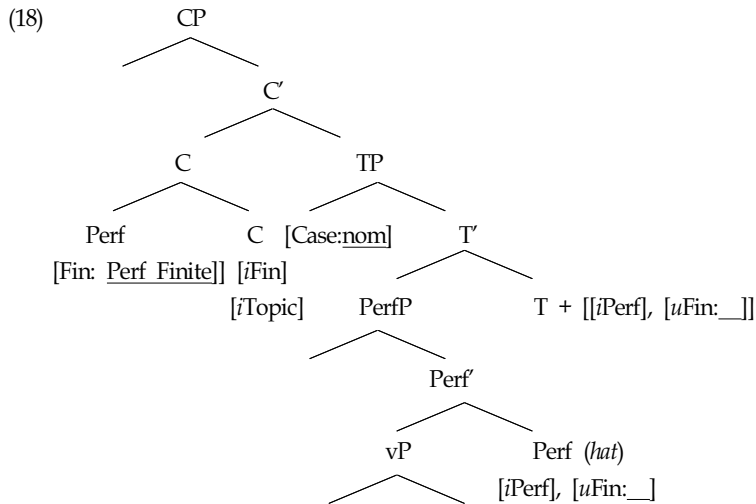
The term ‘pied-piping’ refers to a phenomenon of syntax whereby a given expression brings along an encompassing phrase with it when it is moved (cf. <https://en.wikipedia.org/wiki/Pied-piping>). As I mentioned in the final lines of the previous section, I will argue that the German DOC sentences in (5a-c) are derived via the pied-piping mechanism. Let us start with the most complicated example (16=5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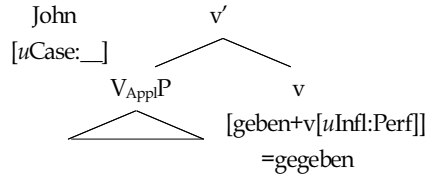
- (16) Ich glaube, $\emptyset$ Mary ein Geschenk hat John **gegeben**.
 I believe Mary one gift has John given
 I believe that John has given Mary one gift.

I adopt Georgala (2012: 128) with regard to Case checking up to a prior derivation step of vP. Georgala (2012: 128) preserves Pylkkänen’s (2002, 2008) insight that the core arguments in low applicatives (recipient and theme) are introduced in the domain of the lexical verb, while allowing for a single structural position for applicative heads, and it makes the following arguments.



The derivation up to the vP step proceeds specifically as follows. A functional category V_{Appl} which bears an uninterpretable accusative case feature (henceforth, $[u\text{case:acc}]$), enters into an Agree relationship with the DO bearing an unvalued uninterpretable case feature (henceforth, $[u\text{Case:}__]$), valuing the DO's $[u\text{Case:}__]$ as $[\text{Case:acc}]$ (that is, the DO is case-valued as accusative). A functional category v , which bears an uninterpretable dative case feature (henceforth, $[u\text{case:dat}]$), enters into an Agree relationship with the IO bearing $[u\text{Case:}__]$, valuing the IO's $[u\text{Case:}__]$ as $[\text{Case:dat}]$ (i.e. the IO is case-valued as dative). I add to Georgala (2012: 128) that (a) the functional category v , which bears an unvalued uninterpretable verb feature (henceforth, $[uv:__]$), enters into an Agree relationship with the verb *geben* 'give' bearing $[iV]$ (David 2002: 181), and the v is valued as $[v:\underline{V}]$ by the verb *geben* 'give' bearing $[iV]$, and (b) Petr's (2017: 106) notes that the V_{Appl} has a pied-piping property and has an uninterpretable feature. But it does not note which uninterpretable feature the V_{Appl} has. I propose that the V_{Appl} also has an unvalued uninterpretable topic feature (henceforth, $[u\text{Top:}__]$). I assume that the next derivation proceeds as in (18) below.





A functional category Perf(ect) *hat*, which bears both an interpretable categorial feature [Perf] (henceforth, [*i*Perf], David (2002: 170)) and an unvalued uninterpretable finite feature (henceforth, [*u*Fin:___]), enters into an Agree relationship with *v* bearing an unvalued inflectional feature (henceforth, [*u*Infl:___]), valuing [*u*Infl:Perf] on the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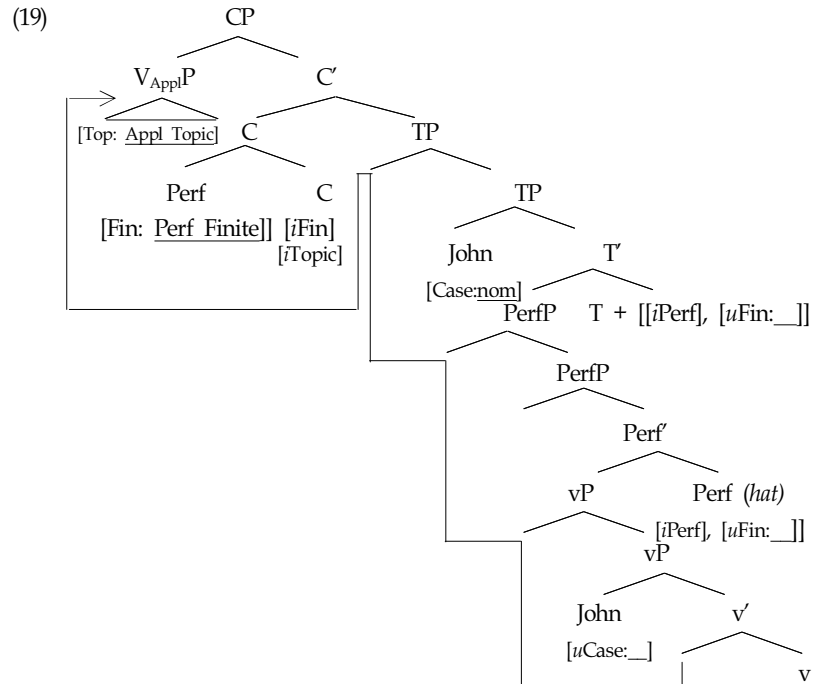
A functional category T, which bears an uninterpretable nominative case feature (henceforth, [*u*case:nom]), enters into an Agree relationship with *John* bearing [*u*Case:___], having the subject *John*'s [*u*Case:___] valued as [Case:nom] (that is, the subject *John* is case-valued as nominative). C-selectional feature on T requires the presence of an argument in the [Spec, TP], and thus subject *John* moves to the [Spec, TP] (This means that T selects the *John*).⁶⁾

The functional category Perf *hat* 'has' bearing [*u*Fin:___] left-adjoins to C by way of T, being valued as [Fin: Perf Finite] by a functional category C bearing an interpretable finite feature (henceforth, [*i*Finite]) (see Hsu (2017: 14-24) for more details with regard to German unique C head with stacked features)

Finally, C bearing [*i*Topic] enters into an Agree relationship with the V_{Appl}P bearing [*u*Top:___], having V_{Appl}P's [*u*Top:___] valued as [Top: Appl Topic], as represented in (19) below, where V_{Appl}P reaches the [Spec, CP] by way of each specifier position.⁷⁾

6) See (David Adger (ibid.: 215)) for more detai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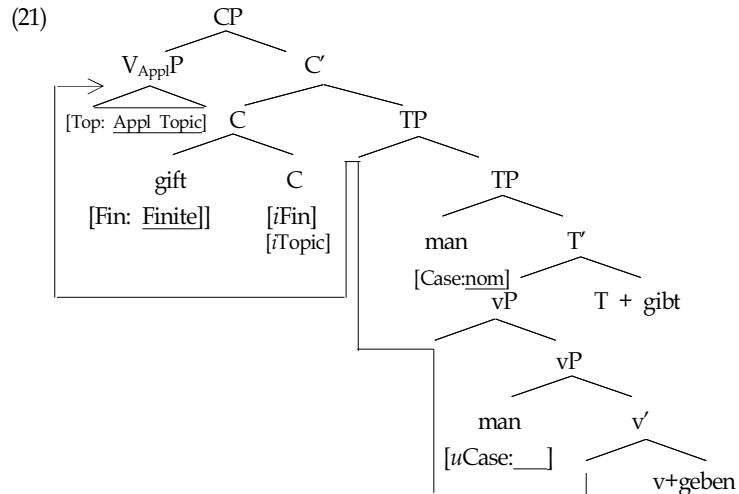
7) Instead of the Müller's (2004) vP pied-piping approach, I adopt (a) the head movement mechanism of Platzack (1986); Holmberg & Platzack (1995); Vikner (1995) and others, (b) V, v, and T-final base structure (the aforementioned researchers, Wurmbrand (2006), and others), and (c) C-initial



Next, I assume that the derivation of (20=5a) proceeds as in (21) below.

- (20) Ich glaube, ∅ Kindern Bonbons **gibt** man besser nicht.
 I believe children sweets gives one better not
 'I believe that one should rather not give children swe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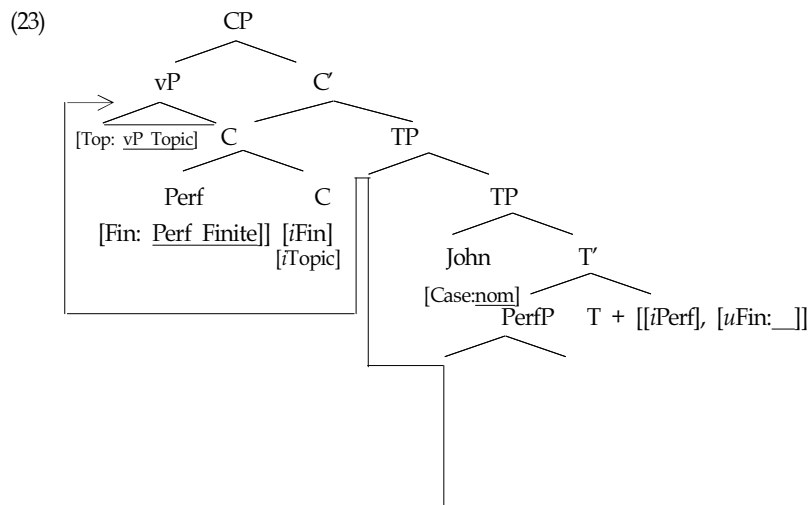
base structure (all the aforementioned researchers, Müller (ibid.), and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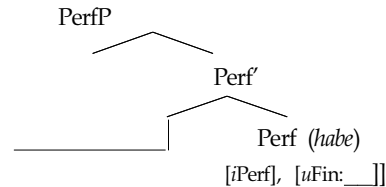


The verb *geben* 'give' bearing [*uFin*:___] left-adjoins from V to C by way of each head position. It enters into an Agree relationship with C bearing [*iFin*], being valued as [Fin: Finite] by the C. The V_{Appl}P bearing [*uTop*:___], meanwhile, enters into an Agree relationship with C bearing [*iTopic*], being valued as [Top: Appl Topic] by the C.

Next, I assume that the derivation of (22=5b) proceeds as in (23) below.

- (22) Dem Hans ein Buch **geschenkt** habe ich.
 the Hans (DAT) a book (ACC) given have I I
 'What I did was give Hans a book.'





The functional category Perf *habe* ‘have’ bearing [*uFin*: ____] left-adjoins from Perf to C by way of T. It enters into an Agree relationship with C bearing [*iFinite*], being valued as [*Fin*: Perf Finite] by the C. The vP bearing [*uTop*: ____] enters into an Agree relationship with C bearing [*iTopic*], being valued as [*Top*: vP Topic] by the C. Finally, let us examine why (24=14b) is ill-formed.

- (24) a. Hans gab ihr ein Buch
 Hans gave her a book
 ‘Hans gave her a book.’
 b. *[ihr ein Buch] gab Hans
 her a book gave Hans (Haider (1990: 96(a)))

We can obtain a clue from Müller’s (2004: 218). It notes that this type of construction seems possible only under extremely favorable conditions, which include plural and indefinite marking, and unmarked word order. I propose that the reason that (24=14b) is unacceptable is that a pronoun belongs to an unfavorable condition.⁸⁾

To recapitulate this section, the ‘two objects plus a verb’ word order DOC type of German is derived via VP_{APPL} and vP pied-piping depending on sentenc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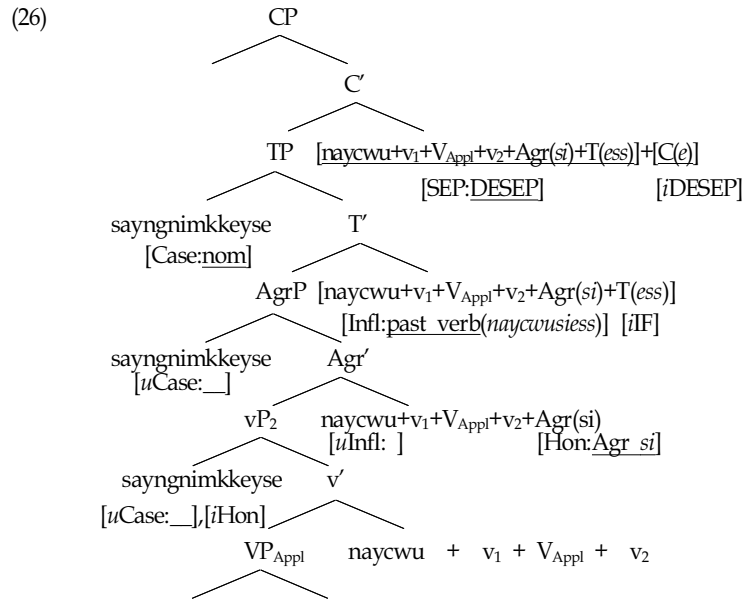
8) Müller’s (2004: 218) notes that the two objects can be analyzed as a single small clause-like constituent that scrambles prior to pied-piping. If this analysis is right, I will explore an interrelation between the analysis and the unacceptability of a pronoun.

3.2 Korean: pied-piping unavail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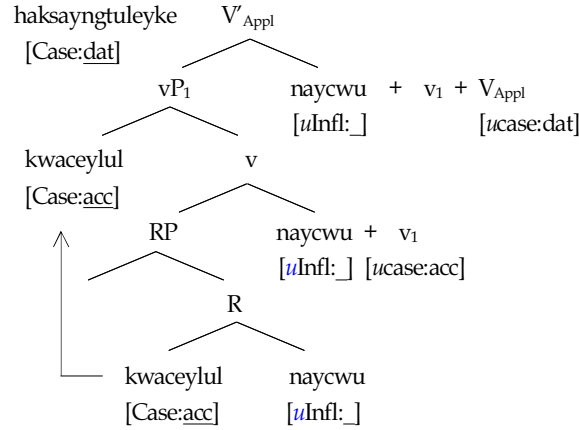
Let us first go through how (25=6) below is derived before applying the pied-piping mechanism to (6b-d).

- (25) *sensayngnim-kkeyse haksayng-tul-eykey kwacey-lul*
 the teacher-NOM(HON) the student-PL-DAT an assignment-ACC
naycwu-si-ess-e
 give-HON-PAST-DECL⁹⁾
 'The teacher gave the students an assignment.'

I assume that (25) is derived via the following series of syntactic operations processes such as (26) below.



9) The Korean data in this paper are transcribed using the Yale romanization system (Martin 1992). The following is the list of common abbreviations used in morpheme glosses throughout the paper: NOM=nominative; GEN=genitive; ACC=accusative; DAT=dative; DECL=declarative; PRES=present; PAST=past; FUT=future; HON=honorific; PL=plural



The derivation for (25) proceeds specifically as follows. To begin with, a functional category v_1 (=lower v), which bears an uninterpretable accusative case feature (henceforth, $[ucase:acc]$, enters into an Agree relationship with the DO *kwaceylul* bearing $[uCase:_]$, having the DO's $[uCase:_]$ valued as $[Case:acc]$ (i.e. the DO is case-valued as accusative).¹⁰ C-selectional feature on v_1 requires the presence of an argument in the specifier position of v_1 , and thus the DO *kwaceylul* moves to the $[Spec, vP_1]$. The verb stem *naycwu*, meanwhile, left-attaches to the v_1 head leaving behind its copy in order to meet its host T.¹¹

Next, a functional category V_{Appl} , which bears $[ucase:dat]$, enters into an Agree relationship with IO *haksayngtuleyke* that is base-generated at $[Spec, V_{Appl}]$ (Park&Yoo (2019), Quan Feng & Suh, Jinhee (2011), and etc) and bears $[uCase:_]$, having the IO's $[uCase:_]$ valued as $[Case:dat]$ (i.e. the IO is case-valued as dative). The verb complex (the verb stem *naycwu* $[uInfl:_]$, v_1 , and V_{Appl}), meanwhile, left-adjoins to the head v_2 in the fashion of so-called pied-piping, in order for the verb

10) Park&Yoo (2019: 12-3) assume that the accusative Case checking can be implemented in external syntax as well as in internal syntax. This author applies the former operation to the accusative Case.

11) Peter Sells (1994) regards the verb complex formation as a unit.

stem *naycwu*[*uInfl*:_] to meet its host T (Kim (2015) and Ihm (2016)).

Next, a functional category Agr, which bears an unvalued uninterpretable honorific feature (henceforth, [*uHon*:_]), Kim (2022)), enters into an Agree relationship with the subject *sensayngnimkkeyse* bearing [*iHON*], and the Agr's [*uHon*:_] is valued as [*Hon*:Agr *si*] by the subject. The subject then stops by [Spec, AgrP] before reaching [Spec, TP] (due to the C-selectional feature on T requiring that an argument should appear in the [Spec, TP]). The verb complex '*naycwu*[*uInfl*:_]+*v*₁+*V*_{Appl}', meanwhile, left-adjoins to the head *v*₂ in the fashion of so-called pied-piping, in order for the verb stem *naycwu*[*uInfl*:_] to meet its host T.

Next, a functional category T bearing [*ucase*:nom] enters into an Agree relationship with the subject *sensayngnimkkeyse* bearing [*uCase*:_], having the subject's [*uCase*:_] valued as [*Case*:nom].¹²⁾ C-selectional feature on T requires the presence of the noun in the [Spec, TP], and thus subject *sensayngnimkkeyse* moves to the [Spec, TP]. At last, after a long journey, the verb complex '*naycwu*[*uInfl*:_]+*v*₁+*V*_{Appl}+*v*₂+AgrP(*si*)' left-adjoins to the head T in the fashion of so-called pied-piping, where *naycwu* bearing [*uInfl*:_] has received [*Infl*:past verb(*naycwusiess*)] from the T.

Finally, a functional category C bearing an interpretable declarative sentence ending particle feature ([*iDESEP*]) in this sentence enters into an Agree relationship with the verb complex '*naycwu*[*Infl*:past verb (*naycwusiess*)]+*v*₁+*V*_{Appl}+*v*₂+AgrP(*si*)+T' bearing an unvalued uninterpretable sentence ending particle feature ([*uSEP*:_]), having the verb complex's [*uSEEP*:_] valued as [*SEEP*:DEC]. The verbal complex, then, left-adjoins to the C because the verb complex ends up being spelled out as a form of *naycwusiesse* 'gave' in the Spellout component.

I noted earlier that the 'two objects plus a verb' word order typ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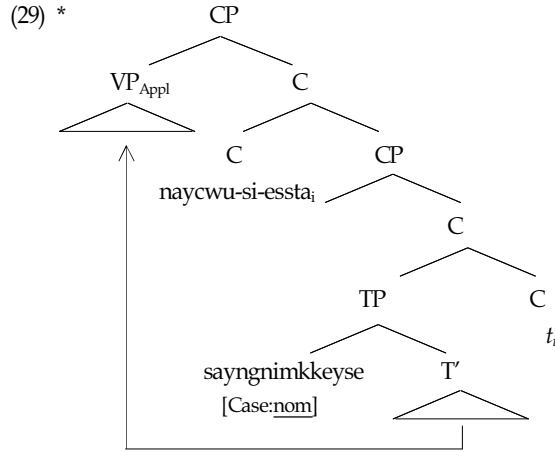
12) 1. Lee, Hye-Ran (2020) argues that T has weak features and thus the nominative Case is a default one.

2. Park&Yoo (ibid.: 11) mention that T assigns the Nominative Case to the subject NP as part of external syntax.

German DOC and that of Korean DOC in (27=6) and (28=7) below display different derivation proce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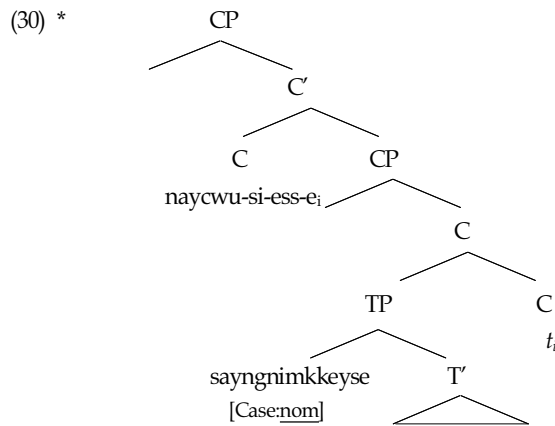
- (27) a. *sensayngnim-kkeyse haksayng-tul-eykey kwacey-lul*
 the teacher-NOM(HON) the student-PL-DAT an assignment-ACC
 naycwu-si-ess-e.
 give-HON-PAST-DECL
 ‘The teacher gave the students an assignment.’
 b. *haksayng-tul-eykey kwaceylul naycwu-si-ess-e*
 the student-PL-DAT an assignment-ACC give-HON-PAST-DECL
 sensayngnimkkeyse.
 the teacher-NOM(HON)
 ‘the students an assignment gave the teacher.’
- (28) a. *Yenguy-ka Chelswueykey imeyilul ponay-ss-e.*
 Yenguy-NOM Chelswu-DAT e-mail-ACC send-PAST-DECL
 ‘Yenguy sent Chelswu an e-mail.’
 b. *Chelswueykey imeyilul ponay-ss-e Yenguy-ka*
 Chelswu-DAT an e-mail-ACC send-PAST-DECL Yenguy-NOM
 ‘Yenguy sent Chelswu an e-mail.’

I will account for the reason why different derivation processes are displayed. First, we can suppose that VP_{Appl} first moves into the higher [Spec, CP], and then the verb complex moves the higher head position, as shown in (29) below.



However, this syntactic derivation operations violate the Extension Condition (Chomsky (1995), EKS (Epstein, Kitahara, and Seedy) (2014), and Kim (2022)). Thus, (29) is an inappropriate candidate for deriving the ‘two objects plus a verb’ word order type of Korean DOC.¹³⁾

Second, we can suppose that, in order to get the word order that we want, the verb complex (e.g., *naycwu-si-ess-e* ‘gave’ in (27b)) first moves to the higher head position, as shown in (30) below.



13) Extension Condition refers to one by which Merge and Move take place at the root only.

However, this movement also seems to be problematic for the following reason: the semantic composition of *cwuta* ‘give’ is translated with the logical notation in (31) below.

$$(31) \lambda z \lambda y \lambda x [\text{naycwusita}(\text{give})'(z)(y)(x)]$$

The notation tells us that the predicate *cwuta* ‘give’ is functions from individuals into functions from individuals to functions from individuals to truth-values ($\langle \langle e, \langle e, \langle e, t \rangle \rangle \rangle \rangle$). This means that the function *cwuta* ‘give’ has three variables x, y, z , in other words, requires three thematic argument. As we can see in the base-generation structure, this requirement is satisfied. Nonetheless, why does illegitimateness arise in the structure? We can find an clue in Lee (2007: (61)), which makes the following argu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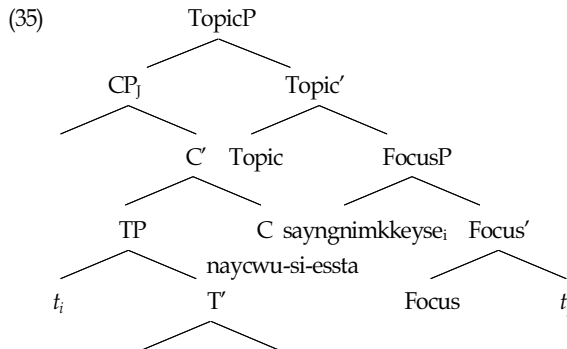
$$(32) X \text{ may scramble if and only if } X \text{ is semantically complete.}$$

The scrambling of X requires semantically complete expressions; in other words, scrambling of semantically incomplete expressions is banned. Inspired by these lines, I propose (33) below.

$$(33) V \text{ can move up if and only if } X \text{ is semantically compl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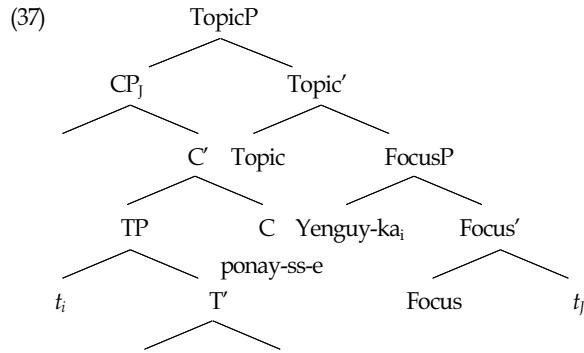
As we can see in (30), the verb complex does not obey this requirement because the upward movement of the verb complex is semantically incomplete. Accordingly, the derivation is illegitimate. As a tack to obviate the requirement violation, I propose that (a) the subject moves into [Spec, FocusP], and (b) the whole CP piped-piping with along a verb complex moves into [Spec, TopicP] (cf. Ko (2018)). For instance, it is assumed that (34B’=27b) is derived via a series of syntactic operations processes such as (35).

- (34) A: nwuka haksayng-tul-eykey kwacey-lul naycwu-ess-ni?
 who-NOM the student-PL-DAT an assignment-ACC give-PAST-Q(estion)
 'Who gave students an assignment?'
 B: sensayngnim-kkeyse haksayng-tul-eykey kwacey-lul
 the teacher-NOM(HON)_[Focus] the student-PL-DAT an assignment-ACC
 naycwu-si-ess-e.
 give-HON-PAST-DECL
 'The teacher gave the students an assignment.'
 B': haksayng-tul-eykey kwacey-lul naycwu-si-ess-e.
 the student-PL-DAT an assignment-ACC give-HON-PAST-DECL
 sensayngnimkkeyse_[Focus]
 the teacher-NOM(HON)
 'the students an assignment gave the teacher.'



It is assumed that (36B'=28b) is derived via a series of syntactic operations processes such as (37) below.

- (36) A: nwu-ka Chelswueykey imeyilul ponay-ss-ni?
 who-NOM Chelswu-DAT e-mail-ACC send-PAST-PAST-Q(estion)
 'Who sent Chelswu an e-mail?'
 B: Yenguy-ka Chelswueykey imeyilul ponay-ss-e.
 Yenguy-NOM_[Focus] Chelswu-DAT e-mail-ACC send-PAST-DECL
 'Yenguyka_[Focus] sent Chelswu an e-mail.'
 B': Chelswueykey imeyilul ponay-ss-e Yenguy-ka.
 Chelswu-DAT e-mail-ACC send-PAST-DECL Yenguy-NOM_[Focus]
 'Yenguyka_[Focus] sent Chelswu an e-mail.'



The reason is that, as we saw above, a verb complex as a unit (which occupies C head), Extension Condition, semantically complete expression requirement pied-pipes CP along with the verb complex.

At least when it comes to the derivation processes for ‘two objects plus a verb’ word order type of Korean DOC, I think the whole CP piped-piping mechanism can be a promising candidate.

To recapitulate this section, unlike the DOC type of German, the ‘two objects plus a verb’ word order DOC type of Korean is derived via CP pied-piping along with the verb complex.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 Abels, Klaus. 2003. Successive cyclicity, anti-locality, and adposition stranding. Storrs: University of Connecticut dissertation.
- Adger, D. (2003). *Core Syntax: A Minimalist Approa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iskup, P. (2017) Labeling and other syntactic operations. In Leah Bauke, Andreas., Blümel, and Erich Groat (eds.), *Labels and Roots*, 91–116: De Gruyter Mouton.

- Blumel, A. (2013) *Propagating symmetry. Case studies in exocentric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Johann Wolfgang Goethe 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
- Boeckx, C. (2008) *Bare synta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rnie, A., and Guilfoyle, E. (2000) *The Syntax of Verb Initial Langua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tasso, N. (2021) How large is the left periphery of Present-Day German? A unifying approach to multiply-filled-prefield configurations. *Open Linguistics* 7: 760–801. De Gruyter.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95. Bare Phrase Structure. In G. Webelhuth (ed).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and the Minimalist Program*, 385–439. Cambridge, Mass.: Basil Blackwell.
- Chomsky, N. 1995. Categories and Transformations. *The Minimalist Program*, 219–394.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R. Martin et al. (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89–155.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1. Derivation by Phase. In M.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4. Beyond Explanatory Adequacy. In A. Belletti (ed). *Structures and Beyond*, 104–131.
- Chomsky, N. 2008. On Phases. In R. Freiden et al. (eds). *Foundational Issues in Linguistic Theory: Essays in Honor of Jean-Roger Vergnaud*, 89–155. Cambridge, Mass.: MIT Press.
- Doggett, T. (2004) *All Things Being Unequal: Locality in Movement*.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Epstein, S. D., H. Kitahara & T. D. Seely. 2014. Labeling by minimal search: Implications for successive-cyclic A-movement and the conception of the postulate phase”. *Linguistic Inquiry* 45: 463–481.
- Fallick, Ozzie. to appear. V2 Word Order in German.
- Fanselow, G. (2004) Münchhausen-Style Head Movement and the Analysis of Verb Second. *Linguistics in Potsdam* 22: 9–49.
- Fitzpatrick, J. (2006) The Syntactic and Semantic Roots of Floating Quantif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 Haider, H. (1990) Topicalization and other puzzles of German syntax. In Günther Grewendorf & Wolfgang Sternefeld (eds.), *Scrambling and barriers*, 93–112. Amsterdam: John Benjamins.

- Hankamer, J., and Lee, S. V. (2005) What moves in German VP-Fronting? In *LSA Annual Meeting*, Oakland, CA.
- Georgala, E. (2012) *Applicatives in their structural and thematic function: A minimalist account of multitransitivit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rnell.
- Holmberg, A., and Christer, P. (1995) *The role of inflection in Scandinavian synta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su, B. (2017) Verb second and its deviations: An argument for feature scattering in the left periphery.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2(1): 35. 1–33.
- Ihm, I. H. (2016) The derivational aspects of Korean non-contrastive heavy adnominal fragments: Two strategies.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6: 15–44.
- Kim, K. S. 2015. Why does Head Movement Take Place? In *Proceedings of 17 SICOGG*. 192–208.
- Kim, J. S. (2022) Honorific mismatches of coordinate subjects in Korean: An experimental study. 2022 Korean Generative Grammar Circle New Year's Workshop.
- Kim, Y. H. (2022) Exocentric structure and Labeling. In *Proceedings of The Society of Modern Grammar fall conference 2022*.
- Ko, H. J. (2018). Scrambling in Korean Syntax. In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E. S. (2007) *Types of Scrambling in Korea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 Lechner, W. (2009) A puzzle for remnant movement analyses of verb-second. *Linguistic Inquiry* 40: 346–356.
- McGinnis, M. (1998) *Locality in A-Movement*.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Mara, F., and Roland, H. (2007) Types of topics in German and Italian. In Kerstin Schwabe&Susanne Winkler (eds), *On information structure, meaning and form*:87–116.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Müller, G. (1998) *Incomplete category fronting: A derivational approach to remnant movement in German*. Dordrecht: Kluwer.
- Müller, G. (2004) Verb-Second as vP-First. *Journal of Comparative German Linguistics* 7: 179–234.
- Ott, D. (2011) Local instability: The syntax of split top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dissertation.
- Park, M.K., and Yoo, Y. S. (2019) Scrambling in Korean and the Labeling Theory. *Studies in Modern Grammar* 102: 1–30.
- Peter, S. (1994) Sub-Phrasal Syntax in Korean. *Language Research* 30: 351–386.

- Pylkkänen, Liina. 2002. Introducing Arguments. Doctoral Dissertation, MIT.
- Pylkkänen, Liina. 2008. *Introducing Arguments*. Cambridge, Mass.: MIT Press.
- Platzack, C. (1986) Comp, Infl, and Germanic word order. In Lars Hellan & Kristi Koch (eds.), *Topics in Scandinavian syntax*: 185-234. Dordrecht: Reidel.
- Quan, F., and Suh, J. H. (2011) Two Structural Cases of Double Object Constructions in Minimalist Syntax.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27: 307–327.
- Ross, J. (1967) Constraint on Variables i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Ura, H. (1996) *Multiple Feature-Checking: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Splitting*.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 Ura, H. (2000) *Checking Theory and Grammatical Functions in Universal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Walkden, G. (2016) July–August 2016 lecture material. University of Manchester.
- Wurmbrand, Susi. 2006. Licensing Case. *Journal of Germanic Linguistics* 18: 175–236.
- Yoon, J. M. (1990) Verb Movement and Structure of IP in Korean. *Language Research* 26: 343-371.
- Zepter, A. (2003) Phrase Structure Directionality: Having a few Choices. Doctoral dissertation, Rutgers University.
- <Internet sources>
- <https://semantics.uchicago.edu/kennedy/classes>
- https://en.wikipedia.org/wiki/V2_word_order).
- http://ozziefallick.github.io/files/german_v2_order.pdf
- [https://en.wikipedia.org/wiki/Scrambling_\(linguistics\)](https://en.wikipedia.org/wiki/Scrambling_(linguistics))
- <https://en.wikipedia.org/wiki/Pied-piping>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8 <문법화&의미·통사론> 사회: 박진호(서울대)

Semantic Network of because

발표: 김용성(충남대)

토론: 이현숙(장안대)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im Yong Sung



(A) Semantic Network Approach to *because*



Cause & Effect

Reason & Consequence

Action & Result

Motivation & Response

Circumstance & Consequence

Coordination

Introduction



Semantic Network

- A specific lexical item shows correlations between the recorded meanings, and among these meanings, there holds a prototypical meaning that forms a *semantic network*.
- The semantic network of a lexical work underlies a conceptual process whereby “abstract” concepts are expressed or assumed by means of less “abstract” concepts.
- Several distinct meanings of *because* are interrelated and so, form one semantic network.
- This study does not only find out the synchronic view of the *because* but also the diachronic view as the main theory of the study suggests the chains of meanings that it carries.

Word Meaning and Categorization



The use of lexical items that are conventionally sanctioned conveniently represents network form with a considerable array of alternate or interrelated senses. The figure below depicts a network of fragments associated with the word *ring* from Langacker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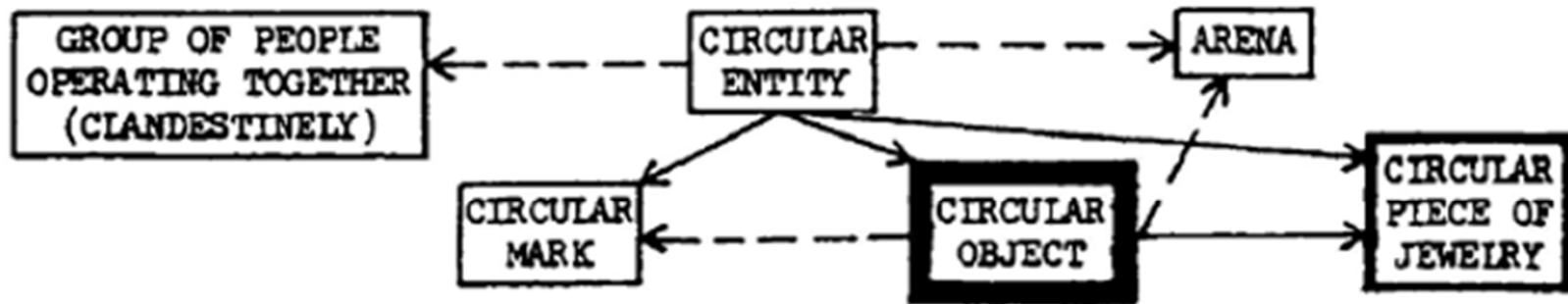


Figure 1.↵

Previous Studies



- Grammaticalization will be reviewed as a guide to explain the conceptual domain of *because*.

Antecedent-consequent markers in the OE Boethius.					
"because"		"therefore"		"therefore...because"	
forþam	10	forþam	5	forþam...nu	1
forþampe	10	be þy	1	forþam...forþon	1
forþon	1			forþam...forþy	1
forþonþe	1			forþam...forþampe	1
forþype	2			forþy...forþon	1
forþy	1			forþy...þe	3
				forþy...þy	1

Antecedent-consequent markers in I.T.'s Boethius.					
"because"		"therefore"		"therefore..because"	
for	31	therefore	1	therefore..because	2
since	8	wherefore	24		
because	11				

- Ex. For right as men blamen an avaricious man *by cause of* his scarsetee and hyncherie, in the same wise is he to blame that spendeth over-largely. (M3/HC)

Semantic Change of *because*



Cause & Effect

- Human cognition tends to be geared to the maximization of the relevance of meaning and so the closest conceptual domain tends to be the most relevant whereas the farthest tends to be the least relevant conceptual domain.
- Example:
 - The water in the river froze because the weather was cold.
- The water in the river froze because the weather was cold. The perception of an inherent objective connection in the real world [NATURAL PHENOMENA].

Semantic Change of *because*



Reason & Consequence

- This conceptual movement is made possible due to the perception of inherent objectivity of the real world of *cause* to obtain the objectivity of the subject's mental state [LOGICAL INFERENCE].
- Example:
 - The water froze because it is in the freezer.
- Our human cognition either knows that there is ice in the freezer because the speaker put water in it or that the essence of the freezer in our mind tells us that it freezes whatever is put in.

Semantic Change of *because*



Action & Result

- The evidential sequencing mapping from *reason* to *action* may be the logical inference to the movement order that the subject of the sentences holds.
- Example:
 - I put the water in the freezer because I wanted to drink cold water.
- The process of the speaker getting the water to the freezer is put into action.

Semantic Change of *because*



Motivation & Response

- The above sentence for *motivation & response* gives the subsequent response that is caused by an animate being.
- Example:
 - I had to get cold water from the freezer because there will be a marathon later.
- The perception where the subject drinks cold water as a response, and the motivation for the action is brought by an interrelated connection or an animate being with the subject.

Semantic Change of *because*



Circumstance & Consequence

- Unlike the first stage of getting the water frozen from the relevance of human cognition, the last stage is to have a reason for a condition to be fulfilled.
- Example:
 - I had a stomach ache because I drank too much cold water.
- The use of *because* in this sentence is having a consequence that is made by a circumstance. They are least related to the physical and natural relationship in the real world or the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of the sub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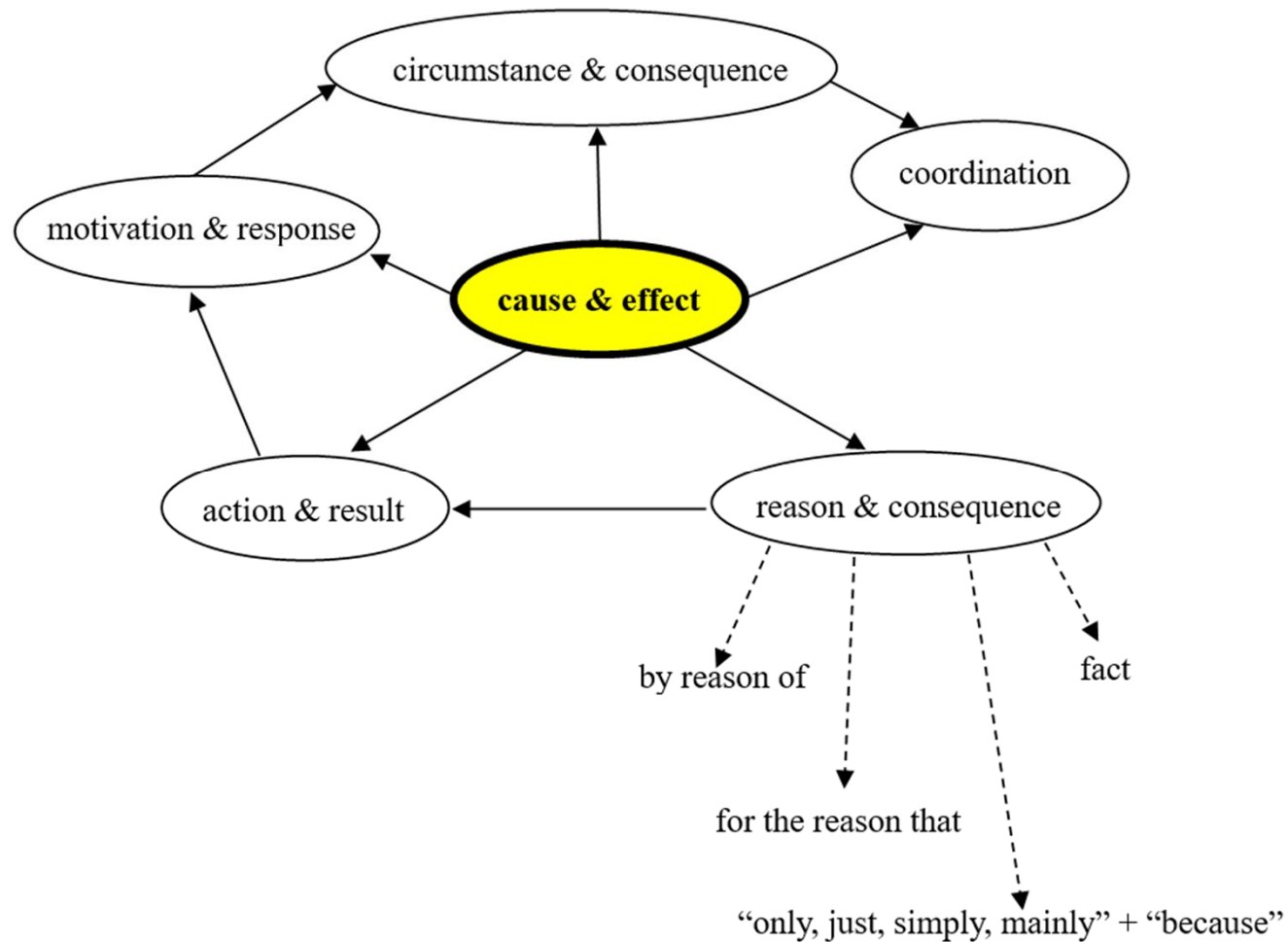
Semantic Change of *because*



Coordination

- Finally, the last conceptual domain of *because* coexists with the former implications as being the most grammaticalized form of use.
- Example:
 - Joe drinks whisky and (because) he really likes it. Langacker (2009: 351)
- The main clause is observed to be the sentence *Joe drinks whisky* and *(because) he really likes it* is regarded as a subordinate clause. The word *because* implies coordination and therefore is sometimes called conjunction.

Semantic Network of *because*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9 <Invited Talks (Editorial Board)>

Moderator: Baik, Junghye (Sahmyook University)

**Nouny and verby copulas: a contrastive
analysis of TAM-AGR marking and
highlighting strategies in Korean and
Indo-Aryan languages**

Foong Ha Yap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henzhen) & Anindita Sahoo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Madras)

‘Nouny’ and ‘Verby’ Copulas: A Contrastive Analysis of TAM-AGR Marking and Highlighting Strategies in Korean and Indo-Aryan Languages

Foong Ha Yap^{*/**}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henzhen)
& Anindita Sahoo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Madras)

This paper compares the forms and functions of copulas in Korean and Indo-Aryan languages, the latter represented by Hindi and Odia. These languages have SOV canonical word order, with Korean expressing the copula as a suffix, while Indo-Aryan copulas occur as postverbal auxiliaries that can be preposed for highlighting functions. Our analysis identifies a distinct difference in verbal morphology. The Korean copula suffix *-i* can be accompanied by tense-aspect and mood suffixes, as seen in (1a-b). Indo-Aryan copulas, as represented in (2a-b), carry more than tense-(aspect)-mood marking; they also carry agreement marking. For example, in terms of agreement marking, Hindi verbal morphology expresses person, number, gender and honorificity levels of the nominative subject, and Odia patterns likewise but without expressing gender marking. A major difference between Indo-Aryan and Korean copulas, then, is the additional referent-tracking system encoded in Indo-Aryan copulas via their agreement markers, which is not available in the case of Korean copula *-i*.

Korean copula *-i* is used only with nominal predicates, both in past and non-past contexts, as seen in (1a) and (1b). In some Indo-Aryan languages (e.g. Odia), the copulas are often not manifested in present tense contexts. A more important difference is that Indo-Aryan copulas are much more versatile and can be used with adjectival and verbal predicates as well, as seen in (3) and (4) respectively. In the case of Korean, instead of functioning merely as a copula, suffix *-i* in adjectival and verbal predicates has been recruited as a voice marker with either causative, middle or passive readings (see Yap & Ahn 2019).

Yet another major difference is that Indo-Aryan copulas can be preposed for focus effects. If moved to post-subject NP position (i.e. pre-predicate), a narrow focus interpretation obtains, highlighting the subject NP, as in (5); on the other hand, if moved to pre-subject NP position (hence clause/utterance-initial position), a broad focus interpretation obtains, highlighting the whole proposition, as in (6). Unlike Indo-Aryan focus constructions, where the copula can be preposed with or without its main verb, in Korean it is object-fronting that is often used as a highlighting strategy, as seen in (7b), with verbal predicate fronting being infelicitous in formal Korean, as seen in (7c), and copula fronting being ungrammatical for constructions involving nominal predicates, as in (7d). Thus, unlike Indo-Aryan copulas, Korean copula suffix *-i* is not preposable.

In this paper, we preliminarily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the etymology (i.e. origin) of the Indo-Aryan and Korean copulas, along with language-specific constraints, may have contributed to the differences observed above. Indo-Aryan copulas are derived from ‘be’ and ‘become’ verbs and thus can host agreement markers and are preposable, in much the same way that verbs are preposable in Indo-Aryan languages. Korean copula *-i*, on the other hand, may have had its origin within the referential domain, possibly a highly versatile demonstrative/person pronoun *i* morpheme, given its homophony with nominalizer *-i*, nominative case marker *-i*, and potentially genitive *-uy* (where /u/ is epenthetical). Reanalysis of demonstratives as person pronouns, case markers, and copulas is not uncommon crosslinguistically (Heine & Kuteva 2002; Diessel 2003). When used as a copula for nominal predicates (e.g. equative and specificational constructions), suffix *-i* in Korean does not participate in referent-highlighting strategies which involve object-

fronting. A possible reason for this restriction could be the availability of (contrastive) topicalization as a highlighting strategy in Korean which favors the use of topic marker *-(n)un*, as seen in (7e). Additionally, whereas postnominal suffix *-i* at the right periphery (sentence-final position) would be interpreted as a copula, at the left periphery (in subject position) it would be interpreted as a nominative case marker, as in (7f), which would yield a construction without emphatic or contrastive focus readings. In sum, it is possible that etymological differences—as reflected in the ‘nouny’ vs. ‘verby’ origins—could have contributed to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Indo-Aryan copulas.

Keywords: copulas, tense-aspect-mood, agreement, focus constructions, case marking, voice marking, Indo-Aryan, Korean

Examples:

- (1) Korean
 - a. *ku-nun sensayngnim-i-sy-ess-ta*
3SG-TOP teacher-COP-HON-PST-DEC
‘He was a teacher.’
 - b. *ku-nun sensayngnim-i-sy-φ-ta*
3SG-TOP teacher-COP-HON-PRES-DEC
‘He is a teacher.’
- (2) a. Hindi
woh ghar-pe thaa
3SG.NH home-LOC COP.PST.3SG.MASC.NH
‘He was home.’
- b. Odia
se kaali ghar-e thi-l-aa
3SG.NH yesterday home-LOC COP-PST-3SG.NH
‘He was home yesterday.’
- (3) Odia copula with adjectival predicate
jab oparchuniTi kam achhi
job opportunity little COP.PRES.3SG.NH
‘Job opportunity is very scarce here.’
- (4) Odia copula with verbal predicate (present progressive context)
raajya-re sankramaNa badh-u achhi
state-LOC infection increase-IMPF COP.PRES.3SG.NH
‘The infection is increasing in the state.’ (*News on January 5, 2022*; Kalinga TV)
- (5) Odia preposed copula – narrow focus interpretation
se thi-l-aa kaali ghar-e
3SG.NH COP-PST-3SG.NH yesterday home-LOC
‘He was home yesterday.’
- (6) Odia preposed copula – broad focus interpretation
thi-l-aa se kaali ghar-e
FOC-PST-3SG.NH 3SG yesterday home-LOC
‘(It was that) he/she was home yesterday.’
- (7) a. Canonical declarative sentence in Korean
enni-ka na-hanthey cenyek-ul yoliha-y-cwu-ess-e
older.sister-NOM 1SG-to dinner-ACC cook-LNK-give-PST-IE
‘My older sister cooked dinner for me.’

- b. Object-fronting as a (speaker-affected) highlighting strategy in Korean
na-hanthey/na-n enni-ka cenyek-ul yoliha-y-cwu-ess-e
 1SG-to older.sister-NOM dinner-ACC cook-LNK-give-PST-IE
 ‘(It was) for me 9that) my older sister cooked dinner.’
- c. Unacceptable verb/predicate-fronting in formal Korean
- (i) * *yoliha-y-cwu-ess-e enni-ka na-hanthey cenyek-ul*
 cook-LNK-give-PST-IE older.sister-NOM 1SG-to dinner-ACC
- (ii) * *cenyek-ul yoliha-y-cwu-ess-e enni-ka na-hanthey*
 dinner-ACC cook-LNK-give-PST-IE older.sister-NOM 1SG-to
- Intended reading: ‘As for cooking dinner, my older sister did (it) for me.’
- d. Ungrammatical copula-fronting as a highlighting strategy for nominal predicates in formal Korean
 * *wunton-pwucok-i-ess-e na-y muncney-nun*
 exercise-lack-COP-PST-IE 1SG-GEN problem-TOP
 Intended meaning: ‘It was lack of exercise that was my problem.’
- e. Preference for topic marker *-(n)un* for more emphatic nominal predicate constructions in Korean
wunton-pwucok-un na-y muncney-i-ess-e
 exercise-lack-TOP 1SG-GEN problem-COP-PST-IE
 ‘It was lack of exercise that was my problem.’
- f. Use of nominative case marker *-i* for non-emphatic nominal predicate constructions in Korean
wunton-pwucok-i na-y muncney-i-ess-e
 exercise-lack-NOM 1SG-GEN problem-COP-PST-IE
 ‘Lack of exercise was my problem.’

References

- Diessel, Holger.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nstratives and interrogatives. *Studies in Language* 37: 635-655.
- Heine, Bernd and Tania Kuteva. 2002.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p, Foong Ha and Mikyung Ahn. 2019. Development of grammatical voice marking in Korean: on the causative, middle and passive uses of suffix *-i*. *Lingua* 219: 1-23.

Foong Ha YAP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henzhen

2001 Longxiang Road, Longgang District, Shenzhen 518172, China

+86 136 02577046, foonghayap@cuhk.edu.cn

Anindita SAHO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Madras (IIT-Madras),

Chennai, India, Pin - 600036

+91 44 22574534, anindita@iitm.ac.in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시제와 상 그리고 양태>

Session 9 <Invited Talks (Editorial Board)>

Moderator: Baik, Junghye (Sahmyook University)

Formulaic Expressions of Korean Academic Texts

Sun-Hee Lee (Wellesley College)

ACorpus-Based Analysis of Formulaic Expressions in Korean Academic Writing

This paper explores linguistic distributions and functions of formulaic expressions in Korean academic corpus. Based on the N-gram model (Lee et al. 2018), we extracted and analyzed Korean formulaic expressions from academic corpus (2,072 papers published within the academic disciplin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o identify genre specific properties. Since Biber et al.'s (2004) pioneering research on formulaic sequences (lexical bundles) in English, two different approaches have been taken for Korean formulaic expressions: one is the space unit (ecel) based approach (Kim, 2009) and the other is the morphemic bundle approach (Choe et al., 2010; Nam et al., 2016). Although morphemic bundle analysis has some advantages for identifying formulaic expressions in Korean (Choi et al., 2010; Nam et al., 2016), it does not accurately incorporate frequency information and differentiates conjugated predicate forms. In this study, preprocessing and lemmatization of predicate forms have been implemented to provide better outcomes for phraseological units. The result of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Korean formulaic expressions show equal distributions in academic written and spoken corpora in contrast to English (Biber, 2004). Furthermore, unlike English where four-gram expressions display distinct functions as unitary units, Korean n-gram expressions display diverse grammatical functions depending on the size of n; bigrams and trigrams are useful for determining certain morphosyntactic units including combinations of a particle and a noun and idiosyncratic combinations of a particle and a verb stem and a verbal ending and an auxiliary verb. In contrast, larger units ranging from 5 grams to 8 grams are useful for identifying complex grammatical patterns with specific discourse functions such as stance and discourse organizing expressions. The lists of extracted formulaic expressions are valuable resources not only for identifying linguistic properties of academic Korean but also for determining meaningful linguistic patterns for language education. The paper focuses on distributions and discourse functions of select expressions from the list.